

● 발행처: 한국아나뱃티스트펠로우십(Korea Anabaptist Fellowship) ● www.wkaf.net ● 발행인: 남상욱 ● 편집장: 문선주
● 편집위원: 배용하 엄혜정 한준호 ● 발행일: 2021. 8. 20 ● 창간일: 2012. 7. 12 ● 주소: 충남 논산시 가야곡면 매죽현로1176번길
8-54 ● 전화: 041-742-1424 ● e-mail: byh1424@gmail.com ● 온라인 구독을 원하시는 분은 홈페이지에 신청해주세요.

편집인의 글

"바디매오의 절규에서 배우다"



문 선 주 자매
KAC 총무/예수마음교회

바디매오는 성경에서 유일하게 자신의 이름으로 알려진 병자이다.

육체적으로는 앞을 볼 수 없는 장애인이었다고 종교적으로는 죄인 취급을 받았고 사회경제적으로는 최하위 계층인 결인이었다.

길바닥에 엎드린 채, 사람들이 던져주는 동정에 기대어 살아가는 삶과 그렇게 부과된 세상의 질서에 순응하는 것이 생을 지탱하는 가장 안전한 방식이었다.

어느 날, 그는 뜻밖의 당황스런 사건의 중심에 서있게 되었다.

예수가 오셨다는 말을 듣자, 갑자기 있는 힘을 다해 소리를 질렀기 때문이다.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평소 눈에 띄지도 않던 그가 절규에 가까운 소리로 거리를 시끄럽게 하는 낯선 풍경에 사람들은 바로 그를 저지했다. 그럴수록 그의 절규는 더욱 격양되었고 인파속 예수에게까지 도달되었다. 곧바로 예수는 그를 다시 볼 수 있게 고쳐주었다.

주변을 불편하게 하던 그의 절규는 예수와의 조우를 통해 구원의 통로가 되었고,

그의 이름은 치유의 대명사가 되었다.

바디매오의 외침은 구원에 대한 간절한 태도의 귀감으로서 믿는 자들에게 감화를 준다. 동시에, 불평등과 차별이 존재하는 사회구조의 한계 속에서 외침은 약자가 취할 수 있는 가장 정당한 구조요청이자 사회에 대한 저항이라는 점에도 눈 뜨게 도와준다.

우리는 어려서부터 ‘어른들에게 대꾸하지 마라’ ‘밥 먹을 때는 말하지 마라’ ‘여자 목소리가 담장을 넘게 마라’ ‘선생님 말씀에 토를 달지 마라’ ‘좋은 게 좋은 거다’ 등 다양한 이유로 침묵을 강요당했다. 침묵을 강요당하는 사람은 대부분 약자들이다. 아이들, 여성들, 학생들, 노동자들, 장애인들, 이주민들 등등.

세상은 기득권의 안정과 질서유지의 명목으로 변혁을 위한 시끄러운 외침보다는 침묵과 순응을 약자의 덕목으로 가르쳐왔다.

하지만 예수는 침묵과 순응의 굴레에서 벗어나 세상의 불의와 불합리에 대해 소리를 높이는 자이었다! 바리새인과 대제사장들의 종교적인 위선에 목소리를 높였다. 백성을 돌보지 않는 지배계층에 대한 노골적인 악감정을 비추었다. 성전에서 장사하는 자들의 상을 둘러 앉으셨다. 예수가 우리에게 주고자 했던 삶은 고요한 침묵의 평화가 아니라, 오히려 인간의 존엄성이 무시되고, 힘의 균형이 무너진 기울어진 운동장과 같은 세상에 하나님의 의를 선포하는 강력한 외침이었다.

그래서 예수는 약자들의 절규에 반응하시는 분이였다. 바디매오의 절규가 사람들의 억압에 다시 침묵이 되지 않도록 ‘그를’ 사람들 가운데 세우시고 ‘그에게’ 귀를 기울이시고 ‘그가’ 다시 보게 되어 주를 좇게 하였다. 그의 절규는 침묵을 강요하던 세상에는 놀라움을, 하나님께는 영광을 돌리는 촉매역할을

하였다.

세상에는 여전히 절규하는 약자들의 외침이 있다. 미투운동, 페미니즘운동을 이끌어 온 여성들, 이동권을 요구하는 장애인들, 차별금지법을 외치는 소수자들, 난민들, 해외노동이주자들, 심지어 병들어가는 지구와 생태계 등 곳곳에서 변화와 변혁을 호소하는 절규가 있다. 이들을 조용히 하라고 말하는 것은 사회를 퇴보시키는 것이다. 예수가 그랬듯이 그들에게 말할 수 있는 기회를 주라. 그들의 가슴 아픈 이야기에 귀를 기울여 보라. 그들의 외침이 이 땅의 굳건해진 불평등과 차별의 견고한 성을 무너뜨릴 수 있는 통로가 될 줄 누가 알겠는가? 그들이 하나님나라의 공의와 평화의 대명사가 될 줄 누가 알겠는가?

이번 저널에서는 오늘날 이 땅의 바디매오가 되어 약자로서 늘 억압을 당하던 사람들의 목소리가 들려질 수 있도록 준비했습니다. 깨끗하고 세련되고 편리하고 익숙한 삶의 패턴만을 고집한다면 이들의 절규가 그저 불편하고 시끄러운 상황만을 야기한다는 편견에 휩싸이겠지만 예수께서 그런 바디매오의 외침에 어떻게 응답하시고 세상 가운데 어떻게 그를 세웠는가를 본다면 우리는 내면에서 일어나는 양심의 소리에 귀를 기울일 수 있게 됩니다. 약자들의 목소리가, 인간의 기본적인 권리를 외치는 당당한 외침이 이 땅의 견고한 질서와 불평한 지축을 흔들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지난호 저널은 www.wkaf.net / www.anabaptist.kr 에서.

이 땅의 아나뱃티스트 운동이 함께 모여 도도히 흘러가길...



남상옥 형제
KAF대표 / 춘천예수촌교회

폭염이 기승을 부리는 이때에 모두 평안하신지요? 올해는 KAF가 본격적으로 활동한지 12주년이 되는 해이며 KAF 저널이 발행 된지도 10년 째입니다. 십년이 넘는 긴 기간 동안 한국의 KAF를 인도해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함께 믿음의 여정을 같이한 한국의 아나뱃티스트 모두에게 감사의 뜻을 전합니다.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기 원하며 하나님 나라의 공동체를 세우고 정의로운 평화를 건설하고자 하는 모든 분들, 아나뱃티스트 정신에 관심을 가지고 마음으로 연결된 모든 분에게 감사를 표하며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특별히 KAF 저널 발간 10년 차를 돌아보면서 처음 가졌던 마음을 생각해 봅니다. 초심은 무엇이었지? 그리고 어떻게 지내왔지? 2012년 11월 KAF 저널 창간호에 박성열 편집장은 이렇게 썼습니다. “시간이 흐르면 흐를수록 믿음의 여정은 홀로 할 수 없는 여정임을 고백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유월절을 맞이하며 함께 예루살렘으로 여정을 떠나면서 시편을 노래하였던 것처럼 한인 아나뱃티스트라는 한 무리 속에 거하는 저희도 주님을 찬양하며 이 여정을 함께해야 함을 더욱 절실히 느끼게 됩니다. ... 아나뱃티스트적 전통으로 주님을 따르고자 하는 모든 사람과 교회가 이 작은 저널을 통해 구체적이고 분명한 색깔로 주님을 따르는 자들의 길을 나누어 다른 전통 속에서 주님을 따르는 분들에게

영감을 줄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믿음의 여정은 함께하는 것, 구체적이고 분명한 색깔로 나타나는 다양함 그리고 그 다양함의 나눔, 다른 전통의 그리스도인에게 주는 영감이라는 말씀에 무척이나 인상 깊고 공감이 갑니다. 박성열 초대 편집장의 소망처럼 한국 아나뱃티스트 운동이 다양함 속에서 함께 할 수 있도록, 다른 전통 속 크리스찬에게 주는 선한 영향력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런 소망은 다음과 같은 비전으로 이어졌습니다. 여러 다양한 곳에서 발원한 시내물은 모여 큰 강을 이룹니다. 시냇물은 물길을 공유하며 함께 흘러 바다에 가 닿습니다. 그리고 근처 별관을 적시며 다양한 생명이 자라게 합니다. 여러 시내가 모여 큰 강이 되는 것처럼 그 강가에 풍요로운 들판이 있는 것처럼 이 땅의 아나뱃티스트 운동이 함께 모여 도도히 흘러가는 것을 꿈꾸어 봅니다.

아나뱃티스트 정신에 관심을 가지고 마음으로 연결된 모든 분들, KAF 총무 배용하 형제님, 3대 편집장 문선주 자매님, 편집위원으로 섬겨주시는 염혜정 자매님 그리고 한준호, 배용하 형제님께 커다란 감사를 드립니다.

넘치는 주님의 은혜와 평화를 풍성히 누리시기를...

노동자, 그 아픈 이름. 그들과 함께 부르는 애가.

수십년을 목회자로서 살아오다가 기성 교단을 떠난면서 노동자로서의 삶을 살아온지 7년이 되었습니다. 대형 정수기 C 업체에 취업하였는데, 그곳을 선택한 이유는 시간 활용이 가능하다는 것 그 한가지 뿐이었습니다. 목사로서, 또 반편견 입양 교육 강사 등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시간을 확보하면서도 최소한



한 준 호 형제
진해주빌리메노나이트교회

의 생계는 꾸려갈 수 있어 보였기 때문이었습니다. 현재까지도 표준 근로 계약서가 없기에 업무 위임서를 작성하며 일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그 조건은 매월 재계약하는 것이지요. 즉, 언제든지 잘릴 수 있는 조건입니다. 매월 재계약 형식이기에 4대 보험이나 퇴직금 등은 일절 없으며, 10년을 일하든 1년을 일하든 수수료는 동일합니다. ‘임금’이 아닌 ‘수수료’ 이기에 임금 협상 같은 것은 일절 없으며, 사측의 일방적인 수수료 정책에 의해 수입이 결정됩니다. 일하다 부상을 당하더라도 자비 치료 외에 다른 수가 없었습니다. 이것이 C 업체 특수 고용직 만의 현실은 아닙니다. 특고라 불리는 대부분의 업종에서 벌어지고 있는 실태입니다. 노동자이지만 노동자로도 여겨지지 않는 사람들. 그들이 특수 고용직 사람들입니다.

업무가 시작된 후 실정은 처음 지국장의 설명과는 많이 달랐습니다. 영업하지 않고 제품 점검만 해도 된다더니 매주 강제 출근 2회에, 매 월 신규 오더 최소 3개 이상 하라는 압박과, 고객의 변심으로 제품이 반환되면 영업한 사람이

당시 받았던 영업 수당의 150%를 다시 사측에 되돌려 줘야 했습니다. 영업 압박을 이기지 못한 사람들은 자신의 집에 회사 제품들을 들여놓기 시작했고, 나아가 일가 친족들의 집까지 제품들을 들여놓게 되었습니다. 그도 부족하면 실적을 위해 제품을 먼저 구입한 후에 영업을 하여 고객들에게 판매하는 방식도 강요당하곤 했지요. 영업 실적이 기준에 미달한 사람들은 월말에 강제 출근 시켜 가능 영업 대상의 명단과 전화번호를 적어내게 하고, 하루 종일 지인들에게 전화를 돌리도록 하였습니다. 영업 실적을 위해 고객들의 렌탈료 몇 달치를 대납하도록 하는 경우도 종종 있었습니다.

사측은 공식적으로는 이러한 행위를 하지 말라고 지시합니다. 어디까지나 공식적으로만. 현장의 이러한 일들을 제도적으로 막지 않습니다. 지국장이나 팀장들이 이 모든 것들이 불법임을 알면서도 자행한 이유는 이러한 실적에 따라 자신들의 임금이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사측은 이러한 과정을 통해 수천억의 순이익을 거두어 들였으며, 그러한 이익은 대주주들에게 이익 배당이라는 형식으로 분배되었습니다. 몇 년 전에는 너무 많이 초과 배당한 그룹에 그 부끄러운 이름이 당당히 오르기도 하였지요. 노동자들의 노동 결과를 갈취하여 얻은 달콤한 열매를 이러 저러한 형태로 자본가들은 풍성히 누리나 실제로 노동으로서 결과를 이룬 노동자들의 삶은 더욱 더 핍절해져만 갔습니다.

더 나쁜 것은 이러한 과정에서 지국장이나 팀장같은 관리자 그룹과 현장에서 뛰는 노동자간의 갈등 유발입니다. 노동자와 노동자를 갈라지게 함으로서 노동자들의 힘을 약화시키고, 노동 탄압에 대한 1차적 책임을 관리자라는 다른 노동자들에게 지움으로 사측은 교묘하게 벗어나는 것입니다. 사측은 늘 말합니다. 자신들은 그런 지시를 한 적이 없으며, 오히려 그렇게 하지 말 것을 공문으로 지시하였다고. 그렇게 그들은 책임을 회피합니다.

이러한 상황에 몇 년 전에 드디어 가전산업 노조가 구성되게 되었으며, 업체 최초로 제가 속한 회사에서 노조가 시작되었습니다. 이후 비슷한 업종의 타사

들에게도 노조가 형성되었고 투쟁중입니다. 올해 4월 저희 노조에서 드디어 부분 파업을 하였습니다. 현재 저희들의 사정을 고객들에게 설명하며 당 월 점검을 보류하는 과정에서 많은 분들이 마음의 상처를 입었습니다. 당신들의 사정은 잘 알겠다. 사측이 참 너무하다 말하면서 그런데 왜 그것 때문에 자신이 피해를 입어야 하는가 하며 파업을 하는 노동자들의 마음에 대못을 박는 일들이 많았습니다. ‘너희들의 부당함을 알겠다. 그런데 왜 그것 때문에 내가 피해를 받아야 하는가?’ 참으로 냉혹한 말입니다. 타인의 고통에 진정으로 공감하지 못하는 말이며 긍휼 없는 냉혹하기만 한 말입니다. 타인의 고통에 진정으로 공감하고 긍휼의 마음을 가졌다면 그 고통에 직, 간접적으로 자신도 동참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인카네이션은 그것을 단적으로 잘 드러낸 사건입니다.

몇 개월 전 장애인 단체에서 서울시 지하철 출근 시간에 쟁의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것을 보며 ‘왜 시민들을 볼모로, 타인들에게 불편을 끼치며 하는가’ 하는 현 여당의 대표였던 사람의 발언을 들으며 경악을 금치 못했습니다. 적지 않은 젊은 남성들이 그를 지지한다는 현실에 참담함을 금치 못하겠습니다. 그러한 여당 대표의 말에 호응하는 이들이 적지 않다는 현실이 슬펐습니다. 최근 연세대 청소 노동자들을 고소한 청년의 사건도 이와 같은 맥락입니다. 자신을 스스로 좁은 울타리 안에 감금해 버린 조선소 사내 하청 노동자를 향하여 사측이나 정부도 아닌 다른 노동자들이 성토를 하는 현실에 슬픔을 감출 수 없었습니다. 그러한 노동자들에게 법이라며 수천억의 배상금을 청구하는 것이 공정하다 생각하는 이가 이 나라의 대통령이라는 사실에 뭐라 말할 수 없는 참담함을 느낍니다. 사람들은 타인의 고통에 진정으로 공감하는 법을 상실해 가는 듯 합니다. 우리는 어느덧 소수의 불편함에 대해 안됐지만 너희들만의 문제이지 그것으로 나를 불편하게 하는 것은 용납하지 못하겠다는 분절된 인식과 사회 속에 살아가게 된 것 같습니다. 마틴 부버가 말하던 ‘나와 너’의 관계는 사라지고, ‘나와 그것’과의 관계만이 이 사회가 처한 상황이 되어가는 것 같습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 7년 이상을 노동자로서의 삶을 살아오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그리 살아가겠지요. 그러다가 목회자로서의 삶만을 살아가던 시절 했던 수많은 설교문들을 우연히 들여다 보면 부끄러움을 금치 못하겠습니다. 내용 자체가 틀렸다고 보다는 그 설교문에는 ‘공감’이나 ‘공홀’이 없었습니다. 진리란 사람을 자유케 하는 법인데 사람에 대한 공홀과 공감이 없는 진리란 결국 아무것도 아니지요. 오늘날 우리가 접하는 뉴스와 글들과 넘치는 말들 중에 고통 당하는 소수자들에 대한 진정한 공감의 말들이 얼마나 있을까 생각해 봅니다. 서로의 고통에 공감하지 못하는 사회는 결국 단절된 개인들로 이뤄진 고독한 사회이며, 그 안에서 사람들은 고독으로 인해 병들고 죽어가겠지요.

그래도 그러한 사막처럼 황량한 곳에서 피어나는 꽃 같은 이들이 있으니 마음의 위안이 됩니다. 그들과 함께 웃으며, 함께 우는 이들이 예수입니다. 앞서 말했듯이 예수님이 육신을 입어 인간이 된 사건의 의미는 공홀함과 공감이라 생각합니다. 예수님은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해 인간이 당하는 고난을 똑같이 받으시고, 시험을 똑같이 받으시고, 인간과 똑같이 연약에 싸인 자가 되셨습니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이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히 4:15). 예수님은 인간의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지셨다고(사 53:4, 마 8:16) 말합니다. 그리하여 그는 가난한 자, 병든 자, 약한 자, 소외된 자들과 공감하시고, 공홀히 여기심으로, 우는 자의 위로와 약한 자의 강함과 병든 자의 고침과 없는 자의 풍성과 친한 자의 높음과 죽은 자의 부활이 되셨습니다. 애통하는 자들과 함께 부르는 노래는 그들의 자리에서 불러야 합니다. 그래서 그 슬픈 이름이 더 이상 슬픔이 아니라 부활의 기쁨이 되기를 바라며 오늘도 노동의 현장에서 이 작고 부끄러운 노래를 보태봅니다.

나는 장애인의 대해 폭력을 행하고 있지는 않은가?

‘깍두기’라는 말이 있다. ‘깍두기’는 음식의 한 종류이기도 하지만, 놀이를 할 때에 어느 쪽에도 속하지 못하여 짝이 없는 상태를 지칭하는 용어로 더 많이 사용된다. 깍두기가 같은 편이 될 경우 그저 숫자적으로만 유리할 뿐, 실제적으로는 그리 도움도 못되고, 그



유 한 영목사
부산 세대로교회
뇌병변장애인

로 인하여 게임에서도 질 수 있을 거라 여겨지는 존재. 다수를 차지하는 비장애인들 속에서 장애인은 아마도 깍두기 같은 존재일 것이다. 함께 지내야 함을 머리로는 알면서도 실제로 같은 편으로 삼기에는 부담스러운 존재.

이러한 모습과 인식은 국가와 사회는 물론 교회에서도 쉽게 볼 수 있다. 이러한 인식은 언제나 그래왔듯, 국가와 사회, 교회가 다수를 차지하며 기득권을 발휘하는 비장애인 중심으로 돌아가고 있기 때문이 아닐까?

국가와 사회적 분위기는 장애인을 비장애인들과 함께 살아야 할 존재이며, 이웃이라고 여기는 분위기로 흘러가고 있다. 그리고 영상 매체에서도 실제 장애인을 등장시켜 이야기를 끌고 가며, 장애인의 대한 편견을 깨려고 노력한다. 그 노력에는 박수를 보낸다.

그러나 여전히 장애인을 주체적 존재가 아닌, 시혜적 존재로 본다. 그리고 무엇인가를 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닌, 그 무엇도 할 수 없는 존재로 보거나 아니면 그 반대로 어느 한 부분에서 뛰어난 능력을 갖고 있어야 할 존재, 또한 이정도 혜택을 받으며 살면 감사해야지, 무언가를 더 요구해서는 안 되는 존재로 생

각한다. 이러한 것은 어쩌면 물리적 폭력을 사용하지 않았을 뿐, 다수를 차지하는 비장애인들이 소수를 차지하는 장애인들에게 행하는 폭력일 수 있다.

교회도 이 문제에서 결코 자유로울 수 없다. 교회를 ‘믿음의 공동체’라고 말하기도 한다. 교회가 믿음의 공동체라고 한다면, 어떠한 조건도 없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이라면, 그 사람을 교회공동체의 일원으로 받아들여야 하는 거 아닌가? 그런데 여전히 다수의 교회들은 장애인을 공동체의 일원으로 받아들이는 데에 있어서 망설이고 주저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어찌 보면 국가나 사회보다 변화하기를 꺼려하는 곳이 교회일 것이다.

이런 현실은 왜 계속해서 발생하고 있는가? 물론 예전에 비한다면, 교회 내에서 장애인을 여럿 볼 수 있다. 하지만 교회도 국가나 사회와 다를 바 없이 힘이 있는 다수(비장애인성도)가 중심이 된다. 그들을 통해 발생하는 효율성과 효과성, 그리고 자의든 타의든 그들이 내는 물질을 무시할 수 없기 때문이다. 그들에 비해 효율성과 효과성은 떨어지고 물질도 적게 내는 장애인들은 다수를 차지하는 비장애인들 속에서 어울리며 살아남기가 어렵다.

즉, 교회 내에서 장애인은 세상과 다를 바 없이 그저 구제(시혜)나 동정의 대상으로 생각할 뿐, 함께 어울려야 할 이웃으로, 함께 신앙을 나누고 믿음을 이어나가야 할 신앙공동체 일원으로 생각하지 않는다. 그래서 대부분의 장애인들은 교회에서 아웃사이더가 되고, 심지어는 교회를 떠나 자발적 가나안 성도가 된다. 물론 비장애인 성도들 중에서도 가나안 성도가 있다. 가나안 성도가 많아진다는 것은 참으로 슬픈 일이 아닐 수 없다.

그렇다면, 과연 하나님도 다수의 눈으로 장애인을 그렇게 바라보실까?

성경에는 많은 장애인이 나온다. 특히 4복음서에는 그 어느 곳보다 많고 다양한 장애인들이 나온다. 여기서 놀라운 것은 예수님께서 그들의 친구가 되어 주셨다는 것이다. 장애인뿐인가! 어린 아이들의 친구가 되어 주시기도 하였고, 고아와 과부의 친구도 되어 주시지 않으셨던가! 소위 말하는 연약한 자들의 친구가 되어주셨다. 그런데 왜 교회는 연약한 자들, 특히 장애인들의 친구가 되어 주기를 주저하고 망설이고 꺼려하는가?

성경을 보면 장애인을 예수님 앞으로(또는 교회 안으로) 인도한 사건이 나온다. 바로 마가복음 2장 1절부터 12절까지 기록된 뇌병변 장애인이 치유된 사건이다. 이 사건을 짧게 언급하면, 중풍으로 인하여 장애를 갖게 된 사람을 예수님 앞으로 데려가 병을 낫게 해주려고 네 명의 친구들이 그 장애인을 데리고 온다. 그런데 이미 비장애인이거나, 장애가 심하지 않은 많은 사람들로 때문에 뇌병변 장애인은 예수님께로 나아갈 수 없었다. 장애가 심한 장애인이 있었음을 알았음에도 먼저 온 이(기득권을 가진 자)들이 그 장애인에게 자리나 순서를 양보하지도 않았고, 길을 터 주지도 않았다. 그런 상황을 맞닥뜨렸지만 네 명의 사람들은 포기를 하지 않았다. 대신 예수님 앞으로 데리고 갈 방법을 강구했는데, 그 방법은 성경에 기록된 것처럼 예수님이 계신 그 곳의 지붕을 뜯어 그 생긴 구멍으로 누워있는 장애인을 아래로 내려 보내는 것이었다. 이 네 사람은 생각한 방법을 즉각 실행으로 옮겼다. 무엇보다 이들은 나중에 벌어질 일들(예를 들면, 뜯은 지붕을 원상복구 하는데 들어갈 비용)은 이들에게 그리 중요하지 않았던 것 같다. 이들에게 중요했던 것은 장애인이 병에서 해방되는 것이었다. 예수님은 이 네 명의 믿음을 보시고 장애인의 죄를 용서해주셨다. 죄만 용서해 주셨는가? 그가지고 있었던 신체적 장애에서도 벗어나게 해주셨다.

일차적으로는 신체적 장애에서 자유하게 된 것이지만, 이로 인하여 이 장애인은 다수로 이루어진 사회 안으로, 공동체 안으로 들어갈 수 있게 된 것이다. 물론 가장 중요한 것은 이 장애인이 죄의 용서를 받아 영적 장애에서 해방되었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교회는 이 말씀을 보면서 무엇을 해야 할까?

여전히 효율성과 효과성에 사로잡혀 효율성과 효과성이 떨어지는 장애인이 접근하지 못하도록 지금처럼 편의시설을 갖추지 않고 있을 것인가? 또한 비장애인 성도들은 어떤가? 글 초반 ‘깎두기’라는 단어의 뜻을 설명하면서 언급했지만 장애인도 비장애인들과 어울려 살고 신앙생활을 함께 영위해 나가야 할 대상임을 알지만, 그것이 우리 교회가 아니었으면 좋겠고, 내 자신이 아니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하고 있는 것은 아닐까?

그것이 아니라면 교회와 성도는 장애인이 교회 안으로 자연스럽게 들어오게끔 방법을 다각도로 강구하여야 하며, 방법을 찾았다면 미루지 말고 하루 빨리 실천으로 옮겨야 한다.

예를 들면, 휠체어를 타는 장애인이 쉽게 드나들 수 있도록 턱을 없애야 하며, 장의자 때문에 자리 선택권을 빼앗으면 안 된다. 그리고 장애인 설교자가 올 수 있는 것을 미리 생각하여 설교단에 경사로를 설치해 놓아야 한다. 그리고 교회학교나 중고등부, 청년부는 그에 맞는 전문가를 청빙하여 그 부서를 맡기는 것처럼, 교회 내 장애인부서가 있다면, 장애를 가진 사역자나 장애인사역 전문가를 청빙하여 그 부서를 이끌어가도록 맡겨야 한다.

이러한 것들을 할 수 있는 여력이 되는 교회가 지금 당장 교회 안에 장애인이 없고, 장애인이 설교단에 올라갈 일이 없다고 생각하여 행동하지 않는 것은 교회가 겉으로 크게 드러내 놓고 하지 않을 뿐, 장애인을 교회 안으로 들어오지 못하게 막는 일종의 폭력이라고 할 수 있다. 교회 안에 장애인이 없는 것은 교회 안으로 들어가고 싶어도 장애물 때문에 들어갈 수 없기 때문이다. 교회에 있어서 장애인은 구제나 시혜의 대상이 아니라, 비장애인들과 똑같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해야 하는 구원의 대상이다.

故 장영희 교수는 자신의 에세이 『살아온 기적 살아갈 기적』에서 이런 글을 썼다.

“장애인이 ‘장애’인이 되는 것은 신체적 불편 때문이라기보다는 사회가 생산적 발전의 ‘장애’로 여겨 ‘장애인’으로 만들기 때문이다. 무언가를 못 해서가 아니라 못 하리라고 기대하기 때문에 그 기대에 부응해서 장애인이 되는 것이다. 하지만 그것은 단지 신체적 능력만을 능력으로 평가하는 비장애인들의 오만일지도 모른다.”(p.183)

또한 교회는 장애인을 무능력한 자로 보거나, 천사로 보아서 안 되며, 장애인에게 장애에 관한 말로 상처를 주어서는 안 된다. 예를 들면, “장애가 낮기

를 위해서 기도는 해봤어?”라든지, “기도가 부족하니 작정기도 해 봐”, “어찌다가 그렇게 됐어. 쫓쫓.”, “몸이 저래서 무얼 할 수 있겠어.”, “장애가 있으니 리더는 못 할거야”... 등등.

이것은 듣는 이의 따라서 차이가 있겠지만 엄연히 장애인의 대한 언어폭력이고, 차별이다. 또한 교회와 성도 역시 장애인을 바라보는 세상의 시선에 동조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다시 한 번 말하지만 과연 하나님도 장애인을 다수의 시선으로 바라보고 계실까? 장애인들이 비록 그들이 신체적 또는 정식으로 불편을 가지고 있기 이전에, 그들은 모두 하나님께서 사랑하시고 존귀하게 여기시는 한 사람일 뿐이다.

선천적(뇌병변)장애와 중도(편마비)장애로 단 한 순간도 비장애인으로 살아본 적이 없고, 장애를 가진 상태로 목사가 된 본인이 이 글을 통해 말하고 싶은 것은 교회와 교회 내 다수를 차지하는 비장애인 성도들이 장애인과 장애인 성도들을 향해 행해지는 편견과 (보이지 않는)폭력을 멈추어주길 바란다. 그렇게 되려면 사회에서 행해지는 <장애인식개선 교육>을 교회에서도 속히 행해야 할 것이다. 무엇보다 타인이 타교회가 먼저 이렇게 바뀌기를 기다리기 전에 이 글을 읽은 우리 교회와 내 자신이 먼저 멈추고 바뀌고 행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교회가 다수의 시선이 아닌, 하나님의 시선으로 장애인을 포함한 사회적 약자들을 바라보고 그들과 함께 세워져 가기를 소망해 본다.

유학생들은 한국에서 어떤 어려움을 경험하는가?

코로나 바이러스라는 예상치 못한 변수를 고려하더라도, 매해 중국, 베트남, 인도 등 각지에서 우리나라에 들어오는 유학생 수는 점점 증가하는 추세다. 대학가에서 다양한 모습의 학생들이 거니는 일은 전혀 낯선 풍경이 아니게 되었다. 그러나 여전히 외국인에 대한 문화적 이해의 결여와 편견으로 인한 차별을 경험하고 있는 것 또한 현실이다. 이주노동자의 열악한 상황과 그들의 노동권이 어떻게 침해되는가는 여러 경로를 통하여 일반시민들에게 알려져 있지만 해외 유학생들이 한국에서 어떤 어려움을 겪는지에 대한 이해는 부족하다. 유학생들의 한국생활 적응에 대한 언론의 관심이나 학문적 연구가 활발하게 이루어지지 않기에 일반 시민들에게도 잘 알려질 수가 없다. 노동력을 통해 경제적인 도움을 주거나 한국에 영구 거주할 외국인들에 대한 법령은 꽤 촘촘하게 다듬어지고 있지만 외국 유학생들은 곧 떠날 사람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사회적 혹은 법적 테두리 안에서 그들을 돌보고자 하는 의지가 약한 것이 사실이다.



문 선 주 자매
KAC 총무/예수마음교회

그리하여 유학생들의 어려움을 해결하는 일은 같은 나라에서 온 자국 친구들이나 자발적인 시민들의 봉사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다. 이 글은 2018년부터 한국이나벳티스트센터에서 시작하게 된 ISF(International Students Fellowship)사역을 통해 만난 유학생들의 어려움과 미디어를 통해 접한 내용을 함께 나누고자 한다.

왜 유학생사역을 시작하게 되었는가?

KAC는 기독교 평화의 리소스센터로서 오랜 시간 한국교회에 영향을 끼쳤다. 어느 시점에 와서는 자료와 이론을 넘어 평화사역의 일환으로 캠퍼스에서 유학생을 위한 일을 구상하게 되었다. 한국사회에서 여전히 유학생들이 경험하는 차별과 편견이 무수히 많기 때문이다. 물론 여러 민간기관, 특히 대학가 주변의 교회가 유학생들에게 도움을 주고자 하는 종종 목격된다. 하지만 교회가 유학생들의 어려움을 파악하고 도움을 주는 데는 늘 또 다른 목적이 있다. 그들이 크리스찬이 되고 교회를 출석하게 되는 선교적 이유가 그것이다. 이는 어떤 의미에서 유학생들 자체가 사랑의 대상이며 목적이 되기보다는 전도사역의 대상으로 이용당한다는 느낌을 받을 수 있다. 이런 일은 그들의 고유한 종교성을 부정하는 또 다른 차별이고 인권침해가 된다. 그래서 유학생들의 있는 그대로의 문화와 종교를 수용하고 그들의 필요에 반응할 수 있는 평화활동으로서 유학생사역을 시작하게 되었다.

유학생들에게는 어떤 필요가 있나?

모임의 구성원들은 교환학생이나 언어연수를 위해 온 중국, 이란, 인도네시아, 이디오피아, 태국, 라오스 등에서 온 학생들이 있다. 인도에서 온 다수의 대학원생도 있다.

학부생들의 필요는 명확했다. 한국어를 잘하고 싶어한다. 빨리 한국어 실력을 키워서 대학 내에 있는 원하는 과에 편입하는 것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한국어 능력시험 TOPIK 4급이상을 받아야 했다. 1년 안에 4급을 받는 것을 목표로 한다.

물론 대학원생들에게 한국어의 필요는 급박하지는 않았다. 모든 수업과 교수와의 대화가 영어로 진행되기 때문이다. 다만 한국에 살면서 한국어의 필요는 간과할 수 없는 것이었기에 대학원생들도 한국어를 배우고 싶어 했다.

학생들은 한국어로 생기는 문제를 이렇게 털어놓는다. “한국에서 가장 힘들 때는 조별과제를 할 때예요. 외국인 유학생은 조별과제에서 무임승차를 한다는 편견 때문에 과제를 같이 하기 싫어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죠.”이라며 아쉬

음을 털어냈다. 뿐만아니라, 발음이 부정확하기 때문에 놀림을 받을 때도 있고, 더 이상의 깊은 대화를 포기하는 경우를 보게 되는데 그럴 때는 깊은 좌절감을 경험한다.

가정이 있는 대학원생 같은 경우는 임신과 출산을 위해 병원을 가야하는데, 병원에서 영어를 할 수 있는 사람이 없다면 늘 한국친구의 도움에 의존할 수밖에 없어서 한국어로 인한 스트레스가 적지 않다.

또한 유학생들은 한국인들과의 관계적이고 정서적인 만남을 원한다. 이들과의 만남을 통해서 새롭게 알게 된 것은 비록 한국에서 살고 있지만 마트와 같은 경제 활동을 하는 장소를 제외하고 한국어를 사용할 일은 많지 않다는 점이다. 언뜻 생각하기에 한국에 살면 한국사람들 틈에서 한국어를 연습할 수 있는 기회가 많을 것 같지만 현실은 달랐다. 한국학생들은 너무 바빠서, 혹은 영어나 외국어를 쓰는 것이 쉽지 않아서, 혹은 제3국에서 온 친구들과의 교제에 대한 필요를 느끼지 못 해서 유학생들과 활발한 교류를 갖고 있지 않았다. 기숙사 배정도 같은 나라의 친구들이나 다른 외국학생들과 하는 경우가 많다. 유학생들을 하는 동안 한국인의 집에 초대를 받아 본 적이 있는 학생은 거의 없었다. 한국에서조차 한국인들과 인격적이고 관계적인 만남을 가질 기회가 없다는 것이다. 이것은 유학 온 학생들을 정서적으로, 사회적으로 고립감을 느끼기 쉬운 환경으로 내모는 결과를 가져온다. 가장 발달할 나이에 심리적으로 크게 위축되어서 유학생들을 근근히 유지하게 된다는 것이다.

중국에서 온 J학생은 작년에 휴학계를 내고 다시 집으로 돌아가야 했다. 한국에서 우울증이 생겼기 때문이다. 기숙사 음식이 입에 맞지 않고 대화할 친구가 없는 고립감은 섭식장애와 우울증을 유발했다. 이렇게 심리적으로 위축되는 일이 있지만 한국대학은 그들의 정서를 살피고 돕는 데는 역부족이다. 결국 유학을 포기하고 집으로 돌아갔다가 이번 학기에 다시 복학했지만 정서적인 필요가 잘 채워지지 않는 동일한 환경이라면 비슷한 일이 반복될까 염려된다.

뿐만 아니라 교수들의 유학생에 대한 지원도 체계적이거나 인격적인 형태로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가 있다. 한국어 실력이 부족하다는 것을 감안하고 그들의 눈높이에 맞는 수업내용이나 학교정보를 세세하게 알려주어야 하겠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다. 그렇기 때문에 수업에서 받는 스트레스가 굉장히 많고, 수업내용을 잘 따라가지 못 해서 생기는 불안감도 상당하다는 것을 발견할 수 있었다. 대학들이 인구절감의 문제에 대한 대안으로서 유학생들을 유치하는 일에는 발 빠르게 적극적으로 나섰지만 정작 한국어 실력이 부족한 학생들이 정착할 수 있는 구조적이고 조직적인 대응에는 미온적이었다는 현실을 볼 수 있는 대목이다. 유학생도 육체적, 정서적, 관계적 지지가 필요한 존재라는 사실이 간과된 채 학교의 정책들이 결정된 면이 있는 것이 우리의 현주소였다. 언어가 부족한 상태에서 행정적인 측면에서도 대책이 미비한 학교생활을 경험하게 되면 본국에서는 유능한 유학생들마저도 한국에서는 자기효능감의 문제를 마주하게 된다.

그 밖에 어떤 어려움이 있나?

언어적인 필요와 사회적으로 자기효능감이 상실한 상태에서 사회적, 관계적 지지를 필요로 한다는 사실 이외에도 유학생으로 한국에서 산다는 것은 많은 어려움이 따라온다.

먼저는 경제적인 어려움이 있다. 학부생들은 대부분 비싼 학비와 생활비를 내면서 학교를 다닌다. 모든 재정적인 지원은 부모님으로부터 받아야 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그래서 많은 학부생들은 아르바이트를 한다. 아르바이트로 용돈을 마련하려는 노력은 가상하지만 아르바이트로 인해서 학과수업을 따라가는데 영향을 받는 부분을 무시할 수 없다. 그러다 보니 학과수업을 더 버겁게 따라가야 하고, 사회적인 활동은 대폭 줄이게 되어 관계적이고 정서적인 지지를 받기 더 어려운 악순환을 경험하게 되는 것 같다.

중국에서 온 G학생은 일주일에 4번, 하루 5시간을 핏집에서 보내고, 틈틈이 중국어 번역과 통역 아르바이트까지 한다. 그렇게 되면 수업내용을 따라가는 일은 점점 요원한 일이 된다. 하지만 그렇게 별지 않으면 용돈을 마련할 수가

없기 때문이다.

뿐만 아니라 서울의 모대학에서는 2012년 ‘반값등록금’을 최초로 도입한 뒤 10년 동안 등록금을 동결했지만 22년부터 외국인 유학생에 한해 등록금을 최대 2배로 올리기로 해 학내에서 논란이 일고 있다. 이런 결정을 두고 목소리를 크게 낼 수 없는 외국인 유학생을 상대로 급격한 인상을 추진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의견이 나온다. 유학생들이 부담해야 하는 학비와 생활비가 한국학생들에 비해 버겁다는 것은 엄연한 차별이다.

학부생들의 아르바이트는 자신의 용돈을 벌고 학비에 보탬을 주는 용도로 사용된다면, 대학원생들이 받는 장학금의 용도는 고국에 있는 부모님에게 보내는 돈이다. 그들은 해외에 나와 있으면서도 부모부양에 대한 책임을 회피하지 않고 열심히 부모님에게 재정적인 지원을 하고 있었다. 그러다 보니, 가족을 데리고 한국으로 유학 온 가정은 한국물가를 고려해 보았을 때, 빠듯한 경제활동을 할 수밖에 없다.

인도에서 온 R은 200만원 정도의 월급을 받으면서 연구원으로 일하고 있다. 올해 첫 딸을 낳았는데 세 식구가 머물고 있는 방은 3평가량의 원룸이다. 더 넓은 방으로 옮겼으면 했지만 인도에 있는 부모님을 한국에서 받은 월급으로 부양해야 하기 때문에 이사할 엄두를 내지 못 하고 있다. 또 다른 인도 학생 L은 딸아들로서 동생들까지 교육시키는 부담이 있어서 자신의 월급 대부분을 인도에 있는 가족에게 보낸다. 그래서 여전히 장가를 갈 수 없는 형편이라고 말한다. 그들이 겪는 이방인으로서의 어려움에는 경제적인 몫이 크게 차지하고 있다는 것을 종종 발견한다.

둘째로는 자신의 종교와 문화를 이해하고 배려하는 태도가 한국에서는 아쉽다는 점이다. 아시아권에서 온 학생들은 대개 무슬림이나 힌두교인들 혹은 공산국가에서 온 무신론자들이다. 무슬림이나 힌두교인들은 종교적인 이유로 음식에 대해서 꽤 절제하는 것이 많다. 상식적으로 힌두교도들은 소고기를 먹지 않고 무슬림은 돼지고기를 먹지 않으며 할랄음식을 먹는다. 이런 그들의 종교적 배경

에 대한 충분한 이해나 배려를 사회활동 속에서 받지 못 하는 편이다.

한국에서는 삼겹살과 술, 치맥문화가 보편적인데 그들의 종교적인 신념을 무시하고 음식을 권하는 경우, 그들은 곤란하지 않을 수 없다. 때로는 그런 과잉친절은 폭력적으로 느껴지기도 한다.

뿐만 아니라 그들이 가지고 있는 고유한 예배의식이나 관습에 대해서도 배타적인 시선이나 그것을 교정하고 싶어하는 시도가 많다. 특히 기독교인들 사이에서 그들의 라마단 금식기간을 배려하거나 기도하는 시간과 공간을 배려하는 행위를 이교도적인 것으로 치부하고 금기시 하려는 시도가 보이는데 이것은 그들에게는 배타적이며 폭력적으로까지 느껴질 수 있다는 것을 인지해야 한다. 나의 종교가 중요한 만큼 다른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종교적 확신도 소중히 다룰 때, 서로에 대한 신뢰와 소통이 가능할 수 있는, 상식이 통하는 사회가 된다.

경남 모 국립대 익명게시판에는 ‘학교 내 외국인 유학생 차별’에 대한 글이 올라와 논란이 된 적 있다. 자신을 외국인 유학생이라고 밝힌 작성자는 학교 내에서 차별을 당했다며 사과를 요구했다. 작성자가 문제를 제기한 해당 공지문은 교내 실습실에 대해 “정리정돈이 잘 이뤄지지 않기 때문에 외국인 유학생은 실습실 이용을 금지한다”는 내용이 적혀있다. 이러한 학교 측의 공지는 명백한 외국인 혐오이며 차별이라고 할 수 있다. 이는 외국인에 대한 편견에서 나온 어처구니 없는 결정이다.

대학원에서 공부하는 유학생이 흔히 경험하게 되는 또 다른 문제는 그들의 신분과 생활이 안정적일 수 없다는 한계가 있다. 학교에서 teaching job을 갖거나 researcher로서 일을 한다할지라도 늘 계약직이기 때문에 매년 갱신되어야 한국에서 일할 수가 있다. 그리고 그 계약이 담당교수의 권한이기에 담당교수의 입김에 의해 미래가 달려 있으므로 갑을관계로 일한다는 점은 대학원생들이 공히 느끼고 있는 어려움이다. 그들의 연구시간은 늦은 밤에도, 주말에도, 공휴일에도 끊임없이 진행되었다. 젊기에 망정이지 그런 고강도의 연구노동은 건강을 해칠 수 있는 위험한 상황이었다. 그리고 유학생 가족의 임신과 출산, 육아 및

자녀교육도 정책적인 도움에서 배제되는 경우도 많았다. 한국에서 살며 일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곧 떠날 사람’이라는 정체성을 주입받고 있는 터라 안정감을 찾기 무척 어렵다.

가장으로서 유학생들이 경험하는 이런 스트레스는 건강상의 문제로 이어지는 경우도 종종 보았다. 고급인력이 한국의 학문적, 경제적인 발전에 기여한다는 점을 잘 인식하고 그들이 한국에 머물고 있는 동안에는 가족에 대한 정책적인 지원이 더 아낌없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게 되었다.

셋째로, 학교 밖에서 경험하는 차별과 편견은 더 끔찍하다. 언어가 통하지 않는 외국인이라 신뢰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유학생을 대하는 학교밖 한국인들의 태도는 학교안과는 확연한 온도차가 있다. 특히, 학교 주변에 월세집을 구해서 사는 학생들은 많은 차별과 편견을 경험한다. 집주인들이 국적에 따라 임차인을 골라받기 때문이다. 모 중개업소 관계자는 "중국인의 경우 지저분하게 방을 쓴다는 생각 때문에 집주인들이 세입자로 들이기를 피하기도 한다"고 전했다. 또한 외국인이라는 이유만으로 청소도 하지 않고 남은 전기세와 가스비도 지불하지 않고 도망간다는 편견은 어디서 나오는 것인지 알 수 없다. 무턱대고 유학생을 향해 남은 전기세와 가스비를 내지 않고 도망갔다고 고성을 지르며 비인격적인 태도로 마음에 상처를 주는 일을 목격했다. 외국인에 대한 깊은 편견이 앞뒤 정황도 살피지 않은 채 애꿎은 유학생을 울리고 말았다. 보증금 반환 문제도 자주 발생한다. 유학생들의 경우 갑작스러운 귀국 등 일정변화가 생기면 보증금 반환을 두고 분쟁이 발생하는 경우도 많을 수밖에 없다. 중개업소 입장에서 유학생들의 단기임대물 중개가 번거로운 게 사실이라고 밝혔다. 특수한 형편으로 인해 더 보호받고 이해받아야 하지만 오히려 더 차가운 현실 앞에서 편견과 차별을 홀로 견뎌내고 있다.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가?

앞에서 말했지만 유학생들의 유치에는 발빠르게 움직이고 있지만, 대학 입

학 후 그들의 정착과 한국 사회에서 적응하는 데 필요한 교육과 차별과 편견을 방지할 인권문제에는 상대적으로 느린 걸음을 내딛고 있다. 교실이나 실험실이나, 기숙사, 학내식당, 혹은 아르바이트 장소에서 겪게 되는 홀대를 피하기 위해서는 한국문화에 대한 전반적인 이해를 위한 적극적인 교육이 선제되어야 한다. 반대로, 그들의 문화를 알리고 양해받을 수 있도록 자신들의 목소리를 낼 수 있는 기회도 여러 경로를 통해 주어져야 한다. 한국사회가 더 안전한 사회가 되기 위해서 유학생들과 같이 눈에 잘 띄지 않는 사람들의 목소리를 의도적으로 듣고자 하는 노력이 필요하고 함께 공존할 수 있는 방식을 찾아 다문화 사회를 위한 시민의식개선과 사회안전망이 보강되면 좋겠다.

이를 위해 KAC의 유학생사역은 한국어교육을 지원할 뿐 아니라 문화의 이해를 도모하고 인격적인 관계를 넓혀 나갈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면대면의 만남을 통한 언어수업과 음식이나 문화를 공유하는 두 가지 트랙으로 모임을 갖는다.

특히 팬데믹 이후에는 유학생가정이 많이 연결되면서 고국에서 부모님이나 친지들의 방문이 불가능해진 가정주부들이 정서적으로 고립되지 않도록 유학생부인들을 위한 나들이나 음식만들기를 진행하였다. 그리고 이 운동이 KAC 안에 머물지 않고 춘천시민사회로 확장될 수 있는 방법도 적극적으로 모색하고 있다. 시민사회에 유학생에 대한 인식이 개선될 수 있는 기회가 확장될 것이라 기대한다.

한국어 교사들이 유학생들에게 나눠준 것은 한국어뿐 아니라 그들의 마음도 포함된다. 정서적인 친밀감을 돈독하게 형성하면서 이들이 이방인으로 고군분투하고 있지만 ‘또 다른 가족’이 그들 옆에서 지원하고 있다는 자신감을 갖게 해주려 한다. 더 이상 고립감으로 위축되지 않고 공동체로 살며 자기효능감을 가지게 한다는 점에서 유학생사역의 보람이 있지 않을까 생각한다. 이제 주변에서 만나게 되는 이방인이 있다면 그들을 향해 환한 미소를 보내보라고 응원하고 싶다.

아나뱃티스트 영성: 그 급진성의 생성과 소멸 그리고 희망에 대하여



박 준 형 형제
작가, 교회 사역자, 캐나다

본 글의 배경

2010년에 영국의 신종 아나뱃티스트이자 신학자인 스투어트 머레이가 아나뱃티스트 신앙의 본질을 여과없이 밝히겠다며 쓴 책이 <발가벗은 혹은 발가벗겨진(naked) 아나뱃티스트>이다. 한국어로는 점잖게 하지만 단정적으로 『이것이 아나뱃티스트다』로 번역되어 2011년에 대장간에서 출간됐다. 그렇다. ‘기독교 신앙의 본질을 말한다’는 이 책의 부제가 말해주듯이 머레이는 20세기 후반 하락을 면치 못하는 영국의 기독교계에서 아나뱃티스트에 대한 관심의 폭이 증가되는 현상을 접하면서, 그리고는 메노나이트 초기 기독교 역사학자인 알렌 크라이더의 직접적인 영향과 영국 런던의 아나뱃티스트 네트워크에서 처치 플랜터(church planter)로 일한 경험을 발판 삼아 아나뱃티스트의 급진적인 믿음의 본질들을 여과없이 소개했다. ‘여과없다’라는 것은 이 책의 제목 ‘네이키드(naked)’가 말해주듯이, 16세기 아나뱃티스트의 신앙적 가치들을 현대로 가져와 알몸 그대로 평가했다는 것이다. 그는 흔히 현대판 증산층 거주자(settler)/안정자가 되어버린 북미의 메노나이트들이 그러듯 과거의 정신적 유산에 대한 향수 어린 16세기 아나뱃티즘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가 속한 영국의 특수한 정황 속에서 영국의 기독교와 직접적으로 관련이 없는 과거 스위스/독일/네덜란드의 아나뱃티즘을 다시 불러내 현재의 상황에 맞게 재해석하는 공을 세웠다.

이 책은 나오면서부터 지대한 관심을 끌었다. 아나뱃티스트의 유산을 직접적으로 물려받은 토종/진골 아나뱃티스트 후손이 자신의 신앙 유산을 홍보하려고 쓴 게 아니라 영국인이며 자발적/후천적 아나뱃티스트가 그것도 또 현재 북미의 중산층 유럽계 백인 거주 문화를 고수하고 있는, 자신들이 대단한 아나뱃티즘의 상속자라 생각하고 있는 메노나이트들을 대상으로 썼다는 자체가 센세이셔널하고 신선했기 때문이다. “누가 감히 우리를?”

그리고 그 내용으로 들어가보더라도, 전통적인 아나뱃티스트/메노나이트 학자들이 쓴 책들과는 접근방법 자체가 달랐다. 대단히 객관적이라고 노력했다. 많은 이들의, 교단과 신앙의 부류에 상관없는 증언이 포함됐다. 그리고 책의 마지막에 머레이는 현대판 아나뱃티즘에 대해서 평가를 했다. 이 부분이 결국은 북미의 메노나이트들 사이에서 논란의 대상이 됐다. 그는 “이들의 율법적인 성향과 선택적인 성경의 활용 그리고 지나치게 지성화된 문제(머리만 너무 발달했다는 것), 마지막으로 이들의 침묵과 타성(제도화의 문제)에 대해서 조심스럽게, 그래서인지 간단히 다뤘다. 하지만 이 일은 간단히 끝날 일이 아니었다.

덕분에 그는 더 유명해졌다. 여기저기 초청하는 곳이 더 많아졌다. 그래서 결국 이 책은 오늘부로 5판까지 개정되었다는 것 아닌가?

내가 왜 이 얘기를 이렇게 길게 하나?

2011년 머레이의 책을 미국 인디애나에 있는 아나뱃티스트 메노나이트 신학대학원에서 처음 접하고는 여러 번 ‘아하’를 했다. 특히 그가 본 21세기 아나뱃티스트 메노나이트들의 문제점은 한결같이 옳았다. 지성화되고 제도화되고 타성에 젖고. 16세기 아나뱃티스트 전통에 대해서는 이미 귀가 따갑도록 들어왔으니 그리 새로운 것은 없었다. 그러면서 번쩍 드는 생각이, 머레이가 무엇이 아나뱃티스트인지에 대해서 썼다면 나는 이제는 ‘무엇이 아나뱃티스트의 영성인지(The Naked Anabaptist Spirituality)’에 대해서 쓰면 아나뱃티스트를 좀 더 폭 넓게 이해하는데 더 좋겠다라는 것. 바로 담당 지도교수이자 아나뱃티스트 신학자인 존 램펠 선생에게 이 제안을 했다. 도와줄 수 있겠냐고. 그와 몇 번

의 커뮤니케이션이 이어졌다.

그리고는 수년이 더 흘러 나는 신학교를 졸업했고 목회보다는 선교의 길로 들어서겠다고 다짐을 하면서 축축한 초기 아나뱃티스트들의 영성 관련 문헌 찾기를 그만두고, 존 렘펠 선생과의 약속조차 기억에서 멀어져 갔다. 이게 지금으로부터 약 7-8년전의 이야기다.

그러는 사이 척박한 한국의 기독교 지형에 메노나이트 교회들의 연합이 생기고 여기저기 아나뱃티즘 혹은 아나뱃티스트에 관한 책들이 출간되고, 이에 관심이 있는 사람들이 전국적으로 생겨났다. 드디어 한국의 아나뱃티스트 센터(KAC)가 올해로 20주년을 맞는다고 하니 격세지감을 느낀다. 다시 머레이가 그의 책 <발가벗겨진 아나뱃티스트>, 아니 『이것이 아나뱃티스트다』를 쓴 배경에 눈이 간다. 영국 기독교의 급속한 세속화와 퇴보 속에 하나의 희망으로 부각되기 시작한 16세기 아나뱃티즘. 그 급진적인 믿음. 그 신앙의 본질. 어찌면 머레이가 당시 20세기 말 이 책을 쓸 때의 배경과 지금 21세기 초 한국 땅의 기독교 상황은 많은 면에서 유사점을 가지고 있다. 특히 그 기독교의 생명이었다는 점에서!

어찌 보면 이런 절체절명의 시기에, 한국 기독교의 쇠락과 한국 아나뱃티스트 센터의 20주년의 기념의 교차 시기에 ‘아나뱃티스트의 영성과 그 전망과 진단’에 대해서 글을 써 달라고 부탁을 받은 것은 운명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 본다. 결국은 글을 이처럼 쓰게 됐으니 우선은 존 렘펠 선생과의 약속을 지키는 셈이 되고, 이 글을 쓰도록 요청해 주신 김복기 형제에게도 감사의 말씀을 전하고 싶다. 나의 과거를 어떻게 알고 이런 주제로 글 청탁을 한단 말인가? 이렇게 모든 것이, 모든 자들의 협력을 통해 하나의 선을 이루게 되는가 보다. 아니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한 말은, 그게 뭐라도, 반드시 책임질 날이 온다는 예정설인가?

본 글의 한계 고백(Disclaimer)

스튜어트 머레이는 영국의 아나뱃티스트 네트워크를 통해 많은 교단 또는

종파에 상관없이 많은 부류의 사람을 만났고 그런 경험에 근거해 아나뱃티스트 신앙의 본질에 대해서 썼다. 우선 나는 그에 비해 경험이 적다. 나는 목사도 아니고 것처럼 신학 박사도 아니다. 캐나다 임마누엘 메노나이트 교회의 ‘핑’ 신도이자 계절별 설교자이고(일년에 한 4번쯤), 교회와 교단의 여러 위원회를 전전하며 지식과 관점을 팔고 있는 한 명의 ‘지적’ 봉사자에 불과하다. 원래 화공과 전공자가 미국에서 대학원을 2군데 다녔다는 것 정도가 학력으로서는 전부다. 기업에서 ‘문화관계’를 가르쳤고 다양한 책들을 써왔으며 뒤늦게 미국 인디애나의 아나뱃티스트 메노나이트 성경대학원에 들어가 M.Div.를 했다.

머레이와 굳이 공통점을 찾자면, 그와 나의 스승이 같다는 것이다. 알렌 크라이더. 초기 기독교역사학자인 그에게 첫 수업을 받게 되면서 나는 그의 제자가 되기로 작정을 했고, 2017년 그가 인디애나 고센에서 이생의 삶을 마칠 때까지 기도의 친구가 되었다. 머레이는 그가 속한 런던 아나뱃티스트 네트워크의 창립자 중의 한 명인 알렌 크라이더와의 직접적인 교류를 통해 그의 정신을 물려받았다. 그런 결과는 기독교의 역사를, 그 부흥과 쇠락의 경계를 4세기초 로마 황제 콘스탄티누스에 의해서 세워진 크리스텐덤(기독교의 국가화)을 전후해 보게 된 것이고, 국가와 정치와 종교가 ‘짬뽕’이 되어 죽도 밥도 안되는 것을 극도로 싫어하게 됐다는 것이다(교회의 대형화도 같은 맥락으로 본다—이 점에서는 장로교 전통의 유진 피터슨도 맥락을 같이한다. 아, 그는 교회가 커지는 것을 얼마나 싫어했던가, 우리들의 목사!)

한가지 앞으로 전개하는 나의 글이 머레이와 맥락을 같이 하는 것은, 이 글의 독자를 굳이 학자층으로 삼지 않는다는 점이다. 고로 지루한 인용문이나 인명으로 초기 아나뱃티즘에 대해서 생경한 독자들의 기를 죽이지 않을 것이고(메노 사이몬즈와 필그람 말팩의 신학적 차이가 뭐지 굳이 설명하지 않을 것이다), 소위 아나뱃티즘을 안다는 자, 조롱하는 자들과 지적인 경쟁을 벌이지도 않을 것이다(누가 정통인지 싸울 맘이 없다—아, 나는 정녕 비폭력/비저항주의자인가?).

즉 이 글은 실용적이고 실질적인 판단에 근거해 전개해 볼 것이다. 관점은 북

미를 근거로 한 21세기 한국계 메노나이트가 보는 아나뱃티즘의 과거와 오늘과 미래다. 근본적으로 16세기 아나뱃티스트와 더 가까운 후터라이트와 브루더호프에 대해서는 단 하루도 그 공동체에 들어가 살아 보지 않았으니 뭐라 딱히 할말이 없고(있어도 참아야 하고), 나의 관점은 내가 지난 17년간 경험해 온 4개의 북미 도시 외곽형 메노나이트 교회(메노나이트 교회와 다운타운은 어울리지 않는 조합이다.)의 물리적인 범위와 기억의 한계를 넘지 못한다.

마지막으로 이 글의 '본'의도를 밝히는 게 독자의 오해를 줄이는데 도움이 되겠다. 이 글은 아나뱃티즘을 홍보하려는 게 아니다. 한국 기독교의 처절한 상황을 염두에 두고 어떤 대안/대승적인 차원에서 아나뱃티즘, 그것의 영성의 고갱이에 대해서 소개하려는 게 아니다. 가능한 한 있는 그대로, 내가 경험한—공부만이 아니라—메노나이트 교회 그리고 그 메노나이트 교회 안에서 알게 되고 배우고 깨닫고 실망도 한 아나뱃티즘의 실체에 대해 밝혀 보는 것이다.

이러는 것은, 앞으로 아나뱃티즘에 대해서 알게 되고 배우게 되고 한국 상황에 적용하려는 사람들이 너무 이상적으로 아나뱃티즘을 보고 따라하다 실족하지 않게 함이다. 모르는 자에게는 진실, 그 빛과 어둠을 둘 다 알게 하는 것은 글 쓰는 자의 윤리라고 생각한다. 글 쓰는 자는 선동가가 아니기 때문이다. 바라기는, 이 글을 통해, 이 글을 읽고도 여전히 아나뱃티즘에 대해서 알기를 원하고 아나뱃티스트가 되기를 작정한다면, 본인이 처한 특수 상황에서 그 상황에 맞는 제3의 아나뱃티즘, 제3의 아나뱃티스트적인 믿음과 영성을, 하지만 반드시 공동체와 함께 창출해 내기를 바란다. 지독한 현실의 바탕 위에서 세워진 신앙이 굳건 하듯이 아무리 16세기 아나뱃티즘이 이상적이고, 아무리 21세기 북미의 메노나이트 교회관이 공동체답다 하더라도 한국의 현실을 외면하고 있는 그대로 수입해 적용한다면 그것이야 말로 16세기 아나뱃티스트들에게 붙여진 거룩한 '레디칼(Radical)' 즉 '급진주의자'라는 이름에 먹칠하는 행위다. 급진성이 창의성과 미래지향성과 맞물려 있듯이 21세기 한국의 상황에서 임히고 적용되는 아나뱃티즘, 아나뱃티스트 영성 역시 철저한 제고와 비판과 의심과 성찰의 영성 위에서 새롭게 거듭나야 하는 것이다. 이게 전통 아나뱃티즘에 대

한 가장 고결한 보상이고 진보다. 자, 말이 길었다. 이제 본문으로 들어가 보자!
과연 뭐가 진실인지 파헤쳐보자!

아나뱃티스트 영성의 시작: 그 급진성(Radicality)에 대해!

16세기 아나뱃티스트들의 출현과 그들의 활동에 대해 ‘운동(movement)’이라고 말 붙이는 것은 후세의 노력이다. 스위스에서 16세기초 기존 가톨릭 교리—유아세레—에 대해 생긴 것이 아나뱃티스트(Ana-Baptist), 말 그대로 성인이 되어 자기의 의지로 ‘다시 세례를 받는 자’이다. 한국에서는 ‘재’세례, 거기다가 ‘파’까지 갖다 붙여, 어느 동네의 마피아나 이단 부류같은 발음하기도 불편한 이름이 되어버렸다. 이리기는 여전히 루터나 칼빈의 영향이 지배적인 한국 기독교의 낯설고 소수인 기독교 형제 종파에 대한 편하나 조롱의 표현이 포함되어 있다고 볼 수도 있다. 이들은 지긋지긋하게도 아나뱃티스트의 출현이나 그들의 발달과 확장에 대해서 과민하게 반응하지 않았었는가?

아나뱃티스트들은 아주 단순한 동기에서 시작한 하나의 작은 그룹, ‘섹트(sect)’에 불과했다. 그후 500년이 지난 오늘날에도 이들을 ‘섹테리안(sectarian)’이라고 부르니 그들의 소규모 그룹-마이너리티-지향의 성격은 변하지 않았다고 보는게 맞다. 이들의 동기란 위에서 언급한 것과 같이 아주 단순하다. 가톨릭 교회에서의 유아 세례가 성경적이지 않다는 것이다. 초창기 그들의 리더격이었던 쾰빙글리는 종교 개혁의 필요성은 인정했으나 굳이 가톨릭의 교리까지 건드려 미운 털 박히기는 싫었다. 스위스가 아닌 독일 동네의 루터도 이와 같은 지향이였다. 이들은 끝까지 유아세례를 인정했다.

양쪽의 지향 근거는 다음과 같다.

아나뱃티스트: “왜 성경에 쓰여있지도 않았는데 유아에게 세례를 베푸는 거야? 유아세례는 성경적이기보다는 통치적, 정치적 논리로 교회에 의해서 인용되고 활용되고 있는 것 아닌가? 더 깊게 들어가보면, 사회를 종교의 영향권 아래 놓기 위한 장치로, 4세기 콘스탄티누스가 이룩한 크리스텐덤의 연속성 아닌가? 사회나 국가의 기독교화? 태어날 때부터 죽을 때까지 본인의 의지하고는

상관없이 기독교인이 되어버리는 것이 과연 기독교적인가?”

프빙글리와 루터와 칼빈: “성경에 유아세례 주지 말라고 쓰여 있어? 꼭 성경에 쓰여 있는 여부로만 기독교를 알면 안 돼! 사람이 태어났다는 그 자체만으로도 하나님의 섭리, 즉 하나님에게 근본적으로 속해 있는 거야. 본인의 의사는 중요하지 않아. 세례도 마찬가지야. 세례는 하나님의 나라로 들어가는 ‘길’이지 거듭난 자들만 들어가는 좁은 문이 아니야.” [사족: 이걸 그럴듯한 신학적인 견지이고 더 깊게 이들은 교회와 국가론 역시 상호-보충-호환-협력의 기조 아래(‘국가도 하나님의 섭리 안에 속해 있다.’) 개혁은 필요하되 굳이 기존의 교회와 국가 체제까지 흔들 필요는 없고 개혁의 실효성을 고려해 기존 권력세력과의 연합을 도모하겠다고 걱정하게 된다.]

결국 이 두 그룹, 순진하고 성경 문자적인 그래서 타협주의자들의 눈에는 과격하고 급진적으로 비춰지는 아나뱃티스트들과 개혁의 성공을 위해서는 기존 세력과 타협과 합의도 마다하지 않는 온건하고 타협적인 개혁주의자들은 화해하지 못하고 자기의 길을 각각 가기로 결정한다. 이 성경 한 구절의 차이로 인해 이 초기의 개혁 그룹들은 각자 도생 혹은 연횡을 하게 되는데, 특히 성경을 문자적으로 해석하는 경향이 있고, 신학적인 배경이 (상대적으로) 일천하고, 그리고 기존의 교회 제도권과 국가정치세력으로부터의 분리까지 한꺼번에 도매급으로 선포해버린 이 소수의 개혁자들에게 새로운 이름이, 그것도 조롱이 함께 어우러진 이름이 상대방들에 의해 붙여지는데 그게 바로 ‘레디칼들(the Radicals), 즉 급진주의자들’이다.

동시대 개혁자 리더 중의 한 명인 라인리히 볼링거는 이들을 “악마와 같은 적들이고 하나님의 교회의 파괴자(destroyers of the church of God)”라고 했고, 루터는 창의적으로 “슈베르머(Schwaermer)” 즉 벌집 주위를 왕왕 소리 내며 물러드는 벌이나 나방 떼와 같다고 했고, 칼빈은 더 과격하게 ‘광신자(fanatics) 혹은 미친 개들(mad dogs)’이라고 불렀다(미친 개는 때려잡아도 되니까). 이들의 눈에 아나뱃티스트들은 기존 교회를 파괴하는 악마 수준의 과격주의자, 급진주의자였다. (이 점은 가톨릭과 궤를 같이 한다. 그리고 이들 모두 여기저기

나방 떼, 벌 떼처럼 불어나는 아나뱃티스트들을 잡아 쳐 죽이는 경쟁을 시작한다. 이런 교회가 주축이 되는 폭력의 허용에 대해서는 4세기 아우구스티누스의 영향이 컸다. ‘교회=하나님의 뜻에 반하는 놈은 다 잡아 죽여도 돼!’가 이 자의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법과 정의였다. 이런 폭력 정당화의 소용돌이 속에서 곧 세상 법도 의미가 없어진다. 아나뱃티스트와 같이 지독하게 성경 말씀대로 사는 사람이라면 그래서 폭력의 사용과 국가에 대한 복종에 대해서 거부감을 표현하는 사람에게는, 법 제도에 호소할 필요없이 교회가 알아서 잡아서 맘대로 처형할 수 있도록 제도적인 기반이 만들어진다. 순진한 레디칼들을 잡아 죽이기 위한 ‘손에 칼을 든’ 강도 같은 레디칼들의 시대가 도래하는 것이다.

레디칼이란 말이 도대체 뭐 길래? 이 말은 원래 라틴어의 ‘라디스(radix)’, ‘뿌리’라는 말에서 유래됐다. 결코 부정적인 표현이 아니다. 뿌리는 근본을 상징한다. 즉 온건하다고 평을 받는 썬빙글리나 루터의 관점에서 아나뱃티스트들은(급하며 비타협적인) 근본주의자들이다. 이들은 성경의 문자에 천착하며 예수의 제자로서 국가와 교회를 분리하려고 한다. 그래서 한국어의 표현대로 이들은 급하게(急) 앞으로 나아가는(進), 마치 뭇가에 흘린 급진주의자들이 된다.

급진주의자라는 한국어적 표현에는 아쉬움이 남는다. 왜냐하면 이 말이 정치적인 상황과 연계되어 오역/오용되기 때문이다. 일전 어느 한국 신학자가 나의 선생인 알렌 크라이더를 ‘좌파’라고 불러 사과를 받아낸 일이 있다. 이 말을 들으면 크라이더 교수는 아마 무덤에서도 기분 나빠 할 것이다. 이미 말했지만 레디칼은 앞으로 나아간다는 급진성보다는 오히려 뒤로(성경과 초대교회적인 삶으로) 돌아간다는 환원적인 근본성의 의미가 더 크다. 아는가? 당시 루터는 아나뱃티스트들을 ‘우익’에 올리고 가톨릭을 ‘좌익’에 할애했다는 것을. 맞는 말이다. 신앙 안에서 좌우의 차이는 오직 성경에 대한 수용의 범위로만 가늠할 수 있다.

18세기가 되면서 이런 근본주의적인 레디칼의 의미가 사회주의적 혁명을 도모하는 급진주의의 의미로 탈바꿈되어 정치의 영역에서 사용되기 시작했다. 반공 이데올로기에 천착해온 한국의 기독교 역시 급진주의자나 급진성이라는

말만 들어도 마치 자유민주주의에 반하는 전투적이고 불온한 의미로 거부하기 시작했다. 즉 가장 성경적으로 ‘근본적인(radical)’ 아나뱃티즘을 사회주의적 가치지향으로 폄하해 버린 것이다. 이들의 판단대로라면, 누가복음이 말한 예수야말로 가장 급진적인 사회주의자가 된다.

다시 레디칼, 급진으로!

이 말의 시작은 ‘응급성 혹은 긴박성(immediacy)’에 있다. 이걸 두말할 나위 없이 변화, 혁명, 의식의 전환의 시작을 말한다. ‘이 세상에서 변화를 환영하는 사람은 오줌 썩 아이 밖에 없다’는 말이 있다. 위급하고 긴박해야 변화를 원하게 된다. 혁명에 단계가 필요한가? 온건하고 절차적인 혁명이라는 말 자체가 난센스다. 혁명은 그야말로 기존의 것을 갈아엎는 전복적인 행위다. 이미 잘못 되고 부패한 것으로부터의 결별하는 데는 오직 단순하고 즉각적인 결심과 돌아서서 왔던 곳이 아닌 새로운 방향으로 전진하는(進) 용기만이 필요하다. 이게 ‘회심(conversion)’의 의미이고, 이게 16세기 아나뱃티즘의 시작이었다. 결과에 상관없고 그 목적지가 어디인지도 모르나, 오직 말씀에 충성하며, 성령의 인도하심에 따라 조금도 주저함 없이 나아가는 것, 그 급진의 영성!

16세기 아나뱃티스트들은 초기 개혁자인 츠빙글리와의 한번의 만남과 한번의 성경적인 깨달음을 가볍게 치부하지 않았다. 이걸 바울이 다메섹에서 예수를 만난 것만큼이나 단순하지만 위대한 사건이 되었다. 자신들의 깨우친 신념을 위해서 목숨까지도 내놓았다. 그렇게 죽어 나간 순교자들이 16세기가 지나기도 전에 독일과 네덜란드에서만 2천5백 명 가량 된다. (후에 틸레만 잔츠와 브락트가 기록한 ‘순교자들의 거울’에는 803명의 초기 아나뱃티스트 순교자들의 증언이 포함된다.) 이들은 아이러니하게도, 삶이 지극히 경건하다는 이유만으로, 무기를 소지하지 않고 다닌다는 이유만으로, 거짓 맹세를 하지 않는다는 이유만으로, 재세례를 했다는 이유만으로, 교회와 국가는 분리되어야 한다는 이유만으로 혀가 뽑히는 고문을 당했고(말하면 안 돼!) 수장을 당했고(이게 진짜 재세례야!) 화형(가장 극적으로 죽어야 돼!)에 처해졌다. 그 누구도 그들의

편은 없었다. 이들은 꼭 그래야만, 그렇게 급하게 혼자서 나아가야만 했을까? 예수님의 고난(Bitter Christ)을 본받아 죽음까지도 불사하는 이들의 신앙적 급진성의 근원은 무엇인가? 과연 이들의 이런 급진적인 믿음은 오늘날 어떤 모습으로 남아 있을까?

이제부터는 아나뱃티스트 영성의 고갱이인 이런 급진성이 어떻게 지난 약 5백년 동안 아나뱃티스트 믿음을 형성해 왔는지 살펴보도록 하겠다. 1525년 1월 스위스 취리히에서 쾰빙글리의 몇몇 제자들이 따로 모여 시의 명령에 대해서 ‘재세례’를 베풀면서 시작된 아나뱃티스트들의 신앙적 혁명, 그 급진적인 믿음이 어떤 모습으로 21세기의 우리들에게 전해졌고 현재까지 남아 있고 변해왔는지 한발 더 전진해 보자.

아나뱃티스트 영성의 초기 흐름

초기 아나뱃티즘의 영성을 한마디로 말하기는 어렵다(지금이라고 다를까?). 지역이 다양했고(스위스와 남부 독일/오스트리아와 네덜란드와 모라비아(지금의 체코 지역), 리더들의 성향/개성/신학적 수준도 다양했다. 대단히 성경적인 근거로 아나뱃티즘 즉 재세례의 관습이 생겨났으나 요즘 표현대로 초기 아나뱃티스트들은 신앙의 모든 권위를 성경에만 두는 문자주의자들은 아니었다. 이들은 성령에 대한 이해, 성령 의존도도 컸다. 성령으로 인해 그들은 누구나 성경을 읽고 이해할 수 있다고 믿었고, 그들이 추구한 공동체의 모델 역시 사도행전 2장에서 그 원형을 발견했다. 그래서 지난 천년 이상 가톨릭 교회에서 유지되어온 사제주의를 버리고 자발적이고 회중중심적인 모임과 운동으로 발전해 나갈 수 있었다. 이러한 성령중심적인 그래서 위계 중심의 교회구성에서 자유로운 성격 때문에 초기 아나뱃티즘은 주로 평민과 장인 계층에서 더 성장하고 부흥할 수 있었다.

남부 독일이나 스위스를 배경으로 성장하기 시작한 아나뱃티즘은 그들의 리더격인 한스 후트와 레온하르트 쉬머와 한스 솔라피와 한스 댕크의 영향으로 대단히 성령중심적이고 경건함을 지향하는 신비주의적인 신앙관을 갖게 되었

다. 이중 가톨릭 프란치스코 사제였다가 아나뱃티스트로 개종한(1527년 재세례) 오스트리아의 레온하르트 쉬머의 ‘세번의 은혜(그는 은혜를 빛이라는 메타포를 사용해 하나님의 말씀과 십자가(예수)와 성령의 약속으로서의 기쁨을 설명한다.)’와 ‘세번의 침례(성령, 물, 피(순교))’는 성령주의에 바탕을 둔 영적 보고로 오늘날까지 전해진다.

이 지역 출신(스위스 티롤)들의 일부, 존 후터와 피터 발포트 등이 독일 동부 현 체코의 모라비아 지방으로 이주해가면서 더욱 더 오순절 사건에 입각한 성령의 공동체를 세우게 되는데 그게 오늘날까지 현존하는 후터라이트이다. 사유재산을 인정하지 않고 모든 것을 공동체 안에서 다 함께 공유하는 이 공동체의 영성의 근간에는 대단히 영적인 ‘자기포기/순종(yield-ness)’의 정신이 담겨 있다. 상호신뢰/책임/포기 없이 공동체가 세워지고 유지될 수는 없을 것이다. 이들은 향후 500년 동안 이런 영적인 근간을 손상하지 않고 계승발전하게 되고, 이런 정신에 감화된 독일의 에버하르트 아놀드에게 의해 20세기 초 브루더호프(형제들의 집)라는 이름의 새로운 공동체 운동이 시작된다.

이와는 정반대의 지역, 북서부의 네덜란드에서는 성령보다는 성경으로의 무게 중심이 활발해졌다. 위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다양한 영적 흐름을 보였던 초기 아나뱃티즘이 성경으로, 성경의 문자로 무게중심이 본격적으로 이동하게 되는 사건이 터진 것이 바로 독일 서북부에서 일어난 뮌스터 사건(1534-35)이다. 이 사건의 주인공인 멜키오르 호프만은 초기 스위스 지역의 아나뱃티스트 성령주의자 한스 댁크로부터 독일과 프랑스의 국경도시 스트라스부르그에서 침례를 받고 본격적인 사역을 시작했다. 그는 스스로에게 권위를 부여해 다른 사람들에게 아나뱃티스트 신앙을 가르치고 침례를 줬다. 사람들 사이에서 그는 2의 엘리야라고까지 불리게 됐다. 그의 카리스마적인 영성에 많은 사람들이 몰리고 자신의 종말론적 세계관이 당시 북서부 독일의 사회정치적인 맥락과 연결되면서 당초 그의 평화주의적인 아나뱃티즘이 이 땅에 하나님의 왕국을 건설해야 한다는 극단의 환상으로 발전한다. 드디어 폭력의 사용까지 허용되면서 교회와 도시를 약탈하고 사유재산을 몰수하며 뮌스터라는 동네에 멜키오

르의 천년왕국이 건설된다. 이 왕국은 그런데 얼마 못 가, 약 18개월의 환상 후 가톨릭 교회와 신성로마제국의 군대에 의해 몰살되고, 소위 지도자라 불리는 3인방의 시체는 성 람베르티 교회의 침탑 철창에 전시되어 오늘에 이른다.

이 사건은 초기 아나뱃티즘의 형성에 대단한 기여(?)를 하게 된다. 물리적으로는 가톨릭과 다른 종교개혁자들에게는 이들을 합법적으로 그것도 대량으로 제거할 수 있는 좋은 구실이 되었지만 아나뱃티스트 안에서는 성령주의의 극단화와 폭력의 사용에 대한 경각심이 커지게 됐다. 한때 멜키오르의 신학에 감동받기도 했던 네덜란드의 가톨릭 수사 메노 시몬즈는 이 사건을 계기로 아나뱃티스트 운동의 중심무대로 들어오게 되는데 그가 강조하기 시작한 것은 철저한 성경적인 삶이다. 앞으로 메노 시몬즈의 영향권 안에 있는 모든 아나뱃티스트 운동은 철저히 성경 중심의 삶, 비폭력의 삶으로 발전하게 될 것이다. 그렇다고 오해하지 말 것은, 성경중심적인 것과 성경문자주의적인 것과는 다른 차원이라는 것이다. 초기 아나뱃티스트든 오늘날의 메노나이트든 성경을 문자적으로 읽고 해석하는 것을 '극도로' 경계한다. 어떻게 보면 같은 아나뱃티스트 리더 중 가장 고리타분한 성경주의자라고 라벨이 붙는 메노 시몬즈의 성경관 역시 문자에 천착하는 교리 중심의 삶보다는 철저한 복음주의적이고 실질적인 삶에 그 방점을 둔다. 그가 말한 '진실한 복음적 믿음(True evangelical faith)'은 전통이건 신종이건 모든 아나뱃티스트에게 여전히 읽히는 아나뱃티스트 신앙의 고전으로 통한다. 간단히 소개하면 이렇다.

“진실한 복음주의적 믿음은 결코 잠잠한 것이 아니며 모든 종류의 의와 사랑의 열매 안에서 피어져 나간다. 그것은 피와 육에 죽고, 그것은 모든 탐욕과 금지된 욕망을 파괴하며, 그것은 영혼의 가장 깊은 데에서 하나님을 찾고 봉사하고 두려워한다. 그것은 별거벗은 자에게 옷을 입히고, 배고픈 자의 배를 채우고, 슬퍼하는 자를 위로하고, 잘 곳이 없는 자에게 거처를 제공하고, 슬픔에 젖은 자를 위로하고 돕는다. 그것은 해악을 끼치는 사람에게 선을 베풀고, 도우며, 그것은 핍박하는 자들을 위해 기도한다. 그것은 주님의 말씀으로 가르치고 권면하고 판단하고, 그것은 길을 잃어버린 자를 찾으며, 그것은 상처 난 곳을

감싼다. 그것은 아픈 자를 낫게 하고, 그것은 강함을 보존하고, 그것은 모든 사람에게 모든 것이 된다(it becomes all things to all people). 주님의 진실을 위해서 받는 핍박과 고난과 슬픔은 영광스러운 기쁨과 위로가 된다.”

흔히 그렇듯 성령주의의 영향이 크면 클수록 외부로 드러나는 의식적 행위/의식—세례나 교회출석이나 성만찬 등과 멀어지게 된다 즉 반사회적, 반교회적인 성향이 강화되기 쉽다. 아나뱃티즘 역시 메노 시몬즈의 시대로 들어오면서 네덜란드로부터 시작해 더욱 더 신학적, 교리적으로 안정되기 시작한다. 그래서 교회성(ecclesiology)을 세우고 유지하기 유리한 방향으로 나아가면서 이런 성령주의적 신앙관에서 멀어지게 되고 이들의 자취도, 영향도 미미해지기 시작한다.

초기 아나뱃티스트 지도자들 안에서는 ‘성령(Spirit)과 말씀(Letter)’의 권위에 대한 논쟁이 대단히 뜨거웠다. 당시 타 도시에 비해 종교의 자유가 상대적으로 느슨했던 스트라스부르그를 배경으로 한 실용적 성경주의자 필그람 말팩과 경건주의자이며 성령주의자인 카스펜 슈벵크펠트의 논쟁이 그중 특히 유명하다. 말팩은 성령주의를 가장 반대한 초기 아나뱃티스트 리더 중의 한 명으로 1528-32년까지 약 4년에 걸쳐 많은 성령주의자들을 만나 대단히 광범위한 논쟁을 펼쳤다. 이런 초기 아나뱃티즘 안에서 성령주의는 그 성격이 더욱 급진적으로 바뀌어 성령의 직접적인 감화를 제외한 성경의 말씀조차도 잉여의 계시로 여기게 되는 일이 일어나기도 했다. 아나뱃티스트(영성)안에서 성령과 성경의 분명한 분리 현상은 1540년쯤으로 보는게 일반적인 주장이다. 윈스터 사건이 완전히 종결된 이후 약 5년 후다.

존 하워드 요더의 연구에 의하면 독일 남부/스위스에서는 이러한 성령과 성경의 분리 현상은 1530년보다 먼저 일어났다고 한다. 이 근본적인 이유를 설명하는 데는 독일 남부/오스트리아 지역 아나뱃티스트 성령주의(‘교회는 성경보다 성령이 중심’)의 원조적인 토마스 뮌처를 빼놓을 수 없다. 그는 민중을 위한 농민전쟁(1524-1525)를 이끌다 실패하고 본인마저 처형당하게 된다. 이 사건으로 당시 그에게 영향을 받았던 다른 아나뱃티스트 리더들(한스 댕크, 한스

후트 등) 역시 편향되고 종말론 중심의 성령주의 관점(선민적 천년왕국설)에서 한발 물러나 아나뱃티즘의 본연의 바운더리(교회와 사회/국가/정치적 분리와 비폭력 그리고 성경)안에서의 온전한 성령주의로 전향하게 된다. 이렇게 되는 외부적인 이유로는 이 농민전쟁의 실패로 루터가 이끌고 그를 지지하는 세력들의 탄압이 더 노골화됨으로 이런 외부 압박에 대한 자기방어/자기조정 기능으로서도 성령주의적인 관점에서 한발 물러나게 되었다고 보는게 맞다.

21세기 들어 토마스 뮌처의 혁명적인 신앙관이 재조명되면서 한때 그가 추종했던 동시대의 종교개혁자 루터와 비교하는 일들이 일어났다. 다음은 최근 한국의 <가톨릭프레스(2016-5-27, 조영규)>에 기고된 글의 내용이다.

“500년 전 토마스 뮌처가 왜 가톨릭교회에 반기를 들고 실상은 같은 흐름이었던 소위 교회개혁자 루터에게 등을 돌렸는지 되새겨보아야 한다. 루터는 농민들의 피폐한 삶에 동참한 것이 아니라 자신의 활로를 찾기 위해 세상과의 어설픈 타협을 성공적으로 수행한 것이다. 뮌처는 그의 사망 500주년을 기점으로 재평가 되어야 하며 21세기 ‘혁명의 신학자’로 복권되어야 한다.”

21세기의 루터교/루터 추종자 그룹에서는 뮌처를 어떻게 평가할지 궁금하다. 아마 여전히 그는, 종말론적 환상에 사로잡힌 예언자로, 사회적 불만을 이용하여 자신의 환상을 현실로 바꾸어 놓으려고 시도한 이단적 좌파의 주장 정도이지 않을까 싶다. 그래서 (루터에게) 죽어도 싸다, 정도? (‘신학적인 견지가 다르다고 폭력을 사용할 수 있는가’에 대해서 그렇다라고 말한다면 여러분 역시 500년전의 루터주의자에 가깝다. 아나뱃티스트는 초기부터 현재에 이르기까지, 어떤 이유로든, 그것이 개종/선교의 문제라도, 강제나 폭력이 동원되는 것에 대해서는 한결같이 반대해 왔다.)

21세기 오늘 시점에서 앞으로 전개될 아나뱃티즘의 영성의 본질 재고 및 전망 역시 위 메노 시몬즈의 영향을 받은 성경과 공동체 중심적이고 비폭력지향의 메노나이트 영성을 근간으로 한다는 점을 다시 한번 밝힌다. 아마 여전히 세상과 분리해 공동체적인 삶을 유지하고 있는 후터라이트나 브루더호프 그리고 전자의 두 그룹에 비해 사유재산과 신자간 어느 정도의 사적 공간을 허락하고

있는 아미쉬의 입장에서는 또 다른 관점과 다른 질의 아나뱃티즘을 지향하고 아울러 내가 속한 세상 한 가운데 나와있는 메노나이트 교회를 평가할 것이다.

아나뱃티스트 영성의 원천

한 교단이나 교회, 아니 개인이라고 쳐도, 그 영성을 무엇으로 평가할 것인가는 다양한 의견이 존재할 것이다. 영성이 신학적인 사유의 결과인가 아니면 삶의 증거인가? 아나뱃티즘은 아우구스티누스부터 그 맥락을 같이 하고 있는 루터식 신학적 재정립의 결과가 아니다. 초기 아나뱃티스트들은 물론 루터와 같이 기존 가톨릭 교회의 교리와 통치 논리에 대한 개혁의 필요성은 공감했으나 루터식 이신칭의나 이신득의의 신학적 관점을 다시 세우고 설파하는데 노력하지 않았고 이런 관점을 그다지 높게 평가하지도 않았다(현재도 그렇다).

초기 아나뱃티즘이 알려지고 확대되면서 기존 교회(국가교회)의 지도자들/신학자들과 많은 논쟁이 있었지만 아나뱃티스트들의 신학적인 설득력은 늘 기존 교회, 기존 신학자들의 논리처럼 정교하지 않았다. 당장 (재)세례라는 것만 봐도 그렇다. 루터나 칼빈 그리고 그들의 후손들은 여전히 이것을 인정하고 신학적으로도 문제가 없다고 본다. ‘하나님의 신학’을 크게 보는 것이다. 이들의 관점이라면 아나뱃티즘적인 재세례의 개념은 더 편협하고 인본주의적이다.

초기 아나뱃티스트들의 관점은, 신학적인 논쟁에서 우위를 차지하는 게 아니라 그래서 신학적인 완전성으로 호소하는 게 아니라, 오직 예수와 예수의 말씀 그리고 그 예수를 따르는 고난에의 동참, 즉 ‘예수 따름(Nachfolge)’에 더 비중이 많았다. 이들의 믿음은 십자가의 예수를 본받아(고난의 예수) 오직 삶으로만 증거(고난과 순교)되어야 하기에 ‘오직 성경으로’ 돌아가자고 외친 루터의 추종자들과는 질적으로 대비됐다. 그들의 삶의 변화와 그 증거의 효력은 대단해 같은 편이든 반대 편이든 목격자들을 놀라게 했다.

“재세례신자들이 급속히 늘어나고 있는 것을 볼 때 그들의 가르침이 곧 이 나라를 뒤덮을 것 같다. 그들은 아주 빠르게 많은 사람들의 마음을 사로잡았고, 하나님을 향한 열정에 가득 찬 수 천명의 사람들에게 (재)세례를 주었다. 이들

은 아주 신실한 사람들이다……비록 이런 두려움이 정당화될 수 없는 것임을 알고 있지만, 그들의 숫자는 너무나 빠르게 일어나고 있고, 온 세상은 그들에 의해 동요가 일어날까봐 두려워하고 있다.”

이 말은 아나뱃티스트들의 자평이 아니다. 도리어 그 반대편에 섰던 취리히의 제바스티안 프랑크의 말이다. 당시 쾰른을 계승자 하인리히 불링거 역시 사람들이 아나뱃티스트들의 성인과 같은 삶에 매혹되어 전도되는 것을 가장 경계했다. 물론 그것에 대한 그의 대응은 무자비한 폭력의 사용이었다.

반면 교리적 완전성(오직 믿음, 오직 성경, 오직 예수 등 ‘오직’ 신학—여기에 ‘오직 삶’은 없다.)에 무게를 둔 쾰른이나 루터의 종교개혁은 말은 거창했지만 실제 사람들의 삶을 바꾸는 데에는 큰 도움이 안되었다. 실제 루터는 참된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원하는 사람은 사랑의 행위가 뒤 따라야한다고도 말했다. 그는 어찌 보면 대단히 균형 잡힌 신학자였다. 문제는 그의 말대로 사람들의 행위가 안 바뀌었다는 게 문제다. 루터는 스스로 이런 고백까지 하게 한다. “그리스도인의 이름 하에 거의 불신자에 가까운 생활을 하고 있는 현재의 우리는 아직도 제대로 된 그리스도인 모임을 조직하지 못했다.”(해럴드 벤더의 『재세례 신앙의 비전』 중)

결국 쾰른과 루터는 제도 교회에서 신약중심적 교회로 나아가지 못하고 기존의 체제를 인정함으로 다수 중심의 국가 교회를 지향하게 된다. 이후 500년이 지났지만 이들의 교리/전례 중심의 신앙이 예수 중심의 제자도로 그 포커스가 전향되었다는 소식은 아직까지 들리지 않는다(과연 이들은 전통주의자들인가?). 루터 역시 자신의 말년에 의식장애까지 겪으며 낙담과 실망에 찬 인생을 살았다는 것은 그가 시작한 종교개혁의 참 의미를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된다. 그의 개혁은 누구를 위한 것인가?

따라서 아나뱃티즘의 영성에 대해서 알려면, 아나뱃티스트들의 이런 급진적인 삶의 다양한 면을 재조명해 볼 필요가 있고 이들이 만들어 나가는, 하나님과 세상과 인간과의 관계를 면밀히 살펴볼 필요가 있다. 즉 이들에게 영성은 곧 ‘움직이는 관계’로만 해석될 수 있겠다.

그렇다면 아나뱃티스트들의 관계적 영성을 어떻게 알 수 있는가를 고민해 보자. 물론 가장 확실하고 직접적인 것은, 실제 이들을 만나 직접 그들의 이야기와 삶의 증거들을 대비해 보는 것이다. 하지만 이러기는 제한적이다. 내가 보고 겪은 아나뱃티스트 메노나이트들의 숫자와 연도가 상대적으로 일천하기 때문이다. 17년간 메노나이트 교회에 있었다는 것은, 이들의 (원조의) 관점으로는 여전히 ‘신입생’ 정도이고, 나에게 축적된 기억과 체험들도 제한적이고 국소적일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아나뱃티스트들이 지난 500년 어떤 삶의 족적들을, 어떤 삶의 증거들을 보여왔는지 어떻게 알 수 있을까? 물론 답이 없는 것은 아니다.

‘신앙의 고백(Confession of Faith)’의 역사를 통해 살펴보는 아나뱃티스트의 관계적 영성

교인/교회의 삶은 고백으로 확증된다. “사람은 마음으로 믿어서 의에 이르고, 입으로 고백해서 구원에 이르게 된다(롬 10:10)”는 것은 진리다. 삶으로 보여지는 게 우선인지 말에 의한 고백이 우선인지에 대한 신학적 논쟁은 여기서 무의미하다. 아나뱃티스트들 역시 그들이 삶으로 구현하고자 하는 바 또는 구현된 삶을 신앙의 고백의 형태로 남기고 계승해 왔다. 따라서 아나뱃티스트들의 영성의 흐름을 알려면, 이들이 초기부터 현재에 이르기까지 어떤 신앙적 고백을 만들고 나눠왔는지 살펴보는 것은 중요하다.

하지만 미리 알아둘 것은, 아나뱃티스트들은 고백이나 신조나 신경의 의존도가 타 교단에 비해 훨씬 적다는 것이다. 분명히 하자면, 이들은 하나의 고백-사도신경-에 올인하는 ‘신조고백교회(Creedal Church)’의 카테고리에 속하지 않는다. 이들은 특정한 상황에서 특정한 그룹을 위해 만들어진 인간들의 고백을 문서화해서(신경神經의 형태로) 보편적으로 나누고 주입하는 행위 자체(교리화)에 거부반응을 보인다. 더 근본적으로 이들은 전통교회에서와 같이 신조나 고백을 성경의 권위와 동일하다고 인정하지도 않는다. 그래서 사도신경을 고백하지 않는다고 이단으로 규정하지도 않는다.

여기에는 여러가지 구체적인 이유가 있을 수 있는데 그중 첫번째는, 신경의 효과성에 대한 의심이다. 아나뱃티스트들은 기존 가톨릭 교회나 주류 종교개혁자들이 이끄는 국가교회의 시스템에서 사도신경이 의무적으로 암송되었지만(그리고 지금까지 여전히), 이런 행위가 신자들의 행위, 삶을 바꾸는 데에는 큰 구실을 하지 못했다고 믿는다. 즉 이진 하나의 교리적 요식행위에 불과하다는 것이다. 즉 신경의 내용을 보더라도, 신자의 믿음의 강화에 목적이 있지 신자의 윤리적인 삶의 변화를 염두에 두지 않는다는 것이다.

둘째는 신경의 교회정치적인 목적이다. 4세기 크리스티안 이후의 국가교회들은 신경의 강화를 통해 교회내 위계를 세웠고 신자와 비신자의 자격을 엄격하게 구분하게 시작했다. 그러면서 더 나아가 비신자에 대한 폭력까지도 허용하게 되는 신학적 발판을 제공하기도 했다. 5세기 아타나시우스에 의해 만들어진 아타나시우스 신경에는 온전하고 오염되지 않는 믿음을 제외하고 조금이라도 의심하는 믿음을 가진 자는 영원히 멸망한다는 내용까지 포함되어 있다. 이 이야기는 이런 의심자/불결자들에 대한 물리적인 처단도 가능하다는 신학적 근거를 간접적으로 제공한다. 그리고 실제로 신경/신조교회들은 아우구스티누스를 기점으로 역사적으로 자신들과 신학적인 기초가 다를 경우 ‘하나님의 이름’으로 죄인들을 처분해 왔다. 아나뱃티스트들에 대한 루터나 칼빈 교회의 폭력은 이미 역사적으로 증명되었다. 이런 역사적인 사실로 말미암아 아나뱃티스트들에게 신조나 신경은 교회의 폭력을 일상화하고 다름에 대한 불관용을 정당화하는 제국주의적이고 권위적이고 압제적인 수단으로 각인되어 왔다. 문제는 종교개혁이 500년이나 지났지만 여전히 루터/칼빈을 따르는 한국 교회는 이 사도신경을 절대화해 이 신경에 대한 완전하고 절대적인 믿음 여부로 참된 신앙과 거짓 신앙을 가리고 있다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셋째는 ‘예수따름’을 신앙의 근본이라고 생각하는 아나뱃티스트들에게 신경은 불완전한 신학적 고백으로 평가된다. 즉 신경에 내용에는 예수의 탄생과 고난과 죽음 외에 그의 공생애에 대한 강조가 일절 없다는 것이다(이 이야기는 예수의 삶의 정수인 산상수훈 역시 추상적인/영적인 영역에 그칠 공

산이 크다는 것을 말한다.) 그래서 오늘날의 아나뱃티스트 메노나이트들은 오리지널 사도신경의 암송이 ‘굳이’ 필요하다고 여길 시 자체적으로 예수의 삶까지 포함한, 자체적으로 개정된 사도신경을 사용한다. 이게 과히 프로테스탄트적(도전적) 아닌가? 신성불가침의 신경조차 손을 댈 수 있다는 것!

그렇다고 해서 아나뱃티스트들이 기존의 신경이나 신조를 짜잡아 무시했다고 보면 안된다. 초기의 아나뱃티스트들은 사도신경을 많이 암송했고 이 내용을 근간으로 신학적 기초, 특히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한 신학을 배우고 세워갔다. 종교개혁 당시 루터의 추종자들이 아나뱃티스트들을 잡아 신문할 때 신경의 믿음 여부를 묻는 경우들이 있었는데 이들 초기 순교자들은 신경의 내용에 대해서 거부하거나 부인하지 않았다. 도리어 루터측 추종자들이 아나뱃티스트들을 잡아 죽일 목적으로 이런 명목을 만들어 뒤집어씌우는 경우들이 있었다. (죽이기 위해서는 무슨 짓은 못하겠는가? 그리고 이런 진실을 은폐하기 위해 고문 시 아나뱃티스트들의 혀까지 뽑는 잔인함을 과시한 것이다.)

하지만 아나뱃티스트들이 믿고 나누고 전승해 온 고백에는 한가지 분명한 차이(그걸 혁신이라고 하자!)가 두드러지는데 그것은 기존의 신경(삼위일체 하나님과 예수의 죽음과 부활) 외에 신자들의 삶에 대한 강조가 포함된다는 점이다. 그러니 아나뱃티스트 혹은 이들의 교회가 굳이 고백교회가 아니라고 해서 이들이 고백의 중요성조차 소홀히 한다고 보면 대단한 오해다. 이들만큼 시대와 장소와 경우에 따라 다양한 고백서를 나눠온 교회가 있으면 나와보라고 해라! 따라서 아나뱃티스트들은 화석화되고 고대의 신경을 더 포괄적이고 유연하게 그리고 더 현실에 맞게 발전시킨 자들로 보는게 합당한 평가일 것이다.

굳이 고백(confession)을 신조(creed)와 간략히 비교해 보자면, 고백은 더 포괄적이고(내용도 더 길다는 말이다), 지역적이고, 적용에 있어 유연하다. 즉 이 고백을 믿고 믿지 않는다는 여부로 성도를 교회 밖으로 몰아내고 이단의 죄명을 씌워 차단까지 하는 폭력은 결코 있을 수 없다. 폭력에 정당성을 주기 위한 도구가 아니라는 것이다. 1527년 스위스 솔라이트하임의 고백에서부터 시작해서 1995년 <메노나이트 관점에서의 신앙의 고백>이 나오기까지 아나뱃티스

트들은 다양한 환경에서, 다양한 목적을 위해, 다양한 아나뱃티스트 그룹들에 의해서 고백서를 만들고 나눠왔다.

아나뱃티스트 신앙 고백의 역사는 1527년 스위스 솔라이트하임이라는 동네에서부터 시작한다. 이곳에 초기 스위스 아나뱃티스트 그룹들이 모여 가톨릭 도미니칸 수도사였던 마이클 새틀러의 손을 빌려 고백서를 작성한다(그는 곧 처참하게 처형된다). 이 고백서에는 7개 항목이 포함되어 있다. 1) (재)세례/자발적 세례, 2) 출교(ban: 상호책임성), 3) 주의 만찬(재세례된 자만의 나눔), 4) 세상으로부터의 분리(순결주의), 5) 교회의 목자(목사의 권위), 6) 칼(비폭력성과 직업의 제한), 7) 맹세(세상 권력에 대한 불복종과 진리 수호)에 대한 선포. 내용은 대부분 신자의 윤리적인 삶을 다룬다. 후에 추론하기는, 당시 기존 교회와 시의 숨가쁜 압박과 처형의 위협 가운데 이 고백서가 쓰여졌기 때문에 사도 신경의 내용에서와 같이 보편적인 신학의 근간 부분은 의도적으로 누락했다고 보았다. 이 솔라이트하임 고백서가 등장한 이후 유럽의 여러 지역에서 각각의 특수한 상황을 감안한 다양하고 더욱 더 정교해진 고백서들이 등장한다.

초기 아나뱃티스트 리더 가운데 가장 신학적인 배경이 탁월한 자는 발트하저 후브마이어이다. 그는 스위스/오스트리아를 거쳐 특히 모라비아 지역을 중심으로 주로 활동했는데 그는 신자의 삶과 초신자의 교리문답에 관한 많은 소고와 사도신경의 전통에 의거한 자신의 신앙 고백서를 남기기도 했다. 그가 죽고(1528) 약 15년이 지난 뒤 본래 제화공이었다가 모라비아의 후터라이트 지도자가 된 피터 리더만이 감옥에서 쓴 후터라이트 신앙 고백서는 오늘에 이르기까지 약 500년에 걸쳐 후터라이트 공동체(그리고 후에 만들어진 부르더호프 포함)의 신앙적 유산으로 자리매김을 된다.

기독교 신앙의 12개 신조부터 시작하는 이 고백서는 아주 구체적으로 하다 못해 신자의 옷차림까지 포함해 모든 것을 나누는 공동체 안에서의 신자의 행동과 삶의 자세까지 자세히 기술하고 있다. 이 모든 고백의 내용들은 철저히 성경에 근거를 두고 있지만(총 2부로 되어있는 이 고백서 중 1부에만 최소한 1432번의 성서적 언급과 암시가 있다.) 성경의 문자적인 의미와 적용을 경계한

다. 피터 리더만은 다른 아나뱃티스트 리더, 한스 텅크나 필그람 말팩과 같이 성경의 문자적 의미는 경직되고 기계적인 방식이 아니라 성령을 통해서 해석되어야 한다고 믿었다. 무엇보다 이 고백서는 기존의 신경과 같이, 개인주의적 혹은 국가주의적 믿음의 확인과 강화에 목적을 둔 게 아니라 성령 중심의 공동체적 삶으로 나아가기 위한 지침의 역할을 한다. 이 중 ‘성도의 공동체’ 항목의 일부를 소개해 본다.

“사귀를 갖는다는 것은 이러한 교제에 참여하는 사람들이 모든 것을 함께 공유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어느 누구도 자신을 위해서는 아무것도 소유하지 않으며, 각 사람이 다른 사람과 모든 것을 함께 나눕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아버지께서는 자신을 위해서 아무것도 갖지 않으시며, 그가 가진 모든 것을 아들과 함께 나누십니다. 그리고 아들 또한 자신을 위하여 아무것도 갖지 않고, 그가 가진 모든 것을 아버지와 그리고 그와 함께 교제하는 모든 자들과 나누십니다.”(피터 리더만의 『후터라이트 신앙고백서』 가운데서)

리더만에게 공동체의 삶이란, 세상의 어느 그럴싸한 집단의 삶을 본받는 게 아니라 삼위일체의 하나님의 모형을 발견하는 통로로 인식된다. 그에게는 모든 것을 함께 나누는 삼위일체의 하나님과 공동체의 삶은 동일체가 된다.

아나뱃티스트 메노나이트들의 신앙 고백서의 역사

현대 북미의 아나뱃티스트 메노나이트 영성에 가장 영향을 많이 끼친 역사적인 고백서로는 1625년 네덜란드 메노나이트 리더인 아드리안 코벨리우스에 의해 쓰여지고 1632년에 채택된 네덜란드 메노나이트들을 위한 도르트레히트 고백서가 있다. 스위스에서 최초 슐라이트하임 고백서가 나오고 약 백 년 후에 네덜란드에서 등장한 이 고백서에는 위 슐라이트하임 고백서를 근간으로 새로운 교리와 실질적인 지침들이 더 보강되었다. 하지만 과거의 고백서에 비해 눈에 띄는 변화는 후터라이트 고백서와 마찬가지로 신학적으로 더욱 더 정교해졌고 고백서의 권위도 한층 강화됐다는 점이다. 신학적인 골자로는 우주의 창조주로서의 하나님, 인간의 타락, 회복과 화해의 예수, 신약의 법, 회개의 중요

성, 세족식, 세속 권위의 인정, 죄 지은 자와의 분리, 죽은 자의 부활 등이 포함된다.

이 도르트레히트 고백서의 정신을 계승해 그로부터 약 100년이 지난 후 1766년 또 다른 고백서가 나오는데 이는 네덜란드 메노나이트 교회의 목사인 코넬리우스 리스가 썼다고 해서 리스(Ris) 고백서라고 불린다. 이 고백서는 앞선 도르트레히트 고백서(길이 총 5000자)보다 더욱 길고 정교해져 약 17,000자가 사용된다. 내용 중 더욱 더 본래의 아나뱃티스트 정신으로의 복귀 경향이 돋보이는데 그것은 그동안 말도 많았던 (국가에 대한) 맹세나 서약에 관해 중지부를 찍었다는 것이다. “모든 경우의 맹세나 서약 그리고 군 복부를 금한다.” 그런데 과연 정부가 이런 일개 소수의 교단의 과격한 주장을 받아들일까?

18세기 초 들어 유럽의 아나뱃티스트들은 본격적으로 자신들의 신앙적 고백을 실행하기 용이한, 소속된 정부의 관용이 자신들의 언어와 문화와 종교적 분리/자유성을 인정해주는 미국의 펜실베이니아와 버지니아로 이주하기 시작하면서 고백서의 중심 무대도 자연스럽게 북미로 옮겨진다. 그리고는 20세기 초가 되어서야 전통적인 메노나이트들(Old Mennonites) 그룹에서 과거 보수적인 도르트레히트 고백을 다시 재현해낸 ‘크리스찬의 기초들’이란 고백서가 나온다(1921). 재미있는 것은, 이 안에 신자들의 비밀서약이라든지 아니면 생명보험 같은 것도 들면 안된다고 나온다는 것이다. 세속과의 분리 성향은 여전히 강하다고 볼 수 있다.

이로부터 약 40년이 지난 1963년 지난 과거의 고백서들을 모두 아우르는 신학적으로도 구성이 아주 단단한 고백서가 등장한다. 이 고백서의 작성자는 이보다 약 20년 전에 나온 메노나이트 신학자 해롤드 S. 벤더가 쓴 아나뱃티즘에 관한 한 근세의 고전이 된 <재세례신앙의 비전>에 영향받은 그의 동료 J.C. 웨어이다. 하지만 여전히 그는 전통적이고 보수적인 메노나이트에서 벗어나지 못했다. 고백서의 내용 중에는 세족식, 거룩한 입맞춤(벧전 5:14), 안수, 술 담배의 금지, 결혼과 여성의 베일 착용 등이 포함되었다. 하지만 모든 내용이 다 전통적이지만은 않았다. 신자의 정부나 사회 참여의 면은 많이 진보되어 폭력이

수반되지 않는 직업이라면 허용된다고도 밝힌다. 하지만 고백서 안의 여성의 베일 착용의 문제는 곧 메노나이트들 사이에서 논란의 대상이 되었고 이 고백서의 활용도 역시 급속하게 줄어들기 시작했다.

이 이후 1995년에 미국과 캐나다의 메노나이트 교회 총회에서 채택된 ‘메노나이트 관점에서의 신앙의 고백’이 가장 최근의 고백서이고, 현재까지 사용되고 있다. 지금까지의 고백서와 가장 다른 점은, 고백서의 제목에 ‘메노나이트의 관점에서’라는 표현을 삽입한 것인데 이는 앞으로 메노나이트 교회는 하나의 교단으로서 타 교회와 일치를 지지한다는 의미를 내포한다. 메노나이트 외의 다른 관점도 존재한다, 수용한다는 것을 간접적으로 표현인 것이다. 이는 신학적으로도 큰 진보다. 드디어 교단간/종교간 대화의 문이 열리게 된 것이다. 그리고 2021년 오늘 메노나이트 교회에 들어오는 모든 신자/목사들은 이 고백서를 근간으로 신입 교리문답을 하도록 권장되고 있다. 이 안에 있는 총 24개의 조항들은 교회와 삶의 유익한 가르침과 양육을 위한 실질적인 지침으로 쓰이고 있다.

지역과 시대에 따른 이런 고백서들의 등장은 각 그룹의 신앙적인 고백이 주목적이거나 각 그룹 안에서 분리와 분파를 막기 위한 실용적인 목적으로도 쓰여졌다. 그러면서 최초 슬라이트하임의 고백서의 내용에서 일부가 첨부되기도 하고 수정되기도 했다. 특히 출교에 관한 부분은 강제성이 동반되기 때문에 많은 논란의 핵심이 되기도 했으며, 교인/교회의 순결성을 위해 세상과 분리해야 한다, 폭력이 수반되는 혹은 폭력에 노출되는 직업(경찰관 등)은 피한다 등의 보수적인 생각 역시 네덜란드를 중심으로 발달해온 메노나이트들이 사회문화 경제적으로 수직적으로 계층 이동을 하게 됨에 따라 적용의 유무에 대한 찬반 논란이 많았다.

그리고 약 4백년이 지나 21세기 북미의 아나뱃티스트 메노나이트 관점에서 ‘출교/치리/훈육/폭력과 유관한 직업 제한’ 등 보수적이고 강압적인 지침들은 더이상 아나뱃티스트들의 입에서는 다뤄지지 않고 있다. 즉 이런 내용은 사문서화 되었다고 보는 게 맞다. 존 하워드 요더의 말대로, 21세기의 메노나이트

는 16세기 아나뱃티스트가 아닌 것이다. 이들은 더 이상 핍박을 피해 이곳저곳으로 도망하는, 알렌 크라이더의 말대로, 이 세상에 일시적으로 거주하는 외계인 같은 거주민의 신분이 아니다. 많은 메노나이트 교인들은 백인 유럽계 영여권 정착자로서의 안정된 삶을 구가하고 있다.

21세기 아나뱃티스트 메노나이트 영성에 가장 영향을 많이 끼친 고백서/선언은?

(공동의) 고백서라고 할 수는 없지만 근대에 들어서서 그리고 오늘날까지 아나뱃티스트 메노나이트 영성에 가장 영향을 많이 끼친 선언으로는 1944년 21세기의 메노나이트 신학자 해롤드 S. 벤더가 ‘메노나이트 계간지’에 기고한 『재세례신앙의 비전』이다. 급진적인 종교개혁 이후 약 4백년 동안 아나뱃티스트들은 그들의 조상을 닮아 교회를 세우고 이끌어 가는데 신학적인 교육의 필요성에 대해 그다지 강조하지 않았다(그렇다, 이들은 오직 삶이다.). 그렇다는 것은 20세기 들어오기 전까지만 해도 세상에 알려진 아나뱃티스트 신학자들이 거의 전무했다고 보는 게 맞다. 여전히 이들은 지역적이고 분파적인 수준을 넘지 못했다. 이런 환경에서 드디어 스타 학자가 탄생했는데 그가 바로 해롤드 S. 벤더이다. 그는 미국 메노나이트들의 작은 동네 미국 인디애나 엘크하르트 출신으로 고센이라는 메노나이트 성경대학을 나온 뒤 동부의 장로교파 프린스턴 신학교를 거쳐 독일의 튀빙엔과 하이델베르그에서 박사학위를 받으면서 분파적인 아나뱃티스트의 경계를 넘어 소위 정통 신학의 세계로부터 주목을 받기 시작한다(그의 유산을 따라 존 하워드 요터와 알렌 크라이더가 나온다.).

그가 쓴 『재세례신앙의 비전』은 그가 미국 종교사 학회장을 맡고 있을 당시 작성된 것이다 그 효과가 더 컸다. 즉 이 선언문은 아나뱃티스트 메노나이트에 국한하는 것이 아니라 전 미국의 교회에 도전하는 대범한 시도였다. 무비판적으로 루터의 종교개혁과 그의 정신을 받아들여왔던 많은 미국의 신자들에게 그는 주류 신학자들에 의해 잘못 전달된 종교개혁의 문제점들을 지적하고, 편협하게 인식되어 왔던 아나뱃티스트 신앙이 얼마나 복음의 본질에 가까운지

설파한다. 그의 말이다.

“믿음에 강조점을 둔 종교개혁은 훌륭한 것이었지만 그것으로 충분하지 않았다. 그 이유는 생명에 대한 새로움없이 그들이 붙들고 있는 믿음은 위선에 불과하기 때문이다. 종교개혁에 대한 재세례신자들의 이러한 비판은 신랄했지만 부당한 것은 아니었다. 루터와 츠빙글리가 추구했던 원래의 목표가 만인을 위한 ‘진정한 기독교’를 되찾고자 한 것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실제 결과는 너무 달랐다. 이는 개신교인으로서 그리스도의 삶의 수준이 그전의 가톨릭 시대보다 못했기 때문이다.” —『재세례신앙의 비전』 중에서.

그가 말한 신앙의 본질은 간단히 세가지로 설명된다. 예수의 삶을 따르는 제자도와 자발적인 교회공동체와 무저항과 성경적 평화주의다.

그의 마지막 말이다.

“이 재세례신앙의 비전이 인간 사회를 재조직하기 위한 구체적인 청사진은 아니지만, 예수께서 의도하셨던 하나님 나라가 지금 여기 이 땅 위에서 건설되어야만 하는 것이며 이것이 아나뱃티스트 형제들이 믿고 시행하고자 의도하던 것이기도 했다. 어떤 사람들은 예수께서 말씀하신 산상수훈이나 여러 곳에서 제시하신 예수의 비전을 두고 하늘에서나 실현될 비전이라고 말하지만 재세례신자들로서 우리는 그들이 말하는 바를 믿지 않는다. 이 비전은 마지막 끝날 때까지 그리스도의 제자들이 긴장 속에서 지켜야 할 비전으로 우리는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그가 친히 걸으셨던 발자취를 따라갈 수 있다고 믿으며, 그리스도께서 가르치신 바를 실행해 나가야 할 것이다.”

벤더의 비전은 지금으로부터 약 5백년전 독일 뮌스터에서 멜키오르 호프만이 꾸었던 극단적이고 비평화적이고 종말론적인 환상하고는 다르다. 계시록적인 종말론을 현실로 가져온다는 점에서 이 둘은 같지만(here and now), 그 실행의 방법은 정반대다. 멜키오르는 당시의 불안정한 환경을 폭력으로 극복하려 했지만 벤더는 오히려 긴장을 안고서라도 예수의 길—비폭력과 비저항—을

따라가야 한다고 말한다. 그에게는 예수님의 산상수훈이 하나의 추상적인 가르침으로 그치지 않고 지상에서의,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거룩하고 구체적인 지침이 된다. 이런 벤더의 비전은 현실이 되어 수많은 메노나이트들의 삶을 변화시켰다.

이 선언이 나오고 64년만인 2008년 벤더의 제자인 미국의 파머 베커는 벤더의 『세례신앙의 비전』을 21세기적으로 표현한 『아나뱃티스트 크리스천』이라는 소책자를 발간한다. 그는 제목에서 메노나이트란 말을 크리스천으로 대체함으로 메노나이트 신앙의 대중화에 기여하게 된다. 벤더의 세가지 신앙의 본질을 베커는 ‘중심(center)’이라는 말로 부연해 다시 설명한다. 첫째, 예수는 우리 신앙의 중심이다. 둘째, 공동체는 우리 생활의 중심이다. 셋째, 화해는 우리 사역의 중심이다.

가장 최근 2017년에 그는 〈아나뱃티스트의 본질들: 유일한 크리스천의 믿음의 열 가지 증거들〉이란 책으로 이전의 세가지 본질에서 좀 더 부연된 차원에서 메노나이트 신앙의 본질을 설명한다. 그가 말하는 열 가지 신앙의 본질은 다음과 같이 정리된다. 1. 크리스천은 제자도다. 2. 말씀은 예수를 통해서 해석된다. 3. 예수는 주님이시다. 4. 용서는 공동체의 핵심이다. 5. 하나님의 뜻은 공동체 안에서 분별된다. 6. 공동체의 일원(신자)은 서로에 대한 책임이 있다. 7. 신자들은 하나님과 화해한다. 8. 신자들은 서로서로 화해한다. 9. 세상의 갈등들은 화해되어야 한다. 10. 성령의 사역은 크리스천의 삶에 있어 근본적이다.

현재 베커는 동시대 아나뱃티스트 제자도/영성에 관한 한 가장 존경받는 학자이자 목회자이자 선교사이자 처치 플랜티이자 저자다. 그는 아시아, 아프리카, 중동 및 남아메리카의 15개 이상의 국가에서 미국의 메노나이트 미션 에이전시인 미국의 미션네트워크와 캐나다의 위트니스와 함께 아나뱃티스트의 정체성에 관한 강의를 해 왔다. 북미의 메노나이트 교회 안에서는 『새로운 시작자 *Begin Anew*』은 총 16 세션으로 이루어진 제자도 훈련 프로그램을 소개하고 있다. 현재 한국의 메노나이트 선교사인 김복기 형제의 멘토가 이분이라는 것이 새삼 새롭고 희망적이다. 역사는 흐르고 있으니….

지금까지는 역사적인 아나뱃티스트의 개략적인 역사와 그들의 영성에 영향을 주었던 고백/선언의 긴 역사를 간략히 살펴봤다. 지금까지 이 글을 읽어온 독자의 인상이, 아마 어느 열정적인 아나뱃티스트의 자기네 믿음에 대한 프로파간다 수준과 크게 다르지 않다고 할까봐 우려가 된다. 이제부터는 나의 주관적인, 유색인종이자 유전적이 아니라 자발적으로 메노나이트가 된 한국인의 관점으로 다시 한번 아나뱃티스트의 영성을 간추려 보려한다. 아마 보수적인 벤더나 좀더 전향적인 하지만 역사적인 아나뱃티스트와 그 결을 같이 하는(그러기를 바라는) 베커와는(유럽계 백인) 좀 더 다른 관점을 나눌 수 있지 않나 기대해본다.

비전통 자발적 소수 한국인 메노나이트가 본 21세기 아나뱃티스트 메노나이트의 영성의 본질

21세기전만해도 북미의 메노나이트 교회 안에서 인종간의 차이는 크게 부각되지 않았다. 그저 전통적인 메노나이트와 나와 같은 후천적인 메노나이트 정도의 차이만 부각될 정도였다. 그리고 나와 같은 별종의 신종 메노나이트들 숫자가 워낙 미미해 늘 주류 백인 메노나이트들에 의해 환대받고 보호받는 수준이라, 인종간의 문제가 불거질 하등의 이유가 없었다(주인과 손님의 관계). 이 말은, 메노나이트들의 다인종/다문화에 관한 인식도 그다지 예민하지 않다는 말이다.

하지만 이 글을 쓰고 있는 2021년 9월 시점에서 전통적이고 보수적이고 백인 주류의 북미 메노나이트 교회는 많은 변화를 겪고 있다. 백인 일색의 교회가 대단히 문화적으로 다양한 복합문화적인 교회로 바뀌고 있기 때문이다. 전세계적으로도 북미의 유럽백인계 메노나이트들의 숫자는 지구의 남쪽 신종 메노나이트들에 의해 추월 당한지 오래다. 아프리카 이디오피아 한나라 메노나이트 숫자가 북미 전체의 메노나이트들 숫자(60만 수준)와 맞먹거나 이미 추월한 것으로 예상된다. 이디오피아에는 2017년 기준으로 세례자만 31만명이 넘고 전체 메노나이트 교회수가 천개가 넘었다. 교회성장율이 매년 4.5% 이상이

다. 이디오피아는 20세기말 약 17년의 공산정권의 체제 안에서 기독교는 지독하게 탄압되었다. 이런 핍박 가운데 메노나이트 교회들이 살아남음으로서(지교회) 오늘날과 같은 신자의 폭발적인 증가 현상을 가져오게 됐다. 이런 세계의 아나뱃티스트 메노나이트 세상의 지형이 바뀌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북미의 메노나이트들이 장자권을 행사하고 있다는 것은 아이러니다.(파워의 문제는 늘 돈의 문제와 연관되지 않던가?)

이러한 상황에서 나와 같은 한국계 메노나이트의 등장과 도전의 목소리는 때로 기존의 메노나이트들의 심기를 불편하게 만들기도 한다. ‘어, 우리 전통적인 메노나이트에 대해서 뭐라고 하는 유색인종이 생기네?’ 현재 미국과 캐나다에는 “이문화/다문화 교회로 나아가기 위한 조정 위원회”까지 만들어지고 나는 그 중 일원으로 활동하면서 기존의 주류라 생각하고 있는 메노나이트들의 관점에 대해서 각성을 촉구하고 있다. “너희의 백인주의, 순수혈통주의(메노나이트는 성만 보면 누가누군지 안다.)가 문제야!”

이런 포스트모던적인 논쟁의 과정에서 16세기 아나뱃티스트 역사나 영성을 불러오는 일은 결코 일어나지 않는다. 다시 존 하워드 요더의 말로 돌아가서, 21세기의 메노나이트는 16세기 아나뱃티스트들이 아니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이들이 붙들고 있는 아나뱃티스트적인 영성의 고갱이는 뭘까? 이들은 과거 500년 아나뱃티스트 선조들의 정신을 이어받아 지속성장이 가능한 교회일까? 북미의 메노나이트 교회는 쇠퇴하고 있지 않은가? (문제는 이런 교회 쇠락의 과정조차 너무 편안하게 받아들이고 있다는 것이다—이게 그들의 비저항적 신앙과도 연결이 되는가?)

다시 한번 동시대의 아나뱃티스트 작가가 인정하는 스투어트 머레이의 『이것이 아나뱃티스트이다』와 파머 베커의 〈아나뱃티스트의 본질들〉 가운데 공통분모만 간추려 오늘의 관점으로 비평해 보고자 한다. 21세기 아나뱃티스트의 영성을 가장 쉽게 설명해 줄 수 공통분모 세가지는, 예수 중심성과 회중성과 평화지향성이다.

예수 중심성부터 시작해보자.

2004년 한국의 교회를 떠나 캐나다 메노나이트 교회로 적을 옮긴 이후로 성경을 읽고, 세상 일을 판단하고, 나의 삶을 살아가는 관점이 바뀐 게 있다면 그것은 예수와 그의 말씀에 대해서 다시 생각하게 되었다는 것이다. 소위 아나뱃티스트의 후손이고 그게 메노나이트라면 최소한 예수가 우리 삶의 중심이라는 것에는 그 어떤 이의도 달 수 없을 것이다. 이런 예수 중심성은 16세기 아나뱃티스트들의 생각과 여전히 동일하다. 16세기 메노 시몬스의 말을 다시 불러내 보자.

“어떤 사람들은 다음과 같이 대답할 것이다. 우리의 믿음은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그의 말씀이 진리이며, 그가 자신의 피와 진리로 우리를 사셨다는데 기초한다. 세례를 받음으로써 우리는 다시 태어나게 되었고 성령을 받았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리스도의 참된 교회이며 그의 회중이다. 이에 대해 아나뱃티스트는 이렇게 답변한다. 만약 당신의 믿음이 당신이 말하는 대로라면 왜 예수께서 그의 말씀 안에서 당신에게 명령하신 대로 행하지 않는가? 당신이 예수가 바라고 명령하시는 대로 살고 있지 않기 때문에, 당신이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한다 할지라도, 당신은 결국 그를 믿지 않는다는 사실만을 드러내는 셈이다.” (윌터 클라센의 『가톨릭도 프로테스탄트도 아닌 아나뱃티즘』 중에서)

그렇다. 아나뱃티스트들에게 예수는 삶의 중심이고 삶의 방향이다. 16세기 남부 독일/오스트리아를 배경으로 활동한 한스 후트의 말은 간명하고 힘이 좋다. “삶으로 예수님을 따르지 않는다면 예수님을 진정으로 모르는 것이다.” 이들은 예수를 믿는 것이 예수를 따르는 것으로 연결되어야만 했다. 이 글의 모두(冒頭)에 소개한 21세기 영국의 신종 아나뱃티스트이자 작가인 스투어트 역시 런던 아나뱃티스트 네트워크의 첫번째 신념으로 예수따름으로 선언하고 다음과 같이 부연했다.

“예수님은 우리의 삶의 모범이요, 선생이요, 친구이자 구원자이며, 그리고 주님이시다. 그는 우리의 생명의 근원이며, 우리의 믿음과 삶의 방식과 참다운

교회 모습과 사회 참여에 대한 기준을 제시하시는 분이시다. 우리는 예수님을 예배의 대상으로 믿을 뿐 아니라, 그분을 따르기로 작정한다.”(스튜어트의 『이것이 아나뱃티스트다』 중에서)

이들이 묘사하는 예수는 믿음의 대상으로 국한되지 않는다. 스튜어트의 말대로라면, 예수는 우리의 사회참여에 대한 기준까지 제시하시는 구체적인 분이시다. 이런 예수 중심의 삶 즉 제자도는 다음의 세 단어로 축약되어 현재 메노나이트 교회에서 회자되고 있다. 우선 (공동체에) 속하고(Belonging), 그 다음 (예수님을) 믿고(Believing), 마지막으로 (예수님을 따라) 행동하라(Behaving)!

아나뱃티스트들의 이처럼 급진적인 예수 중심성은 단지 신자들의 삶에만 강조되고 적용되는 것이 아니다. 파머 베키가 『아나뱃티스트 크리스천』에서부터 지속적으로 강조해 온 것은, 예수 중심이라는 것은 예수를 믿고 따르는 것뿐만 아니라 성경을 읽고 해석할 때도 마찬가지로 예수님을, 예수님의 말씀을 중심/권위로 삼아야 한다는 것이다. 이 말은 대단히 동시대적으로도 중요하다. 우리는 여전히 성경의 해석의 문제로 싸우고 있다. 시대가 다양해지고 다원화해지면서 성경이 쓰여진 시대에는 다뤄지지 않았던 많은 문제들이 부각됐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여성의 리더십의 문제가 뜨거웠고, 최근에는 동성애 문제가 온 세상의 교회를 들끓다 놓았다.

아나뱃티스트 전통이 우리에게 알려준 성경해석의 본질은, 예수 중심으로 해석하라는 것이고 반드시 교회공동체와 함께 해석하라는 것이다. 그러면 이런 질문이 가능할 것이다. “예수님이 말씀하지 않은 것은 그렇다면 어떻게 받아들여야 하는가?” 물론 이런 태도는 대단히 문자적이다. 성경에 쓰여있고 없다가 그렇게 중요하다는 말인가? 성경은 그렇다면 만병통치, 백과사전인가? 아나뱃티스트들은 이런 문제—성경이 답을 안해 줄 때—한결같이 사용하는 말이 있다. “여지(space)를 남기세요.” 물론 여지, 공간이 있어야 우리의 사고가 더 유연하고 느긋해 질 것이고 그래야 성령이 활동하시기에 수월할 것이다. 잔은 비워야 물이 채워지는 것처럼!

하지만 21세기 메노나이트들 역시 문화의 영향인지 이런 여유와 인내는 찾

아보기 힘들어졌다. 예수 중심으로 해석하라는 데 구약의 레위기가 등장하고 바울의 서신서가 등장해 말씀 겨루기를 시작한다. 지난 5백년 혼란된 불복종의 피가 거꾸로 솟아 목소리를 높이고 급기야 교회까지 뛰쳐나가는 신도들이 있다. 나중에 메노나이트 교회에 합류한 유색인종들의 메노나이트 교회는 교단을 나가겠다고 위협하기도 한다. 단지 하나의 이슈로 북미의 메노나이트 교회는 많이 갈라졌다. 이제는 문제만 터지면 쉬쉬하는 분위기다. 이게 올바른(예수를 따르는) 태도인가?

내부적으로는 여전히 크고 작은 문제가 많지만 그럼에도 메노나이트들의 예수 중심적 삶은 이들의 표준이 된다. 교회가 갈라졌다고 교회를 포기하지는 않는다. 그들에게 교회를 떠나라면 글썽, 거의 사형선고와 같은 정도의 무게로 다가올 것이다. 이들에게 교회공동체는 삶 그 자체다. 나의 과거 한국 교회 경험과 비교해 볼 때 이들이 보여주는 불일치와 불협화음은 그래도 짐작은 편이다. 그래도 부패와 폭력은 없으니 말이다.

다시 이들의 예수중심적인 삶으로 돌아가보자. 이런 삶에 또 다른 문제는 없는지?

이런 예수 중심의, 예수 따름의 급진적인 삶에는 원치 않는 피해가 따른다. 예수를 따르는 것과 세상을 따르는 것은 동시에 가능하지 않을 때가 많기 때문이다. 오직 선택의 문제가 매일 하루에도 아마 수백 번씩 우리의 머리를 괴롭히게 된다. 이거야, 저거야? 예수를 따를 것인가 세상에 순종할 것인가?

아나뱃티스트들의 이런 이상적이고 단순한 예수 따름의 삶, 제자도는 때론 대항문화적이고 반순종적이고 불복종의 자세를 견지하게 된다. 세상에 속하고 세상의 문화에 따르는 것이 아니라 세상과 여전히 분리하려 하고 세상이 요구하는 반대로 가려고 한다. 미국 인디애나 엘크하르트에 있는 아나뱃티스트 메노나이트 신학대학원의 채플의 모습 역시 이런 비순종적인 삶을 지향한다는 의미에서 어느 관점으로 봐도 다 다른 건축양식을 구사했다.

16세기부터 유전되어온 이런 예수를 따름으로 생기는 세상과의 분리 현상 즉 대항문화적 삶은 이들이 정착하는데 어려움을 겪게 만들었고(누가 이런 자

들을 쉽게 환영하겠는가?), 더욱 더 이주의 횃수를 늘려가게 했고(나라에서 나라로, 지역에서 지역으로) 그러다 보니 결국 교인 숫자가 늘어나질 않게 되고(누가 이런 삶을 쉽게 받아들일겠는가?), 따라서 소수의 종교집단으로 남게 되고, 윤리적으로는 더욱 까다로워져 하다못해 여느 복음주의자하고도 말을 섞지 못할 정도로 까탈스러운 평화와 정의의 사도들이 되었다. 이걸 축복인가 저주인가?

물론 이걸 일반론이다. 가끔 북미의 아나뱃티스트 메노나이트들을 놀라게 하는 사건들이 터지곤 하는데 가장 최근의 일로는 미국의 메노나이트 중에서 트럼프 지지자가 꽤 있다는 것이다. 미국의 진보적인 크리스천 미디어 소저너스(Sojourners)는 공공연히 밝혔다. “트럼프는 제거되어야 한다!”. “그를 따르면서 예수를 따른다는 것은 병행될 수 없다!” 그렇다. 예수를 죽기까지 따르면서 트럼프를 지지한다는 것은 논리가 맞지 않는다. 마찬가지로, 한국 메노나이트 중에서 박근혜의 태극기 부대가 없다고 말할 수는 없을 것이다. 이런 예수 중심의 삶과 도저히 연결이 되지 않는 일들이 메노나이트 교회에서도 빈번히 일어나고 있는 것이다.

일전에 밴쿠버의 어느 메노나이트 교회에서 성인들을 위한 주일학교를 진행한 적이 있다. 교재로는 카일 아이들만의 『팬인가 제자인가』를 골랐다. 아이들만 역시 대표적인 복음주의 진영의 목사이자 작가로 아나뱃티스트 영향을 많이 받았다. 그의 책의 내용은 간결하나 그 본질은 아나뱃티즘과 많이 닮아 있었다. 그는 이런 말을 했다. 요한복음 3:16은 누가복음 14:27과 같이 가야 완전해진다. 그렇다. 예수를 믿음은 자기의 십자가를 지고 결국 예수를 따름으로 완전해진다. 아멘!그러면서 그는 결국 우리가 예수의 팬이 아니라 제자가 되기 위해서는 자신이 가지고 있는 모든 것 조차 버릴 준비가 되어있어야 한다고 했다. 이 말을 하자 그 교회의 핵심멤버라고 말할 수 있는 전통 메노나이트 백인이 이렇게 대꾸를 했다. “자기 같으면 죽어도 그렇게 못한다고! 다 내려놓지는 못하겠다고!” 이걸 솔직하다고 해야할지 아니면 메노나이트 교회도 타락했다고 해야할지 막연해 했던 기억이 난다.

예수의 영성은 두말할 나위 없이 ‘건너편’ 영성이다. 복음서에 자주 등장하는 그는 자주 배를 타고 ‘건너편’으로 가셨다. 21세기 북미의 아나뱃티스트이자 평화운동가이자 신학자인 체드 마이어는 이 ‘건너편’ 영성을 그의 전문분야인 ‘마가복음’을 가르치면서 많이 강조한다. 그를 닮아 우리도 낯선 곳으로, 주변 부가 아니라 가장자리로 건너가야 한다고. 그렇다. 이게 예수 복음의 본질이다. 더 낮고 더 축고 더 피곤하고 더 필요로 하고 덜 익숙한 곳으로 나아가는 것. 이게 급진적인 믿음 아닌가?

물론 이러려면, 체드 마이어의 말대로 거주자, 정착자적 삶/영성에서 벗어나야 한다. 예수의 제자들처럼, 그나마 가진 것조차 다 내려놓고, 급진적으로 따라갈 수 있는 자기포기와 무모한 용기만 필요할 뿐이다. 그런데 우리가 과연 그런가? 21세기 백인 영어권 중산층 혹은 기독교인 메노나이트들이 과연 그런가? 이들의 삶이, 여행하기 가벼울 정도(Travel light)로 단순하고 가난한가? 16세기 초기 아나뱃티스트들처럼 뭘 해야만 할 것 같은 타는 목마름을 가지고 있는가? 안타깝게도 내가 오늘 마주하는 있는 21세기 북미의 메노나이트 교회에서 이런 급진성의 정신, 급진적인 믿음을 보기는 많이 어려워졌다는 안타깝지만 솔직한 의견이다. 이들은 이미 너무 정착되었고 그 편안함을 맛보았고 그래서 도전과 고난보다는 안정과 유지가 우선이고 그러다 보니 다른 제도권의 교회와 다를 바 없이 관료화 되었고 여전히 백인남성중심의 리더십과 점잖은 척하는 인종주의자의 모습을 가지고 있다. 그럼에도 더 큰 정신심리학적 문제점은 이들은 여전히 16세기 순교자 콤플렉스에 시달리고 있다는 점이다. 자신들은 피해자라는 의식.

두번째는 이들의 회중성이다. ‘공동체는 우리 삶의 중심이다’가 이들의 한결 같은 고백이다.

아나뱃티스트들의 예수따름 즉 제자도는 개인의 영역에서 성취되는 것이 아니라 회중과 함께 세워진다. 기존의 제도 교회와 가장 대비되는 아나뱃티스트 교회의 차별성은 사제/목회자 중심이고 권위적이고 엘리트/전문가 중심이 아닌

자발적이고 회중 중심적이고 평등한 교회 질서/구조에 있다.

기독교 저자로 한국에서 책을 낼 때 내가 속한 메노나이트 교회에서 늘 사용해오던 회중이란 말을 사용하게 되면 늘 편집자의 수정요구를 받는다. 한국 교회 교인들에게 회중이란 말은 낯설다는 것이다. 교회를 이루는 구성원을 통칭할 때 회중이라는 말 외에 어떤 말이 적절한지 모르겠다. ‘신자들의 모임’이라고 풀어 써야 할지. 한국 교회에서는 왜 회중이라는 말이 생경할까? 교회의 주인은 회중이고 교회의 운영의 주체 역시 회중이라는 게 그렇게 급진적인 표현인가?

사실 그렇다.

신앙의 자발적 선택권과 시민의 자유/자율성이 보장된 21세기에는 가장 평범해 보일 것 같은 이 말은, 4세기 이후 국가교회, 기독교의 국가화가 마치 마태복음 28장의 실현인 것처럼 광고해온 기존의 위계 중심의 교회, 즉 사제중심/신학전문가 중심의 교회에게는 그들의 질서에 반하는 하나의 위협으로 들릴 수 있다. 교회의 운영 주체, 아니 교회의 소유권 자체가 사제/전문가집단에서 일반 회중으로 넘어간다는 것은 마치 교회 자체가 사회주의 체제로 전복되는 것 같은 느낌을 받을 수 있다.

그리고 실제 회중 교회, 회중성의 내용을 보더라도 기존 교회의 시스템과는 판이하게 다르기 때문이다. 뭐가 다른가?

내가 아나뱃티스트 메노나이트 교회에서 경험한 회중 교회의 특징들은 간추리면 다음과 같다. 목사직의 제한적 기능, 아마추어리즘, 공동체적 성경해석 그리고 마지막으로 공동체적 분별 정도.

먼저 회중 교회에서 목사를, 목사의 기능을 어떻게 보는지 살펴보자.

회중교회에서의 목사란, 성경에 충실하게 해석해서, 다른 여러 직분과 같이 (그 위가 아니라) 교회를 구성하고 있는 ‘하나의’ 구성요소이고 기능이다. 즉 가르치는 기능이 그들의 주 임무다. 좀 더 구체적으로 부연해 보겠다.

십 수년도 훨씬 전에 밴쿠버 리젠트 칼리지 입학(제임스 휴스톤과 유진 피터

슨과 J.I.패커와 폴 스티븐스와 고든 피의 정신이 살아 숨쉬는 곳)을 염두에 두고 있을 때 이미 그곳에 재학중인 여러 한국인 학생들을 만나 문의를 한 적이 있다. 왜 M.Div.를 하는가? 왜 크리스천 스터디를 하는가? 한국에서 기자였고 회사원이기도 했던, 사회 경력이 출중했던 그들은 꿈이 컸다. 전공이 뭐든 그들은 비전 있는 목사가 되기를 염두에 두고 공부하고 있었다. 그들은 목사가 되어 자신의 '선한' 영향력을 끼치길 바라고 있었다. 교회와 세상을 위해!

영향력이라는 말은 쉽지만 어렵고도 무서운 말이다. 누가 누구에게 영향을 미친다는 것은 '파워'를 동반하기 때문이다. 그리고 이 파워는 위에서 아래로 흐르는 위계(hierarchy)와 부과성(imposition)과 일방성(unilaterality)과 교차되어 때론 '폭력'으로 둔갑하기도 한다.

하지만 목사가 목회를 하는데 회중을 이끄는 데 '영향력이 없다'는 게 가당키나 한 말인가? 이런 목사는 그렇다면 어떻게 보여질까? 아마 무능력하게 보이지 않을까? 특히 한국 교회 정서에서는. (이들은 늘 카리스마적인 리더, 갑갑한 가슴을 뻥하고 뚫어줄 정도의 과감하고 대범한 리더를 바라지 않던가? 즉 파워풀한 리더!)

만약 영향력을 지향하고 본인 스스로도 영향력 있는 목사가 되기를 바라는 사람이 있다면 내가 속한 메노나이트 교회에는 들어오지 말라고, 말리고 싶다. 메노나이트 교회에서 목사는 영향력을 함부로 구사할 수 없고 그러도록 회중이 허락하지도 않는다. 교회에 정책(policy/polity) 입안이 그렇게 되어 있다.

그러면 목사는 뭘 하는가?

그는 한 명의 회중으로서 주어진 일'만' 하도록 위임된다. 그 일이란 회중을 돌보고 설교하는 것이다(주일 설교는 통상 한 달에 2번 한다-이것도 목사의 영향력을 줄이는 일환이기도 하다.). 하지만 교회의 정책이나 방향에 자신의 생각을 함부로 주입하는 행위 즉 '영향'을 미치면 안된다. 목사의 영향력이 함부로 행사되지 않게 하는 일은 회중의 대표로 구성된 '운영위원회(Council)'에서 담당한다. 그러다 보니 운영위원회와 목사 사이에는 어느 정도의 '긴장감'이 존재한다. 이건 좋은 것이다. (편하면 늘 문제가 터지지 않던가?)

메노나이트 교회 목사는 그러니 본인의 영향력을 시험하거나 본인의 비전을 펼치려고 안간힘을 쓰는 것이 아니라 오직 주어진 일에만 '입 닥치고' 순종하는 인내만을 배운다. 아무리 문제가 많은 교인이라도 누구에게도 누설할 수 없다(입이 무지무지하게 무거워야 한다). 아무리 본인과 친하고 본인에게 잘하려고 하는 교인이라도 어느 직분에 추천하거나 동의하거나 하는 '인사권에 영향력'을 미칠 수 없다. 만약 이러다간 사달이 난다. 목사가 회중의 자율적인 판단에 '영향력을 미쳤다'는 것이다. 영향을 미치다는 말은 영어로 (인플루엔싱 (influencing))이라고 한다. 아주 좋은 말이다. 하지만 자신의 주어진 범위를 벗어나 자신의 생각을 관철시킬 때 이 말은, 하지 말아야 할 '부정의 뜻'으로 해석된다.

그러니 메노나이트 교회는 목사는 '보상받기' 어려운 직업이다. 회중의 감시와 평가가 사뭇 엄중하다. 그리고는 2년에 한 번씩 회중의 재신임 절차를 겪는다. 70% 이상의 찬성. 하지만 본인은 사람들의 환심을 사기 위해 영향력을 미치면 안된다. 오직 본인의 진정성으로만 평가된다.

이런 교회에 과연 '선한' 영향력을 꿈꿔왔던 한국 목사가 들어올 수 있을까? 견뎌낼 수 있을까? 오직 철저히 '종의 신분'만을 담당하기 위해? 그러다가 회중이 가라면 가야만 하는. 이게 목사를 바라보는 회중의 시각이다. 단지 한 명의 형태로, 공동체를 위해 '주어진 범위 안에서(분별의 시각)' 헌신하는 것.

두번째는 회중성이 가진 아마추어리즘에 대해서 살펴보자. 아마 많은 한국 교회의 독자들은 아마추어리즘과 교회가 무슨 상관이 있나 의아해 할 것이다. 스포츠 세계에서만 쓰일 것 같은 이 말은 어찌 보면 아나뱃티스트의 정신을 가장 잘 설명해주는 말이기도 하다. 아나뱃티즘은 루터나 쾰링글리 같은 신학 전문가들의 향연이 아니었다. 초기 쾰링글리의 제자였던 콘라드 그라벨이나 펠릭스 만츠 정도를 제외하고(이들은 단명했다) 초기 아나뱃티스트 운동의 중심에는 신학 전문가들이 많이 포진해 있지 않았다. 이전에 간략히 언급했던 후브마이어 외에 대부분은 신학적인 배경이 두드러지지 않았다. 도리어 대부분의 리더들은 성령의존도가 컸고 그런 의미에서 신학적인 전문성은 리더의 첫째

자격이 못되었다.

이후 17세기 들어 아나뱃티스트들이 정착하고 교회의 형태를 이뤄감에 따라 오늘날과 같은 전문적인 목사직의 필요성이 대두되었다. 그렇다 하더라도 신학 지식의 유무가 첫번째 자격조건은 못되었다. 회중 안에서 삶으로 증명된 자를 선출하는 게 관례였다. 그리고 목사직 자체도 봉사직으로 했다. 즉 자신의 직업을 수행하면서 하나님에 대한 부르심, 공동체로의 부르심의 차원에서 목사직을 병행하는 것이다. 그러다 보니 한 목사가 오래 교회 일을 하기 어려워 어느 정도하면 또 다른 회중에서 선출하게 되는 절차를 밟았다. 현재와 같은 직업으로서의 목사직은 근대의 산물, 산업화에 따른 적응이라고 봐야 한다.

21세기가 되어 모든 게 전문화되고, 목회자의 학력 수준이 청빙의 우선 기준이 된 오늘날에도 메노나이트 교회는 아랑곳하지 않고 ‘어느 정도의’ 신학 수준만 요구한다. 굳이 신학대학원에서 M.Div.를 하지 않아도 된다. 성경 대학 정도의 학력이면 오케이다. 이렇기는, 앞에서 말했지만, 목사의 신학이, 목사의 비전이 교회를 좌지우지 못하도록 한 회중의 질서가 이미 견고하기 때문이다. 교회의 모든 기능은 자원자로 이뤄진 회중의 각종 위원회에 의해서 유지된다. 내가 속한 예배위원회에서는 예배의 기획과 진행과 평가를 다 주관한다. 이 위원회의 일원이 목사이기는 하나 그의 기능은 설교에 대한 기획을 할 뿐이다. 이 위원회 위원에 자격이 있을까? 없다. 어리든 늙든 배웠든 성소수자든 손들면 환영한다. 이런 자들이 모여 회의하고 교회의 예배를 정의하고(define) 집행한다(perform). 나와 같이 신학 배경이 있는 사람이 보기에는 대단히(신학적으로) 영성하고 즉흥적일 때도 있다. 그럼에도 예배는 굴러가고 회중은 크게 개의치 않는 분위기다. 예배 시 내가 늘 앉는 교회 2층 발코니에는 주로 ‘교회에 갖들어와 주목되기를 회피하는 유색인종이나 불만이 가득한 20대나 성소수자나 아이들이 많아 시끄러운 젊은 부부들이 앉는다. 어느 20대 백인 여성이 새로 참가하기 시작해 인사를 나눴다. 그는 늘 혼자 와 이곳에 앉아 예배를 드렸고 예배가 끝나면 조용히 교회를 떠났다. 그가 교회를 나오는 이유에 대해서 물었다. ‘예배가 기성교회 같지 않아서요.’ 뭘 말인가? “다른 교회처럼 인위적이지 않

아서 좋아요.” 아, 이럴 수도 있구나! 아마추어들이 기획하고 실행해 나가는 이런 회중 교회의 예배의 영성함(다른 말로는 자연스러움이라고 하자)이 좋아서 오는 자매도 있구나!

회중교회의 아마추어리즘은 예배에만 국한되지 않고 교회의 운영 전반이 그렇다. 모든 위원회의 문은 모두에게 열려 있다. 더 적극적으로 교회의 운영에 참여하고 싶고 자신의 의견을 반영하고 싶은 사람은 ‘운영위원회’에 손들고 들어 가면 된다. 이런 위원회적/회중적 사고와 집행 그리고 이들의 해 나가는 의사결정의 모든 순간과 기억(이 가운데에는 아픔도 물론 있다)들이 합해져 이들의 공동체적 분별의 전통이 세워졌다. 그러니 이들이 분별의 전통 역시 학문적으로 공부해 배운 것이 아니다. 순전히 초짜들이 몸으로 때워가며 배운 것이다. (한가지 주의할 점은, 그렇다고 북미의 모든 교회가 아마추어들의 경합장은 아니다는 것이다. 교회에 따라, 지역에 따라 교회가 어디에 있느냐에 따라 교인들의 신학적인 수준은 크게 차이가 난다.)

나의 멘토이셨던 103세까지 장수하며 살다 작년에 돌아가신 어빈 코넬슨 역시 독일 목수 출신이었다가 회중에 의해 선택된 목사다. 죽을 때까지 눈에 시력이 남아 있을 때까지 책을 읽으셨지만 그분은 정식으로 신학대학교를 나오지 않으셨다. 도리어 신학한 자들의 이중적인 삶에 대해 탐탁치 않게 여기셨다.

이런 아마추어리즘은 그 자체로 위험할 수도 있다. 배가 산으로 올라갈 수 있기 때문이다. 물론 그래도 이들은 크게 개의치 않을 거라는 것을 안다. 교회가 제정신일 때가 언제 있었던가? 하지만 이런 아마추어리즘의 부족한 면을 잘 알고 있는 메노나이트들은 그래서 성경에 대한 공부나 해석도 공동체 즉 회중과 같이 하기를 권고하고 실제로 그렇게 한다.

공동체적 성경 해석이라는 말이 여기서 나오는 것이다.

아나뱃티스트들은 고래로 성경은 개인적으로 읽고 묵상함과 동시에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공동체와 함께 연구해야 한다고 믿어왔다. 이런 활동은 교회내 자발적으로 만들어진 많은 소그룹을 통해서 이뤄지고 있다. 세대별, 관심사별

로 구분해 소그룹들이 만들어진다. 그리고 한번 만들어진 이런 소그룹들은 이 교회에 소속되어 있는 한, 타지로 이주하지 않는 한, 나이 들어 죽지 않는 한 지속되는 경향이 있다. 메노나이트 교회의 본 모습은 겉으로 드러나는 영성한 예배에 있지 않고 이런 겉으로는 쉽게 드러나지 않는 소그룹 활동에 있다.

메노나이트 교회에 처음 출석하기 시작하기 사람들이 놓치지 쉬운 점이 여 기 있다. 그들의 첫 인상은 대동소이하다. “메노나이트 교회는 사람을 별로 환 영하지 않는 것 같아요. 사람들이 보기만 할 뿐 잘 달려와 인사하지 않아요. 말 수도 적구요…” 맞다. 이들은 여전히 유전적으로 내려오는 수줍음과 특유의 과묵함이 있다(과연 순교자들의 자녀답다!). 아마 최소한 수개월은 참고 다녀 야 인사하거나 집으로 초대하는 사람이 생기지 않을까 싶다. 이들의 환대와 너 그러움 그리고 우애를 알려면 이들이 교회 뒷면에서 만들어가는 소그룹 활동 에 참여해 봐야 한다. 여기에 그들의 삶이 그대로 드러난다. 아마추어적이고, 그러한 만큼 순수하고 단순한.

이런 소그룹 안에서 그들은 성경을 읽고 해석한다. 사안에 따라 전 교회적으로 이런 성경 읽기/해석의 과정이 이뤄지기도 하고 전 교단적으로 확대되기도 한다. 알아둘 것은 이런 공동체적 성경읽기/해석이란 하나의 정답에 도달하는 과정이 아니라는 것이다. 이런 과정을 통해 누가 신학적으로 더 완전한가를 가 리는 것은 무의미하다. 그럴 바에는 아마추어 회중이 모여 다같이 성경을 읽고 해석할 이유가 없다. 이 세상에서 신학적으로 가장 완전한 자, 권위 있는 자를 초빙해 그의 말을 들으면 될 터이다. 메노나이트 교회에서 이런 일은 결코 일어 나지 않는다. 이들이 공동체적 성경읽기/해석에서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것은, 앞에서 언뜻 이야기한 바 있는 ‘해석에 있어 공간이나 여지(space)’를 남기는 것이다. 네 말이 맞니 내 말이 맞니 하고 싸울 필요가 없다는 말이다. 상대방의 해석을 있는 그대로 인정하자는 것이다. 그러면서도 만남을 계속하고 성경에 대한 공부와 해석을 지속해 나가자는 것이다. 이게 공동체라는 것이다. 이질적 인 집단이 예수를 중심으로 만나 사귄다 나눔의 행위를 계속해 가는 것(Diversity in Unity).

이런 가치가 지난 세월 회중 가운데 나눠지고 전승되어 메노나이트 교회의 공동체적 분별의 문화를 세웠다. 메노나이트 교회의 분별은 웨이커의 ‘분별 (Clearness Committee)’과 더불어 공동체적 분별의 가장 좋은 본보기로 알려져 있다.

메노나이트 교회의 공동체적 분별

미국의 웨이커와 <가르칠 수 있는 용기>로 잘 알려진 세계적인 교육사상가인 파커 파머의 인연은 유명하다. 미국 조지타운 대학에서 잘 나가는 사회학과 교수였던 파머가 안식년을 웨이커들이 운영하는 학습 공동체 펜들 힐이라는 곳으로 가면서 인생이 바뀌었다는 이야기다. 그는 다시 대학으로 돌아가지 않았는데 그런 분별의 과정에 웨이커들의 독특한 분별 방법인 ‘명료화위원회’의 도움이 컸다. 이 분별의 과정을 통해 그는 자신이 진정으로 무엇을 찾고 있었는지 성찰하게 되고 그 공동체의 일원으로 남게 된다.

파머에게는 웨이커의 분별이 도움이 되었다면, 장애 신학의 리더였던 루터 교 전통의 마르바 던에게는 메노나이트 교회의 공동체적 분별이 있다. 그녀는, “내게 평등 의식과 공동체 의식을 가장 많이 체험하게 해 주고 분별의 문화에 가장 숙련되었다는 느낌을 준 교파는 메노나이트 교회였다” 고 고백한다. 그녀는 미국 인디애나 노트르담 대학에서 대학원 공부를 하던 시절 그 옛날 자신의 영적 조상 마틴 루터에 의해 핍박 받았던 메노나이트 교회를 알게 되고, 메노나이트의 공동체적 분별을 경험하게 된다. 그녀가 분별하는 목적은 본인이 장애 자로서 이런 장애를 경험하면서 학업을 지속할지 말지에 대해서 결정해야 하는 것이다. 메노나이트 교회와 이런 분별의 과정을 경험하면서 그녀는 학위의 필요성에 대해서 다시 생각하게 되고, 노트르담 대학에서 박사 과정을 마치고 장애 신학자로서의 인생을 시작하게 된다.

그녀가 배운 메노나이트 공동체의 분별의 두 가지 요소는, 첫째 “성령께서 공동체의 유익을 위해 이 말을 주신다고 믿습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을 때만 말하는 것이고, 둘째 개인적인 문제일 경우에는 “성령께서 개인의 유익을 위해

이 말을 주신다고 믿습니다”라고 말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즉 그녀가 경험한 메노나이트 교회의 분별의 기초는 오직 ‘성령’에 의존한 것이었다.

메노나이트 교회의 신앙고백서 제16조 <교회의 질서와 일치>장에는 다음과 같은 말이 나온다. “교인들(회중)이 교회의 지도자를 선택하거나 어떤 문제를 해결할 때 항상 성경을 지침으로 삼고—이 부분이 퀘이커의 명료화 위원회식의 분별의 방법과 근본적인 차이가 된다. 퀘이커들은 전적으로 성령중심적인 분별을 추구하기 때문에 성경의 말씀에 대한 강조가 없거나 덜하다—상대방의 의견을 기도하는 열린 심령으로 듣고 또 말해야 한다.” 즉 교회의 어떤 문제도 소위 특정한 일부가 (밀실에 모여) 마음대로 결정할 수 없다는 것이다. 또한 “교인들은 칭찬받기를 기대해서만은 안되고 교정 받을 수도 있다는 것을 명심해야 하고 공동체는 분별하는 과정에서 성급해서는 안되며 의견 일치를 위해 주님이 주시는 말씀을 인내로 기다리는 것이 더 바람직하다”고 밝힌다.

메노나이트 교회는, 이처럼 전체 성도들과 함께 결정하는 것이 교회의 일치를 이루는 중요한 가치로 인정하고 있고, 이 가치의 보존을 위해 지난 500년 죽기까지 수고를 해 왔다. 그렇기 때문에 이들은 교회의 규모에 대해서 민감해 보통 200명 이상의 교인이 모이게 되면 분리를 고민한다(교회는 크면 안된다는 생각이 확고하다). 공동체적인 교회를 추구하면서 성도들의 가정 환경에 대해서 모르는 것은 말이 안 된다. 교회의 모든 회중이 서로 알 수 있는 교회. 그래서 서로의 사정에 대해서 묻고 돕고 보완할 수 있는 교회. 목사의 설교에 대해서 토론할 수 있는 교회. 그러려면 교회의 사이즈는 제한 받아야 하고 이럴 때만이 허울좋은 가족 같은 교회가 아닌 진정한 나눔의 공동체 교회가 될 수 있다고 메노나이트 교인들은 믿는다.

그렇다면 메노나이트 교회는 늘 분별을 잘 해 왔고 성도들은 이런 성령 중심의 삶을 구현하고 있는가? 반드시 그렇지 않다. 과거의 역사적인 아나뱃티스트들이 (대부분) 그래왔다는 것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나 21세기 현대판 메노나이트 교회에서의 분별은 교회마다 중구난방이 되는 경우가 많다. 그래, 이게 아마추어리즘의 폐해일 수도 있다. ‘표준화’되기 힘들고 한결 같은 전통이 유

지되지 힘들다는 것. 그 누구의 권위도 쉽사리 받아들여지지 않는다는 것(교단의 권위는 없다). 회중이 누구고, 그 회중의 수준이 어떠냐에 따라 모든 게 달라질 수 있다는 것.

아나뱃티스트들의 ‘평화지향성’

이 말의 또 다른 표현으로는 비저항, 비폭력, 불순응, 불복종의 태도라고도 할 수 있고, 여기에 파머 베커는 인간으로서 할 수 있는 가장 적극적인 평화의 제스처인 ‘화해’라는 의미를 추가했다. 아나뱃티스트의 시작이 수동적이고 피동적인 비폭력의 삶의 추구였다면(순교자 영성), 이런 관점은 시대를 거쳐 오면서 더 적극적인 저항적 비폭력으로, ‘평화 지키기(Peace-keeping)’에서 ‘평화를 만들기(Peace-making)’로 진화되었다. 16세기 평화의 아나뱃티스트 신학이 점점 윤리적인 사회정의로 그 무게중심이 바뀌는 것이다.

북미의 아나뱃티스트 그룹 안에서 가장 적극적으로 ‘평화만들기’에 주력하는 창구가 생겼는데, <가난한 시대를 사는 부유한 그리스도>으로 한국 기독교에 잘 알려진 로널드 사이더의 1984년 메노나이트 세계총회의 연설(“우리는 우리의 십자가를 메고 예수를 따라 골고다로 가야 한다. 우리는 죽을 각오를 해야 한다…”)에 대한 가시적인 행동으로 나타난 ‘기독교 평화사역팀(Christian Peacemaker Team)’이다. 1986년에 세워진 이 기관은 세계의 특정난 분쟁지역에 팀원을 직접 파견해 그 지역의 사람들과 같이 (비폭력적으로 위협에 노출되어) 살게 한다. 이런 사역의 결과는 극단적인 경우를 불러일으키기도 해 2006년에는 이라크의 바그다드에서 4명의 팀원들이 납치되었다가 톱 폭스 한 명을 제외하곤 풀려난 적이 있다.

아무튼, 평화를 지키든 만들든, 아나뱃티스트들의 평화지향성은 지난 500년간 변함없이 유지되어온 정신적 유산이고, 오늘날 메노나이트 교회 전반에 걸쳐 이유불문하고 통용되는 태도다. 그렇다고 흠이 없는 것은 아니다. 제2차 세계전쟁 당시 독일 메노나이트 교회는 히틀러의 독주와 독재에 반대의 소리를 구체적으로 내지 않았고, 실제로 많은 독일의 메노나이트 젊은이들이 히틀러

의 군대에 입대하기도 했다. 그러니 역사적으로 아나뱃티스트 공동체안에서 폭력이 인정되거나 묵인된 경우는 공식적으로 1542년 독일 뮌스터 사건과(2차 대전 당시 독일 메노나이트 교회의 나찌 동조라고 볼 수 있다. 여전히 진보적인 메노나이트 그룹 안에서 나찌 시대의 메노나이트의 참여에 대한 연구도 활발하고 비판의 목소리도 크지만 20세기 중반 이후 오늘날에 이르기까지 메노나이트 교회의 총회에 의해서 2차 대전 당시 나찌 참여에 대한 공식적인 회개나 사과는 없는 듯하다(이런 행동을 개인차원으로 돌린 것이다.). 나찌의 군대에 참여했다 하더라도 의무병이나 여타의 비전투병으로 참여했다는 것이 과연 비폭력적이고 평화지향의 아나뱃티스트적인 태도였는지는 논란의 여지가 많다.

이런 역사적인 사실 외에, 최신 들어 아나뱃티스트들의 평화지향성이 더욱 구체화되고 적극화되는 과정에서 이들은 자신들이 추구하는 행동만이 가장 정의롭다는 마인드셋이 작용하게 되고 이런 생각은 결국 자신들의 사역의 우월성을 조장하게 된다. 즉 이런 평화지향성이 신학적, 태도적 교만함을 제공한다는 점이다. 즉 다른 교인, 다른 복음주의 진영의 교회들과 협력하기 힘든 독불장군식의 사역을 진행하게 된다. 그리고 대단히 행동주의적인 신앙의 자세를 견지하게 됨으로 영적인 경건의 삶이나 영적인 지도받기에는 소홀해지기 쉽다. 이런 가운데 가장 예상하기 쉬운 결과는, 개인의 신앙의 삶의 균형이 깨지고 분쟁지역이 주는 긴장과 폭력성에 노출되면서 정신적 장애를 겪을 수도 있다는 것이다. 세상의 평화를 위해서는 죽음까지 희생하는데 진즉 자신의, 가족과의 영적 균형과 건강을 해치게 되는 경우다. 이걸 또 무슨 종류의 평화주의인가?

비록, 그렇다 하더라도, 아나뱃티스트들의 비폭력적이고 평화지향적인 삶의 태도와 그들이 세상의 정의와 평화와 화해에 미친 영향은 과소평가할 수 없다. 이들이 순교자의 후손인 것은 맞는 사실이고 이들의 DNA에 이런 태도는 여전히 살아 숨쉰다. 메노나이트 중앙위원회(MCC)의 세상을 향한 정의와 평화의 활동들은 온 세상의 기독교가 다 인정하고 있는 바다. 한국에 메노나이트 교회

가 소개된 것은 한국 전쟁 후 북미의 메노나이트 활동가들이 한국에 정착해 학교를 세우면서부터이다.

스위스 아나뱃티스트의 시조라고도 할 수 있는 콘라드 그레벨의 고백을 보자(헤롤드 벤더의 『재세례신앙의 비전』에서 인용했다).

“사람의 목숨을 빼앗는 것은 그들의 삶을 완전히 없애는 것이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는 더 이상 예전의 언약 하에 있지 않기 때문에, 진실한 그리스도인들은 세속적인 검을 사용하지 않으며, 전쟁에 참여하지도 않는다. -복음을 받아들인 사람들은 검에 의해 보호를 받지도, 또 그렇게 검으로 자신을 보호하지도 않는다.”

네덜란드의 메노 시몬즈는 거듭남의 교리를 이렇게 설명한다.

“새로이 개심한 사람들은…….자신의 칼을 쳐서 보습을 만들고 창을 쳐서 낫을 만들 것이며, 더 이상 전쟁을 알지 못하는 평화의 자녀들이다…….무력을 사용하는 것은, 사람의 피나 돼지의 피를 같은 것으로 여기는 사람들에게나 해당되는 것이다.”

굳이 문제를 지적하라면 21세기에 이런 순종 아나뱃티스트들을 만나기가 어려워졌다는 것이다. 세상의 글로벌화로 인해 수많은 인종과 배경을 가진, 나와 같은 후천적인 메노나이트들이 이미 메노나이트 교회의 과반수 이상을 차지하고 있고 이들이 이런 전통의 회중교회안에서 많은 긴장과 갈등을 생산해내기도 한다는 점이다. 교회의 목사들 역시, 내가 살고 있는 캐나다의 B.C.주의 경우는 비 메노나이트 전통에서 넘어온 경우들이 많다. 기독교 교단 중에서 메노나이트 교회는 타 교단의 목사가 이적하기 가장 손쉬운 교단이다. 이적의 조건이 ‘거의’ 없다. 회중이 원하기만 하면 어느 교단의 목사이건 환영한다. 이런 다원화, 다중화, 다문화된 오늘날의 메노나이트 교회에서 평화주의는 일치된 관점을 유지하기는 사실상 힘들다. 보라, 트럼프 지지자들이 나오지 않는가? 그리고 나와 같은 유색인종들의 메노나이트 교회가 과연 얼마나 세상의 정의와 평화에 대해서 간절히 사모해왔는가?(나는 전방 15사 출신이다. “김일성의 대가리를 갈아서 마시자”란 군가를 많이 불렀다.) 남북한 대치라는 지정학적 상

황이 주는 불안감을 안고 있는 특수한 한국 사회와 한국 교회 안에서 과연 이런 아나뱃티스트들의, 자기 목숨까지 포기하는 비폭력적이고 비저항적인, 예수 중심적인 평화주의가 시작될 수 있을까? 또한 이런 암묵적 폭력지향성이 마치 애국의 표현이고 교회의 의무인 것처럼 교육되어온, 그리고 후에 그 어떤 인연으로 아나뱃티스트가 되겠다고, 메노나이트가 되겠다고 작정한 한국의 교인들에게, 이런 급진적인 사상과 행동의 전환이 가능할까? 칼이 보습이 되고 양과 사자가 함께 뛰노는 일이, 우리 살아생전에 한국 지형에서 과연 일어날 수 있을까?

이상으로 아나뱃티스트들의 영성을 그들의 고백의 역사를 통해서, 그리고 오늘의 시점에서 여전히 유효한 이들의 급진적인 신앙의 본질 세가지에 대해 나의 경험과 관찰과 비평적인 생각을 곁들여 살펴봤다. 자, 어떤가? 내가 전술한 내용들이 여러분이 생각해온 아나뱃티스트들의 진정한 모습인가? 아니면 여러분들이 기대했던 것과는 다른가? 실망인가? 희망인가?

마지막으로 이런 아나뱃티스트의 영성과 고백의 과거와 현재가 21세기 한국 교회와 한국에서 새롭게 형성되는 아나뱃티즘과 메노나이트 교회에게 주는 당부는 뭘지 생각해 보자.

21세기 한국의 아나뱃티스트 메노나이트들이 나아갈 방향

역사적인 아나뱃티스트들의 영성의 골격인 이들의 급진성, 급진적인 믿음을 오늘의 21세기에서 구현해 내기는 쉽지도 않고 가능하지도 않다. 그리고 내가 지금 북미에서 마주하는 메노나이트 교회/교인들의 급진성은 소멸됐다고 보는게 맞는 평가이다. 급진성은 ‘갈급함’을 먹고 자라는데 이들에게 갈급함을 찾기는 힘들다. 이들은 대단히 느긋하고 만족적이다. 21세기 북미의 메노나이트들은, 일부 스튜어트도 지적했지만, 이미 충분히 제도화됐고(교회질서와 교단성의 면에서), 백인중심적이고(인종주의의 면에서), 역사적인 반지성주의의 벽(배우면 도리어 신앙에 반대가 된다는 생각)을 넘어 충분히 지성적이고 지식적이고 스마트한 교인들이 되어 있다. 교인들 중에서 백만장자도 나오고 변호

사도 나오고 의사도 나오고 경찰도 나온다. 학자들은 너무 많아 세기가 어려울 정도다. 물론 여전히 이들의 삶의 모습에는 가장과 사치가 없고, 단순하고 너그럽다. 자신들을 드러내는 것에 대해 조심하고 자신의 삶 가운데 신앙적으로 충실하려고 애를 쓴다.

이런 이들의 교회가 쇠락하고 있다. 이 말은, 새로 들어오는 신자는 없고, 죽어가는 신자가 늘어난다는 말이다. 젊은이들은 메노나이트 교회의 전통적인 노아의 방주같이 생긴 독일식 교회에 더 이상 흥미를 느끼지 못하고 떠나고, 과거의 향수에 젖은 머리가 은색으로 바뀐 전통 메노나이트 노인들이 자리를 채운다. 옆 동네의 메노나이트 형제(Brethren) 교회는 대대적인 투자를 해서 예배당을 현대화하고 교회 이름조차 커뮤니티 교회로 바꾸고, 누구든 막론하고 교회로 다 들어오도록 문턱을 낮춘다. “예수”만 빼고는 모든 것을 다 받아들일 채비다. 그렇다. 설교자가 설교 시 커피를 마시든 앞에 나와 춤을 추든 말리지 않는다. ‘거의’ 자유가 허락되는 곳이 그들의 예배당이다. 이런 외부 사람들이 찾기 쉬운 좋은 위치에 있는 현대식 예배당을 지나 지역적으로도 한산하고 도시 외곽이고 한 50년동안은 외벽 색칠조차 안한 것 같은 교회가 나오면 이게 바로 메노나이트 교회다. 교회 간판은 거의 눈에 띄지 않는다. 이들은 여전히 라면 국물도 남기면 보관해 뒀다 먹을 정도로 지독하게 검소하다. 이런 극도의 절약의 정신으로 예배당도 본인들이 직접 짓고 유지에 들어가는 비용도 최대한 아낀다.

메노나이트 교회에서 사용하기를 가장 싫어하는 단어들이 있는데 그것은 처치 플랜팅(교회개척)이고, 복음주의란 말이다. 이들은 인위적이고 급하고 목적 중심인 것을 아주 싫어한다(새들백 교회의 릭 워렌이 누군지도 모르고 그가 쓴 책에도 관심이 없다!). 교회에는 그러니 거의 프로그램화되어 있지 않다(오, 아마추어리즘!). 교회가 비니 사람을 더 받기 위해서 교회 인테리어를 고쳐야 한다면 난리날 것이다, 이런데 돈을 쓰냐고!. 더 많은 유색인종을 받아 이문화, 다문화 교회로 가자고 하면 이것 역시 인간의 인위적인 프로그램 취급을 한다. 모든 게 자연스러워야 좋다는 게 이들의 주된 생각이다. 이들은 이런 면에서 교회

의 쇠락과 멸망도, 인간의 필연적인 죽음의 과정과 같이 자연스럽게 받아들인다. 교회가 죽어가고 있어요, 하고 외쳐도 누구 하나 소란 피우는 일이 없다.

과연 이들이 5백년전 아나뱃티스트 조상들을 닮아 오직 하나의 정신, ‘나흐플게(Nachfolge)’의 정신으로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예수님을 쫓아갈 수 있을까? 초기 스위스 아나뱃티스트의 역사에서, 스위스 형제단이 세례를 받기 위한 후보자에게 던졌던 질문은 여전히 유효한가? “하나님과 그의 백성들을 섬기는데 자신들이 잠시 맡고 있는 모든 재산들을 바칠 수 있는가?” 초기의 아나뱃티스트들은 두말하지 않고 이 질문에 ‘예’했다는 게 아닌가? 내가 만약 지금 메노나이트 교인들에게 이런 질문을 하면 아마 미친 사람 취급할 것이다. 이들은 더 이상 다급하지도 않고 더 이상 예전의 그 다급하고 절박한 상황으로 돌아가고 싶어하지도 않는다. 제도와 교회와 가정의 유지. 이게 이들의 궁극적인 신앙의 목적인 듯하다.

이제는 한국 교회, 한국의 아나뱃티스트, 한국의 메노나이트들이 답할 차례다.

당신은 아나뱃티스트가 될 자발적인 의지가 있는가? 다시 세례를 받음으로 물과 더 나아가 성령과 피(고난)의 세례까지 받을 준비가 되어 있는가? 있는 것 다 내려놓고 오직 예수만 따라갈 용기가 있는가? 평화와 화해와 정의의 사도가 될 수 있는가? 이런 길을 혼자 가기 두렵다면 같이 갈 운명의 공동체가 있는가? 공동체에 순종하고 공동체를 위해 살기를 작정하는가? 마지막으로 역사적 아나뱃티스트의 전통과 영성을 배우고 북미 메노나이트 교회의 복잡한 상황을 성찰해 한국의 상황에 맞는 한국적 아나뱃티스트의 정신을 새롭게 창조해낼 수 있는가? 유진 피터슨이 『메시지』를 통해서 보여줬고, 존 쉘비 스폰 주교가 강조한 것처럼, 구대의 신경이나 고백이나 나아가 급진적 종교개혁의 정신을 21세기의 ‘살아있는’ 믿음으로 재현해 낼 수 있는가?

이 질문들에 대답하는 것은 더 이상 북미의 소위 전통 아나뱃티스트 후손인 메노나이트들만의 숙제가 아니다. 시대와 문화가 바뀌었고 영성은 흐른다. 누가 16세기의 아나뱃티스트 정신을 계승복원하고 새로운 시대에 맞도록 재창

조낼 수 있는가는 더 이상 어느 특정 유럽계/백인/남성중심의 북미 메노나이트들의 고유한 역할이 아니다. 이제는 새롭게 아나뱃티스를 발견하고, 새롭게 아나뱃티스를 발전시킬 덜 타성에 젖고, 비주류에 속하며, 인종에 구별 받지 않고, 더 개방적이고, 더 신선한 시각을 가진 급진주의자들이 필요하다. 그건 어찌 보면 나와 당신 같은, 북미의 메노나이트들은 죽어도 상상할 수 없는, 아직은 먼 나라의 이웃 같은 하지만 오직 예수를 찾아 갈급한 심령으로 목숨을 걸고 산을 넘고 사막을 지나고 강을 건너는 그 옛날의 동방 박사와 같은 그 누군가일 수 있다. 급하다, 목이 탄다, 앞으로, 앞으로 전진해 나아가자, 생명의 근원을 찾아가자!

참고문헌

- 스튜어트 머레이, 이것이 아나뱃티스트다, 대장간, 2011
메노나이트 신앙고백 편찬위원회, 메노나이트 신앙고백, 2007
파머 베커, 아나뱃티스트 크리스천, 2008
피터 리더만, 후터라이트 신앙고백서, 대장간, 2018
해롤드 벤더, 재세례신앙의 비전, 2009
Denny Weaver, Anabaptists & Postmodernity, Pandora Press, 2000
Thomas N. Finger, A Contemporary Anabaptist Theology, IVP, 1989
Daniel Liechty, Early Anabaptist Spirituality, Paulist Press, 1994
Jill Raitt, Christian Spirituality, Crossroad, 1988
C. Arnold Snyder, Anabaptist History and Theology, Pandora Press, 1995

온전한 타자가 되는 십자가의 길

이 글은 종교적 신념에 의한 병역 대체역 편입 과정을 거치는 과정에 대한 박우섭씨의 이야기입니다. 개인의 종교적 회심은 물론 평화에대한 신념이 확장되는 여정을 만날 수 있습니다.(편집부)

박우섭

자폐 스펙트럼을 처음으로 마주한 곳은 정신병동이였다. 시설점검 아르바이트로 대학병원에 들어갔다. 하얗고 딱딱한 타일은 삭막하게 병원을 감싸고 있다. 어느 층에 올라가면 이질적인 검은색 문이 있다. 문은 이중의 장벽으로 되어 있다. 마지막 문이 열리면 공기가 달라진다. 크게 다른 점은 없지만, 색깔의 그림이 여기저기 있다. 바닥에는 장난감과 동화책이 놓여있다. 어린이집 같지만 묘하게 이질적이다. 그 자리에 나이를 가늠할 수 없는 사람들이 앉아있다. 고개를 들어 나를 보지만 나를 보고 있지 않다. 그들의 눈에는 초점도 생기도 없다. 그 눈은 내가 외면하는 나의 모습을 뚫어지라 쳐다보고 있었다. 그것이 두려웠다. 나는 그 세계에 이방인으로 들어섰고, 그들의 시선은 나에게로 들어섰다.

회심하고 511일이 지난 날 2018년 12월 24일 새벽 3시 기도를 하고 있었다. 10시간이 지나면 훈련소에 들어간다. 하지만 그건 중요하지 않다. 당장 교회가 마주한 어려움들 그 한계가 중요하다. 어떻게 돌파하는가? 누가 돌파할 수 있는가? 누가 문제를 만들었는가? 누가 자신의 의무를 거부했는가? 내가 지금 고민하더라도 무엇 하나 바뀌는가? 나는 이제 곧 4주간 사회에서 격리된다. 분노

와 혐오가 가라앉은 허무함 가운데 세밀한 음성이 들려왔다. "너는 못 한다. 그게 너의 한계다. 너는 도망갈 수 없다. 그러나 내가 한다." 그날 나의 길은 결정되었다. 나는 목회자가 되기로 했다. 국가의 부름을 받는 날, 나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다.

나는 자폐 스펙트럼의 눈을 다시 마주하게 되었다. 이번에는 9명이나 되었다. 정신연령은 2살이 되지 않아서 개월로 센다. 정신연령 9개월~18개월의 2~30대의 9명. 자폐 스펙트럼은 예민하다. 초감각이라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감각이 예민하다. 다만 그 대상이 3~4가지를 넘지 않는다. 그것 외에는 관심이 없다. 누구라도 수도관에 물 흐르는 소리가 귀에 가져다 붙인 듯이 들린다면 신경증에 걸린다. 그래서 자폐 스펙트럼은 보통 심신을 안정시키기 위해 특정 행동을 반복한다. 불안정해질수록 행동의 반복과 강도가 커진다. 좋을 때든 싫을 때든 흥분한 것은 같기에 커진다. 그래서 그들에게 변하지 않는 안정적인 환경을 제공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래서 시설은 두 공간으로 나누어져 있다. 현관과 맞닿은 복도는 사회복지사들의 쉼터 겸 주방이다. 밖에서 대기하다가 정기적인 업무 때에만 내부로 들어간다. 내부는 사회복지사와 자폐 스펙트럼의 공간이다. 내부는 간단한 칸막이로 사회복지사의 사무실과 자폐 스펙트럼의 활동 공간으로 나누어져 있다.

나는 내부에 들어갔다. 그들이 불편해하지 않는 선에서 가만히 그들을 관찰한다. 시선도 그들에게 스트레스로 작용하기에 보는 듯 안보는 듯 바라보는 것이 중요하다. 그들이 나를 바라보는 방식이 제일 좋다. 시간이 흐르자 거리는 점차 가까워졌고, 나는 그들 사이에 앉아있었다. 사회복지사 선생님들은 너무 자연스러워서 이용인이 한 명 늘어난 것 같다고 농담을 던졌다. 가끔은 정말 착각하여 나를 포함하여 간식 수를 세기도 했다. 그들이 나를 편하게 여기는 만큼 일이 원활해졌다. 내가 보조하면 용변, 식사, 활동 모든 것이 자연스레 이루어졌다. 한 이용인은 나만 보면 방긋방긋 웃었다. 뇌 기능의 문제로 나오는 반응인 줄 알았는데, 사람을 구별했다. 이용인의 활동보조 선생님은 나에게 늘 잘챙겨줘서 고맙다고 용돈을 주었다. 나는 내가 그들의 장벽을 허물었다고 생각했

다.

헨리 나우웬, 예수회 사제, 한국이 사랑하는 영성가, 상처입은 치유자, 게이, 해방신학 활동가, 그가 말년에 도착한 곳은 라르쉬 데이브레이크 공동체였다. 그는 거기서 고중증 정신지체장애를 가진 아담을 만났다. 그리고 그를 통해 예수를 보았다. 장애를 가진 사람에게 다가설수록 자신의 장애를 마주한다. 장애와 비장애의 경계가 흐드러지고 가만히 자신을 응시하는 예수의 시선을 마주한다. 연약한 그들의 모습은 헨리의 경계를 허물었다. 『아담, 하나님 사랑하시는 자』를 읽고 내 어리석은 생각은 뒤집혔다. 내가 장벽을 허물지 않았다. 자폐 스펙트럼을 가진 사람들이 자신의 영역으로 나를 '환대'했다. 그 시선은 내가 누구인지 마주하게 하였고, 나를 그들에게 이끌었다. 교회 일이 힘들 때면 나는 그들 사이에서 힘을 얻었다. 나는 그들과 있을 때 그 어느 것도 신경쓰지 않았다. 온전한 나 자신을 드러낼 수 있었다. 그들과 함께하는 그 시간, 함께 식사를 나누며 예수를 기억해냈다. 그들과 함께 있을 때, 그들이 나에게 말씀을 가르쳐 줄 때에, 내 마음은 뜨거워졌다.

마태복음서 1장에 기록된 예수의 족보에는 이질적인 부분이 있다. 3절에 나오는 베레스와 세라다. 족보의 다른 남성들은 직접 계보를 잇는 사람만이 이름을 남긴다. 나머지는 그냥 형제들이라 기록된다. 그런데 세라는 여성도 아니고 계보를 잇지 않는 남성임에도 이름이 기록되어있다. 베레스와 세라는 유다와 유다의 며느리 다말에게서 나온 쌍둥이다. 유다의 아들들이 죽자 다말은 생계를 유지하기 어려운 과부가 되었다. 유다가 다말을 책임지지 않으니 다말은 창녀로 위장하고 유다의 도움을 받는다. 고대의 성매매는 후불이다. 간단한 귀중품과 담보물을 먼저 받고 나중에 증표로서 가족을 받아간다. 적극적으로 자신의 권리를 되찾은 다말은 쌍둥이를 낳는다. 산파는 손이 빠져나온 아이에게 '진홍색 실'(ו) shani)을 묶는다. 그러나 다른 아이가 먼저 나와버린다. 먼저 나온 아이의 이름은 베레스고 진홍색 실이 묶인 아이는 세라다.

둘의 이야기는 5절에서 이어진다. 베레스의 후손인 살몬은 라합에게서 룻의

남편이 되는 보아스를 낳는다. 라합의 이야기는 여호수아기에서 나온다. 여호수아 공동체, 성서를 편집한 포로공동체는 자신들의 다짐을 가장 급진적인 행동, 전쟁으로 묘사한다. 여호수아기 2장에서 눈의 아들 여호수아는 정탐꾼 두 사람을 여리고성으로 보낸다. 여리고 왕은 그들을 죽이려한다. 정탐꾼들이 머물고 있던 창녀 라합의 집에서 그들을 데려오라고 명한다. 라합은 이를 거부하고 정탐꾼들을 숨겨준다. 정탐꾼들에게 자신과 가족을 살려달라고 맹세를 구하고 징표를 받는다. 징표는 '홍색 줄'(U) shani이다. 라합은 정탐꾼들의 생사를 쥐고 있었다. 그러나 라합은 정탐꾼들을 대하며 자신의 위치를 낮춘다. 라합은 창녀로 여리고에서도 낮은 위치에 있다. 대상화된 여성으로 남성의 성욕을 충족시키며 생계를 유지하는 타자다. 다말이 그랬듯이 라합도 창녀로서 정탐꾼들을 대한다.

이스라엘은 여리고성을 무너뜨린다. 성서에서 최초로 등장하는 성벽은 가인이 쌓은 성이다. 하나님은 가인에게 죄를 다스리라 부탁했지만, 가인은 실패한다. 죄의 결과물은 폭력이다. 하나님은 가인에게 공물을 베풀고 또 다른 보복을 막기 위해 가인에게 표를 준다. 그러나 가인은 성을 쌓았다. 성은 성벽에 중간에 두고 밖과 안으로 나누어진 도시다. 바깥의 사람은 안의 사람들을 공격할 수 없으나, 안의 사람은 손쉽게 밖의 사람을 공격하여 약탈할 수 있다. 성벽이 견고할수록 성 밖의 사람들은 두려워한다. 성벽은 방어를 위한 물건이 아니다. 한 집단이 방어력을 증강하면 다른 집단에게 이는 자신의 공격력을 약화시키는 일이다. 달리말하면 방어력의 증강은 공격력의 증강이다. 성벽은 무기이며 방어를 위한 무기는 없다. 성은 도시의 사람을 지키는 동시에, 경계를 긋고 그 안과 밖을 구별한다. 밖의 존재는 적이 된다. 그 경계가 무너졌다. 이스라엘은 두려움과 경계를 긋는 삶을 철저히하고 적극적으로 거부한다. 여리고의 삶, 가인의 삶을 거부하며, 낮은 자의 모습으로 타인을 환대할 라합의 삶을 이스라엘에 받아들인다. 라합은 베레스의 계보를 이어 예수의 조상이 된다.

성서는 라합의 의로운 행위를 말하고, 바로 다음 장에서 아간의 의롭지 않은 불순종으로 이스라엘이 패배하는 장면을 서술한다. 아간은 유다 지파 사람이

며, 갈미의 아들이고, 삽디의 손자며, 세라의 증손이다. 아간은 세라의 자손으로 베레스의 계보를 잇는 라합과 대비된다. 유다 지파는 이스라엘에서 다수를 차지하는 지파 중 하나로 아간은 그 정통적 일원이다. 아간은 자신의 욕심을 위해 물건을 빼돌렸다. 그는 여리고의 삶을 거부하지 않았다. 이스라엘은 그로 인해 실패하며, 아간을 죽이며 다시 한번 여리고의 삶을 거부한다. 이스라엘은 경계를 긋는 삶을 거부하지만, 인간의 악한 마음과 욕심은 아간처럼 과거의 삶으로 돌아간다. 이스라엘을 환대의 공동체로 만드는 율법은 새로운 경계가 되어 과부의 가산을 빼앗고 약자를 짓밟는다.

말씀이, 하나님이, 그분의 거룩한 영이 우리 가운데 나타난 사건, 영원하고 초월적인 하나님이 특정한 공간에, 특정한 시간에, 그리고 죽을 수 밖에 없는 육체로 나타난 사건은 모든 것을 뒤집었다. 완전한 하나님이 완전한 인간이 되어 신성과 인성의 선을 넘어 나타났다. 예수는 언제나 경계를 넘었다. 연약한 인간의 모습으로 삶의 모든 장벽을 허물었다. 예수의 공동체는 예수를 따른다. 예수는 누구든지 자기를 따르려거든 자기를 버리고 제 십자가를 지고 따라야 한다고 말했다. 이 문장은 자기를 버리는 것과 제 십자가를 지고 따르는 것으로 나누어진다.

십자가의 길은 먼저 자기를 버릴 것을 요구한다. 예수는 인간의 행위 이전에 인간 그 자체의 변화를 요구했다. 그 변화가 '자기'를 버리는 일이다. '나, 자기'라는 주체는 모든 것에 앞서 '남'을 구별하는 경계다. 그리스도인은 '자기'를 버리면서 남과 구별하던 경계를 해체한다. '자기'가 없는 존재는 필연적으로 다른 사람에게 타자로 대해진다. 과부, 고아, 창녀, 난민, 미혼모, 병자, 장애인, 성서에서 하나님이 사용하는 사람들이다. 산에 올라선 예수는 하나님 나라가 그들의 것이라 외친다. 하나님 나라는 '이미' 그들의 것이다. 하나님 나라는 높은 자들이 낮은 자를 초대하면서 이루어지지 않는다. 결여된 사람들, 사회에서 격리된 자들, 타자로 살아가는 그들이 세상을 환대하며 하나님 나라는 이루어진다. 낮은 자들만이 경계를 허물 수 있기 때문이다.

십자가의 길은 타자가 되는 길이다. 십자가는 인간의 몸으로 오신 하나님
이 죽임당하고, 그것이 높이 들어 올려 모두에게 보인 사건이다. 십자가의 하나
님은 철저히 대상화된다. 완전한 타자로서 하나님의 존재가 세상에 알려진다.
'제' 십자가를 지고 따르는 길은 자기 자신을 타자의 길로 이끈다. 죽임당하는
자 사형수로서 모든 사람에게 보이고 대상화된다. 나의 모습은 점점 사라져가
고 타인의 시선으로 자신이 채워진다. 사람들이 나를 경멸하기 시작하며 그들
은 나보다 높아진다. 타자의 존재 자체가 다른 사람들을 높인다. 그 때에 우리
는 여리고의 방법을 버리고, 온전히 율법을 지키며, 다른 존재를 환대할 수 있
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병역을 거부한다. 군비증강, 군사훈련, 군사동맹을
반대한다. 이는 성벽을 쌓고 자기를 지키는 일이다. 그리스도인은 이를 거부한
다. 여리고의 길을 거부하며 가인의 길을 거부한다. 죄로 인해 생겨난 폭력의
고리를 끊고 화해의 길로 나아간다. 강함이 아니라 약함을 통해 화해는 이루어
진다. 이를 깨달았을 때 예수는 내 앞에서 모습을 감추었다. 나는 2020년 10월
23일 사회복무를 마치고 소집해제 되었다. 2020년 12월 31일 대체복무제도가
생겨났다는 이야기를 듣고 준비를 시작했다.

대체복무제도의 신청은 종교적 신념과 개인적 신념 두 종류로 나뉜다. 이는
실제로 종교적이냐 개인적이냐에 따르기보다는 형식적인 부분이다. 다수를 차
지하는 여호와와 증인을 구분해서 빠르게 처리를 하겠다는 속셈이다. 공통적
인 서류는 본인 진술서, 부모 진술서와 신분증 사본, 부모 외 3인 인상의 진술서
와 신분증 사본, 범죄 및 수사경력자료 조회 회보서, 중학교와 고등학교 학교생
활기록부다. 종교적 신념의 경우 신도 증명서가 추가로 필요하다. 서류를 갖추
는 데 반년이 걸렸다. 2021년 6월 7일, 종교적 신념으로 인한 대체역 편입을 신
청하였다. 개인적 신념이 아니라 종파 상관없이 모든 그리스도인은 병역을 거
부해야한다고 생각했다.

2022년 1월 3일, 종교적 신념의 경우 교단 차원에서 교리상으로 병역을 거부

하거나, 평화 운동을 교리에 명시하고 집단으로 행동하는 경우에만 해당하며, 한국기독교장로회는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사유로 개인적 신념에 의한 신청으로 전환되었다. 사실 이는 한국기독교장로회에 대한 모욕이다. 기장은 그 어느 장로회보다 총체적인 평화를 위해 노력한다. 달리 기대도 안했다.

이후 2022년 1월 26일, 대전에 있는 대체복무심사위에 출석하여 사실조사를 받았다. 조사관은 매우 친절하신 분이셨지만 기독교의 것도 모르는 분이였다. 나는 처음부터 모든 내용을 다 설명해야 했다. 개인적 신념에 의한 신청이기 때문에, 개인의 신념 형성 부분을 찾아야 했다. 나는 나의 진술서에 의도적으로 그 내용을 쓰지 않았다. 오로지 성서와 그리스도교 교리만으로 인정받길 원했다. 성서 말고 다른 부분을 찾아야 하는 조사관과 성서가 아니면 할 이야기가 없는 신청인 사이의 끊임없는 대화가 오고 갔다. 이후 전화로 4회 추가적인 사실조사를 받았다. 이 사이에 한신대학교 신학대학원 M.div 과정에 입학했다. 입학 시험을 본 날도 학교에서 전화로 조사를 받았다. 조사 마지막에 조사관은 정형화 된 여호와의 증인 말고 일반 기독교에 대해 조금 알게 된 것 같다고 말했다.

2022년 3월 17일, 대전 대체복무심사위에 출석하여 심사를 받았다. 20분 정도 진행되었다. 4명의 심사위원에게 심사를 받고 3명의 인용, 1명의 기각 의견을 받았다. 주로 병역면탈이 아니냐는 질문을 했다. 사실조사 때 했던 질문들이 반복되었다. 사실조사는 왜 했는지 모르겠다. 당황스러워서 아무 말이나 했던 것 같다. 기각 의견이 하나였던걸 보면 일부러 압박 면접처럼 진행하는 모양이다. 우호적으로 질문을 던지는 사람이 있었다. 확실하지는 않지만, 군인권센터의 임태훈 소장이었던 것 같다.

교회 목사님을 빼고, 적극적으로 병역거부를 도와준 사람들은 어찌 다 게이이다. 병역거부자이자 성소수자 그리스도인으로 모든 심사위원 중에 가장 기독교를 잘 알고 있었다. 그가 말했다. "본 심사위원은 한국기독교장로회가 평화를 위해 많은 노력을 함에도 신청인의 신념 형성과 병역거부에 지지와 도움을 줄 연결고리가 없었던 부분에 유감을 표합니다." 그 말이 마음에서 떠나지 않았다.

신앙이 생기고 아무도 나를 이끌어주지 않았다. 병역거부에도 동행인이 함께하는 것이 보통이다. 여호와의 증인들은 담당 목회자가 따라온다. 나에게 그런 사람은 없다. 오직 성서뿐이었다. 성서는 그 누구보다 강하고 지혜롭고 위대한 동행자였다.

2022년 5월 13일, 대전 대체복무심사위에서 심사위원 30명 정도가 참여하는 전체회의에 출석해 증언했다. 20분 정도 진행되었다. 보통은 전체회의에 출석하지 않는다. 보통이란 여호와의 증인을 말한다. 나는 출석할 것을 요구받았다. 질문은 다양했다. 장애인과 신앙이 어떻게 연결되었는지 질문에 위에 쓴 이야기를 했다. 교단을 옮긴 것, 신학대학원에 진학한 것이 병역거부와 관련 있는지에 대한 질문에 신앙의 삶과 과정은 구분되지 않는다는 이야기를 했다. 병역거부자에 대한 교회의 부정적인 시선과 개신교 내에서 대립하고 분열하는 교파문제에 대한 질문에 성서 안의 다양한 관점과 구성을 이야기했다. 예수와 성서에 대해 이야기할 수 있어서 좋았다. 마지막으로 회의 진행자가 존 스토틀가 양심적 병역거부를 했던 이야기를 했다. IVF 리더도 했는데 처음 들었다. 나는 IVF를 나왔고 복음주의권이 아니고 에큐메니칼 정신을 추구하는 교단에 있기에 나와 관련 없는 사람이라고 말했다. 같은 날 전체회의 결과에 따라 인용되어 대체역으로 편입되었다.

양구에 가면

-아버지 이당 안병욱을 떠나보내며-

양구에 가면 아버지의 묘가 있다. 나의 아버지는 이당 안병욱 선생이다. 아버지는 1920년 평안남도 용강에서 태어났고 2013년 10월 10일 강원도 양구에 묻히셨다. 아버지는 철학자다. 일생동안 49권의 책을 집필하였고, 전국을 돌아다니며 대중 강연과 도산 아카데미



안동규 형제
예수마음매노나이트교회

미운동을 하면서 수많은 독자, 학생, 시민들과 함께 하셨다. 이당은 많은 사람들에게 저자, 강연자, 서예가, 주례자, 사상가, 운동가, 선생이며 공인이었지만 나에게서는 평범하고 따뜻한 아버지였다.

우리들은 누구나 태어나면서 아버지를 갖게 된다. 또한 누구나 언젠가는 살면서 아버지와 이별하게 된다. 내 나이 56년간 함께한 아버지를 떠나보낸다는 것은 나에게서 무척 힘들고 슬픈 일이었다. 아버지와 나는 정말 많은 대화를 나누었다. 부자지간이지만 우리의 대화는 철학, 종교, 정치, 여행, 영화, 시사, 그리고 일상적인 것들을 포함하는 소위 인생사전 같은 대화였다.

아버님의 마지막 50번째의 책이 곧 출간될 예정인데 우리는 그 책의 제목을 '인생사전'이라 정했다. 이당이 쓴 50권의 책의 서문은 아버지 스스로가 쓰셨는데 마지막 2권은 다른 사람들이 썼다. 49번째 책 '철학의 즐거움'은 아버지가 아프셔서 아들인 필자가 썼다. 나는 아들이지만 아버지의 글을 흉내낼 정도로 아버지를 잘 알고 어느 정도 닮아 있었다. 사후에 출간하는 50권의 책 '인생사전'은 아버지를 사랑하는 지인인 손봉호 교수 이동원 목사 그리고 평생 벗이였

던 철학자 김형석 교수가 쓰게 되었다.

양구에 가면 한국 철학의 두 아이콘 안병욱/김형석을 기념하는 철학의 집이 있다. 먼저 떠난 안병욱의 돌판 묘에는 그의 글씨체인 이당체(물흐르 듯한 자유로움의 본인이 명명한 글씨체) 여섯 글자가 돌판에 새겨져 있다. 청정심 청무성(淸淨心, 聽無聲). ‘사람은 마음이 깨끗하고 맑아야 하며, 그러면 무성(소리 없음)을 들을 수 있어. 진리의 소리는 원래 소리가 안 나거든. 자유/사랑/진리/신의 말씀 등은 원래 소리가 없어’ 아버지의 돌판 묘를 볼 때마다 그가 나에게 들려준 아버지의 음성이 기억난다. 아버지께 많은 지인들이 있었다. 가장 절친인 김형석 교수도 언젠가는 아버지의 옆에 영원히 같이 계시겠다고 말씀을 하셨다. 두 철학자 두 절친이 양구땅 ‘철학의 집’에 함께할 것이라는 생각이 나의 슬픔에 큰 위로가 된다.

유독 사람들을 좋아하는 이당 안병욱은 여러 지인들과 함께 시간을 보냈다. 다양한 사람들과 함께 했던 시간과 경험을 아버지로부터 듣는 나에게는 정말 소중한 시간이었다. 춘원 이광수를 중학교 때 만나고 도산을 소개받아 도산사람이 된 이야기. 일본유학시절 벗 윤동주, 사상계 주간을 맡으며 함석헌, 장준하, 오랜 친구 선우 휘, 양호민, 현승중, 윤덕선, 그리고 절친 김형석과의 세계여행, 서울고 경기고 제자들인 백남준, 이수성, 김우중 등, 그리고 나중에 벗처럼 지낸 정주영, 흥사단 단우들, 우리 집에 찾아오는 독자와 제자들,,,,, 장례식장과 영결식 그리고 하관예배 때 찾아오신 무수한 사람들이 사람들을 사랑하고 사람들에게 성실했던 아버지의 삶을 증언하고 있었다.

양구에 가면 이당 안병욱이 사람들을 계속 만나고 있을 것이다. 철학의 집에는 안병욱의 어록과 붓글씨 그리고 책과 업적들이 청무성(聽無聲)의 역할을 하고 있다. 77세 아버님의 희수 생신 때 평상시 안 우시던 아버지는 우시면서 이런 말씀을 하셨다. ‘저의 소원은 통일이 되어서 고향땅 평안남도 용강에서 돌아가신 아버님/어머님의 무덤에서 목 놓아 울고 싶은 것이다.’ 불행하게도 그 소원은 안 이루어 지셨지만 다행인 것은 북녘 고향 땅과 아주 가까운 휴전선 근처

강원도 양구에 아버지가 잠들어 계시다는 사실이다.

노 철학자 아버지께서 돌아가시기 얼마 전 나는 ‘아버지, 철학이 도대체 뭐예요?’ 라고 순진한 질문을 하였는데, 그때 이당은 ‘철학은 죽음의 연습이다’라고 무거운 철학적 대답을 하였다. 나는 그것이 그때에는 무슨 뜻인지 이해를 못하였는데, 아버지의 죽음을 목도하면서야 그 심오한 뜻을 어렵듯이 이해할 수 있게 되었다. ‘누구나 죽어야 되는 인간의 삶속에서 철학은 바로 죽음의 연습이다’ 이것이 아들에게 가르친 마지막 아버지의 인생철학 청무성 강의였다.

양구에 가면 안병욱이 있다. 고향 가까운 양구에. 아버지의 청무성이 있다.
아버님, 부디 편히 계시옵소서.

그리스도인과 평화

- 전쟁과 평화론의 3가지 유형 -

시작하면서

이 세상에서 인간이 저지를 수 있는 가장 심각한 만행은 전쟁이다. 살인이 가장 극악한 죄라고 한다면, 수많은 사람들, 전쟁에 아무 책임이 없는 민간인들이 전쟁수행자들(군인) 보다 더 많이 죽거나 다친다는 것은 전쟁이 한 두 사람을 죽이는 살인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인권을 유린하고 정의를 파괴한다.

손봉호의 지적처럼, 우리는 흔히 행위자의 동기에 따라 그 행동의 옳고 그름을 평가한다. 그래서 고의적 살인만 죄악이지 과실치사나 전쟁에서 불가피하게 일어나는 의도하지 않는 살상은 큰 죄악이라고 여기지 않는 경향이 있다. 그러나 이는 행위주체에만 초점을 맞추는 잘못이다. 훨씬 더 중한 것은 피해자와 피해자가 감당해야 하는 고통이다. 고의적 살인이나 실수 혹은 전쟁에서 살인이나 피해자의 죽음에는 사실상 아무런 차이가 없다. 전쟁에서 우연하게 죽었다고 해서 고의적 살인행위로 인한 죽음보다 덜 억울하거나 덜 고통스런 것은 아니다. 사람의 생명을 위협하는 힘의 정도가 과거의 7어느 때보다 커졌고, 그 방법 또한 다양해진 오늘날에는 사람의 행위의 옳고 그름을 피해자 입장에서 판단하는 것이 평등의 원칙에 부합되고 그것이 인권을 존중하는 것이다. 현대의 윤리는 행위주체 중심적이 아니라 피해자 중심적이어야 한다.



이 상 규 교수
고신대 명예교수

사진: 고신대

이런 관점에서 볼 때 전쟁은 인간이 저지를 수 있는 가장 큰 만행이다. 1차 대전 당시 8백만명의 군인을 포함하여 1천5백만 명이 희생되었는데, 당시에는 이를 ‘최악의 소모전’이라고 불렀다. 그런데, 제2차대전에서는 7천만 명이 희생되었는데 이중 민간인이 4천만 명이였다. 나치독일이 일으킨 독소전 당시 소련의 20대 남성 70%(1,400만 명)가 전사했다. 스탈린의 학살이 2천만 명, 마오쩌둥의 학살 4천만 명에 달한다고 한다. 6.25전쟁은 3년 1개월 2일 간의 전쟁이었는데, 당시 재산피해는 그만두고 인적 피해를 보면, 한국 및 UN군 피해자가 776,360(사망 전사 부상 실종)명, 북한 및 중공군 피해자 1,773,600(북한군: 801,000명, 중공군: 972,600명)명이었고, 민간인 피해(사망 학살 부상 실종)는 2,540,968명에 달했다. 그 외에도 피난민 320만 명, 전쟁미망인 30만 명, 고아 10만 명, 이산가족 1,000만여 명이 발생했다. 사망자만 말한다면 군인 40만, 민간인 약 200만 명이 죽임을 당했다. 지난 5,600년 동안 1만 4천5백 번의 크고 작은 전쟁이 있었고 약 35억 명이 전쟁의 와중에서 생명을 잃었다고 한다.

무기로 인명을 살상하는 것 외에도 전쟁 중에는 평상시에는 상상도 할 수 없는 정도의 강간, 납치, 협박, 인권모독, 인권유린이 이루지고 정의, 정직, 도덕 등 인간다움은 무력해져 인간이 짐승보다 못한 일을 윤리의식 없이 자행하게 된다. 이런 점을 생각하면, 독일의 위험사회학자 울리히 베커(Ulich Backer)의 지적에 공감하게 된다. 베커는 현대의 재난에는 3가지 특징이 있다고 했는데, 첫째는 재난의 원인 규명이 어렵고, 재난의 범위가 대규모적이며, 재난의 고통이 무한정이라는 점이다. 그러므로 원칙적으로 전쟁이 일어나지 않아야 하며, 기독교인들은 전쟁이 일어나지 않도록 노력하고, 평화를 위해 일해야 할 것이다. 평화에 대한 염원에서 시작된 평화론 가운데 아래의 3가지 유형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1. 기독교평화주의 (Christian Pacifism)

전쟁이나 폭력은 어떤 경우라도 용납될 수 없고 무저항 비폭력 비전 혹은 반전을 주장하는 입장을 평화주의라고 말한다. 이를 절대평화주의라고 말하기

도 한다. 일반적으로 평화주의(Pacifism)를 세 가지 유형으로 구분하는데, 첫째는 인도적 평화주의(Humanistic Pacifism)이다. 전쟁이나 폭력 행사는 인간 생명의 살상 혹은 인간의 존엄성을 해치는 행위라는 점에서 허용될 수 없고 평화를 지향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둘째, 실용적 평화주의(Pragmatic Pacifism)는 폭력보다는 비폭력이 사회정치적으로 효율적이기 때문에 비폭력을 지향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셋째는 기독교회가 말하는 평화주의인데, 성경과 예수님께서 가르치시고 보여 주셨고 초기 기독교회가 따랐던 삶의 방식이기 때문에 폭력과 전쟁을 용인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이것이 기독교 평화주의(Christian Pacifism)라고 불리고 있다.

이런 기독교 평화주의 입장을 취했던 대표적인 경우가 초기 기독교와 16세기 재세례파 계열의 메노나이트교회, 그리고 ‘역사적 평화교회’들이었다. 초기 기독교회는, 첫 300여 년간 비폭력 평화주의를 지향했다는 점에 대해서는 하르나크, 옥스퍼드대학의 캐독스(C. J. Cadoux), 레이든대학의 헤링(G. J. Heering), 메노나이트 학자들인 홀쉬(John Horsch)와 헬스버그(Guy F. Hershberger) 등 여러 학자들이 의견을 같이하고 있다. 비폭력 평화주의를 지행했다는 말은 폭력이나 전쟁을 반대했다는 의미인데, 이는 전쟁 수행을 위한 조직인 군 복무도 반대했다는 뜻이다. 이들은 초기 기독교인들은 폭력이나 전쟁을 비도덕적이고 비기독교적인 것으로 이해하고 배척했다고 주장한다. 이런 평화주의 전통을 따랐던 이들이 초대교회의 테르툴리아누스, 오리게네스, 힌폴리투스, 그리고 메노 시몬즈, 현대의 하워드 요더 스탠리 하우어워스(Stanley Hauerwas) 등이다.

초기기독교

초기 기독교회가 군복무나 살상, 폭력, 전쟁을 반대한 것은 근본적으로 신약성경, 특히 산상수훈의 가르침을 문자적으로 따르려고 했기 때문이다. 누구든지 오른 뺨을 치거든 왼편도 돌려대라는 가르침이나(마5:39), 다른 사람들과 화평하라는 가르침(막9:4)을 제자도로 인식했기 때문이었다. 당시의 기독교

인들은 비록 이 땅에서 살고 있으나 이 땅의 질서로부터 자유롭고자 하는 심리적 이민자들이었다. 2세기 중엽의 변증문서인 ‘디오그네투스에게(Epistola ad Diognetum)’에서는 이들을 ‘거주하는 나그네’라고 불렀다.

초기 기독교회가 군복무나 폭력, 전쟁을 반대했다는 점을 보여 주는 흔적이 초기 교부들의 글 속에 나타나 있는데, 안디옥의 이그나티우스(Ignatius, c.35-108)는 자신을 해친 이들에게 복수해서는 안 된다고 가르쳤고, 폴리카르푸스(Polycarpus, c.69-155)는 빌립보인들에게 악에게 대항하지 말라는 베드로 사도의 말씀(벧전2:23)에 순복하라고 했다. 변증가 아테나고라스(Athenagoras)는 180년경 동일한 취지의 기록을 남겼다. 그리고 그는 혈전(血戰, bloody game)이라고 불리는 검투사의 경기에 참여하거나 관람하는 것도 금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것이 생명을 파괴하는 살상이었기 때문이었다. 테르툴리아누스(Tertullianus, c.155-160)의 권고는 보다 분명한 증거라고 할 수 있는데, 그는 음란한 연극 관람이나 살상으로 이어지는 검투 경기 관람은 금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174년경에는 기독교인들은 군복무를 해서는 안 된다고 권면한 바 있다. 그는 군인이 신자가 되었을 경우 즉각적으로 군복무를 그만두든지, 순교자가 될 각오를 해야 한다고 보았다.

초기 기독교가 군복무를 반대하고 비폭력 평화주의를 지행했다는 점은 2세기 후반의 이교도 켈수스(Celsus)의 기독교 비판에서도 암시되어 있다. 켈수스는 기독교인들이 군복무를 반대하고 전쟁을 거부한다면 결국 제국의 멸망을 가져올 것이라고 말하면서 기독교인들의 반전 평화주의를 공격했다. 또 258년에 순교한 키프리아누스(Cyprianus)는 “사람을 죽이는 살인은 범죄로 간주되지만 국가라는 이름으로 행하는 살인은 용기로 간주된다.”라며 국가의 이름으로 행해지는 폭력이나 전쟁을 비판했는데, 이런 점들은 초기 기독교회의 평화주의적 입장을 보여 준다.

정리하면, 초기 교회 지도자들은 그리스도의 가르침과 전쟁은 양립할 수 없다고 보아 전쟁을 반대했고, 전쟁 중에 사람의 목숨을 빼앗는 일은 살인이라고 보아 군복무를 거부했다. 비록 2세기 중반의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 황제(Marcus

Aurelius, 161-180) 치하에서 일부의 기독교인이 군인이 되기도 했고, 3세기에 작성된 ‘히폴리투스의 교회법(Canons of Hippolytus)’에서는 실제로 살인을 행하지 않는다면 기독교인도 군인이 될 수 있다는 전향적 견해가 대두되기도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독교회의 기본적인 입장은 반전 평화주의였다.

이런 현실에서 최초의 양심에 따른 병역 거부자가 있었는데, 그가 북아프리카 누미디아 출신인 막시밀리아누스(Maximilianus, 274-295)였다. 로마제국의 군인인 파비우스 빅토르(Pabius Victor)의 아들이었던 그는 아프리카 지방 총독(African proconsul) 카시우스 디온(Casius Dion)의 징집 명령을 받았다. 그러나 이를 거부하여 295년 3월 12일 처형되었는데, 그가 최초의 병역 거부로 인한 희생자로 우리에게 알려져 있다. 캐독스(C. John Cadoux)에 의하면 막시밀리아누스의 경우와 동일한 병역 거부자들이 적지 않았다고 지적한다. 이런 점들은 초기 기독교의 군 복무 반대와 평화주의적 입장을 잘 보여준다.

3세기에 생산된 교회법에 의하면 목사가 가져서는 안 되는 직업을 열거하고 있는데, 그것은 직업군인, 이발사, 수술 의사, 대장장이였다. 왜 이런 직업을 겸할 수 없다고 규정했을까? 그 이유는 앞의 세 가지 직업은 피를 보는 직업이기 때문이고, 마지막의 대장장이는 이 직업들의 도구를 만드는 자이기 때문이다. 이것은 정착 목회 이전 자급 목회 시대의 일면을 보여 주는 것이지만, 당시 교회의 평화주의적 이상을 보여 주는 흥미로운 기록이라고 할 수 있다.

일반적으로 초기 기독교 교부들은 군복무와 관련하여 많은 글을 남기지는 않았지만, 2세기 말부터 교부들은 군 복무와 전쟁, 그리고 평화에 대해 언급하기 시작하는데, 이런 변화의 중심에서 있었던 인물이 2세기 말과 3세기 초에 활동했던 테르툴리아누스, 그리고 3세기 중반의 오리게네스와 히폴리투스였다. 이들에 대해 간략하게 소개하고자 한다.

테르툴리아누스

카르타고의 테르툴리아누스(Tertullianus, c. 160-c. 225)는 197년경부터 224년까지 약 20여년에 걸쳐 집필활동을 했는데, 라틴어로 쓴 31편의 글이 남아

있다. 그의 초기 작품에 속하는 『변증서』는 이교도들을 대상으로 기독교 신앙을 변호하는 것이 주된 목적이었으므로, 기독교의 비폭력적 특성을 말하면서도 기독교인들은 제국에 충성심을 가지고 있을 뿐만 아니라 군 복무를 포함한 제국민의 의무를 진다는 점을 인정했다. 그러나 후기에 기록한 『화관론』과 『우상숭배론』에서는 군복에 대해 강하게 반대하고 있다. 테르툴리아누스가 군 복무를 반대한 것은 화관과 함께 군 복무가 우상숭배와 관련될 수 있었다는 점 때문이었다. 그런데 교회 지도자가 군 복무를 거부해야 한다고 가르친다면 제국은 누가 지킬 것인가? 켈수스(Celsus)와 같은 이교 철학자들의 거듭된 질문이었다. 이 점에 대한 테르툴리아누스의 대답은 이교도들이 볼 때 수궁하기 어려운 것이었다. 짐, 곧 무기를 버릴 때 발생하는 제국의 위기를 테르툴리아누스는 상관하지 않았고, 그 결과는 하나님께 맡겨야 한다고 보았다. 어떤 결과가 발생하던 그 여파는 길지 않을 것이라고 보았다. 그것은 『화관론』을 쓴 시기는 몬타누스파(Montanist) 이단으로 전향한 다음이었기 때문이다. 몬타누스파는 임박한 재림에 대한 기대 속에 살았던 종말론적 이단이었으므로 테르툴리아누스 또한 재림의 때가 임박하다고 보았으므로 군사적 안전이든 위기가든 간에 곧 지나갈 것으로 이해하고 군 복무는 기독교인들에게 적절치 못한 행위로 말하고 있다.

테르툴리아누스가 군복무를 반대한 진정한 이유가 무엇인가에 대해서는 이견이 없지 않다. 캄펜하우젠(Hans von Campenhausen), 존 헬제렌드(J. Helgeland)는 우상숭배의 가능성 때문이라고 말하지만 메노나이트계 학자들은 테르툴리아누스가 군 복무를 반대한 것은 우상숭배의 위험성뿐만 아니라 피 흘림, 살상을 거부하는 반전사상 때문이었다고 주장한다.

오리게네스

구약성경에 기록된 전쟁사를 풍유적(諷諭的)으로 해석하여 전쟁이나 군복무를 반대하고 평화주의를 주장한 인물이 오리게네스(Origenes, c. 185-254)였다. 그는 가나안 정복 전쟁과 같은 전쟁 기록을 이스라엘 백성들의 영적 싸움으로 해석하여 실제 발생한 전쟁 기록으로 보지 않는다. 이런 그의 입장은 구약의

다른 본문에서도 동일하게 적용되었다. 이사야서 2장 4절, “그가 열방 사이를 판단하시며 많은 백성을 판결하시리니 무리가 그 칼을 쳐서 보습을 만들고, 그 창을 쳐서 낫을 만들 것이며, 이 나라와 저 나라가 다시는 칼을 들고 서로 치지 아니하며 다시는 전쟁을 연습하지 아니 하리라.”라는 본문에서 ‘칼’을 투쟁과 교만을 뜻하는 것으로, ‘보습’이나 ‘낫’은 겸손의 의미로 해석하여 이 본문을 물리적 전쟁과 관련시키지 않았다.

이처럼 그는 구약의 전쟁 기사를 영적 전쟁에 대한 상징으로 해석했다. 그는 구약의 전쟁 기사가 영적 전쟁을 상징하는 것이 아니라면 유대의 역사책들이 교회에서 그리스도를 따르는 이들이 읽어야 할 책으로 전해졌으리라 보지 않는다고 했다. 이를 근거로 테르툴리아누스와 마찬가지로 전쟁이나 군복무를 반대하는 평화주의적 입장을 취한 것이다.

히폴리투스

군 복무와 살상을 반대하여 평화주의를 지향한 또 한 사람의 교부가 히폴리투스(Hippolytus, c. 170-235)였다. 윤리적 엄격주의자였던 히폴리투스는 자신의 『사도전승』에서 매춘업자, 매춘부, 마술사, 점성가, 연극배우, 곡예사나 검투사, 우상 제조업자 등 특정 직업에 종사하거나 그 행위를 하는 자는 교회 회원이 될 수 없다고 보았다. 기독교인이 우상을 소지하거나 부도덕 한 일을 지속하는 것도 부당한 일로 간주했다. 살인을 대죄(大罪)로 간주하는 그가 검투 경기의 참가를 금지해야 한다고 주장한 것은 당시의 검투 경기가 인명 살상으로 이어졌기 때문이다. 히폴리투스가 문제시한 세 가지 죄인 간음, 살인, 배교 중에서 살인은 직접적으로 군 복무와도 관련된 것이었다. 이런 점에서 군복무도 엄격하게 반대하는 입장을 취하게 된 것이다. 그는 『사도전승』의 3개항에서, “하위 계급의 군인은 사람을 죽이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그런 명령을 받는다면 그 명령을 수행해서도 안 되며, 서약을 해서도 안 된다. 만약 이 점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교회 회원권을 박탈한다. 무력을 가진 자나 고위층의 관복인 자쥬트 빛 옷을 입는 위정자가 있다면 그 직에서 사임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회원권

을 박탈한다. 군인이 되기를 원하는 예비신자나 신자가 있다면 그들은 하나님을 경멸하는 것이기 때문에 회원권을 박탈한다.”고 썼다.

재세레파와 평화주의

재세레파 운동은 한 지역에서만 일어난 단일한 개혁 운동이 아니라 스위스, 독일, 모라비아, 네덜란드 등지에서 산발적으로 일어난 복수 운동(複數基源設, polygenesis)이었다. 이 중 토마스 뮌쩌와 쓰비카우의 예언자들(the Prophets of Zwickau), 멜키오르파(The Melchiorites), 뮌스터의 재세레파(The Munster Anabaptists), 데이비스 요리스파(The Group of Davis Joris) 등은 폭력을 용인했던 반면에 스위스 형제단, 모라비아의 후터파, 그리고 메노나이트파는 비폭력 평화주의를 지향했다. 재세레파 그룹 중에서 메노 시몬스(Menno Simons, 1496-1561)로 시작된 메노나이트교회는 일체의 물리력 행사나 폭력 그리고 전쟁을 반대하는 절대평화주의를 지향했는데, 이것은 4세기 이전의 교회가 지향해 온 평화주의의 회복이라고 볼 수 있고, 또 1530년대에 있었던 폭력적인 재세레파 운동, 곧 조지 윌리엄스가 ‘혁명적 재세레파(Revolutionary Anabaptists)’라고 불렀던 멜키오르 호프만(Melchior Hoffmann, C.1500-1543)과 그 후예들의 폭력과 난동에 대한 거부이기도 했다.

메노의 첫 저술은 뮌스터 사건 이후 1536년에 쓴 『레이든의 얀의 신성모독에 대항한 완전하고도 분명한 방법 *Een gantsch duydeleyck ende klaer bewys ... tegens ... de blasphemie van Jan van Leyden*』이라는 소책자였는데, 이 책을 집필하고 두 달이 지난 후 뮌스터파가 함락되었기 때문에 이 글은 굳이 출판될 이유가 없었으므로 공개되지는 않았다. 그러다가 이 책이 출판된 것은 거의 한 세기가 지난 1627년이었다. 이 책에서 메노는, ‘검(劍) 철학 주창자들’의 비기독교적인 성격을 비판하고,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한다는 이름으로 검을 사용한 뮌스터파를 강하게 비판했다. 특히 뮌스터의 종말론이 낳은 폭력적인 천년왕국(千年王國, Millennium)운동의 불행한 결말을 타산지석으로 삼아 보다 철저한 평화주의 운동을 전개했다. 메노는 이전부터 신약성경의 가르침

에 근거하여 평화주의적 가르침을 신봉하고 있었으나 뮌스터 사건은 자신의 확신을 재확인하는 계기였다. 이런 평화 이념은 철학자 칸트(Immanuel Kant, 1724-1804)의 평화사상이 대두되기 3백 년 전의 일이었다.

정리하면, 재세례파 운동은 초기부터 제자도(弟子道, discipleship)를 중시했고, 평화주의는 복음의 핵심이자 총체적으로 ‘그리스도를 본받는 것(imitatio Christi)’이었다. 따라서 예수님의 모범과 초기 기독교의 가르침은 메노를 포함한 재세례파의 생활 방식을 결정하는 중요한 토대였다. 메노는 철저한 비폭력 평화주의에서 재세례파 운동의 새로운 활로를 찾았다. 메노는 진정한 그리스도의 모범은 비전(非戰)이나 반전(反戰)만이 아니라 모든 종류의 대립, 투쟁, 폭력, 무기 소지 등 인간 생명을 위협하는 모든 것으로부터 완전히 이별하는 것이라고 믿었다. 그 확신의 근거는 신약성경이었고, 신약성경은 교회보다 더 높은 권위를 지닌 것이었다. 이런 점에서 메노는 루터처럼 로마 가톨릭의 교회관에서 완전히 떠나 있었다.

평화주의 입장을 보여 주는 메노의 가장 중요한 작품은 1540년 네덜란드어로 출판된 『기독교 교리의 토대*Dat Fundament des Christelycken leers*』였다. 이 책은 신자들을 위한 일종의 교리적 지침서이며 위정자들에게 헌정되었거나 제시되었다는 점에서 칼빈의 ‘기독교 강요’ 초판(1536)과 비교된다. 메노가 국가 권력 자체를 부인한 것은 아니었다. 교회와 국가를 구분했지만, 국가 권력이 신앙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 한 통치자들에게 순종할 것을 요구했다. 이런 주장과 함께 기독교 교리의 토대는 칼의 도도가 아니라 십자가의 도라는 점을 주장했다. 이 책을 보면 메노는 전통적인 로마 가톨릭 영성과 인문주의자 에라스무스(Desiderius Erasmus, 1469-1536)의 평화주의적 경건(pacifist piety)에서 영향을 받았음을 볼 수 있다. 그는 이 책에서 뮌스터파의 폭력적이고 과격한 행동을 단호하게 배격하면서 평화주의를 지향하고 있고, 평화주의적인 재세례파를 변호했다.

미국교회사학회(American Society of Church History, ASCH) 회장을 역임했던 헤롤드 벤(더Harold Bender, 1897-1962)는 재세례파가 세 가지 이상을 추구했다고 보았다. 첫째는 기독교의 본질은 제자도에 있다고 보아 제자도를 실

천했다는 점, 둘째는 교회를 세상과 분리된 고난 받는 공동체로 규정한 점, 셋째는 새로운 윤리로서 사랑과 무저항 사상을 제시한 점이라고 했다.

슐라이트하임 신앙고백서

초기 재세례파 지도자들과 메노 시몬스에 의해 강조된 비폭력 평화주의 사상은 재세례파의 첫 신앙고백서라고 불리는 슐라이트하임 신앙고백서(The Schleithem Confession of Faith, 1527)에서 강조되고 재확인되었다. 이 고백서에서는 3가지 질문을 하고 있는데, 첫째, 기독교인들이 선한 사람을 보호하고 악한 자들에 대항하기 위하여 칼을 사용할 수 있는가? 둘째, 세속적인 문제들에 대한 논쟁과 다툼에 대해 기독교인이 판단을 내릴 수 있는가? 셋째, 기독교인이 정부의 관리로 선출되면 그 일을 감당해야 하는가? 이 세 질문에 대해 각각 ‘아니다’라고 답하고 있고 그 근거로 예수님의 모범이 제시되고 있다. 그러면서 ‘세상 사람들은 철과 동으로 무장하지만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전신갑주, 곧 진리, 의, 평화, 믿음, 구원,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한다’는 점을 강조한다. 이런 정신은 재세례파의 다른 논자들에 의해서도 강조되었다. 예컨대, 훈련된 신학자이기도 했던 독일인 후프마이어(Balthasar Hubmaier, C.1480-1528)는 1527년 6월 24일 『검에 관하여 *Von dem Schwert*』를 출판한 바 있다. 제7항에 대해서는 약간 견해를 달리하는 것을 제외하면, 말할 것도 없이 슐라이트하임 고백서의 계승이었다. 후프마이어는 이 책을 출판하고 한 달이 지난 후 오스트리아 정부에 의해 체포되었고 1528년 3월 10일 비엔나에서 화형을 당했다. 이와 같은 비폭력 평화주의의 이상은 그 이후 재세례파 전통에서 거듭 강조되었고, 이로써 많은 재세례파들이 비난과 박해를 받고 순교하는 길을 걸어갔다.

문제점

평화주의는 성경 교훈의 가장 근접한 주장이라고 생각된다. 전쟁에 참여하기보다는 전쟁의 피해자가 되더라도 전쟁을 거부하는 것은 고상한 가치라고 할 수 있다. 그리스도인은 불의한 해를 받지 않기 위해서 항거하기 보다는 오히려

불의를 당하고 참는 것이 옳다. 소송과 관련하여 바울은, “차라리 불의를 당하는 것이 낫지 아니하며 차라리 속는 것이 낫지 아니하나?”라고(고전6:7) 가르쳤다. 예수님도,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으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 누구든지 네 오른편 뺨을 치거든 왼편도 돌려 대며”(마5:39)라고 가르치셨다. 이런 말씀에서 보면 불의한 세력에 당하는 것이 전쟁에 이기는 것 보다 모든 이들에게 유리할 수 있다. 전쟁의 해악이 초래할 수 있는 파괴와 인명 살상 등 해악을 고려하면 더욱 그렇다. 이런 점에서 폭력과 전쟁을 거부하는 평화주의는 자기희생적 성격이 있다.

그런데 우리를 괴롭히는 질문은, 기독교적 가치를 지키려는 자기희생적인 노력은 타인에게 가해지는 피해를 해소하지 못한다는 사실이다. 전쟁의 피해가 나 자신에게만 국한된다면 기꺼이 평화주의를 선택할 수 있지만, 나의 평화주의는 나 이외의 다른 사람들에게 가해지는 고통을 경감시키지 못하고 도리어 가중시키는 결과를 가져 온다면 문제는 단순하지 않다. 우리는 우리 자신을 보호하기위해서가 아니라 무죄한 이웃을 위해서 싸워야 할 경우도 있을 수 있다는 점이다. 희생당할 아무런 이유나 잘못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나의 평화주의 확신 때문에 더 큰 희생을 당할 수가 있는데, 나에게서는 그런 희생을 요구할 권리가 없다는 점이다. 손봉호는 이를 타자중심의 윤리라고 불렀다. 구체적으로 말하면, 내가 전투에 참가해야할 상황이고 싸울 수 있는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나의 개인적 확신(평화주의) 때문에 집총을 거부하면 우리 쪽의 전투력은 그만큼 약해질 것이고, 그것 때문에 우리가 패전하면 나뿐 아니라 다른 이웃이나 동료나 공동체도 고통을 당하게 된다. 6.25 때 평화주의자가 많아서 전쟁 참여를 기피하였다면 다른 모든 한국인들이 지금 북한 주민이 당하는 고통을 겪고 있을 것이다. 이런 현실적인 문제가 평화주의 원칙을 매우 난처하게 하는 질문이고, 켈수스의 비난도 이런 의미를 포함하고 있었다. 나는 평화주의자가 될 수 있으나 나의 확신 때문에 평화주의자가 아닌 이웃이나 동료 집단이 더 큰 고통을 당하게 된다. 수없이 반복된 질문이지만 여전히 숙제가 아닐 수 없다. 결국 평화주의 신념을 지키기 위해서는 타인의 고통이 불가피하다는 점이다. 그 타인의 고통에도 불구하고 나

의 신념을 지킬 것인가는 오늘 우리의 난제가 되고 있다.

2. 정당 전쟁론 (Just War)

전쟁이 좋지 않다는 점에 이의를 제기할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이다. 그리고 어떤 문제를 해결함에 있어서 전쟁보다 나쁜 대안은 없다는 점에도 대부분 인정할 것이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모든 시대, 모든 나라에서 전쟁은 일어났고, 지금도 일어나고 있고 앞으로도 일어날 것이다. 이사야 2장 4절, “그 칼을 쳐서 보습을 만들고 그 창을 쳐서 낫을 만들 것이며 이 나라와 저 나라가 다시는 칼을 들고 서로 치지 아니하며, 다시는 전쟁을 연습하지 아니하리라”는 상황은 지상에서 실현되기 어려울 것이다. 어떤 점에서 인류의 역사는 전쟁의 역사였다. 그러기에 플라톤(Platon, 427-347 B.C.)은 인류가 소멸되기 전까지는 전쟁이 사라지지 않을 것이라는 자조적인 말을 했을 정도였다. 그래서 기독교 사상가들조차도 어떤 전쟁도 반대하는 절대 평화주의 대신 의로운 전쟁론을 제시하게 된 것이다. 도덕적으로 양심의 가책 없이 참여할 수 있는 전쟁이 있다는 주장이다.

이런 주장을 편 가장 앞선 인물은 로마의 철학자 키케로(Cicero, 106-43BC)였다. 그는 다음의 몇 가지 경우를 정당한 전쟁이라고 판단했다.

1. 전쟁에 참여할 유일한 정당성은 국가의 명예나 안전을 지키는 것이고,
2. 모든 협상이 실패했을 경우 이용할 수 있는 최후의 수단이며,
3. 상대에게 적절한 경고를 하기 위해 반드시 전쟁이 공식적으로 선포되어야 하고,
4. 그 목적은 정복이나 세력확장이 아니라 정의로운 평화를 보장하기 위한 것이어야 하고,
5. 포로와 항복하는 모든 사람들은 보호되어야 하고,
6. 합법적인 군인만 전투에 참여해야 한다.

약간의 차이가 있지만 대략 이런 선에서 어거스틴 아퀴나스 루터 칼빈, 곧 주

류의 기독교회가 이 정당전쟁론을 제시했다. 물론 4세기 이후 곧 콘스탄티누스(Constantinus I, c. 272-337)의 개종(312)과 기독교의 공(公), 그리고 테오도시우스(Theodosius I)의 기독교 국교화(380, 392), 그 이후의 ‘역사적 상황’의 변화가 전쟁과 평화에 대한 새로운 인식에 영향을 주었다. 역사적 상황이란 교회가 국가의 요구를 거절할 수 없게 되고, 국가의 과제를 종교적으로 뒷받침해야 하는 상황을 의미한다. 교회는 로마제국의 방어적 전쟁이든 영토 확장을 위한 전쟁이든 상관없이 제국의 안녕과 번영을 위해, 그리고 전쟁의 승리를 위해 기도해야 했다. 기독교가 제국의 종교가 되자 제국의 영토 확장을 지지할 수밖에 없었고, 초기 기독교회가 견지했던 평화주의는 퇴조하고 그 대신 ‘정당전쟁론(正當戰爭論, Just war theory)’이 대두하게 된다. 무죄한 자를 방어하고, 부당한 탈취를 회복하여 정의를 보장하고 평화를 유지하기 위한 전쟁이라면 전쟁은 정당성을 지니고, 이럴 경우 군 복무와 전쟁 참여는 가능하다는 주장이었다. 이제 전쟁 자체가 문제시된 것이 아니라, 무엇이 ‘의로운 전쟁’이며 무엇이 ‘정당한 전쟁인가’가 중요한 논점이 되었다. 이 이론을 제시한 첫 인물은 앞서 소개한 로마의 철학자 키케로(Cicero, B.C.106-43)였다. 기독교권에서는 암브로시우스(Ambrosius)를 거쳐 아우구스티누스(Augustinus)에게 와서 정당전쟁이론이 체계화되었고, 기독교인의 참전권(參戰權)은 의로운 전쟁론의 지지를 받으며 조직적으로 정당화되었다. 이런 경향은 교회와 국가의 결속으로 볼 수 있는 기독교국가(Christendom) 시대의 자연스러운 현상이었다. 그래서 캄펜하우젠은 “초기 기독교회는 평화주의적이었지만 콘스탄티누스 대제 이후 교회는 제국을 지켜야 할 책임을 부여받았고, 교회는 이런 책임을 회피할 수 없었다.”라고 지적한다. 이런 상황에서 초기 기독교의 평화주의적 전통은 4세기 이후 ‘정당전쟁론’으로 서서히 대치되기 시작한다.

350년경 아타나시우스(Athanasius, 295/300-373)는 “살인은 허용되지 않는다. 그러나 전쟁에서 적군을 죽이는 일은 합법적이며, 칭송받을 일”이라고 했다. 그로부터 25년이 지난 뒤 암브로시우스(Ambrosius)는 “야만인들에 대항하여 고향을 지키고, 가정에서 약자를 방어하고, 약탈자로부터 자국민을 구하는 싸움은

의로운 행위”라고 보았다. 4세기 후반으로 갈수록 평화주의 전통은 더욱 후퇴하고 전쟁을 허용하는 변화가 나타났다. 392년 이후 기독교가 제국의 유일한 공인된 종교가 되자 교회와 제국은 협력자이자 동반자가 되었고, 군 복무나 병역을 거부하거나 제국의 이름으로 행하는 전쟁을 반대할 이유가 없게 되었다.

그렇다고 해서 교회가 모든 전쟁을 옹호하게 된 것은 아니다. 어떤 경우에 전쟁이 정당화될 수 있는가를 문제시함으로써 전쟁을 제한하고자 했다. 핵심은 그 전쟁의 동기나 원인이 정당한가의 문제였다. 이런 변화의 와중에서 암브로시우스와 아우구스티누스는 무엇이 정당한 전쟁인가에 대한 대표적인 이론가로 대두되었다.

암브로시우스

4세기 서방교회 교부였던 암브로시우스는, 정당한 이유가 있다면 전쟁은 수용될 수 있다고 보는 정당전쟁론을 지지한 대표적인 인물이었다. 밀란의 주교가 되기 전 집정관이었던 그는 제국을 군사적으로 방어하는 것이 신앙의 수호와 일치한다고 생각했다. 당시 아리안(Arian)족 등 이교 야만족들이 기독교 세계가 된 로마제국을 침략하는 것을 기독교 신앙에 대한 모독으로 보았기 때문이었다. 암브로시우스는 제국의 군사 활동에 정당성을 부여하기 위해 구약 본문을 원용하기도 했다. 즉 블레셋과 다른 이방족속들에 대항한 이스라엘의 전쟁을 전쟁이 정당화될 수 있다는 증거라고 보았다. 이 점을 야만족에 대항하여 싸우는 로마의 기독교인들에게 확대 적용하였다. 암브로시우스는 세 가지 조건을 충족시킬 때 정당한 전쟁으로 간주될 수 있다고 보았다.

첫째, 전쟁은 자기 자신이 아니라 남을 보호하는 관점에서 허용될 수 있다.

둘째, 수도승이나 성직자들은 전쟁 행위에서 제외되어야 한다.

셋째, 전쟁 행위가 정당하게 수행되어야 한다. 정당하게 수행되어야 한다는 말은 전쟁의 의도와 목적, 원인 등이 정당해야 하며, 정당한 권위에 의해 전쟁이 선포되고 정당하게 수행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그는 전쟁의 원인보다는 전쟁의 목적의 정당성을 중시했다. 전쟁이 기독교 제국의 방어가 아니라 전쟁의

목적은 평화이어야 한다는 것이 암브로시우스의 입장이었다.

아우구스티누스

암브로시우스를 거쳐 아우구스티누스(Augustinus of Hippo, 354-430) 때 와서 그리스도인의 참전권은 정당전쟁론으로 조직적으로 정당화되었다. 그는 전쟁을 다른 악과 마찬가지로 인간 죄의 결과로 인식하고 반대했다. 그는 지상에서의 온전한 평화는 기대할 수 없고, 완전한 평화는 적들의 도전이 없는 천국에만 있다고 보아 지상에서의 평화는 비현실적이라고 인식했다. 지상에서의 전쟁은 불가피한데, 문제는 어떻게, 그리고 어떤 경우에 정당화될 수 있는가 하는 것이었다. 암브로시우스와 마찬가지로 아우구스티누스도 전쟁의 목적은 평화의 회복이어야 하고, 그 평화는 정의에 근거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보았다. 정의가 없이는 진정한 평화가 이루어질 수 없다고 보았기 때문이다. 피를 흘리지 않고도 불의가 시정될 수 있다면 최선의 것이지만, 전쟁이 불가피하다면 그 전쟁은 정의로워야 한다고 보았다. 그러면서 세 가지 조건을 갖추어 전쟁은 정당화될 수 있다고 보았다.

첫째는 정당한 원인(just cause)이었다. 선제 공격이 아닌 외부의 침략에 의한 불가피한 방어적 전쟁일 경우여야 한다. 둘째는 정당한 의도(just intention)였다. 전쟁의 의도가 복수나 앙갚음, 혹은 상대방의 파멸이 아니라, 자행된 악을 제거하고 파괴된 평화를 회복하려는 것이어야 한다. 또 무죄한 자를 보호하기 위한 경우나 부당하게 빼앗긴 것을 되찾기 위한 경우도 의도가 정당하다고 보았다. 셋째, 그 전쟁이 최후의 수단(the last resort)이어야 한다. 다른 어떤 방법으로도 정의에 근거한 평화를 회복할 수 없을 때 선택하는 마지막 수단이어야 한다고 보았다. 곧 전쟁은 궁극적으로 평화를 회복하기 위한 것이어야 한다는 점이다. 이런 조건을 갖춘 경우의 전쟁은 정당성을 갖는다는 것이다.

아우구스티누스는 이런 조건 외에도 정당화될 수 있는 전쟁의 규약을 말했는데, 첫째, 합법적인 권위(lawful authority)를 지닌 정부에 의해 공식적으로 선

포된 전쟁이어야 하고, 둘째, 비전투요원 곧 민간인은 보호받아야 하며, 셋째, 전쟁 중에는 방화, 약탈, 학살 등을 자행해서는 안 되고, 그리고 넷째, 수도승이나 성직자들은 전쟁 행위에서 제외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것이 그의 전쟁 규약이었다.

정당전쟁론, 혹은 의로운 전쟁론이라고 할 때도 전쟁 자체를 옹호하는 것이 아니라, 가능하면 피해야 하지만 불가피한 경우에도 이상과 같은 조건을 충족시킬 때만 그 전쟁이 정당화될 수 있다는 것이다. 그래서 아우구스티누스는 정당한 전쟁은 승리의 가능성(feasibility of victory)이 있어야 한다는 점을 부가적 조건으로 제시했다. 전쟁은 불가피하게 인명 피해와 그로 인한 고통을 수반하게 되는데, 이런 희생 이상의 선한 결과를 얻지 못한다면 굳이 전쟁을 해야 할 이유가 없다는 의미였다. 이 점 또한 전쟁을 옹호하는 것이 아니라 전쟁을 피하게 하려는 의도였다. 결국 아우구스티누스의 정당전쟁론은 정당한 조건만 충족시키면 전쟁을 해도 좋다는 의미라기보다는, 전쟁으로 인한 피해 그 이상의 선한 결과를 도출할 수 있을 경우에만 전쟁이 허용될 수 있다는 주장이라고 할 수 있다. 다시 말하면 정당한 조건을 갖추었다 할지라도 가능하면 전쟁을 억제하려는 의도가 있었음을 알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당전쟁론은 절대평화주의에서의 분명한 후퇴였다. 기독교가 로마제국의 종교가 된 후 기독교의 비폭력적, 반전주의적 태도는 416년에 와서 완전히 전위되었다. 황제가 모든 군인들은 기독교 신자가 되어야 한다고 공표한 것이다. 이제 군복무와 기독교 신앙은 아무런 충돌도 일으키지 않게 되었다. 불과 1세기 만에 기독교의 입장이 완전히 변화된 것이다. 이것을 레이든대학 교수였던 헤링(Gerrit Jan Heering, 1879-1955)은 ‘기독교의 타락’이라고 불렀다.

이런 아퀴나스 루터나 칼빈에게로 이어지면서 서구의 주류의 기독교회의 전통이 되었다. 여기서는 루터의 견해에 대해서만 소개하고자 한다.

루터

앞에서 지적했듯이 루터나 칼빈 등 주류의 개혁자들은 넓은 의미에서 아우

구스티누스, 아퀴나스의 전통을 잇는 의로운 전쟁론 혹은 정당전쟁론을 수용했다고 볼 수 있지만, 16세기적 상황에서 약간의 유연성을 지니고 있었다. 루터는 앞 시대의 정당전쟁론을 수용하되, 근본적으로 국가 권력의 공권력은 하나님께서 위임하신 것으로 보아 권력 행사의 정당성을 인정했다. 루터는 왕이나 황제 같은 통치자가 신민을 보호하기 위한 직책을 실행할 때는 이에 복종해야 한다고 보았고, 악을 행하는 무리들을 벌하는 전쟁은 평화를 회복하는 일이라고 보아 이를 정당한 전쟁으로 인식했다. 즉 시민의 생명을 구하고 평화를 보존하고 방어하기 위한 방어적 전쟁은 정당한 것으로 본 것이다. 그러나 전쟁을 개시하기 전에 모든 평화적 수단을 강구하여 문제 해결을 시도해야 하고, 전쟁은 최후의 수단으로 허용되어야 한다는 입장이었다. 평화적 수단을 강구한 후에 전쟁, 곧 필연의 전쟁(war of necessity)이 되어야 한다고 보았다. 이런 점은 정당전쟁론 전통에서 항상 강조되어 온 것이다. 전쟁의 범위는 악을 행한 자나 공격자에게로 제한되어야 한다고 본 것도 루터의 고유한 주장이라고 할 수는 없다. 전쟁과 평화에 대한 루터의 생각은 특히 『터키인들에 대항하는 전쟁에 관하여 *Vom Krieg wider die Türken*, 1529』에 잘 드러나 있다. 이 글에서 루터는 군인의 직 자체를 하나님의 공직으로 보았고, 또 전쟁 자체를 반대하는 입장을 취하지 않았다. 그는 선제적인 공격에 대해서는 부정적이었지만, 적으로부터 공격을 받는다면 방어적 전쟁은 불가피하다고 보았고 이럴 경우 전쟁은 정당성을 갖는 것으로 인식했다. 이런 점에서도 루터는 이전 시기의 정당전쟁론을 수용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루터의 정당전쟁론은 루터파의 신앙고백서인 아우구스부르크 신앙고백에서도 나타나는데, 이 신앙고백서 16조에서는 이렇게 말한다.

경찰과 세속 정부에 관하여 우리는 이렇게 가르친다. 즉 세상에 있는 모든 정권과 조직을 갖춘 정부와 법들은 하나님께서 만드시고 제정하신 선한 질서이다. 그리스도인들이 공직을 맡거나 재판관으로 봉사하며, 제국의 법률이나 그 밖의 법을 따라 언도하거나, 무법자를 권세로 벌하며, 정당한 전쟁을 이끌며, 군인으로

복무하거나(to engage in just wars, to serve as soldiers) 소송을 하거나 사고
팔고 서약하며 재산을 소유하며 혼인하는 것은 죄가 아니다.

그리스도인들이 공직을 맡고 정의로운 전쟁에 참여하며 군인으로 복무하는
것은 합당하다고 선언하고 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전쟁과 같은 무력
의 사용은 적법한 통치자에 의한 것이라야 한다는 점이었다. 세속 통치자도 하
나님께서 세우신 것이기에 통치자의 법 집행을 인정하여 전쟁에 임할 수 있으
나, 일반 시민의 경우에는 어떤 경우라도 임의로 무력이나 칼을 사용해서는 안
된다는 입장이었다. 이런 입장을 잘 보여 주는 사례가 1524년부터 그 다음해
에 걸쳐 발생했던 농민전쟁 때의 루터의 태도였다. 루터는 정당한 권리를 부여
받지 못한 자가 무력을 사용하여 반란을 일으킨 경우, 이를 진압하기 위한 무력
동원에 찬성했다.

종합적으로 검토할 때, 루터는 폭력이나 전쟁을 맹목적으로 지지하지도 않았
지만 평화주의자도 아니었다. 이 점은 두 가지 개혁 운동, 곧 광적인 열광주의나
낙관적인 평화주의를 반대하여 평생 동안 싸웠던 점에서도 드러난다. 그는 안
드레아 칼슈타트(Andreas Karlstadt, 1486-1541), 쓰비카우의 예언자들(Zwick-
au prophets), 그리고 토마스 뮌처와 같은 혁명주의적 영성운동도 반대했고, 세
속 정부의 법과 검을 폐지하고자 했던 광적인 재세례파나 분리주의적인 집단들
과도 거리를 두고자 했다. ‘두 왕국 교리(two kingdoms doctrine)’는 바로 이들
집단과의 구별을 위해 필요했다. 결국 루터는 정당전쟁론을 수용하되 국가 권
력의 무력 사용을 정당한 권위의 행사로 보아 이를 용인했다고 할 수 있다.

종합과 정리, 그 이후의 발전

이상에서 암브로시우스와 아우구스티누스, 그리고 루터의 정당전쟁론에 대
해 소개했는데, 정리하면, 전쟁은 언제 어디서나 심각한 폭력과 파괴, 그리고
인명의 살상을 동반하기 때문에 전쟁이 없는 살림의 상태가 가장 좋은 현실이
지만, 인류의 역사란 전쟁의 역사라고 할 만큼 인류는 전쟁을 피할 수 없다. 이

런 인식에서 출발한 정당전쟁론에서 정당한 전쟁이 되기 위한 조건을 크게 두 가지로 말할 수 있는데, 첫째는 ‘전쟁을 향한 정의(jus ad bellum)’, 곧 전쟁을 수행할 수 있는 정의를 말한다. 둘째는 ‘전쟁에서의 정의(jus in bello)’, 곧 전쟁 수행 과정에서의 정의가 그것이다. 전자는 정의로운 전쟁의 조건이 무엇인가의 문제이고, 후자는 전쟁 수행 과정에서 그 전쟁이 정의롭기 위해서 지켜야 할 조건이 무엇인가 하는 문제라고 할 수 있다.

1. 정의로운 원인(causa iusta): 전쟁을 하는 이유가 공격당한 나라를 방어하는 것과 같이 심각한 악에 대한 정의여야 한다.
2. 국가의 권위자에 의한 전쟁(legitima potestas): 전쟁이 개인이나 사적인 특정 집단에 의한 것이 아니라 국가의 합법적인 권위자에 의해 공식적으로 선포된 전쟁이어야 한다.
3. 정당한 의도(recta intentio): 전쟁의 의도가 다른 나라에 대한 복수나 약탈이나 파괴가 아니라 파괴된 정의와 평화를 회복하기 위한 수단이어야 한다.
4. 최후의 수단(ultima ratio): 전쟁은 다른 모든 수단으로 해결 할 수 없는 최후의 수단이어야 한다.
5. 상대적 정의(relative iustitia): 전쟁 당사국은 적국보다 더 도덕적이어야 한다.
6. 승리의 가능성(facultas victoriae): 전쟁은 이길 수 있는 상당한 가능성이 있을 경우에만 시행되어야 한다. 또 전쟁의 결과가 고통과 악을 능가하는 선이 도출되어야 하고, 전쟁 수행 과정에서의 인적 물적 손실보다 더 큰 것이어야 한다.

또 ‘전쟁에서의 정의’, 곧 전쟁 수행 중 아래의 조건을 갖추어야 그 전쟁이 정당하다고 할 수 있다.

1. 무력 사용의 제한: 전쟁 수행에서 이기는 데 필요한 그 이상의 파괴를 가져오게 하거나, 사회 간접 자본의 파괴나 잔인한 폭력, 보복, 약탈 등은 금지되어야 한다.
2. 비전투요원의 보호: 전쟁 수행 과정에서 민간인이나 비전투요원은 피해가 가지 않도록 보호되어야 한다.

이상과 같은 정당전쟁론은 인간에게 무엇이 옳고 그른지를 판단하고 행동할 능력이 있다는 인간에 대한 신뢰에서 출발하고 있다는 점에서 비판을 받고 있다. 그러나 이보다 더 큰 문제는, 본래 정당전쟁론은 정당화될 수 있는 기준을 제정함으로써 무력의 사용을 최소화하자는 취지에서 출발했지만, 결과적으로는 전쟁을 허용하는 논리로 악용되거나 폭력 사용의 합리화를 추구하는 전거로 이용될 수 있다는 점이다.

문제점

앞에서 제시된 정당전쟁론이 말하는 전쟁 조건들은 시기와 지역에 따라 약간의 차이가 있으나 대동소이한데, 몇 가지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첫째, 전쟁을 선포할 수 있는 ‘합법적인 권위’라는 문제도 단순하지 않다. 어떤 경우를 합법적인 권위라고 할 수 있는가? 히틀러도 합법적으로 정권을 잡았음으로 합법적 권위라고 할 수 있고, 6.25를 일으킨 김일성의 정권도 합법적인 권력이라고 말하고 있기 때문이다.

둘째, 전쟁 후의 상태가 전쟁의 원인이 되는 악을 충분히 보상할 때만 정당하다는 것도 이론적일뿐 정확하게 산정(계산)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전쟁이란 복잡하고 복합적인 현상이기 때문에 어떤 예측이나 계산도 정확할 수 없다. 셋째, 전쟁을 일으키거나 전쟁에 참여하는 정당성으로 가장 빈번하게 이용되는 구실이 ‘방어적’이라는 것인데, 이런 구실은 거의 모든 전쟁에서 이용되어 왔다. 김일성도 (미군이 남한에서 출수했음에도 불구하고 미국의 예상되는 위협에 대한 방어적 전쟁이라고 주장했고, 1967년의 이스라엘 비행기가 이집트비

행장을 폭격함으로 시작된 ‘6일 전쟁’도 이스라엘은 아랍국가들이 예상되는 공격을 미리 차단하기 위한 방어적 공격이라고 주장한다.

넷째, 키케로가 주장하는 정당 전쟁이론과 기독교권의 정당전쟁론의 한 가지 차이는, 키케로는 국가의 명예와 안전을 중시하고 있으나, 기독교권의 지도자들은 이 점에 대해서는 말하지 않고 있다는 점이다. 키케로는 국가의 안전과 명예를 중시했으나 기독교지도자들은 국가에 대해 언급하지 않았다. 외국과 전쟁이 발발하면 조국을 위해 싸운다는 생각을 하게 되지만, 기독교는 이런 형식의 국가관을 수용할 수 없다. 국가란 사회질서를 유지하기 위한 하나의 기구일 뿐, 그것은 신성하지도 않고 절대적인 것도 아니다. 애국심이라는 것도 거대한 집단 이기주의일 수 있다. 민족이라는 개념의 민족주의도 역사 언어 문화 관습을 공유하는 종족집단의 이익을 추구하는 집단적 이데올로기이지 그것이 윤리적이거나 절대적 가치일 수 없다. 이렇게 볼 때 국가의 이익이나 명예 확보가 전쟁의 정당성을 부여할 수 없다. 그러므로 국가가 불의한 전쟁을 수행하고자 할 때 그리스도인들과 양심적인 시민들은 전쟁을 거부할 수 있어야 한다. 일본이 대동아전쟁을 수행할 때 이를 비판했던 야나이하라 타다오(矢内原 忠雄)가 이런 경우였다.

3. 거룩한 전쟁론 (The Crusade)

중세시대 십자군 전쟁은 흔히 성전(聖戰)으로 일컬어져 왔다. ‘거룩한 전쟁’이란 의미의 성전은 전쟁 행위에 종교적 의미를 부여한 이론으로서 대적과의 싸움은 신적 요구로서 신에 대한 봉사이며 종교적 특권이자 구원의 방편이 된다고 생각한다. 전쟁은 피하거나 거절해야 하는 행위가 아니라 종교적 목적에 의한 성스러운 수단으로 간주한다. 이런 성전 개념은 구약으로부터 도출된 개념인데, 크로스(F. M. Cross), 고트발트(N. W. Gottwalt), 폰 라트(G. von Rad) 등의 학자들은 구약의 전쟁 기록을 ‘거룩한 전쟁(milhāmāh qedhōshāh)’이라는 관점에서 이해하였다. 구약에 보면 130건의 전쟁 기록이 있는데, 구약에서 전쟁을 뜻하는 밀하마(milhāmāh)라는 단어가 300회 이상 나타난다. 이런 구약의

전쟁 기록이 중세시대의 ‘거룩한 전쟁론’의 기초가 되었고, 이슬람의 지하드 Zihard 사상의 근거가 되기도 했다. 성전론을 뒷받침해 준 본문이 예레미야 48 장 10절, “여호와와 그의 일을 태만히 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요, 자기 칼을 금하여 피를 흘리지 아니하는 자도 저주를 당할 것이로다.”라는 말씀이었다. 이 본문이 1095년 11월의 클레르몽 공의회(Council of Clermont)를 시작으로 1291년까지 성지 탈환이라는 이름으로 전개되어 약 200년간 계속된 십자군 전쟁의 가장 중요한 전거였고, 이 본문에 근거하여 학살이 정당화되었다.

이와같은 성전론이 대두하게 된 배경은 아래와 같다. 4세기 이후 이민족과 기독교 세계의 대립과 대결이 심화되면서 평화주의는 후퇴하고 의로운 전쟁론이 대두되었으나, 정당전쟁론은 이론적으로 빈번하게 왜곡되기도 했다. 야만인들이나 이슬람 세력의 호전적인 공격 앞에서 전쟁의 정당성을 심사할 겨를이 없었기 때문이다. 도리어 제국의 정복 전쟁은 이교도의 개종과 교화(教化)를 위한 하나님의 일, 곧 성전(聖戰)으로 인식되기 시작한다. 그 단적인 예가 590년 교황이 된 그레고리우스 1세(Gregorius I, 재위 590-604)의 경우였다. 그는 전쟁을 신앙 확산의 도구로 여겼고, 기독교 신앙을 해치거나 모독하는 이민족의 행위에 대해서는 전쟁이 복수의 수단이었다. 샤를마뉴(Charlemagne, 재위 768-814)는 8, 9세기 이탈리아 해안 지역을 습격하는 이슬람교도들과 싸우는 기사들에게 ‘죽으면 천국으로 인도된다’고 가르치면서 거룩한 임무를 부여한 바 있고, 기독교적인 유럽이 계속해서 이민족들의 침략을 받던 9, 10세기에는 의로운 전쟁 개념이 특히 이교도들과의 전쟁 개념과 결부되었다. 이런 의미에서 교황 레오 4세(Leo IV, 재위 847-855)와 요하네스 8세(Johannes VIII, 재위 872-882)는 이슬람 아랍인이나 노르만족과 같은 이교도들과의 전쟁에서 목숨을 잃는 자들은 영생을 얻으리라 약속했다. 이교도와의 전쟁을 정당한 전쟁으로 간주한 또 한 사람의 교황이 그레고리우스 7세(Gregorius VII, C.1015-1085 재위 1073-1085)였다. 이른바 서임권투쟁(敍任權鬭爭, Investiture Controversy)을 통해 교황의 권위를 신장한 그는 이교도와의 전쟁을 “세상의 올바른 질서”를 확립하는 데 불가피한 정당한 조치로 이해했다. 1050년부터 스페

인에서 시작된 재정복전쟁(Reconquista)도 교회의 지지를 받았고 성전(聖戰), 곧 거룩한 전쟁으로 간주되었다.

십자군 전쟁에 앞서 벌어진 1071년의 만지케르트(Manzikert) 전투는 기독교와 이슬람의 전쟁으로서 십자군 전쟁의 전초전으로 불리고 있다. 만지케르트 전투는 셀주크 투르크(Seljuq Turk)군 5만 명과 비잔티움 제국(Byzantine Empire), 동로마제국의 20만 대군이 만지케르트, 곧 지금의 터키 동부 말라즈기르트(Malazgirt)에서 벌인 전투로, 이때 이슬람 세력인 셀주크 투르크가 승리하여 비잔티움 제국의 황제 로마누스 4세는 포로로 잡혀가는 굴욕을 당했다. 이 전투에서의 승리로 셀주크 투르크는 서아시아 지역으로 진출하게 되었고, 이 전쟁은 비잔티움 제국의 쇠퇴를 가져오게 된다.

십자군 전쟁(1095-1291)

만지케르트 전투로부터 꼭 25년 후에 일어난 십자군 전쟁은 대표적인 성전이었다. 이 전쟁에서 성전 개념이 구체적으로 대두되었기 때문이다. 1095년 11월 27일, 프랑스의 클레르몽 공의회(Council of Clermont)에서 53세의 교황 우르바누스 2세(Urbanus II, 1042-1099)는 십자군 원정을 선포했다. 10세기 이래 세력을 확대한 이슬람 세력 셀주크 투르크족이 비잔티움 제국을 압박하고 1077년에는 기독교의 주된 성지인 예루살렘을 점령하면서 예루살렘 순례자들을 박해하자, 비잔티움 제국의 황제 알렉시우스 1세(Alexius I, 재임 1081-1118)가 로마 교황에게 도움을 요청하였다. 요청을 받은 교황 우르바누스 2세는 유럽 군주와 제후들을 향해 성지(聖地) 탈환을 위한 십자군을 호소했다. 이때 그곳에 모인 이들은 ‘하나님께서 원하신다(Deus vult!)’라고 외치면서 호응했다. 교황은 십자군에 참여하면 속죄받기 위해 하는 고행(苦行)을 면제해 주겠다고 약속했다. 전대사(全大赦, indulgentiae plenariae)를 선포한 것이다. 그는 이렇게 설교했다. “육지에서나 해상에서 이교도들과 싸우다가 죽은 모든 이들에게는 전대사가 주어질 것입니다. 나는 하나님께로부터 부여받은 권한으로 전쟁에서 죽은 모든 이들에게 모든 죄의 사면을 허락할 것입니다.”

교황만이 아니라 ‘유럽의 양심’으로 불리던 클레르보의 베르나드(St. Bernard de Clairvaux, 1090 - 1153)도 성전예의 참여는 수도사가 되는 것 이상으로 보람된 일이라며 참여를 호소했고, 모병(募兵)에 적극적으로 가담했다. 1096년 8월 대규모의 다국적 군대가 결성되어 예루살렘으로 출발했다. 이때 참가한 기사들이 가슴과 어깨에 십자가 표시를 했기 때문에 이들을 ‘십자가의 전사들’이란 의미로 ‘크로케시그나티(crocesignati)’, 곧 십자군(Crusade)이라고 부르게 되었다. 전쟁은 1096년의 제1차 십자군을 시작으로 이후 여덟 차례에 걸쳐 1291년까지 200여 년 동안 지속되었고, 유럽사회에 커다란 변화를 가져왔다.

637년 이래로 악한 이민족 이슬람 세력의 지배하에 있던 예루살렘을 탈환한다는 명분으로 시작된 전쟁은 기실 살인과 약탈 등의 거대한 폭력이었다. 캔터베리의 안셀무스(Anselmus Cantuariensis, 1033-1109) 같은 이는 전쟁을 통한 문제 해결 자체를 강하게 반대했지만 그의 목소리는 군중의 함성에 묻혀 버렸다. 이슬람이나 이교도들로부터 기독교를 지키는 것은 거룩한 소명이며 이를 위한 전쟁은 불가피하고 정당한 수단이라는 인식이 팽배했기 때문이다. 이런 과정에서 통제되지 않는 잔인한 폭력과 살상이 자행되었다. 한 가지 사례를 말한다면, 1099년 예루살렘을 정복한 제1차 십자군은 사흘 동안에 3만 명을 살육했다. ‘성스러움’을 ‘전쟁’에 더하면 전쟁이 정당성을 갖게 될 뿐만 아니라 폭력이나 살인에 무감각하게 되어 더욱 잔혹하게 된다. 그렇게 십자군 전쟁은 잔인한 폭력을 정당화한 것이다.

여러 전쟁과 그 폐해를 경험한 11세기 프랑스에서, 그리고 후에는 독일에서 ‘하나님의 평화(pax Dei, Peace of God)’와 ‘하나님의 휴전(treuga Dei, Truce of God)’ 운동을 펼쳐졌지만, 성전이라는 대의명분 앞에서는 무력했다. ‘하나님의 평화’란 전쟁에서 제외되어야 할 대상을 확대함으로써 전쟁에 가담하는 자들을 제한하려는 운동이었다.

‘하나님의 휴전(treuga Dei)’이란 1027년 프랑스 툴루스(Toulouges)에서 모인 툴루스 공의회에서 정한 규정으로서 군사 작전 혹은 군사 활동 기간을 제한

하는 운동이었다. 처음에는 토요일 저녁부터 월요일 아침까지 휴전해야 한다는 것이었으나 후에는 주현절부터 승천기념일까지, 그리고 사순절에서 성령강림절 이후 8일까지, 그리고 매 주일과 금요일에는 전쟁을 피하고 휴전해야 한다는 그런 운동이었다. 이런 운동이 있었으나 십자군 전쟁에서는 지켜지지 않았다. 십자군에 가담하는 이들은 실제로 자신을 칼을 휘두르는 거룩한 ‘하나님의 전사(milites Dei)’ 혹은 ‘그리스도의 전사(milites Christi)’로 인식했다. 초기 기독교회에서는 칼을 맞고 희생된 자가 순교자였으나, 이제는 칼을 써서 사람을 죽인 자가 순교자로 추앙받는 시대가 된 것이다.

문제점

앞에서 보았듯이 성전론은 첫째, 인간(개인이나 집단)의 뜻을 신의 뜻으로 동일시할 위험이 있다. 자기는 의롭고 상대는 악하다고 간주하고 이의 척결을 신의 뜻으로 동일시한다. 둘째, 신의 이름을 빙자한 전쟁이기 때문에 전쟁 행위에서 발생하는 모든 파괴, 인명 살상을 정당화하고 이를 신을 위한 분투(奮鬪)로 간주한다. 셋째, 이런 이념 때문에 전쟁은 잔인하게 수행된다. 성전론은 이것 아니면 저것 흑백논리를 따라 적을 신에 대한 원수로 간주하여 가차 없이 제거되 극단적인 성격을 띄게 된다. 극단적인 이슬람 세력이나 최근 아프카니스탄에서 이런 일이 자행되고 있다. 살인 학살 처형 등의 전쟁 행위는 성스러운 수단일 뿐이다.

맺는말

이상에서 전쟁과 평화에 대한 기독교 전통의 3가지 유형의 주장에 대해 검토하였다. 각각의 주장에 대해 살펴보고 문제점을 제시하였다. 역사적으로 볼 때, 예루살렘에 교회가 설립된 후 첫 300년간은 평화주의 입장을 취했으나 4세기 이후 정당전쟁론으로 대치되었고, 중세 교회에서는 거룩한 전쟁론이 대두되기도 했다. 16세기 이후 다시 평화주의가 제시되기도 했으나 주류의 기독교회는 정당전쟁론 전통을 따랐다고 할 수 있다. 20세기 이후에는 전쟁은 현실적으로 볼

가피하다는 현실주의(war realism)가 대두되기도 했지만, 정당전쟁론은 16세기 종교개혁자들에게도 계승되어 가톨릭뿐 아니라 주류 개신교회의 지지를 받았고 현대 평화사상에게도 영향을 끼쳤다. 즉 암브로시우스와 아우구스티누스, 아퀴나스를 거쳐, 루터(Martin Luther), 칼빈(Jean Calvin), 그리고 라인홀드 니버(Reinhold Niebuhr), 폴 램지(Paul Ramsey)로 이어 오면서 주류 교회의 전쟁론으로 발전되었다. 즉 이들은 악에 대항하고, 약자를 보호하고, 적의 공격에 대한 정당방위로서의 방어적 전쟁은 정당한 전쟁이라는 입장에서 거의 일치하였다.

물론 이런 중세의 큰 흐름 가운데서도 병역 거부나 비폭력, 반전 평화주의가 완전히 사라진 것은 아니었다. 4세기 투르의 마르틴(Martin of Tours, C.316-397), 로마교회에 의해 이단으로 지목된 11세기 카다리파(Catharie)나 12세기 왈도파(Waldenses)도 평화주의를 지향했다. 대체적으로 소(小)종파 기독교 집단이 평화주의를 지향했다. 이탈리아 동북부 지역인 파두아의 마르실리오(Marsilio of Padua, C.1275-1342) 또한 평화주의자였다. 그는 1324년 『평화의 수호자*Defensor Pacis, Defender of the Peace*』라는 책을 썼다. 그는 이 책에서 사회 통합 요소는 교회가 아니라 국가라고 보았고, 세속 군주의 기능은 평화를 유지하는 것이라고 보아 전쟁을 반대했다. 그는 또 종교 문제에 대한 국가 권력의 강제력 사용을 반대하였다. 이는 아우구스티누스가 ‘정의에 근거한 경우에’ 국가 권력을 통해 이단을 억제할 수 있다고 하여 이단 박멸을 위한 국가 권력의 무력 행사를 정당화한 이론(Compelle intrare)을 반대한 것이다. 마르실리오는 평화주의자였을 뿐만 아니라, 교황우선주의(Curialism)를 반대하고 교회 회의가 교황의 권위보다 우월하다고 주장한 인물이기도 하다.

14세기의 위클리프(John Wycliffe, 1324-1384)도 평화를 중시하여 전쟁은 그리스도의 가르침과 모순된다고 가르쳤으나, 전쟁이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는 수단이 될 수 있으며 민중을 계도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다는 점도 인정했다. 이런 점에서 그는 평화지향적이었으나 절대평화주의자라고 볼 수는 없다. 보헤미아의 교회개혁자 얀 후스(Jan Hus, C.1372-1415)의 후예인 후스파(Hussite)에는 얀 지슈카(Jan Ziska, C.1360-1424)와 같은 전투적 지도자가 있

었는가 하면 평화주의를 지향한 이들도 있었는데, 그러한 인물이 페트르 폰 켈시츠키(P. von Chelcicky, C.1390-C.1460)였다. 이들 외에도 아탈리아의 위대한 문인 단테(Dante, 1265-1321), 프랑스의 정치사상가 피에르 드보와(Pierre Dubois, C.1255-C.1321) 같은 평화주의자들이 있었다. 중세 주류 기독교는 정당전쟁론 혹은 성전론을 근거로 전쟁을 수용했으나 소종파 혹은 소수의 인물들에 의해 초기 기독교의 평화주의가 미약하지만 마르지 않는 시내처럼 중세의 긴 역사를 건디며 평화의 이상을 이어왔다.

문제는 앞에서 제기한 3가지 이론은 전쟁문제를 만족스럽게 해결해 주지 못하고 그것이 전쟁을 억지하지 못한다는 점이다. 전쟁은 너무 악하고 그 결과가 영속적인 고통이라는 점에서 그대로 둘 수도 없지만, 동시에 복잡한 이해관계와 국제질서와 관련된 문제이기 때문에 그 어떤 것으로도 전쟁을 억지하지 못한다는 사실이다. 그렇다고 해서 아무것도 하지 않고 내버려 둘 수도 없는 일이다. 주어진 상황을 고려하면서 가능한 전쟁이 일어나지 않도록 해야 하며, 전쟁이 일어나더라도 가능한 정의롭게 수행되어 희생과 고통을 줄이고 전쟁이 가능한 속히 끝나도록 노력해야 한다는 점에 모든 사람들이 동의할 것이다. 특히 그리스도인들은 전쟁을 방지하고 전쟁 억지력을 행사해야 할 의무가 있다. 성경에서 평화를 이루는 사람(Peacemaker)은 복이 있다고 하였고, 그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불릴 것이다(마5:9)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이다.

* 이 원고는 2022년 아나뱃티스트 컴퍼런스의 발표문입니다

아나뱃티스트의 평화주의 신념과 국가

-메노나이트 시각에서 본 역사적 평화교회의 발자취



배 옹 하 형제
평화누림메노나이트교회
MCSK 대표

기독교 평화주의의 신념은 교회 내부의 요인과 역사적 원인에 의해서 많은 부침이 있었다. 이러한 과정을 역사의 진행에 따른 변화로 보느냐 변질로 보느냐의 관점은 당시에든 지금도 충돌하고 있다. 아나뱃티스트는 신자들의 교회에 대한 확신으로 16세기 이후를 살면서 신약성서와 초기교회의 평화사상을 회복시키려 했다. 그러나 이들의 평화주의 신념은 신앙이었기 때문에 교회와 국가와 끊임없이 불협화음을 가져왔다. 이들은 국가의 병역의 의무에 개한 강제가 보이면 오랜기간 일군 집과 재산을 돌아보지 않고 이주하였다. 이런 까닭으로 이들은 전세계로 흩어지게 되었으며, 공동체성은 더욱 강화되었다. “공동체, 평화, 예수따름, 용서와 화해”라는 기독교 신앙을 설명하는 하나의 운동을 나타내는 형용사로서 사용되었던 아나뱃티스트는 지역과 공동체의 상황에 맞는 교단으로 자리잡게 되는데, 후터라이트, 아미시, 퀘이커, 브레드런, 메노나이트 등이 그것이다.

이들 아나뱃티스트 교단들의 특징이 오늘 주제에 대해서 공통점을 가지고 있으며, 특히 국가 혹은 국가 폭력의 강제성에 대해서 구별되는 신념과 거부가 분명하다. 이에 메노나이트를 중심으로 이들의 평화주의 신념과 국가와의 관계에 대한 부분을 살펴보고, 평화를 포기하지 않고 불이익을 기꺼이 감당하는 한 작은 기독교 평화주의 교회의 역사와 삶을 통해 전쟁과 평화에 대한 이해를 나누고자 한다.

1. 초기 그리스도인들의 상황

가장 초기의 그리스도인들과 2세기 이후의 유대인 대부분은 폭력을 거부했다.

이러한 기독교인들의 폭력에 대한 사고와 행동이 전향된 것은 4세기부터 시작하여 폭력을 정당화하는 이유의 정당성, 권위의 합법성, 수단의 제안 등에 대한 한계를 두는 조건 아래에서 폭력의 예외를 두기 시작했다. 현재 기독교 교단의 대부분이 이에 동의하며 더 적극적으로는 폭력의 필요성을 윤리적으로 수용하는 지경에 이르렀다.

기독교평화주의와 폭력에 대한 태도의 변질로 빚어진 이 논쟁은 지금도 기독교 내부에서조차 지독한 정치이데올로기에 사로잡힌 모습으로 남아있다. 그나마 남아있는 소수 주류 기독교의 태도 중 폭력이 최후의 수단이 되어야 한다는 정도가 2세기 기독교의 태도에 가장 근접해있다. 교회가 비폭력적인 수단들의 효과를 신뢰하지 않고 있으며, 상대가 비기독교인일 때에는 물론이고 같은 기독교인일지라도 정당한 전쟁의 전통은 공리주의라는 가면을 쓰고 중심에 자리하고 있다.

아나뱃티스트는 주인이신 그리스도께서 필요한 때에, 그리고 계속해서 자유를 공급하시며 소망과 은총을 부어주신다는 믿음에 진심이였다. 아나뱃티스트의 평화이해는 학문적인 것이 아니였다. 그들은 평화를 몸으로 살아내는 것에만 관심이 있었다. 그렇게 살아내는 것 말고는 의미가 없는 것처럼 살았다. 종교적 폭력의 시대, 종교를 빙자한 야만의 시대가 끝나고 그들의 삶을 이야기 하는 사람들의 입에서 기록조차 남겨지지 않은 그들의 평화에 대한 모습을 전하기 시작한 것이다. 즉 그들에게 하나님의 본성과 의도를 해석하는 것, 즉 계시를 몸으로 받아 성육신하는 것은 윤리적인 차원이나 학문적인 차원이 아니라 실천의 영역이였다.

그들이 이해한 핵심은 원수 사랑과 악에 대한 무저항(비저항)이였다. 많은 사람들은 이런 식의 삶을 무기력한 것으로 여겼기에 그들의 신앙을 수치스럽고 굴종하는 것으로 간과했다. 그들은 그런 사고가 무기력했던 예수의 삶을 부끄

러워하는 것과 차이가 없다는 것을 생각도 하지 못했을 것이다. 인간이 악을 악으로 대할 때 폭력의 소용돌이는 눈덩이처럼 커진다는 것을 아나뱃티스트들은 경계했다.

이러한 사람의 마음 가운데 심어진 평화사상은 톨스토이에 이르러 대중적으로 잘 드러났다. 악에 저항하기 위한 실천적인 전략이 무저항이었다. 이런 사상은 간디에까지 영향을 미쳤다. 아나뱃티스트들의 회심은 어떤 조직 속에서의 변화가 아니었다. 아나뱃티스트들은 세상에서의 진정한 진보는 권력자나 성직자들에 의해서가 아니라 고통당하는 보통 사람들에 의해서 이루어진다고 확신했고 그렇게 확신한 바에 거했다.

2. 16세기 메노나이트의 신앙

초기 메노나이트 개척자들은 교회에 자발적으로 들어온 회원이 성경에 복종하는 중생한 신자들이었다. 이의 예수따름을 뜻하는 제자도는 단순한 그리스도의 명령에 문자적으로 순종하고 그분의 발자취를 신실하게 따랐다. 이들의 신앙고백은 양심의 자유, 정교분리, 무저항 등이었다. 이들은 국가의 필요를 하나님께서 재가하셨음을 믿었지만, 동시에 시민 정부의 공직자이건 군인이건 그리스도인이라면 폭력을 사용해서는 안된다고 믿었다.

초기 지도자였던 콘라드 그레벨은 이렇게 말했다.

"진정한 믿음이 있는 그리스도인들은 늑대 가운데 있는 양과 같다... 그들은 ... 검으로 육체의 적을 무찔러서가 아니라 영적인 적을 이김으로써 선조들이 영원히 휴식하고 있는 땅에 도달해야 한다. 그들은 새언약 아래에 있기 때문에 인간의 생명을 취하는 일은 전적으로 멈추고 세상의 검을 사용하거나 전쟁에 참여해서도 안 된다"

그의 동료였던 펠릭스 만쯔도 "그리스도인들은 검으로 찌르거나 악에 대해서는 안 된다"고 했다. 1527년 술라이트하임 신앙고백서에도 "그리스도인들

은 친구를 지키기 위해서건, 개인의 적에 대해해서건, 검이나 폭력적 무기를 내려놓아야 한다"고 기록되었다. 스위스 형제단은 그들은 분쟁이 있을 때 법에 호소하기보다, 그들이 자신들을 기만하는 것을 허락하면서 다투지 않고 걸옷을 빼앗는 자에게 걸옷까지 주라고 말했다. 후터라이트나 메노 시몬스 역시 무저항의 신앙고백을 증언하였다.

특히 메노 시몬스는 "중생한 사람은 전쟁이나 다툼에 참여하지 않는다.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아야 하는데 어떻게 검을 들고 적과 싸울 수 있는가? ... 자신을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독재자들이 모세와 여호수아 등을 거론하며 처참한 전쟁과 피 흘리는 것을 정당화하곤 한다. 그러나 그들은 모세와 그 후계자들이 강철 검을 들고서 있었지만, 그리스도께서 새 명령을 주시고 다른 검으로 우리의 허리를 동여매시게 한 것을 반영하지 않았다"고 했다.

메노나이트는 이러한 무저항의 삶의 방식이 그리스도인에게만 가능하다는 것을 인정했다. 종교개혁 시기, 구교와 신교의 서슬 퍼런 시국에서 그리스도인이 그리스도의 명령을 거스르는 정부의 요구에 불복종하는 것이 메노나이트들에게는 당연한 일이었다. 이들이 교회와 국가를 분리하여 생각하는 것은 무저항의 삶을 사는 것과 논리적으로 일치했다. 현재에 이르러 이들의 무저항 원칙이 마치 인간주의적 평화주의처럼 변모되었는데 이는 제자도의 변질이라고 할 수 있다. 국가는 원천적으로 기독교 신앙의 축이 될 수 없다. 세상에 주인은 하나 밖에 없다. 어떻게 세상과 하나님을 동시에 섬길 수 있는가? 국가는 타협을 요구하고 교회는 그것을 받아들이면서 그렇게 두 주인을 섬기기 시작했는데도, 그렇게 하고 있지 않다고 하는 이러한 신앙고백은 믿음인가 확신인가?

3. 무저항 신앙의 변천

평화와 관련한 유럽 메노나이트의 변화는 17세기 말 이후부터 나타난다. 이를 살펴보면 무엇이 변질의 동력으로 작동했는지 알 수 있다. 네델란드에서는 먼저 사회와 융합되면서 메노나이트 자체의 학교가 없던 상황에서 일반 학교에서 교육을 받았다. 시작 지점의 신앙의 고백들이 없는 교육을 통해 이들의 무

저항 원칙은 이백여년을 거치면서 사라지게 된다. 또한 메노나이트들이 부유해지면서 형제애가 감소했고 공동체의 결속보다 도시의 생활에 더 많은 흥미를 가지게 된다. 또한 네델란드에서의 종교적 관용이 확대하면서 무저항 원칙마저도 타협하기 시작했다. 네폴레옹 전쟁과 벨기에와의 전쟁에 수많은 메노나이트가 군인으로 참여한다. 또한 메노나이트를 위한 대체복무제도가 네델란드 의회에서 1898년에 어떤 예외도 허용하지 않는 군복무법이 통과되면서 메노나이트 지도자들마저 반대할 수 없게 된다. 이후로 네델란드 동인도의 총독을 지내거나 대법원에서 일하는 회원도 있었고 군복으로 의원 등으로 활동하게 되는데 이들은 역사적 메노나이트의 무저항 원칙에 관심이 없었다. 18세기 초 20만명의 회원이 3세대를 거치면서 3만명으로 줄게 되는 결과를 가져왔다. 이 러했던 네델란드에 1915년 복음과 무저항 원리의 기초 아래 영적 부흥이 시작 된다. 이 운동을 주도한 쟈 글리즈스틴은 1차세계대전에서 양심적 병역거부자 였던 유일한 네델란드 메노나이트였다. 이들은 1935년에는 '네델란드 평화선 언문'을 선포하게 된다. 이들은 제도를 변화시키면서 반군사주의에서 성서적 무저항으로 옮겨가게 되는데 목회자 절반이 이 단체의 회원이었다.

스위스는 상황이 달랐다. 그들은 오랜 박해로 적은 수가 남았으며, 이들은 가난했지만 오랜기간 무저항에 가까운 신앙을 지켜왔다. 2018년 한국을 방문했 던 부르노 씨가 스위스 병역거부자의 사례였다.

독일은 징병제도가 시작되면서 대부분 메노나이트들은 자신들의 신앙과 삶을 존중하는 곳으로 이동하였다. 러시아로 이동한 이들은 농업에 종사하며 황무지를 개간하는 것으로 군복무를 면제받았다. 이들은 무저항에 대해 매우 진지했으며 나폴레옹 전쟁에 참여한 회원들 공동체에서 파면하기도 하였다. 이들은 군복무 대신 막대한 세금을 부여받았다. 군복무에 대한 입법과정에서 메노나이트인 대의원이 반대하여 법률이 발효되지 못한 것 때문에 어려움을 겪었으며, 이들 대부분은 미국과 러시아로 이주했다. 독일을 떠난 사람들은 무저항에 충실했으며 남은 사람들은 초기에 비전투요원으로 군복무를 받아들였

다. 하지만 전투요원과 비전투요원 사이의 차이를 발견하지 못하자, 세계대전에서는 정규군으로 복무하게 된다. 독일에서는 무저항 신앙에 완전히 타협하는 데 100년이 걸렸다. 이 결과로 1968년 독일 메노나이트는 모든 교인의 합이 12,000명에 불과했다.

러시아에서는 후터리안을 중심으로 케서린 대제의 초대로 남부에 메노나이트가 자리 잡게 된다. 황무지 개간을 조건으로 군복무 면제를 타협하여 8천 명이 이주하여 백여년만에 4만 5천 명에 이를 정도로 자연 증가한다. 그러나 러시아에서 군복무 면제를 없애는 칙령을 발표하자 인구의 1/3이 북미로 이주하게 된다. 이에 러시아에서는 이들의 이주를 막으려고 군복무 대체안을 제안하고 메노나이트교회가 이를 받아들여 산림요원으로 근무하는 칙령이 발표되고 공산주의 혁명 이전까지 유지된다. 이후 이들은 병원과 위생국에에서도 일하게 되는데 여기에 소요되는 모든 비용을 메노나이트교회가 조직한 위원회에서 부담하게 된다. 유럽 전역에서 무저항 신앙의 유지 형태였던 군복무에 대한 부분이 후퇴하는 반면 러시아에서는 유지되었다. 20세기에 러시아 미국 캐나다 등에서는 메노나이트에게 군복무를 제외시켜주었다.

특히 캐나다에서는 메노나이트들이 인디언들에 의해 많은 죽임을 당했으나 이들에 대항하여 무력을 사용한 기록은 없다. 오히려 자신들의 신앙에 충실하여 스스로를 보호하려고 아무런 폭력도 사용하지 않았다. 이렇게 신앙을 지키다가 순교한 기록은 여럿 있다. 반면 미국에서는 일반 시민들의 메노나이트의 양심적 병역거부에 대한 관용이 적었다. 오히려 정부가 시민들을 설득한 기록들이 많이 남아있을 정도다. 이들 메노나이트들은 군복무에 맞서 단결하였지만, 고통받는 사람들에게 도움을 주는 일에 적극적이었다. 이들은 전쟁세에 저항하였고 이 때문에 정부가 재산을 압류했지만 어떤 저항도 하지 않았다. 이들은 어떠한 정부에겐 충성도 맹세도 하지 않았다. 이는 무저항 원칙에 어긋나는 것이었다. 하지만 미국 시민혁명 기간에 신앙을 타협하는 이들이 생겨났다. 그

들은 당시의 지성들에게 "인간의 피를 흘릴 목적으로 무기 소지 하는 것을 거부 하는 그들 가운데 있는 기독교 분파"로 인식되었다. 특히 시민전쟁 기간에 메노나이트의 전쟁과 군복무에 대한 입장은 역사적 무저항주의를 그대로 유지했다. 하지만 많은 젊은이들이 군복무를 받아들였다. 이 과정에서 메노나이트는 세금이나 봉사 혹은 군대체 비용 등을 지불하는 식으로 정부에 대해서 대처하였다. 이에 반해서 퀘이커는 그것이 보상이건 봉사건 메노나이트의 방식은 자신들의 양심에 위배되고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는 입장으로 단호했다. 이점에서 메노나이트는 전쟁기간에 자신들의 원칙을 약점을 보였다. 이점에서는 오히려 링컨과 같은 정부 관계자들이 "양심의 종교 가책을 인정하지 않는다면 하나님의 복을 기대할 수 없다"고 했으며 이는 메노나이트의 양심적 병역거부보다 더 영적인 깊이가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아나뱃티스트 그룹 중에는 징집에 응하지 않으면 체포되는 상황에서 자원입대하거나 도피하거나 혹은 입대했지만 총을 쏘지 않는 이들도 있었다.

역사적 평화교회로서의 메노나이트는 무기를 들고 살생하는 것을 거부하였다. 이들은 국가가 원한다면 자신의 재산권을 포기했다. 기꺼이 메노나이트 청년들을 위해 대체비용을 지렸다. 교회는 대체비용을 모금해서 많은 양심적 병역거부자들이 석방되어 집으로 돌아가도록 했다. 이런 예외가 없는 곳에서 메노나이트들은 산맥을 가로질러 지속적인 위협을 받으며 복으로 탈출하였다. 미국 남부에서는 특히 정부의 관용이 적었다. 압력에 못 이겨 군복무를 한 청년들도 있었는데, 교회는 이를 용서하지 않았다. 가이 허쉬버그는 당시의 메노나이트는 대체비용지불, 대체군복무, 군내대에서의 요리사나 간호사 등의 임무를 받아들인 교회를 원칙과 영적으로 덜 성숙했던 것으로 평가하고 있다.

1차 세계대전 당시에 서유럽에서 건너온 이주민과 러시아에서 온 이주민 메노나이트들은 달랐다. 무저항교리에 대해서는 일치하였으나, 교회의 경험과 실천에 있어서는 다양했다. 이 시기에 미국에서는 양심적병역거부자들을 비전투요원으로 군에 있게 하는 것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하지만 1918년 이들을

군입대 대상자들에게 "시민직업과 종사를 약속하는" 휴가를 허용했다. 이는 농장노동을 통해서 병역을 면제받는 길을 법적으로 열어놓은 것이었다. 이와 달리 징병되어 병영에 있는 메노나이트는 군에서의 어떤 임무도 거절했다. 이 시기 이들은 10%가 군법회의에 의해 리븐워쓰 교도소로, 60%가 농장이나 건설 사업의 대체복무자로, 30%는 전쟁이 끝날 때까지 병영에 남아 감시하에 있었다고 기록되어있다.

세계대전 당시 메노나이트 교회가 베트남 전쟁에 반대하여 남긴 것을 돌아보면 좋을 것이다. 이들은 전쟁 기간 수시로 이런 태도를 보였다.

- 1) 우리는 전쟁을 반대한다.
- 2) 존슨 대통령에게 "당신과 남북베트남에서 고통받는 사람, 우리 중 불우한 사람을 대신하여 미국이 베트남에서 자행하는 비도덕적인 행동에서 물러설 것"을 탄원하는 편지를 보냈다.
- 3) 베트남에 있는 메노나이트 선교사들은 베트남의 고통받는 사람들이 "파괴 임무에 참여하는 미국 조종사들을 하나님께서 축복하기를 기도하는 미 대통령의 기도를 들을 때"와 "베트남에서 미국이 저지르는 행동의 배후에 있는 기독교의 하나님 이미지"를 의식하라고 미국에 편지를 보냈다. 그 편지는 "관용의 정신으로 마음을 바꾸고 정책을 바꾸라."로 끝맺는다.

4. 국가에 대한 평화교회의 증언과 아르키(무지배/무통치)의 전통

이후 역사적 평화교회로서 메노나이트 교회는 조직적으로 무저항 원칙을 지키고 있다. 이들은 가장 좋은 평화교회의 무저항 원칙의 유지는 그리스도인들의 직접적이고 분명한 증언으로 가능하다고 말한다. 이들은 기독교가 어떤 경제나 정체 체제와 동일하지 않다고 이해하고 있다. 따라서 그리스도인이 반공주의자가 되어야 한다든지 공산주의자에 대한 사랑의 실천이 공산주의에 대한 지지라는 견해를 받아들이지 않는다. 이제 전세계 유일하게 남아있는 분단국

가라는 한국 상황에서 한국의 평화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이 증언해야 할 삶이란 어떤 것일까?

국가에 대한 기독교의 여러 증언 중에 “하나님께서 타락한 세상을 일시적으로 보호하려고 국가를 허용했다”는 관점은 조심스럽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 왕을 허락할 때에 세상을 일시적으로 보호하려고 주었다는 것을 어느 부분에서도 유추하기 어렵다. 이런 불명확한 관점을 전제로 한 국가에 대한 타협적인 기독교적 접근은 효용성을 갖기 어렵다.

이들이 주장을 뒷받침하려고 인용하는 학자들이 존 하워드 요더나 자끄 엘렐 등이다. 그러나 요더나 엘렐의 “기독교 아나키(무지배/무통치)”는 더 정교하게 들여다 봐야 한다. 아나뱃티스트 학자인 버나드 엘러도 이 지점에 대해서 많은 자료를 근거로 정리하고 있다. 그가 <기독교 무지배 Christian Anarchy-Jesus' Primacy over the Power>에서 정리한 기본적인 원리는 대략 이러하며 엘러는 엘렐과 크리스토프 블룸하르트의 관점에서 몇몇을 가져왔다고 말한다. 엘러와 블룸하르트는 아나뱃티스트 우산 안에 있으며, 엘렐의 국가에 대한 인식과 실천은 아나뱃티스트들의 그것과 비슷하다.

- 1) 그리스도인에게 무지배는 끝이 아니다. 지배(통치)의 죽음은 하나님의 통치를 위한 것일 때에만 가치가 있다
- 2) 국가의 지배시스템은 끊임없이 하나님의 자리를 대신하려고 한다. 국가의 지배시스템은 사회생활에 필요하지만, 필수품 이상도 이하도 아니다.(엘렐)
- 3) 지배의 위협은 통치자들의 자체에 있는 것이 아니고, 피지배자들이 그들의 존재를 인식하고 중요하게 여기는데 있다.
- 4) 기독교 무지배주의자라면 하나님의 통치가 아닌 인간의 통치가 발현되는 국가의 지배시스템이 강제적임을 전제해야 한다.
- 5) 예수님은 정치적 권위에 대해 근본적으로 공격적이다. “세상을 본받지

말라”는 말이 그것이다. 세상 통치에 권위를 부여하려는 모든 정당화에 도전하고 그 권위를 거부한다.(엘렐)

- 6) 국가의 통치에 어느 정도 기여할 수 있지만 그 성취는 하나님의 통치에 기여할 수 없다.(엘렐)
- 7)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는 활동적 세상에 동참해야 하지만, 동참하는 방법은 그것을 부인하고 맞서는 방식이어야 한다. … 이러한 거부만이 입증되지 않은 권력의 확장에 대한 이의를 제기하거나 가로막을 수 있다.(엘렐)
- 8) 국가의 지배를 인정하거나 거부하는 것이 기독교 무지배의 모습이다. 국가는 자유의 반대이며 우리의 자유는 권력들과의 싸움을 통해서만 얻을 수 있다.(엘렐)
- 9) 인간은 아르키 권력을 통제하여 그것을 유익한 목적에 이바지하게 할 수 있는 도덕적 능력이 없다. 엘렐이 아닌 누군가가 말했듯이, 권력은 부패할 수밖에 없다.(엘렐)

성서가 우리에게 지배와 통치에 저항하라고 한 것은, 악이라고 설정한 세상의 통치와 싸우면서 세상에 또다른 지배와 통치 시스템을 세우라는 것은 아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오직 하나님의 통치를 도입하기 위해 악과 싸우는 것이어야 한다. 그러나 현실은 단순하고 명료한 성서의 가르침도 교회나 국가시스템이 규정한 안에서 새롭게 해석하고 있다. 이는 전쟁과 평화에 대한 성서의 명료한 가르침과 실천에 대해서 후퇴했고 타협했던 4세기 이후의 역사가 만들어낸 또다른 교회의 종교적 산물인 것이다. 그래서 현재의 기독교인들은 평화주의자라고 하는 이들조차도, 국가의 통치를 피하기보다 그 힘을 이용하여 얼마나 많은 실제적 유익을 얻을지에 집중하고 있다. 그들은 국가의 시스템에 저항하는 것에 대해서 “이런 식으로는 그리스도인을 위한 세상을 얻을 수 없다.”고 합니다. 그리고 더 크고 견고한 국가의 지배시스템의 힘을 이용해서 세상을 따라잡아 전도해야 한다고 합니다. 그렇게 황제의 국가시스템을 교회로 가지고 들

어왔다. 이런 관점을 가진 기독교인들은 국가가 변영할수록 교회에 웃음이 그치지 않을 것으로 생각한다. 단일 국가에서 제국에 되는 일이 이들에게는 안정감을 준다. 아나뱃티스트는 스승 예수가 그랬던 것처럼 자신을 희생하는 것으로 평화를 실천했던 예수의 제자들이 몇 세기 지나지 않아서 변질되는 것을 보았다. 그 이후로는 기독교인이 된다는 것에 삶의 변화나 진정한 회개는 중요한 과정이 아니었다. 세상은 변하지 않아도 되었다. 교회가 세상에 맞게 기독교인이 되는 과정들을 맞추면 되는 상황이 된 것이다. 그 변질은 지금은 견고한 교리가 된 듯하다. 여전히 기독교인들은 국가를 “거룩한 국가”로 만들어서 그 안에서 변영을 누리고 안정을 누리하고자 하는 것은 아닌가? 아나뱃티스트는 신학이 정치화되는 것과 정치가 신학화 되는 것을 경계했다. 법과 도덕과 정치 시스템은 기독교 밖에서 나름의 의미와 가치를 가진다고 생각했다. 아나뱃티스트 신학자인 버나드 엘러가 키에르케고르에 대한 그의 책의 한 부분을 인용하며 결론으로 대신하고자 한다.

“정치는 불가능한 것에 도전하지 않으며 인간의 가능성을 넘어서지 않는다. 반면에 기독교는 가능한 것을 넘어서는 도전이 없다면, 하나님은 결코 우리와 함께하시는 것이 아니다. 무론 우리가 불가능한 것에 도전할 때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신다는 것은 아니다.”

참고 자료

- 이 짧은 발표문에서 아래 책들을 모두 인용하지는 않았지만, 전쟁과 국가폭력에 대해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전쟁 평화 무지함-신앙과 실천으로 보는 메노나이트의 평화 개념〉, 가이 허쉬버그, 최봉기 옮김, 2012, 대장간, 대전

〈제국에 저항하는 성경-성경, 하나님이 제국과 싸우는 역사〉 베리 프리센, 존 스토너, 류의근 옮김, 2020, 대장간, 논산

〈기독교 무지배〉 버나드 엘러, 황의무 배용하 옮김, 2022, 대장간, 논산

- 〈무장하지 않는 자들을 무장시키는 왕〉 버나드 엘러, 황의무 배용하 옮김, 2022, 대장간, 논산
- 〈정의와 비폭력으로 여는 평화-국제 갈등과 기독교적 실천〉 듀에인 프리즌, 박종금 옮김, 2012, 대장간, 대전
- 〈당신의 빛을 비추소서〉 윌라드 스와틀리, 최봉기 최태선 옮김, 2016, 논산
- 〈여성, 전쟁, 안식일, 노예제도〉 윌라드 스와틀리, 황의무 옮김, 2020, 대장간, 논산
- 〈혁명적 그리스도인의 시민권-성서가 말하는 국가와 그리스도인의 관계〉 존 하워드 요더, 최태선 옮김, 2017, 논산
- 〈아나뱃티즘〉 월터 클라센, 김복기 옮김, 2017, 대장간, 논산
- 〈기독교 평화주의의 역사-예수의 비폭력 해방〉 존 하워드 요더, 채충원 옮김, 2015, 대장간, 논산
- 〈신자들의 교회〉 도널드 던바, 최정인 옮김, 2015, 대장간, 논산
- 〈아나뱃티스트 신앙의 씨앗으로부터〉 아놀드 스나이더, 김복기 옮김, 2020, 대장간, 논산
- 〈아나뱃티스트 역사-메노나이트를 중심으로〉 코넬리우스 딕, 김복기 옮김, 2013, 대장간, 대전
- 〈근원적 혁명-기독교 평화주의의 에세이〉 존 하워드 요더, 전남식 김기현 옮김, 2011, 대장간, 대전
- 〈평화교회〉 알렌 크라이더, 엘리노어 크라이더, 고영목 김경중 옮김, 2021, 대장간, 논산
- 〈폭력에 맞서〉 자끄 엘렐, 이창헌 옮김, 2012, 대장간, 대전〈역사-메노나이트의 존재 이유〉 존 로스, 김복기 옮김, 2020, 대장간, 논산
- 〈믿음-메노나이트의 신앙과 실천〉 존 로스, 김복기 옮김, 2016, 대장간, 논산
- 〈하나님의 전쟁〉 로이스 바렛, 전남식 옮김, 2012, 대장간, 대전〈기독교인과 폭력〉 장 라세르, 이봉석 옮김, 2017, 늘봄, 서울
- 〈국가가 폭력이다. 레프 톨스토이, 조윤정 옮김, 2008, 달팽이, 서울
- 〈국가는 폭력이다〉 박종성, 2018, 인간사랑, 서울
- 〈전쟁과 국가폭력〉 홍순권, 2012, 선인, 서울
- 〈칼을 쳐서 보습을〉 김두식, 뉴스앤조이, 2002, 서울
- 〈인권을 먹다-국가 폭력 이야기〉 변상철, 2018, 네잎클로버, 서울
- 〈전쟁 정치〉 김동춘, 2013, 길, 서울

*이 원고는 "전쟁과 평화라는 주제로 2022년 5월 18일
삼육대학교 신학대학원 정기학술세미나에서 발표한 내용의 초록입니다.

발타사르 후브마이어의 역동적이고 관계론적 관점에서의 구원론

Balthasar Hubmaier's Doctrine of Salvation in Dynamic and Relational Perspective

들어가는 말

16세기 종교개혁을 살펴보면 기독교 내의 부패한 기존 세력을 붕괴시키고 새로운 변화를 추구하는 목표는 루터, 쾰링거, 그리고 칼빈과 같은 온건한 개혁자들과 유사했으나 그들보다 훨씬 더 많은 것을 성경에 근거하여 바꾸고자 했던 급진적 세력이 있었다. 그들 중의 하나가 아나뱃티스트(Anabaptist, 재세(침)례파)이다. 아나뱃티스트(Anabaptists: Re-baptizers)란 1525년 1월, 스위스 쥐리히에서 쾰링거와 함께 개혁운동을 펼치던 그룹 중에 진보적 성향을 가진 사람들은 쾰링거의 교회 개혁 방법론은 온전한 교회 개혁을 이룰 수 없다는 판단하여 그들만의 모임을 갖게 되었다. 이들은 유아세례를 인정하지 않고 성인이 자신의 신앙을 스스로 고백할 때 세례를 주어야 한다는 '신자의 세례(believers' baptism)'를 주장하는 사람들이다. 발타사르 후브마이어(Balthasar Hubmaier) 또한 동시대의 아나뱃티스트 중의 한 사람으로 분류될 수 있는데, 그는 16세기 초에 있었던 급진적 종교개혁자들 중 가장 창조적이고 뛰어난 저술가이자 개혁자로 인식된다. 그는 종교개혁 전에는 가톨릭의 사제로서 또한 신학자로서 유명했고 탁월한 설교자로서 인정받았으나, 종교개혁이 한창 진행되던 1521년 전후를 해서 그는 종교개혁 사상에 관심을 갖게 되었고, 1523년에 스위스에서 쾰링거와 후에 아나



김 창 규 교수
동말레이시아 Anglican
Training Institute

바티스트의 리더들이 될 콘라드 그레벨(Conrad Grebel) 등의 개혁자들과의 만남은 그로 하여금 종교개혁자의 사상을 품고 사역할 수 있는 계기를 부여하게 되었다. 1525년 4월 아나바티스트가 된 후브마이어는 1528년 3월 10일에 오스트리아 비엔나에서 화형으로 순교하기 전까지 짧은 기간 동안의 사역을 통해 많은 지역에서 교회개혁을 추진했으며, 설교자로서 신학자로서 또한 많은 저술들을 남기게 되었다. 그는 비록 가톨릭과 주류 종교개혁자들에게 이단으로 낙인 찍혀 화형 되었지만, 그의 저술들은-우리에겐 친숙하지 않지만- 후대에도 영향을 끼쳐서, 17세기 가톨릭의 스페인 종교재판에서의 금서목록에도 들 정도였다.

그러면, 후브마이어는 가톨릭과 주류 종교개혁자들의 말처럼 정말 이단자이 었는가? 후브마이어가 이단으로 정죄된 이유는 동시대의 다른 아나바티스트 들이 이단으로 정죄되었던 바와 같이, 기존 교회의 전통으로 인정되던 유아세 례를 거부함으로써 발생하는 사회적 혼란을 야기했다는 이유다. 당시 가톨릭 에서의 유아세례란 성례전의 의미를 넘어서, 국가 교회 내의 하나님의 백성으 로 인정되는 것이며 또한 지역 사회의 일원으로 등록되는 행사이기도 했다. 그 러므로 유아세례의 거부는 곧 교회의 전통에 반기를 드는 것일 뿐만 아니라, 사 회의 법을 위반하여 혼란을 초래할 수 있다는 것이다. 비록 종교개혁자들이 이 해하는 세례론은 가톨릭이 주장하는 것과 다르지만, 유아세례가 하나님의 자 녀를 공동체의 일원으로 받아들이는 예식으로 인정하는 데는 유사한 부분이 있었으며, 유아세례의 거부로 인한 사회적 혼란에 대한 염려는 가톨릭과 다를 바 없었다. 결국 후브마이어가 이단으로 정죄된 이유는 신자의 세례를 주장함 으로서, 기존의 교회 전통을 위협했다는 것이 가장 큰 이유였다. 그러나 현대의 신학자들에게 신자의 세례(성인세례)의 주장이 결코 이단 정죄의 근거가 될 수 없다는 것은 당연하게 받아들여진다. 따라서 후브마이어에 대한 연구는 어떠한 이단적 사상을 가지고 있는 신학자의 사상을 연구하는 것을 말함이 아니라, 종교개혁 당시에 널리 알려지지 않은 좀 더 성경의 말씀대로 살려 노력했던 비

주류 개혁자의 사상을 연구하는 것을 의미한다.

그렇다면, 왜 가톨릭과 주류 개혁자 모두에게 이단으로 정죄된 후브마이어의 사상이 중요한 것인가? 이것은 크게 두 가지로 요약될 수 있다. 첫째는, 이미 언급한 바와 같이, 후브마이어에게 있어서 개혁자로서의 사역이란 가톨릭에서의 오래된 부정과 부패, 잘못된 교회전통으로부터의 개혁을 의미했다. 이것은 다른 종교개혁자들이 주장했던 ‘오직 성경으로 (Sola Scriptura)’의 관점을 기준으로 이루어지는데, 이것은 무엇이 성경에 근거된 것인지 아닌지를 판단해 어떻게 교회전통을 고쳐 나가는지를 의미했다. 그러나 이것은 단지 가톨릭의 교회전통을 넘어서 주류 종교개혁자들이 인정했던 유아세례의 이슈도 다름으로써 후브마이어는 교회개혁의 문제가 단순히 가톨릭의 전통을 고쳐나가는 것을 넘어서 어떻게 성경적으로 교회의 모습을 이루어 나가야 하는가에 대한 고민이 담겨 있었다. 이러한 그의 개혁적 사상은 지금 현재 한국교회 내에서 교회의 전통이라고 치부하여 쉽게 간과하는 이슈들에 대해서 그것이 과연 성경적인가 하는 재고를 통해 지속적인 교회개혁의 필요성을 제시하고 있다.

둘째는, 후브마이어가 남긴 대부분의 글은 크게 세가지의 주제 즉, 성례, 성만찬 그리고 자유의지에 관해 쓴 글들로 이루어져 있다. 동시대의 주류 종교개혁자들 (루터, 츠빙글리 등)이 가톨릭의 성례에 관해 반대하고, 가톨릭의 구원에 관한 이해를 비판하기 위해서 많은 글들을 썼다면, 후브마이어는 가톨릭의 개념에 대한 성례와 구원에 대한 비판을 전제하고 동시에 주류 개혁자들이 주장한 성례와 그들의 구원관에 대한 문제점들과 한계점을 지적하기 위해 글을 썼다. 루터가 종교개혁을 이끌며 강조한 구원론의 기초가 되는 ‘이신칭의’ (Justification by Faith) 는 많은 사람들로 하여금 부도덕한 삶을 살게 하는 원인이 되었고, 이를 본 후브마이어는 루터의 이신칭의의 구원관은 사람들로 하여금 잘못된 신앙생활을 하게 만들었다고 비판한다. 후브마이어는 ‘이신칭의’ 즉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는 루터의 기본적인 교리에는 동의하지만, 루터가 강

조하는 믿음의 의미는 성경에서 말하는 온전한 믿음의 의미가 아니라고 주장하며, 믿음에 의한 구원의 의미에서 삶의 변화가 강조되지 않는 것은 믿음에 대한 잘못된 이해에서 시작된다고 주장한다. 이러한 후브마이어의 사상은 지금 한국교회의 상황에서 아주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 왜냐하면 많은 한국교회들은 교세의 성장을 위해서 구원의 의미를 값싸고 쉽게 얻어지는 천국 행의 보험처럼 전하는 경향이 있다. 또한 오직 믿음에 의한 구원의 강조는 그리스도인의 삶과 구원의 문제가 직접적 연관이 없기에 ‘우리는 믿음으로 구원받지 행위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다’라는 명제로 자신들의 부도덕한 삶을 합리화하기도 한다. 이러한 현상은 16세기 초 루터와 종교개혁자들이 강조한 구원론 ‘이신칭의’가 가져왔던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구주로 고백하지만, 그들의 삶은 더욱 부도덕한 삶을 합리화하는 현상과 유사하기 때문이다.

비록 후브마이어도 루터처럼, ‘이신칭의’의 구원을 강조하지만, 궁극적으로 그의 구원론은 루터가 해결하지 못한 ‘이신칭의’의 강조 속에서 믿음과 그리스도인의 삶의 연관성을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가에 대한 속에서 발전되었다. 따라서 후브마이어의 구원론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그가 이해하는 믿음의 의미를 살펴봄으로써 가능하다. 그가 가지고 있는 믿음의 의미는 크게 세가지 이슈들(자유의지, 세례, 성만찬)과 연관되는데, 그가 남긴 대부분의 글들이 이것에 대한 것들이다.

따라서 나는 후브마이어의 구원론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누어 설명하려 한다. 첫째 후브마이어의 인간론을 살펴봄으로써 인간의 의지와 믿음의 의미의 관계를 설명할 것이다. 둘째 믿음을 전제로 행해지는 세례가 후브마이어가 이해하는 구원의 의미와 어떠한 관계가 있음을 살펴보고 셋째로 성만찬론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의 삶을 위해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살펴보고자 한다. 이를 통해 후브마이어가 이해하는 ‘이신칭의’의 구원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살펴봄으로써, 그가 주장하는 구원의 새로운 패러다임이 우리 한

국교회와 그리스도인들에게 주는 의미와 도전이 무엇인지를 살펴보고자 한다.

1. 발타사르 후브마이어 (Balthasar Hubamaier)는 누구인가?

후브마이어는 16세기 초기 아나뱃티스트의 리더들 중에서 유일한 신학박사 출신이자 가톨릭의 사제 출신이었다. 그는 비록 아나뱃티스트로서 3년이 안 되는 기간 동안 활약했지만, 그가 남긴 많은 글들과 사역은 그가 훌륭한 저술가로서 설교가로서의 명성을 얻기에 충분했다. 후브마이어는 1480년 (또는 1481년)에 아우그스부르크 (Augsburg) 근처의 프리드베르크 (Friedberg) 태어났다. 그의 어머니가 종교적으로 신실한 신자였기에, 그는 경건한 종교적 가정생활 속에서 자라났고, 1503년에는 프라이부르크 (Freiburg) 대학에 들어가서 당시 최고의 가톨릭 신학자로서 후에 라이프찌히 (Leipzig)에서 루터 (Luther)와 칼 슈타트 (Karlstadt)의 대적자로 종교 논쟁을 하게 되는 존 에크 (John Eck)의 밑에서 신학을 공부하며 그의 신학적 사상에 영향을 받는다.

그는 1505 (또는 1506)년에 석사학위를 취득하고, 가톨릭 사제가 된 후, 1512년에는 다시 그의 스승 John Eck를 따라 잉골슈타트 (Ingolstadt) 대학으로 가서 신학박사학위를 받고 그곳에서 신학교수가 되었다. 또한 그는 그 대학의 설교자로서 임명되었을 뿐 아니라, 지역교회인 동정녀 교회 (Church of Virgin)의 사제로서 임명되었다. 1522년에는 인문주의자들과의 만남의 기회를 통해 그의 신학사상은 변화하기 시작했으며, 그의 바울서신에 대한 연구와 동시대에 일어나고 있었던 스위스 종교개혁의 지도자들과의 만남은 그로 하여금 종교개혁에 본격적으로 발을 들여놓는 계기가 되었다. 1523년부터 본격화 된 그의 교회개혁은 발트슈트 (Waldshut)에서 성공적으로 시작되었으나, 가톨릭 국가인 오스트리아 정부의 위협으로 피하여 스위스 샤프하우젠 (Schaffhouse)으로 사역지를 옮긴 그는 스위스의 진보적인 개혁자들과 개혁에 관한 많은 의견을 주고 받으면서 더욱 종교개혁에 관한 신학사상을 발전시켰다.

1524년 10부터 본격적으로 유아세례에 관하여 날카롭게 비판하기 시작한

후브마이어는 1525년 4월 15일(부활절 전일)에 60여명의 다른 신자들과 함께 본인도 아나뱃티스트임을 선포하며 재세(침)례를 받게 되고 다음날 부활절에 300명이 넘는 다른 신자들에게 성인세례를 베풀으로써 본격적인 아나뱃티스트로서의 개혁을 시작하였다. 그의 뛰어난 신학적 지식은 쾰빙글리가 비판하는 아나뱃티스트와 성인세례에 관하여 조목조목 반박하며 아나뱃티스트 사상에 힘을 실었으나, 유아세례의 거부를 통해 결국 감옥에 가게 되었다. 쾰빙글리는 후브마이어에게 그가 주장한 신학사상을 철회하도록 요구하는데, 모진 감옥살이 등의 어려운 삶에 결국 후브마이어는 자신이 주장했던 신학의 일부를 포기하는 각서를 씌우으로써 쾰빙글리를 만족시키고 석방되었다. 그러나 그는 다시 자신의 믿음의 연약함을 고백하고, 아나뱃티스트로서의 개혁을 계속해 나가는데, 모라비아 지역의 니콜스부르크(Nikolsburg)에서의 개혁은 특히 주목할 만하다. 1526-7년 짧은 기간동안의 사역을 통해서 후브마이어는 그 시에서만 6000명이 넘는 사람들에게 세례를 베풀고, 그의 가장 중요한 저작들 중의 하나인 자유의지에 관한 두개의 글을 포함한 16개의 글들을 저술했다. 페르디난드 1세(Ferdinand I)의 지배하에서 1527년 8월 28일에 만들어진 보름스(the Diet of Worms)칙령에 의해 강화된 이단에 대한 가톨릭의 박해는 후브마이어와 그의 아내를 체포하여 크로이젠슈타인(Kreuzenstein) 감옥에 가두고, 그가 주장한 사상의 철회를 요구했지만, 후브마이어는 유아세례와 성만찬, 연옥에 대한 그의 신념을 포기하지 않아서,

결국 1528년 3월3일에 비엔나에서 화형에 처해지고, 그의 아내는 목에 돌을 묶은 채 물속에 던져져 익사 당했다. 후브마이어는 아나뱃티스트로서 3년이 채 되지도 않은 짧은 기간 동안이었지만, 그가 이루어 놓은 사역과 저작물들을 통해 당시의 아나뱃티스트들 뿐만 아니라, 종교개혁자들, 그리고 후대의 크리스찬들에게도 영향을 줄 수 있었던 것은 아마도 그가 종교개혁을 이루어가면서 늘 되새겼던 ‘진리는 사라지지 않는다’(The truth is immortal) 이라는 신념 속에서 순교자의 삶을 통해서 자신의 신앙을 지킨 것은 우리에게 참으로 커다란 도전을 제시한다.

2. 후브마이어의 자유의지 (Freedom of the Will) 론에 관하여

2.1 동시대 학자들의 자유의지에 대한 이해

후브마이어와 동시대에 살았던 가톨릭의 신학자 에라스무스는 인간의 자유의지를 윤리적 관점에서 이해하여 도덕적 삶의 필요성을 강조했으나, 종교개혁자 루터는 인간의 노력으로 구원을 얻을 수 없음을 주장하기 위해 강조한 노예의지론 (the bondage of the will)을 통해서, 죄인인 인간에서 참다운 선이란 존재할 수 없음을 강조한다. 자유의지에 대한 이해의 다양성은 또한 그들이 이해하는 구원의 이해와 연결된다.

2.2 후브마이어의 삼분법 (Trichotomism)

후브마이어는 믿음을 설명하는데 인간의지에 대한 부분이 중요한데 이것을 설명하기 위해 인간은 영, 혼, 육의 세가지 부분으로 이루어졌다는 삼분법을 전제하며 믿음을 설명함에 있어서 인간의지의 중요성을 강조한다.

2.3 자유의지를 강조한 후브마이어는 펠라기안 (Pelagian) 또는 세미 펠라기안 (Semi-Pelagian)인가?

구원의 이해에 있어서 인간의지의 강조는 펠라기안 논쟁 (Pelagian Controversy)과 연결해서 평가된다. 일반적으로 전통적 (주류) 개신교 관점에서 보면 구원론의 이해에 있어서 인간의지의 강조는 펠라가우스가 주장한 것처럼 하나님의 도움 없이 인간 스스로 구원을 받을 수 있다는 논리는 이단인 것이다. 다시 말해, 논쟁의 요점은 구원의 주체가 하나님인가 아니면 인간인가에 대한 질문이다. 그렇다면 구원을 설명하는데 있어서 인간의지를 강조한 후브마이어 또한 펠라기안과 같은 부류인 것인가?

2.4 후브마이어의 자유의지에 관한 독특한 관점에서의 이해

후브마이어에게 있어서 ‘믿음으로 인한 구원’이란 의미에서 자유의지의 강

조는 구원의 주체가 인간임을 뜻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다.

2.4.1 현재적 관점에서 해석되어야 하는 자유의지

후브마이어는 구원론속에서 자유의지의 의미는 원인과 결과의 의미로써, 즉 인간의 의지로 구원을 이룬다는 transactional and objective의 이해로 해석해서는 안되고, ‘지금 여기에’라는 현재적 관점에서 이해한다.

2.4.2 ‘하나님과 인격적인 관계’를 위한 도구와 같은 자유의지

후브마이어에게 있어서 자유의지란 하나님과 인간과의 인격적인 관계를 위한 도구로 이해된다. 여기서 인격적이란 (Personal) 의미는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구원에 대한 어느 한쪽의 주도권에 대한 의미를 배제하게 한다.

3. 후브마이어의 세례론에 관하여

3.1 ‘신자의 세례’(Baptism of Believers)를 위한 후브마이어의 방법론

3.1.1 성경적 해석에 관점을 둔 세례의 이해

후브마이어는 세례에 관한 논쟁은 철저히 성경에 근거해서 설명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왜냐하면 세례에 관해서 성경은 그 의미를 분명하게 말하고 있기 때문이다.

3.1.2 후브마이어의 ‘세례’를 위한 전제조건

수세자에게 있어서 세례를 받기 전에 꼭 선행되어야 하는 것은 ‘하나님 말씀의 청취’(hearing of the word of God)이다. 하나님 말씀의 청취가 없이는 자신에 대한 죄의 고백과 믿음의 고백이 있을 수 없기 때문이다.

3.2 요한의 세례 (Baptism of John)와 그리스도의 세례 (Baptism of Christ)에 관하여

중세시대에서 성례론을 설명할 때 중요한 성경해석의 하나였던 요한의 세례와 예수의 세례에 관한 해석은 종교개혁 시대 속에서도 중요한 이슈가 되는데, 츠빙글리와 후브마이어 또한 이 문제를 자신들이 주장하는 세례의 의미를 설명하기 위해 사용한다.

3.3 후브마이어의 삼중세례 (Threefold Baptism)에 관하여

3.3.1 성령세례 (Baptism of the Spirit)

성령세례란 ‘하나님 말씀을 통해 성령으로부터 우리 마음에 일어나는 내적 조명’이다. 그러나, 이것은 단순히 하나님이 인간에 베푸시는 은혜만을 의미하는 것을 넘어서,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사함의 반응을 포함하며, 이것은 그리스도의 뜻대로 따라 살겠다는 자신의 헌신과 고백의 내적 반응을 의미한다.

3.3.2 물세례 (Baptism of Water)

물세례란 수세자가 그리스도를 주라 고백하며 그분의 뜻을 따라 살기로 약속하는 내적인 믿음의 고백을 다른 신자들 앞에서 공적으로 고백하는 것을 뜻한다. 또한 물세례의 의미는 수세자가 가시적 교회 (Visible Church) 속으로 들어가는 입문과정을 뜻한다. 셋째로 물세례를 통해 죄 용서의 의미는 어느 개인의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신자의 공동체 (교회)가 그 권위를 가지고 있음을 말한다.

3.3.3 피세례 (Baptism of Blood)

피세례란 그리스도의 명령대로 살아가는 삶에 있어서 자신의 내적인 욕망을 누르고 그분의 뜻을 따라 사는 것을 의미하는 것뿐만 아니라 자신과 세상과의 관계 속에서 그리스도의 명령에 순종함으로 오는 세상으로부터 오는 고난과 핍박 속에서도 신앙을 지키기 위하여 순교까지도 감당하는 것을 의미한다.

3.4 원죄와 유아세례에 관하여

유아세례를 주장하는 주류개혁자들은 유아세례와 원죄를 연관하여 설명한다. 동시대의 다른 재세례파들은 원죄를 거부하고 유아세례를 거부한다. 그러

나 후브마이어는 원죄를 인정하지만 유아세례를 거부하는데 이것을 설명하는 것이 가능한가?

3.5 후브마이어의 역동적이고 관계론적 관점에서의 세례

4. 후브마이어의 성만찬 (Lord's Supper)

4.1 성만찬론을 위한 후브마이어의 방법론

4.1.1 기독교론 (Christology)의 관점에서의 성만찬론

가톨릭에서는 성만찬의 떡과 잔이 성례를 통해 진짜 예수의 몸과 피로 변한다는 화체설 (transubstantiation) 을 믿고, 루터는 비록 성만찬에서 떡과 잔이 진짜 예수의 살과 피로 바뀌는 것은 아니지만 예수의 실제 임재를 통한 공재설 (consubstantiation)을 주장한다. 그러나 쾰빙글리는 성만찬의 떡과 잔은 예수의 살과 피를 단순히 기념하라는 것으로 이해한다. 그러나 후브마이어는 성만찬이란 이 땅 위에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는 다른 신자들을 통해 그리스도와 함께 연합됨의 경험을 의미한다.

4.1.2 성만찬 참여를 위한 전제조건

성만찬은 세례를 통하여 참여자의 신앙이 먼저 고백 되어야 하고 그 교회의 공동체의 일원이 되어야 한다. 다시 말해, 세례를 통해 자신이 스스로 그리스도의 명령대로 따라 살겠다고 서약한 사람들만이 성만찬에 참여할 수 있다.

4.2 후브마이어의 역동적이고 관계론적 관점에서의 성만찬의 의미

4.2.1 현재적 시점의 관점에서 기념식 (Memorial)

성만찬은 이천년 전에 우리를 위해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이라는 과거의 사건을 단순히 기념하는 것이 아니라 그 과거의 사건이 우리에게서 현재의 사건으로 받아들여져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자신을 주신 것같이, 지금 우리도 우리 이웃을 위해 살아야 하는 책임을 되새기게 하는 것이다.

4.2.2 관계론적 관점에서의 사랑의 서약(Pledge of Love)

우리를 위한 그리스도의 고난과 죽음을 인식하는 성만찬은 하나님과 참여자 사이의 올바른 관계를 전제할 때 의미를 가지지만, 사랑의 서약과 같은 성만찬의 의미는 참여자와 다른 신자들과의 관계의 중요성에 강조하는 것으로 이해되어야 한다.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죽기까지 사랑하심 같이 우리도 다른 이들을 위해 그렇게 살아야 하는 것을 말한다.

4.2.3 치리와 출교에 대하여

진정한 사랑이란 어떤 이가 죄를 지었을 때 계속적으로 그것을 묵인하고 감춰 주는 것을 의미하지 않는다. 주안에서 서로 사랑한다는 것을 그리스도의 명령대로 우리가 살아가도록 서로를 격려하며 도와주는 것을 의미한다. 치리와 출교는 그를 죄인이기에 심판하고 정죄하는 기능을 위한 것이 아니라 잘못으로부터 벗어나하나님의 뜻대로 올바르게 살아가기 위해 서로 돕는 것을 말한다.

5 결론: 후브마이어의 새로운 관점에서의 구원론의 의미

5.1 마틴 부버(Martin Buber)의 대화인격주의(Dialogical Personalism)과 후브마이어의 구원론

후브마이어의 역동적이고 관계론적인 구원에 대한 인식은 마틴 부버의 대화인격주의의 개념을 이해할 때 보다 명확히 이해될 수 있다. 인격적이란 의미는 나와 상대방중에서 어느 한 쪽이 주도권을 잡을 때 그것은 올바른 인격적 관계가 될 수 없다는 부버의 주장은 후브마이어의 구원론을 이해하는데 도움을 준다. 그러나 후브마이어는 단순히 관계의 의미를 일대일로만 한정하지 않고 나와 하나님, 나와 다른 신자들, 그리고 나와 세상속의 사람들과의 관계라는 좀 더 포괄적 개념에서의 관계론을 보여준다.

5.2 현대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을 위한 후브마이어의 구원론의 함의

5.2.1 구원의 본질

믿음에 의한 구원의 의미는 단순히 입으로 신앙의 고백하는 것이나 구원에 대한 확신의 있고 없음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 아니다.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구원의 의미는 과거나 미래의 관점에서 강조되기 보다는 ‘지금 여기에’ 라는 현재적 관점에서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어떠한지, 또한 나와 다른 신자들과의 관계가 어떠한지, 세상 속에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지에 대한 관계론적 관점에서 이해 되어야 한다.

5.2.2 공동체와 같은 교회의 본질

공동체와 같은 교회란 교회의 구성원인 신자들간의 교제 가운데서 온전함을 찾을 수 있다. 교회 공동체가 건강하게 가려면 대형교회를 지향하기 보다는 모든 성도가 서로를 보살피고 격려할 수 있는 규모의 공동체를 이루는 것이 바람직하다.

5.2.3 성례의 중요성

올바른 성례전 (세례와 성만찬)의 인식과 실행은 교회 공동체의 건강함을 유지시킬 수 있을 뿐 아니라, 개개인의 구원의 삶을 돌아볼 수 있는 중요한 예식이 되고, 세상 속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를 전하며 빛과 소금의 역할을 행할 수 있는 원동력이 될 수 있다.

모든 이를 위한 목회 매뉴얼

이 연재는 존 렘펠(John Rempel.)의 Ministor's Manual 김복기 형제가 우리말로 옮긴 것입니다. 이 매뉴얼은 도서출판 대장간에서 『모든 이를 위한 목회 매뉴얼』로 출간하였다.

〈심는 순서〉 예배와 예전 / 언어를 넘어선 예배 / 교회에서 드리는 기도 / 세례와 교회의 멤버십
/ 주의 만찬 (성찬식, The Lord's Supper) / **축복** / 부르심과 리더를 세우는 예식
/ 애도와 치유 / 회중의 분별

축복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이신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온갖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에베소서 1:3) 교회와 교회를 대신해서 일하는 목사들에게 중요한 또 하나의 목회 기회는 하나님의 축복을 사람들에게 빌어줄 때 이루어진다. 비록 축복을 전달할 수많은 기회들이 있지만, 특별히 언약을 세울 때, 인생을 살면서 이정표로 맞이하는 일들이 있을 때 축복을 받게 된다. 사람들은 결혼식, 기념식, 헌아식, 자녀들의 성년식, 새로운 교육, 사업, 일을 시작할 때, 은퇴를 할 때, 헤어질 때와 여러 적절한 상황에서 하나님의 축복을 구하는 기도를 드리기 원한다.

하나님의 축복을 비는 행위는 성서와 그리스도교 문화에 깊이 뿌리 내린 귀중한 전통이자 예식이다. 하나님의 풍성하신 선하심을 기초로 우리는 하나님의 축복을 구하며 사람, 모험, 행사 및 여러 활동이 있을 때 하나님의 안녕과 넘치도록 후원해 주실 것을 빈다. 구약성경에서, 축복의 뿌리는 번영과 충만함이

다.(예, 창세기 1:22, 28) 성경은 우리가 다양한 상황과 활동들을 통해 하나님의 변영과 충만함의 축복을 찾고 기대하도록 촉구한다.

하나님의 축복을 구하는 것은 하나님의 선하심을 추구하고 인생의 모든 일을 그 선하심 앞으로 이끌어 나아가는 것을 의미한다. “하나님은 선하시고 생활의 모든 필요를 채우시는 분이시므로 세상이 선하게 창조되었다”⁵¹고 믿기 때문에 근원적으로 하나님의 축복은 자발적이며 무조건적이다. 이 축복은 인생의 역동적인 과정들 속에 계속 연결되어 창조 속에 반영되어 있고, 하나님이 모든 상황 속에서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는 약속에 반영되어 있다.(시편 139, 마태복음 28) 생명은 그 자체로 창조되면서 하나님의 축복을 반영하고 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여라”(창세기 1:28)고 하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베푸셨다.

이러한 무진장한 선함의 축복으로부터, 우리는 우리가 행하는 모든 일에 있어서 하나님의 안녕과 돌보심을 빌고 빌어줄 수 있다. 이를 위해 우리는 이미 하나님의 백성들이 경험한 구체적인 언어와 행동을 사용하여 축복의 예전을 세울 수 있다. 예를 들어, 민수기 6:24의 말씀은 이렇게 사라들을 축복한다. “주님께서 당신들에게 복을 주시고, 당신들을 지켜 주시며, 주님께서 당신들을 밝은 얼굴로 대하시고, 당신들에게 은혜를 베푸시며, 주님께서 당신들을 고이 보시어서, 당신들에게 평화를 주시기를 빕니다.”

이 매뉴얼에서 지금부터 소개할 말과 행동들은 우리들의 역량을 강화시키는 하나님의 선하심을 드러내는 능력 있는 표현들이며 우리 인간들의 경험에 하나님의 선하심을 드러내는 방법들이다. 이러한 것은 여러 세기에 걸쳐 하나님의 백성들이 심혈을 기울여 선택한 단어, 예전, 행동들이며 인간대리자들이 하나님을 대신하여 폭넓고 다양한 인간 경험들 속에 하나님의 축복을 내리는 말과 행동들로 입증된 것들이다. 하나님의 축복을 구하는 것은 우리의 상상력을 자극하며 “우리 가운데서 일하시는 능력을 따라,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더욱 넘치게 주실 수 있는” 그 분에 대한 우리의 기대를 한껏 고조시킨다.

그러나 이러한 말과 행동들에 어떤 마술적인 힘이 있는 것은 아니다. 이러한 말과 행동 그 자체에 능력이 있다거나 성취력이 있는 게 아니기 때문이다. 우리가 믿음 안에서 하나님의 축복을 구하는 것은 스스로 축복을 취하려 들거나 우리 자신의 안녕을 위해 우리가 져야 하는 적절한 책임을 줄이기 위함이 아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축복은 성경이 기록하고 입증하는 것으로써 모든 세대에 걸쳐 드러나 있으며,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축복을 빌어주는 사람들이 특별한 말과 행동으로 우리 삶에 하나님의 축복을 빌어주는 모습으로 기록되어 있다.

교회에서 축복을 빌어주는 일은 예수님의 사역과 모범에도 구체적으로 드러나 있다. 우리는 가나 혼인잔치에서 물을 포도주로 변화시킨 예수님의 축복, 들판에서 빵과 물고기를 많은 사람들에게 먹인 사건, 어린이들에게 복을 빌어주신 일, 그리고 마지막 만찬에서 빵과 포도주를 축복하셨던 일들을 기억한다. 우리는 또한 예수께서 우리를 저주하는 자들을 축복하라고 하신 말씀(누가복음 6:28)을 기억한다. 또한 가난한 자들, 슬퍼하는 자들, 그리고 예수님 때문에 모욕을 당하고 박해를 받는 자들을 축복하신 것(마태복음 5:11)을 기억한다. 예수님께 축복은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성공이나 안녕 그 이상의 의미가 있다. 왜냐하면 축복은 어떤 물질적인 편안함을 얻는다든지, 고통이 없는 상태를 넘어선 어떤 것과 관련이 있기 때문이다. 그리스도인들이 구하고 받는 모든 축복은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의 승리 그리고 궁극적으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모든 내용이 종말론적으로 성취되리라는 사실을 믿는 것에 깊이 뿌리를 박고 있다.

다음은 하나님의 축복을 빌어야 할 특별한 상황들에 대한 설명이다.

결혼식과 독신식. “우리는 하나님께서 인간 생활은 가정에서부터 출발하도록 하셨으며, 가정을 통해 복을 주기 원하신다는 것을 믿는다.” “믿음의 가정들은 이 땅의 모든 가정들에게 복이 되어야 한다.” 결혼을 위한 예배, 찬송, 기도, 그리고 결혼예식은 결혼 당사자들과 가족 그리고 결혼식에 모인 모든 회중에게 하나님의 축복을 빌어줄 수 있도록 다양한 기회를 제공한다. 결혼 축복에는 함께 동료가 되는 기쁨, 결혼 서약에 대한 신실함, 반대를 무릅써야 하는 용기,

섬김에 대한 결실, 그리고 부부가 자녀를 갖기 원할 때 받을 다산의 축복 등 여러 내용을 포함한다. “우리는 교회 가족 안에서 독신이나 기혼자 모두가 아름다운 삶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러한 결혼 축복에서 결혼하지 않은 사람들은 제외되어 있다는 의미가 결코 아니라는 점을 기억해야 한다.⁵²

교회 가족의 돌봄으로 자녀들을 데려오는 헌아식이나 자녀들의 성장에 따른 축복. 어린 아이들이 하나님의 축복을 받기 위해 하나님의 백성 앞으로 데리고 나오는 것은 아주 오래된 전통이다.(누가복음 2:22, 18:15) 자녀들을 축복하는 이 시간은 자녀들에게만 아니라 부모들에게도 자신들이 신실한 부모가 되기로 다시 헌신하기에 좋은 시간이다. 어떤 회중은 입학식, 12세 생일, 혹은 고등학교 졸업식과 같이 아이들의 삶에 있어서 중요한 이정표가 되는 특별한 순간들을 축복하기도 한다. 어떤 회중은 이러한 예식 중에 성찬을 나눌 때, 자녀들이 부모와 함께 나와 성찬에 참여하고 부모들이 자녀들을 축복하도록 배려한다.

입학식, 취직, 혹은 사업 등 새로운 시작을 축복함. 사람들이 새로운 시작을 경험할 때, 우리는 그들을 위해 하나님의 축복을 빌어줄 수 있다. 그들의 노력이 하나님의 다스림에 따라 아름답게 열매 맺고 그들이 사용하는 시간, 자원, 그들이 얻게 될 경제적 이득 등에 대해 선한 청지기가 되도록 축복한다.

퇴직. 사람들이 나이를 먹으면서 중요한 일과 직장을 그만두게 되는데, 이 때 그들이 이루어 놓은 일들에 대해 하나님의 축복을 빌어주는 것은 아주 좋은 일이다. 우리는 퇴직한 사람들이 직면하게 될 새로운 변화에 잘 적응하도록, 그리고 인생의 선함을 경험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새로운 기회 혹은 섬김의 기회들을 구하면서 하나님께 지혜와 은혜를 베푸시도록 축복하고 기도할 수 있다.

기념일. 결혼기념일, 취직과 개업 기념일, 특별한 일을 일구어낸 기념일(예를 들어 알콜 중독에서 벗어난 날) 등과 같이 우리 인생의 여러 기념일에 하나님의

축복을 기억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이러한 날에 축복을 빌기 위해 우리는 감사와 일어난 일을 하나님 앞에서 잘 정리하여 표현하면 사람들이 얼마나 하나님께서 언약을 지키는 사람에게 신실하신지 기억할 수 있을 것이다.

이별과 헤어짐. 이동이 일상이 되어버린 시대를 살면서, 우리는 보다 더 자주 새로운 지역으로 이사하는 사람들에게 축복을 빌어줄 필요성을 느낀다. 때로 이러한 이별과 헤어짐은 사별이나 애도라는 중요한 행위와도 연관되어 있다. 이 때 우리는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하시며 그들을 홀로 있게 내버려 두지 않으신다는 사실을 알 필요가 있다.

결혼식

그리스도인에게 결혼은 두 사람이 서로 신실하게 사랑하기로 언약하고 서로의 이익을 위해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함께 살아가겠다고 헌신하는 공적 예배다. 이 두 사람 사이에 참여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지만, 결혼식에 참여하는 사람들은 결혼하는 두 사람을 격려하고 후원하겠다고 동의하는 예식이기도 하다.

결혼식의 내용과 특징은 기본적으로 주례 목사에 의해 결정되지만 결혼 예배로서 적절해야 한다. 그러나 결혼 예배를 계획할 때에 앞날의 신랑과 신부가 중요한 역할을 감당해야 할 충분한 이유가 있다. 결혼식을 함께 계획하는 일은 결혼을 보다 더 깊이 이해하고 의미를 증진시키는 훌륭한 배움의 기회가 될 수 있다. 결혼식 순서에 부부가 표현한 훌륭한 아이디어들과 그들이 선택한 언어들, 결혼 예배에 대한 그들의 참여도를 높이고 이 예배가 그들에게 특별한 의미를 갖도록 만들어준다.

결혼식은 결혼하는 당사자들에게 그리고 그들이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보다 직접적이고 매우 심오한 의미를 가지기 때문에, 목회자는 결혼을 준비하는 동안 신학적이거나 예전적 틀 안에서 부부가 표현하고자 하는 내용을 충분히 담아

내는 극진한 목회적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 역사적으로 결혼 예식의 역할은 우리가 예식에 참여하는 다른 사람들과 함께하며, 우리에게 공통적인 언어와 몸짓을 다른 사람들과 나누는 데 있다. 현대 서구사회의 사람들은 통상적이며 전통적인 예전에서 사람들을 소외시키고 개인에만 초점을 맞추고자 하는 차원에서 독특한 예전을 만들어내고자 애쓰고 있다. 각 짝은 누구나 다 아는 예전을 표현해야 한다. 만약 신랑신부가 자기 스스로의 언어로 언약을 쓴다고 할지라도 그리스도인의 결혼 예식에 부합하는 공동의 가치들로 표현되어야 한다.

결혼 예배에 너무 공을 들이거나 사치스러울 필요는 없지만 의미있고 아름다워야 한다. 우리 문화는 결혼식을 지나치게 현란한 모습으로 치장하는 경향이 있다. 그렇게 치장하려는 압력이 너무나 강하면 주례목사는 신랑신부와 가족의 허락을 받아 소박한 결혼식을 계획하라고 격려할 필요가 있다.

무엇보다 결혼식은 예배다. 사람들은 한 남자와 한 여자에게 사랑을 베풀어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리기 위해, 그들이 서로를 향한 언약을 축복하고, 결혼하는 부부의 계획과 뜻을 지지하며 하나님께 축복을 빌기 위해 모이는 것이다. 그러기에 결혼식 계획은 이 세 가지 목적을 기본으로 해야 한다.

때때로 결혼하는 부부가 결혼식 때 성찬을 요청하기도 한다. 주의 만찬은 본질적으로 연합, 하나됨을 뜻하므로 결혼식에서 축하할 수 있다면 모든 회중이 함께 성찬에 참여하는 것이 좋다. 그리스도인이 아닌 사람들이 결혼식에 참여하는 다원주의 사회적 맥락에서 결혼식에 성찬식을 인도하는 것은 매우 민감하고 복잡하다. 만약 결혼 예식에 성찬식을 시행해야 한다면, 주의 만찬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하객들에게 정확하게 전달하는 세심한 주의가 필요하다.

메노나이트들에게 결혼식은 문화적으로 정말로 다양한 모습으로 치러진다. 그러나 전통적으로 결혼 예배는 회중의 찬송, 성경읽기, 설교가 있는 일반적인 예배의 순서를 따른다고 말해도 좋을 것이다. 대개 신랑신부는 들리리 없이 함께 입장하면서 예배를 시작한다. 입장을 하는 동안 찬송을 부르기도 한다. 이러한 예배형식을 추천하는 것은 결혼식의 초점이 신랑신부를 주님 앞에서 축복하면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데 있기 때문이다. 찬송을 부르고 기타 다른 식순

들을 통해서 회중은 없어서는 안될 중요한 참여자가 된다. 몇몇 지역의 메노나이트들은 주일 예배 중에 결혼 예배를 드리기도 한다. 결혼식에서 “신부를 신랑에게 넘겨주는” 방식은 앵글로색슨 전통이지 메노나이트 전통은 아니다.. 현재 대부분의 교단들은 신랑신부가 동시에 입장하는 방식을 추천하고 있다. 부모들과 가족들이 신랑신부를 축하하는 새로운 방식들도 계속 개발되고 있다.

결혼식에는 교회의 회원들과 비회원들이 동시에 참여하기 때문에 목사는 결혼식 전과 후에 신랑신부와 목회적 관계를 잘 맺어야 한다. 결혼 전에 주례목사는 결혼식 이후의 삶은 물론 전체적인 결혼생활에 대한 내용과 결혼예배를 함께 계획할 수 있도록 신랑신부와 카운슬링 시간을 미리 약속하는 것이 좋다.

만약 목사가 현재 시무하는 교회가 아닌 다른 교회에서 결혼식 주례를 부탁받았다면, 결혼식이 치러질 교회의 목사의 사전 동의를 얻은 후 준비를 하거나 그렇지 않다면 예의를 갖추어 초청을 정중히 사양하는 것이 좋다. 주례를 서는 목사는 신랑신부에게 그들이 속한 교회의 목사님이 결혼 예식에 반드시 역할을 담당하도록 제안해야 한다.

주례 목사가 시무하는 교회에서 결혼예배를 드리든 다른 곳에서 드리든, 결혼식, 접수, 건물 사용, 관련 비용 등을 언급하는 회중의 정책을 명확하게 점검하여 결혼하는 부부 및 관련 목회자들에게 알리고 협의하여 결혼 예배를 준비해야 한다.

결혼법은 다르다. 어떤 관할 구역에서 결혼식을 인도하기로 동의하기 전에, 목사는 결혼법을 충분히 숙지한 뒤 집계 해야 한다. 결혼 집계자는 결혼 관련 문서에 서명을 하고 이를 이행해야 할 책임이 있다.

주례목사와 신랑신부는 결혼 예배가 정확히 언제 시작되는지 분명히 알고 있어야 한다. 예배에 사용할 음악, 향초, 꽃을 비롯한 상징물들은 결혼식과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 용품으로 적합한 것들로 선택했는지 거듭 확인해야 한다. 가족 중에 이혼을 했거나 재혼을 한 부모들이 참여하는지, 또한 이전 결혼에서 낳은 자녀들이 있는지 등 복잡한 가족 구조를 미리 파악하여 예배 중에 가족 구성원으로서 명확한 역할을 담당하도록 한다. 신랑과 신부가 예행연습을 하기

전에 목회자는 가족과 이러한 사실을 미리 협의해야 한다.

예배 순서지를 준비하는 것은 회중이 예배에 적극적으로 참여해야 할 때, 그리고 잔치를 담당하는 사람들이 누군지 알리는 데 많은 도움이 된다. 예배 중에 플래시를 터트리며 사진을 찍는다든지 여러 사진사들이 자주 움직이는 것은 예배에 방해가 된다.

주례 목사는 리허설을 관장해야 한다. 리허설이 진행되는 동안 예배에 변화를 주어야 할 부분은 신랑과 신부의 요청에 의한 것만 반영하도록 한다. 기도로 리허설을 시작하고 마치는 것이 좋다.

리허설을 위해 모든 말을 하나하나 다 언급할 필요는 없지만, 신랑신부 입장에서 참여자들의 위치, 동선, 꼭 필요한 신호, 꼭 알아두어야 할 말들은 실제 결혼 예배에서 무슨 일이 일어날지 미리 알 수 있도록 확신과 안정감을 준다. 염려되는 사안들을 리허설 때 미리 점검하면 실제 결혼 예배는 훨씬 자유롭게 진행될 것이다.

찬송

“하나님이 정하시고” (찬송가 601)

“성부님께 빙니다” (찬송가 602)

“태초에 하나님이” (찬송가 603)

“완전한 사랑” (찬송가 604)

“오늘 모여 찬송함은” (찬송가 605)

성경말씀

창세기 1:26-31a / 시편 67 / 시편 112:1-6 / 시편 148 / 아가 2:10-13 / 토빗 8:4-8 / 마태복음 5:1-10 / 마태복음 22:35-40 / 마가복음 10:6-9 / 요한복음 15:9-17 / 로마서 12:1-2,9-13 (14-20) / 고린도전서 13 / 에베소서 5:21-32 / 골로새서 3:12-17 / 요한1서 4:7-12 (13-19)

시각자료

만약 교회에 결혼식을 위한 적절한 색상의 배너가 있다면 걸어 놓으라. 보통은 결혼할 신랑신부가 꽃, 식물, 향초 및 다른 좋아하는 물건들이 있다면 전시해도 좋다. 목사는 가능한 단순하게 장식하도록 권면하는 것이 좋다. 만약 신랑신부의 부모들 중 누군가가 돌아가시고 없다면, 그들을 기억하는 촛불이나 꽃, 혹은 식물을 준비하여 기억하는 것도 좋을 것이다.

결혼 예배

서곡

신랑신부행진 음악: 행진곡이 찬송이 아니라면, 이후 찬송을 연주해도 좋다.

공동체로 모임

하나님 아버지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평화가 여러분과 함께하기를 빕니다.

우리는 오늘 신랑 ____ 과 신부 ____ 의 결혼식에 증인으로 참여하였습니다. 또한 하나님 이 두 사람의 결혼을 축복해주십시오! 라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모였습니다.

이 결혼식은 하나님의 선물로서 그동안 각자 살아온 두 사람이 한 몸이 되는 아주 귀한 축하의 예식입니다.

또한, 이 결혼식은 오늘 이 두 사람이 맺을 약속을 조금도 주저함 없이 실천하며, 이제 두 사람이 죽을 때까지 약속을 충실히 이행하겠다는 언약의 예식입니다.

이 결혼식은 새로운 삶을 기념하는 예식이며, 이들이 자신들의 신앙과 가치를 다음 세대에게 물려줄 책임을 감당하겠다는 예식입니다.

그러므로 신랑 ____ 과 신부 ____ 는 오늘 그리스도의 다스림 아래 자신의 삶을 두기로 날짜를 정하였습니다.

이제 이들이 맺을 약속을 위해 하나님 앞에서 기도드리겠습니다.

여는 기도

은혜로우신 하나님,

주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사랑이란 약속의 성취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이제 주님의 종들로 하여금 서로 사랑하게 하시고,

그들의 인생이 끝날 때까지 주님의 사랑 안에 늘 머물수 있게 해주십시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음악

성경말씀

설교

음악

결혼에 대한 의지 선언: 양가의 증인들 앞에서

인도자: 신랑 _____ 에게 묻습니다. 신랑 _____ 는 신부 _____ 를 아내로 맞이함에 있어 자기 몸처럼 사랑하고, 존경하며, 보호하며, 다른 모든 것보다 귀히 여기며, 당신이 사는 동안 신실한 남편이 될 것을 약속하겠습니까?

신랑: 네.

인도자: 신부 _____ 에게 묻습니다. 신부 _____ 는 신랑 _____ 을 남편으로 맞이함에 있어, 그를 사랑하고, 존경하며, 그를 보호하며, 다른 모든 것보다 귀히 여기며, 당신이 사는 동안 신실한 아내가 될 것을 약속하겠습니까?

신부: 네.

인도자: 가족들에게 묻습니다. 부모님들과 식구 여러분들은 신랑 _____ 와 신부 _____ 의 가족으로서 이 결혼을 축복하겠습니까?

가족: 네.

인도자: 회중에게 묻습니다. 이 자리에 증인으로 참여한 회중 각 사람은 힘을 다해 이 두 사람의 결혼 생활을 후원하고 돕기로 약속하겠습니까?

회중: 네.

결혼 서약

신랑: 나 _____는 신부 _____를 나의 아내로 맞이합니다. 지금부터 나는 하나님과 이곳에 계신 모든 친척과 회중 앞에서 당신의 사랑스럽고 신실한 남편이 되며, 기쁠 때나 슬플 때나, 건강할 때나 병들어 나약할 때나, 당신과 함께 하며 우리가 살아있는 한 하나님과 서로에게 함께 헌신할 것을 약속합니다.

신부: 나 _____는 신랑 _____를 나의 남편으로 맞이합니다. 지금부터 나는 하나님과 이곳에 계신 모든 친척과 회중 앞에서 당신의 사랑스럽고 신실한 남편이 되며, 기쁠 때나 슬플 때나, 건강할 때나 병들어 나약할 때나, 당신과 함께 하며 우리가 살아있는 한 하나님과 서로에게 함께 헌신할 것을 약속합니다.

조용히 결혼 반지를 교환한 후, 다음과 같이 약속을 주고 받는다.

신랑: 나는 신부 _____에게 서약의 증표로 이 반지를 드립니다. 내가 가진 모든 것과 내 존재를 걸고 당신을 존경합니다.

신부: 나는 신랑 _____에게 서약의 증표로 이 반지를 드립니다. 내가 가진 모든 것과 내 존재를 걸고 당신을 존경합니다.

성혼 선언

나는 신랑 _____와 신부 _____가 남편과 아내가 되었음을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짝 지어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 것입니다.

신랑신부를 위한 축복 기도: 신랑신부는 무릎을 꿇고 주례 목사가 그들의 머리에 손을 얹고 기도한다. 혹은 두 사람이 성경에 손을 얹고 기도한다.

주님께서 당신들에게 복을 주시고, 당신들을 지켜주시며, 주님께서 당신들을 밝은 얼굴로 대하시고, 당신들에게 은혜를 베푸시며, 주님께서 당신들을 고이 보시어서 당신들에게 평화를 주시기를 빕니다. 아멘.

기도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주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에게 베풀어주신 친절한 사랑을 인해

감사드립니다. 예수님께서 생명의 길로 십자가의 길을 보여주심에 감사드립니다.

또한 주님께서 예수의 이름으로 남자와 여자를 한몸이 되게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이제 성령님의 능력으로 신랑 ____ 과 신부 ____ 를 축복합니다.

성령 하나님, 이들이 그들의 마음을 다해 서로를 사랑하게 하시며,
두 팔을 벌려 서로의 어깨를 감싸게 하시며, 서로의 머리에 관을 씌워주게 하소서.

그들의 일터와 우정과 잠자리에서 자고 일어남을 축복하여 주십시오.

이들이 기쁠때나 슬플때나, 그들이 살아 있는 동안이나 죽음에 이를 때까지 주님께서 함께 해주십시오.

끝으로 이 두 사람이 인생의 모든 길을 함께 걸어가며 결국 주님의 하늘 집에서 모든 성도들과 함께 잔치에 참여하는 그 식탁에 이를 때까지 주님께서 인도하시도록 주님의 한없는 자비를 구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에게 가르쳐주신 기도를 드립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⁵³

회중을 축복함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우리 모두에게 함께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찬송: 퇴장을 위한 찬송, 혹은 퇴장 연주 전에 찬송을 부름

후주곡

다른 결혼식 자료들

부모들에 의한 축복

인도자: 신랑과 신부의 결혼을 위해 누가 이들을 축복하겠습니까?

부모들: 우리가 하겠습니다.

성혼 서약

신랑: 나 _____는 신부 _____를 아내로 맞이합니다.

오늘 이 순간부터 좋을 때나 나쁠 때나

부유할 때나 가난할 때나

아플 때나 건강할 때나

사랑할 때나 사랑 받을 때나

내 남은 인생동안 하나님의 기록하신 법을 따라

아내와 함께 하기로 엄숙히 서약합니다.

신부: 나 _____는 신랑 _____를 남편으로 맞이합니다.

오늘 이 순간부터 좋을 때나 나쁠 때나

부유할 때나 가난할 때나

아플 때나 건강할 때나

사랑할 때나 사랑 받을 때나

내 남은 인생동안 하나님의 기록하신 법을 따라

남편과 함께 하기로 엄숙히 서약합니다.

신랑신부를 축복함

돌보시는 어머니 하나님,

주님은 위대한 사랑으로 우리를 남자와 여자로 창조하시고 이제 남편과 아내로 한 몸이 되게 하셨습니다.

당신과 당신의 사람들 사이에서 하나가 되었습니다.

주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가운데 보내셔서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시고 세상에 새로운 생명을 선물해 주셨습니다.

이제 성령님을 보내셔서 신랑 _____ 과 신부 _____ 를 축복하시고, 결혼 안에서 서로 자신을 내어주기까지 사랑하며 살게 축복하여 주십시오.

그들의 일터와 가정과 잠자리에서 자고 일어남을 축복하여 주십시오.

이들이 기쁠때나 슬플때나, 그들이 살아 있는 동안이나 죽음에 이를 때에까지 주님께서 함께 해 주십시오.

그들에게 주님의 뜻을 따라 자녀를 선물해 주시고 그들의 가정에 늘 하늘의 평화가 임하게 하여 주십시오.

그들을 축복하여 모든 사람들이 이 부부가 주님의 공동체 안에서 함께 사람들과 어울려 살게 하시며, 이 땅에 하나님 나라가 이뤄지는 비전을 보게 하소서.

평생에 주님의 선하심이 그들과 함께 하시어, 결국에는 주님의 영광 앞에 그들이 설수 있도록 축복하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⁵⁴

부모 및 유아 축복 예배(현아식)

아기의 출생은 창조 및 구속의 사역으로써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다. 부모 및 아이를 축복하는 예배를 시행함에 있어서, 우리는 “주께서 내 속 내장을 창조하시고, 내 모태에서 나를 짜 맞추셨습니다. 내가 이렇게 태어났다는 것이 오묘하고 주께서 하신 일이 놀라워, 이 모든 일로, 내가 주님께 감사를 드리며 찬송한다.”(시편 139:13~14) 현아식 예배를 드리며 우리는 새로 태어난 아이를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에서 자라나도록 축복한다. 아이가 교회와 맺는 관계에 대해서는 유아세례를 시행하는 교회와 시행하지 않는 교회 간에 신학적 차이가 있다. 유아세례를 시행하지 않는 교회는 “부모 및 유아 축복 예배”에서 그리

스도의 속죄가 막 태어난 유아를 포함하고 있음을 선포한다. 어린이들은 자기 스스로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하고 이러한 고백에 상호책임을 감당할 수 있을 때까지 은혜 안에 머무르게 된다. 예배 중에 유아를 하나님과 교회 앞에 소개함으로써 그들을 하나님과 교회의 돌봄 안에 있게 한다. 크리스천 부모와 함께, 아이는 부모의 신앙과 돌봄 안에서 자라날 수 있다는 것이 우리의 고백이다. 축복 예배를 드림으로써 부모들은 아이를 하나님 안에서 신앙으로 돌보고 양육시키겠다는 부르심에 자신들을 헌신하는 것이다.

예수님께서서는 어린이들을 신앙의 모델로 삼았다.(마가복음 10:13~16) 어린이들이 보이는 의존성과 신뢰하는 본성은 그들의 삶 속에 하나님의 현존을 쉽게 받아들일 수 있게 한다. 어린이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르심에 늘 주의하며, 그들의 인생을 향한 그리스도의 명령을 잘 받아들일 때, 인생은 보다 더 성숙한 모습으로 자랄 수 있으며 이것을 실현하는 곳이 바로 가정이고 교회의 책임이다.

부모 및 유아 축복 예배는 주일 예배 중에 함께 드려왔다. 아이가 태어난 첫 일요일에 교회로 데려와 인사를 시킨다. 교회와 부모는 이 예배 중에 아이를 주 안에서 양육하기 위한 약속을 미리 준비한다. 아이를 물질적으로 영적으로 올바르게 양육하기 위해 부모와 교회는 자신을 헌신해야 하므로, 이 예배가 아이를 믿음 안에서 양육하게 될 부모에게 뿐만 아니라, 전체 교회에게도 의미 있게 시행되어야 한다. 비록 부모 중 한쪽이 축복 예배에 참석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한쪽 부모 및 교회가 아이를 주 안에서 양육하겠다는 의미는 변할 수 없다.(고린도전서 7:12~14) 이러한 상황은 아이가 한쪽 부모와만 살고 있는 상황에서도 달라지지 않는다. 성인들에게만 세례를 베푸는 신자들의 교회에서는 이 “부모 및 유아 축복 예배”를 위해 증인을 세우지 않는다. 그 이유는 유아 세례식과 혼동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 가족을 후원하는 후원 가족을 세우고 해도 만약 부모들이 자녀를 주 안에서 양육하겠다는 영적인 의지를 주님의 몸인 교회 앞에 드러낸다면 신학적으로 문제가 되지 않는다. 그렇지 않다면, 자녀를 거룩하게 하는 행위는 필수적인 영적 의도를 대치하는 사회적 의식이

되어 버리고 만다. 이 헌아식은 부모가 아이와 함께 새로이 출발하는 크리스천 여정을 회중과 함께 시작하겠다는 의미를 갖는다.

찬송

- “주의 발자취를 따름이” (찬송가 560)
- “예수님의 사랑은” (찬송가 561)
- “예루살렘 아이들” (찬송가 562)
- “예수 사랑하심을” (찬송가 563)
- “예수께서 오실 때에” (찬송가 564)
- “예수께로 가면” (찬송가 565)
- “사랑의 하나님 귀하신 이름은” (찬송가 566)
- “자정하신 목자 예수” (찬송가 567)
- “하나님은 나의 목자시니” (찬송가 568)
- “선한목자 되신 우리 주” (찬송가 569)
- “주는 나를 기르시는 목자” (찬송가 570)

성경말씀

마가복음 10:13-16 / 누가복음 2:21-40

시각자료

그림, 자수, 금박 등의 배너를 헌아식에 맞게 준비하면 좋을 것이다. 헌아식에서 가장 강력한 상징적 행위는 목사가 아이를 안고 축복하는 행위일 것이다. 가능하다면 회중이 찬송을 하는 동안 목사가 아이를 안고 회중 한가운데를 걸어가며 아이를 소개해도 좋을 것이다. 신생아의 형제나 자매를 부모와 함께 앞으로 초청하는 것도 좋다. 이제 막 봉오리가 피는 장미꽃 한송이를 꽃병에 꽂아 새로 태어난 아기를 축하하는 것도 좋을 것이다.

예배 (부모와 목회자가 회중 앞에서)

인도자: 크리스천 부모가 아이를 교회 앞에서 하나님께 내보일 때, 이는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신 생명으로 인해 감사하며, 아이를 주신 하나님께 다시 돌려 드리며 아이와 더불어 부모가 함께 하나님의 축복을 구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는 한 회중으로써 이러한 감사와 기쁨을 함께 하며, 자녀의 앞날과 이 가정을 위해 함께 기도하며, 아이로 하여금 교회의 돌봄을 받을 수 있도록 함께 헌신하고자 합니다.

구약의 한나와 신약의 마리아처럼, _____의 부모는 회중과 더불어 축복의 예배를 드리기 위해 _____를 교회 앞으로 데리고 왔습니다.

기도

은혜로우신 하나님,

자녀를 양육하는 아버지처럼

하나님께서서는 우리를 돌보십니다.

자녀의 이름을 하나하나 부르며 우리를 자기 몸처럼 여기는 어머니처럼,

하나님께서서는 우리를 이 세상에 태어나게 하시고 한 가정 안에서 자라나게 하시고 축복의 여정을 건네 하십니다.

주의 성령의 임재이래 이 아이와 부모를 성결하게 하며, 인생여정을 같이 걷게 됨을 축복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⁵⁵

질문 (부모에게)

인도자: 당신은 _____를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신 아들/딸임을 믿습니까?

부모: 네.

인도자: 당신은 부모로서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며, 아들/딸 _____를 주님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며, 공개적으로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할 때까지 주 안에서 양육하기로 헌신하겠습니까?

부모: 네, 주님의 도우심으로 양육하겠습니다.

인도자: 당신은 하나님께서 필요하실 때, 설령 그 부르심이 땅끝까지 가라는 부르심일지라도

도 _____를 기꺼이 내어드리기로 약속하십니까?

부모: 네, 주님의 뜻을 따라 기꺼이 내어드리겠습니다.

[후원자에게 하는 선택적 질문]

인도자: 당신은 이 아이가 교회의 신앙 안에서, 당신의 기도와 증언을 통해 그리스도의 충만한데 까지 이르도록 인도하겠습니까?

후원자: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인도자: (회중에게 질문) 여러분은 이 아이의 안녕을 위해, 기도하고, 모범을 보이고, 말씀으로 부모를 후원하며 그리스도의 은혜와 진리에 반응하도록 아이에 대해 책임지기로 약속하겠습니까?

회중: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거룩하게 하는 예식

인도자: _____(부모 이름)의 _____(아이 이름)를 당신에게 선물로 주신 하나님께서 이 아이를 양육하는 동안 당신 안에 사랑이 충만하게 해주시길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자녀가 복음을 따라 살도록 인도하심으로 아이들이 하나님 나라의 길을 잘 알아가도록 축복합니다.

목사가 아이를 팔에 안은 뒤 기도한다

_____, 창조하신 하나님, 너를 위해 아들을 기꺼이 보내주셨던 하나님과 그의 성령이 너와 항상 함께 하실 거야. 그 하나님이 이제 너를 돌보실 것이며, 너를 찾으시고, 너를 아시는 하나님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목사가 아이를 안고 이마에 손을 얹은 후 기도한다

_____, 주님께서 너에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켜 주시며, 주님께서 너를 밝은 얼굴로 대하시고, 너에게 은혜를 베푸시며, 주님께서 너를 고이 보시어서, 너에게 평화를 주시기를 빕니다. 아멘.

기타 헌아식을 위한 자료

헌아식을 위한 대안적인 예전

(a)

친절하신 하나님, 오늘 이 시간 헌아식을 위해 _____을 주 앞으로 데려왔습니다.
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라나면서 은혜와 지혜가 더하셨던 것처럼 이 아이가 해를 거듭하면서 자라나게 하시며

성령님의 은총으로 이 아이가 하나님의 자녀로 성장하면서 아이가 평생 하나님을 신실하게 섬기게 하소서.

통치하시는 주 하나님과, 성령님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어서 민수기 6장 24~26의 말씀으로 축복한다.)

입양한 자녀를 위한 기도

하나님, 주님은 우리 모두를 당신의 자녀로 입양하셨습니다. 우리가 _____를 이 가정에 선물로 허락해 주심에 감사드리며 부모인 _____이 이 아이를 자녀로 받아들여지게 됨에 감사드립니다. 이 가정에 사랑과 신뢰와 크신 이해를 한없이 내려주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부모들이 자녀에게 하는 기도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에게 자녀를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_____를 거룩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저희가 이 아이를 돌보고, 사랑하고, 도와주고, 가르치고, 훈련할 때, 하나님의 신령한 능력으로 양육하게 도와주십시오. 이 아이가 강하고 지혜롭게 살아가도록 성령님께서 함께해 주십시오. 아이가 자라가면서 어젠가 예수님을 자신의 구세주요 주님으로 받아들이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우리가 _____를 주님께 드리니 주님의 능력으로 지켜주시고, 주님의 일을 위해 사용하시고, 주님의 임재 안에서 늘 살도록 이끌어 주십시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그밖의 축복 예배

다음에서 설명할 내용들은 소그룹모임이나, 사적인 모임 혹은 공적인 예배를 위한 축복예배 형식이다. 메노나이트 전통에서는 은혼식, 금혼식, 다이아몬드식으로 기념예배를 드려왔다. 이러한 형식의 결혼 기념예배를 정기적으로 드리는 곳에서, 하나님의 축복을 받기 원하는 사람들의 중심으로 참가자들이 모임 장소 앞에 모이는 것이 적절하다.

- 기름부음(기름부음부분 참고)
- 서로 평화의 인사를 나눔(교제를 위해 거룩한 입맞춤, 포옹, 악수를 함)
- 십자가의 성호를 그음. 개신교신자들은 일반적으로 고대 혹은 초기 그리스도인들의 몸짓인 십자가 성호를 그는 것을 거부해왔다. 중세 교회가 지나치게 의식중심의 모습을 띤 어은 모습이 연상된다는 이유 때문이었다. 이러한 반응은 이해할만한데 그리스도를 불러내고자 하는 아주 심오하지만 간단한 몸동작 하나를 메노나이트 교회의 실행예식으로 결정해서는 안된다. 목사는 이마 위에 혹은 멍치부분에 성호를 그릴 때, 한쪽 어깨에서 다른 쪽 어깨로 성호를 그리기 시작할 때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라고 말하면서 사람들의 이마 위에 십자가 모양을 그리거나, 그 사람의 몸을 접촉하지 않고 신체 위에 십자가 형상을 그려도 좋을 것이다. 가장 적당한 방법은 삼위일체이신 하나님의 임재 앞에서 아무런 말없이 묵상하는 것이 좋다.

한 손 혹은 두 손을 머리 위나 어깨위로 뻗는다.

이때 드리는 기도는 한 사람 혹은 모든 사람들이 함께 읽어도 좋을 것이다.

독신으로 살고자 하는 사람에 대한 축복

교회가 결혼한 사람들을 축복하는 것과 동일하게 주님을 섬기기 위해 홀로 살기로 결정한 사람들을 받아들이는 동안, 개신교는 일정기간 혹은 평생 독신으로 살면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가장 잘 섬기는 방법이라고 믿는 사람들을

공적으로 어떻게 받아들여야 하는지에 대해 목회적 차원에서 제대로 반응하지 못했다. 독신으로 살고자 하는 사람에 대한 축복의 예배는 결혼생활이 끝났을 때 다른 사람과 아직 관계를 가질 준비가 되어 있지 않은 사람들을 위임식이나 안수식을 포함하여 어떻게 축복해야할지 다양한 가능성을 열어놓고 시행할 수 있다. 이러한 예배는 공식적으로 혹은 비공식적으로 시행할 수 있다.

인도자: 몸은 하나이지만 많은 지체가 있고, 몸의 지체는 많지만 그들이 모두 한 몸이듯이,
그리스도도 그러하십니다.⁵⁸

우리는 유대인이든지 헬라인이든지 종이든지 자유인이든지, 모두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서 한 몸이 되었고, 또 모두 한 성령을 마시게 되었습니다.

은사는 여러 가지지만, 그것을 주시는 분은 같은 성령이십니다.

섬기는 일은 여러 가지지만, 섬김을 받으시는 분은 같은 주님이십니다.

일의 성과는 여러 가지지만, 모든 사람에게서 모든 일을 하시는 분은 같은 하나님이십니다. (고린도전서 12)

예수님께서서는 독신으로 사는 것에 대해 말씀하셨습니다.

“누구나 다 이 말을 받아들이지는 못한다. 다만, 타고난 사람들만이 받아들인다. 모태로부터 그렇게 태어난 고자도 있고, 사람이 고자로 만들어서 된 고자도 있고, 또 하늘 나라 때문에 스스로 고자가 된 사람도 있다. 이 말을 받아들일 수 있는 사람은 받아들여라.”(마태복음 19:11-12)

사랑하는 _____ 형제, 자매님, 당신은 특정기간/평생 독신으로 부름을 받았습니까?

당신은 복음의 영 안에서 그리스도를 따르기로 결심하고, 당신의 삶 전체를 드려 하나님을 사랑하는 신실한 증인으로 살며, 이를 하나님의 나라의 표시로 확신하십니까?

응답: 네, 그렇습니다.

목회자: 당신은 독신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부르심이자 선물이라는 사실을 믿으며 이를 받

아들이겠습니까?

응답: 네. 그렇습니다.

기도

아브라함과 사라를 불러 친히 목자가 되셔서 갈 곳을 알지 못하는 곳으로 인도하신 하나님께서 당신의 순례 길에서 안전하게 인도하여주시기를 빕니다.

이 땅에서 살면서 때로는 외롭게 사셨던 아들 하나님이 당신의 끊임없는 동반자가 되어 주시기를 빕니다.

또한 우리가 약할 때 우리를 도와주시고, 기도하라고 가르쳐 주신 성령 하나님께서 당신을 거룩한 삶으로 인도해주시고 용기를 북돋워주시기를 빕니다.

아멘. 59

인도자: 당신은 그리스도의 양떼 안으로 선택받은 사람입니다. 그리스도와 그의 말씀을

먹음으로써 하나님의 사랑을 키워나가십시오. 자기를 부인하고, 성경을 연구하고, 기도를 드림으로써 주님의 사랑을 강하게 하십시오. 여러분의 생각을 하나님의 생각이 되게 하십시오. 하나님 안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주고 자신의 삶을 숨기십시오.

당신에게 주어진 새 생명을 받아 누리시며, 세상을 향한 사랑을 넘쳐나게 하십시오.

환호 (우선은 후보자가 먼저, 다음은 비슷한 약속을 한 사람들이, 그리고 온 회중이 함께 환호하십시오.)

주님, 주님의 약속을 따라 나를 붙들어 주십시오. 그러면 제가 살 것입니다.

저의 희망이 헛되지 않게 도와주십시오. 아멘.

함께 모인 사람들 중 전체를 대표하여 한 사람이 성경이나 십자가를 들고 서 있는다.

인도자: 그리스도를 위한 헌신의 표시로 이 성경/십자가를 받으십시오. 평화를 빕니다.

약혼식

인도자: _____와 _____가 결혼하기로 한 약속을 여러분 앞에 공표할 수 있게 됨을 기쁘게 생각합니다. 이 두 분은 교회의 _____의 딸 _____의 아들로 우리 교회에 출석하고 있습니다. 이 약혼식이 결혼을 위한 준비단계가 되도록 기도드리겠습니다.

성경말씀 읽기 (요기 5:8-9, 아가 2:10-12, 시편 37:5)

약혼식 기도 (토빗 8장에 나오는 연애의 영웅들인 사라와 토비아스는 그들의 결혼식 날 저녁에 이렇게 기도한다.)

인도자: “오 하나님, 우리 조상들의 하나님, 찬송을 받으소서. 모든 세대를 거쳐 주님의 이름이 영원히 찬송받으소서. 하늘과 당신의 모든 피조물들이 영원토록 당신을 찬송하게 하소서.

회중: 주님은 아담과 하와를 서로를 위한 협력자며 협조자로 만드셨습니다. 이 두 사람에게서 인류가 나왔습니다. 주님께서는 “사람이 혼자 있는 것이 좋지 않으니 그와 짝은 배필을 우리가 만들자”고 말씀하셨습니다.

부부: 우리가 이제 정욕이 아니라 진실한 마음으로 서로를 맞이합니다. 우리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셔서 함께 오래도록 자라나게 해주십시오.

다함께: 아멘.

결혼기념일

관련 성경말씀: 마태복음 5:3-16, 고린도전서 13장, 요한1서 4:7-19

결혼 서약에서, 두 사람은 서로를 사랑하고 신실한 부부로 살겠다고 약속하였습니다. 가난할 때나 부할 때나, 기쁠 때나 슬플 때나, 건강할 때나 병들었을 때나, 한 몸이 되어 하나님과 서로를 섬기겠다고 약속하였습니다.

결혼기념일은 주님께서 지금까지 베풀어주신 자비에 대해, 지금까지 서로를 향해 지킨 충성심에 대해, 잘못했지만 서로에게 베푼 용서에 대해, 흔들리는 환경에서도 서로를 굳건히 붙들어준 소망의 나날들을 기억하며 감사를 드리는 날입니다.

우리는 두 사람의 서로를 향한 변함없는 사랑에 대해 하나님께 함께 감사하기 위해 자녀들과 하나님 앞에 모였습니다.

기도

인생의 시간과 계절을 만드신 하나님, 찬송을 받으소서. 시간을 선물로 허락하신 주님께 그리고 시간 속에서 주님의 자녀들이 이 두 사람이 주님의 은혜 아래 설 수 있게 해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이 두 사람이 살아오면서 지은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침묵)

앞으로 그들의 사랑이 더 깊어지고, 그들이 함께 하는 사랑이 그리스도와 교회가 하나인 것처럼 이들도 하나가 되게 해주십시오.

이들이 함께 늙어가며 성장하게 해주시기를 우리의 구세주이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홀로 남은 자를 위한 기도

관련성경말씀: 시편 71:6-9, 요한복음 14:1-3

기도

영원한 친구가 되신 영원하신 하나님, 주님의 사랑은 죽음보다 더 강합니다.

우리는 사랑하는 _____가 인생의 동반자로 함께 길을 걸어온 배우자

_____를 잃게 됨을 함께 슬퍼합니다.

그러나 여전히 우리는 이 두 사람이 함께 살아온 나날들을 생각하며 주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홀로되어 외로운 시간이 찾아올 때 주님께서 위로해주시고,

그들의 빈 마음에 주님의 성령께서 내주해 주시고

필요한 시간에 주님께서 친구들을 보내주시길 기도드립니다.

하늘과 새 땅을 약속하신 그 약속과 희망 안에 _____를 올려드립니다.

죽음에서 다시 일어나 부활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혼한 사람을 위한 기도

관련 성경말씀: 시편 31:1-5, 마태복음 10:29-31

기도: 이 기도는 함께 있을 동안에, 혹은 따로 있을 때, 혹은 한 사람만을 위해 드릴 수 있다.

자비로운 하나님, 주님은 우리를 지으시고 인생동안 끝까지 사랑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서로 부족하여 사랑하지 못하고 서로를 위로하지 못할 때, 용서와 희망을 위해 주님의 사랑으로 돌아갑시다.

하나님, 슬픔 속에 있는 _____에게 말씀해 주십시오.

쓴 뿌리와 아픔을 거두어 주시고, 평화를 선물해 주십시오. 치유해 주십시오.

사랑하는 _____의 마음을 이제 다가올 하나님 나라에 고정하게 해주십시오.

[그들의 자녀인 _____를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주님께서 손내밀어 그들을 돌보아 주십시오. 그들의 손을 잡아주시고, 그들과 함께 해주시고, 그들을 모든 질병에서 보호해 주십시오.]

선한 목자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은퇴한 이를 위한 기도

관련 성경말씀: 출애굽기 20:8-11, 시편 71:6-9, 시편 103:1-14, 17-18, 마태복음 10“29-31, 시락 44:1-15

기도

영원하신 하나님, 주님께서는 이 세상을 아름답게 지으시고 우리가 일하고 쉴 수 있도록 시간을 정해 놓으셨습니다.

주님께서는 서로를 위해 살도록 우리를 지으시고 모든 [창조적인 일들, 불굴의 의지, 말의 지혜, 연민의 마음 등] 선한 일을 위해 사용하도록 재능을 부여 해주셨습니다.

그리스도 앞으로 나오는 모든 사람들에게, 주님은 교회를 세우기 위한 [변함없이 드리는 기도, 치유의 능력, 복종하는 용기, 증언하는 기쁨 등] 각종 은사와 세상을 위한 좋은 것들을 선물해 주셨습니다.

우리 형제/자매_____에게 주님께서 주신 좋은 것들이 있음을 확신하게 도와주십시오.

우리 형제/자매_____에게 그들이 이루어낸 일들에 대해 만족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앞으로 주님의 나라에 필요한 새 일들을 위해 준비하는 사람이 되게 해주시기를 능력의 주님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중병으로 임종을 앞둔 이를 위한 기도

관련 성경말씀: 이사야 43:16-21, 이사야 46:3-4, 고린도전서 15:49, 시편 31:14-16, 시편 73:23-26

기도

당신이 필요로 하는 모든 축복을 받으십시오.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으며,

더 완벽한 하나님의 뜻에 당신을 맡기며,

평화와 만족이 마음에 가득하기를 빌며,

이러한 축복이 당신을 통해 온 세상에 널리 퍼지기를 축복합니다.

축복의 하나님,

생명을 주시는 하나님,

고통을 감당하시는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

창조의 하나님, 이를 보호하시는 하나님,

해방의 하나님, 구속의 하나님,

치유하시고 거룩하게 하시는 하나님께서

당신과 당신이 사랑하는 모든 사람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60

작별

인도자: 한 지체가 고통을 당하면, 모든 지체가 함께 고통을 당합니다. 한 지체가 영광을

받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기뻐합니다. (고린도전서 12:26)

오늘 _____가 우리 도시를 떠나 다른 도시로 이사를 갑니다.

그동안 그/녀/들이 우리와 함께 믿음과 삶의 어려움들과 행복을 함께 나누어왔습니다.
다.

이제 그/녀/들이 추구하는 모든 것 안에서, _____가 삶의 새로운 장을 잘 맞이하게 도와주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그/녀/들이 선택한 결정을 축복합니다.

이 순간 이들을 보내야 하기에 슬프지만, 우리는 이들이 떠나야 함을 잘 알고 있습니다.
다.

이들이 우리곁으로 왔고, 주님의 선물로 우리 곁에 머물렀고, 또한 이들도 우리를 받아주었습니다.

우리 중에서 발견한 좋은 것이 무엇이든 잘 간직하였다가 다른 사람들에게 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주님 이들이 떠날 때, 당신께서 이들과 함께 하시며,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하신

일처럼 이들에게도 복음의 좋은 소식을 전하며 살게 해주십시오.
앞으로 이들이 이 믿음의 공동체에서 나누었던 그 신앙을 따라 살아갈 수 있는 좋은
공동체를 발견하게 해주시고,
이곳에 남아있는 이 공동체를 기억하고 멀리서나마 사랑과 기도로 서로 후원하게 도
와주십시오.

기도

아주 오래전부터 주님은 우리의 여정이 되셨고 우리의 목적지가 되셨습니
다. 우리가 주님과 함께 했기에 우리는 길을 잃은 적이 없습니다. 주님 오늘
우리곁을 떠나는 이 _____ 형제/자매를 축복해 주십시오. _____들이 주님
의 부르심에 새로운 모습으로 반응하게 영감을 허락해 주십시오.
불확실한 상황에 있는 그/녀/들을 보호해 주십시오.
그/녀/들이 주님의 자녀라는 사실을 항상 잊지 않게 도와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축복

주님께서 당신을 모든 재난에서 지켜 주시며, 당신의 생명을 지켜 주실 것입
니다. 주님께서, 당신이 나갈 때나 들어올 때나, 이제부터 영원까지 지켜
주실 것입니다. 아멘. (시편 121:7-8)

모임장소에 대한 축복

회중은 모임장소의 출입구에 모여 선다. 날씨가 좋지 않은 경우에는 전체 회
중이 모이는 대신 회중의 대표자들이 출입구에 모여 실행해도 좋다)

인도자: 문들아, 너희 머리를 들어라. 영원한 문들아, 활짝 열려라.

회중: 영광의 왕께서 들어가신다.

인도자: 영광의 왕이 뉘시냐?

회중: 힘이 세고 용맹하신 주님이시다. 전쟁의 용사이신 주님이시다.

다함께: 문들어, 너희 머리를 들어라. 영원한 문들어, 활짝 열려라. 영광의 왕께서 들어가
신다.

인도자: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를 주님의 형상으로 만들어 주시고 주님의 세계에서 주님
의 명령을 따라 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제 우리가 주님께 예배를 드리기 위해
따로 세운 이 건물, 살아있는 성전이 되도록 세우고 십자가에 달리신 주님을 기억하
고 주님의 이름을 찬송하고 영광돌리기 위해 우리의 손으로 만든 이 작품을 주님께
서 받아주십시오. 우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⁶¹

기도를 마치고 회중이 하나님을 찬송하는 적절한 몸짓을 하며 건물 안으로
들어온다. 이어지는 예배에서 건물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 위한 다음의 예식을
사용한다.

봉헌식을 위한 예식

인도자: 교회의 예전에 참여하는 일과

말씀의 사역과

주의 이름으로 드리는 예배와

서로를 향한 조언을 주고 받고,

회의를 진행하는 일을 위해...

회중: 이 건물을 주님께 드립니다.

인도자: 죄에 대해 경고하는 일과,

구원을 선포하는 일과,

하나님의 뜻을 선포하는 일을 위해...

회중: 이 건물을 주님께 드립니다.

인도자: 슬퍼하는 이들을 위로하고,

시험에 든 사람들을 도와주고,

연약한 사람들을 강하게 하며,

기뻐하는 사람들을 축하하는 일을 위해...

회중: 이 건물을 주님께 드립니다.

인도자: 성경을 연구하는 일과,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일과,

믿음을 전해주는 일을 위해...

회중: 이 건물을 주님께 드립니다.

인도자: 잘못된 일들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는 목소리를 내고,

폭력이 임박했을 때 평화를 선포하는 일과,

성령이 내주하심을 드러내는 찬송의 목소리를 내는 일을 위해...

회중: 이 건물을 주님께 드립니다.

인도자: 주님이 함께하심과 역량을 강화하는 일을 위해...

회중: 이 건물을 주님께 드립니다.

다함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아멘.

결혼, 안수 및 다른 적절한 행사를 위한 축복기도

이 결혼식(안수식)에 있어서

하나님의 성령과 하나님의 백성들이

당신의 그늘이 되기 위해 당신 위에 서며

당신을 지지하기 위해 당신의 아래에 서며

당신을 인도하기 위해 당신 앞에 서며

당신을 격려하기 위해 당신 뒤에 서며

당신을 교육하기 위해 당신 옆에 서며

당신의 역량을 높이기 위해 당신 안에서 일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다양한 행사를 위한 축복기도

(a)

하나님의 성령이 당신의 영혼에 거하시며,

그리스도께서 당신의 마음과 생각에 가득하며,

하나님이 사랑과 은혜와 평화로 당신을 붙들어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b)

하나님의 축복이 당신과 함께 하며,
그리스도의 평화가 당신과 함께 하며,
성령님의 능력이 지금부터 영원까지 당신과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
멘.

(c)

하나님께서 우리를 항상 축복하시며,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항상 빛을 비춰주시며,
성령하나님께서 우리 위에 항상 머물러 계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가정을 위한 축복기도

가정을 축복하는 예식은 연례행사이거나 혹은 새로운 집을 짓고 입주를 하
거나 이사를 하였을 때 행해질 수 있다. 목회자와 손님들은 집 앞 현관에서 집
주인의 환영을 받는다.

인도자: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모임을 시작합니다.

회중: 아멘.

목회자는 문을 향해 십자가 성호를 긋는다.

회중: 이 문이 항상 사람들을 환영하고 환대로 열려있게 하시며, 항상 섬김을 향해 손짓하
는 문이 되게 해주십시오.

집주인 중 한 사람이 촛불을 켜다.

회중: 그리스도의 빛이 항상 이 집을 비추도록 인도해 주십시오.

집주인 중 한 사람에게 성경을 들게 한다.

회중: 하나님의 말씀이 항상 이 집 안에서 읽히며, 선포되게 해주십시오.

인도자: 성령님, 이 집을 축복해주십시오.

회중: 지은이와 재료를 축복하시고

인도자: 벽돌과 기둥을 축복하시고

회중: 대들보와 창틀을 축복하시고

인도자: 기초와 지붕을 축복하시고

회중: 창문과 문양들을 축복하시고

인도자: [젊은이들과 어른들을 축복하시고

회중: 부모들과 자녀들을 축복하시고]

이 부분은 가족 구성원에 알맞게 수정하여 사용한다.

인도자: 친구들과 방문객들을 축복하시고

회중: 이웃과 손님들을 축복해 주십시오.

가족 구성원들: 오 주님, 저희들이 이 집에서 안식과 평화와 건강을 누리도록 축복해 주십시오. 이 집이 이곳을 드나드는 모든 사람에게 안식처가 되게 해주십시오. 이 곳을 방문하는 모든 손님들을 그리스도처럼 대하게 해주십시오.

다함께: 주님께서 당신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켜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장벽을 너머 함께 예수 따르기

- 2022년 메노나이트세계총회를 다녀와서 -

논산평화누림교회의 배용하 형제, 고학준 형제, 그리고 배꽃잎 자매가 7월 5일~10일 인도네시아에서 열린 세계메노나이트협의회(Mennonite World Conference, 이하 'MWC') 총회(Assembly) 및 관련 행사에 참석했습니다. 배용하 형제가 MWC의 준회원인 한국메노나이트교회연합(Mennonite Church South



고학준 형제
평화누림메노나이트교회

Korea, 이하 'MCSK')의 대표(General Council Delegate) 자격으로, 고학준 형제는 배용하 형제의 통역으로, 배꽃잎 자매는 한국의 메노나이트 청년(18~30세) 대표(Youth Delegate)로 각종 회의 및 프로그램에 열흘 동안 참여하고 돌아왔습니다. 개인이 아니라 회원 교단 자격으로는 한국에서 처음 참석한 총회였습니다. 저를 포함해 많은 분들에게는 전반적으로 낯설기 때문에 어떤 행사였고 무얼 했는지를 Q&A 형태로 정리해보았습니다.



Q: MWC총회는 어떤 행사인가요?

A: 6년마다 한번씩 전세계 메노나이트들이 모여 예배하고, 교제하고, 배우는 행사입니다. 5개 대륙(라틴아메리카, 북미, 아시아, 아프리카, 유럽)을 순회하며 개최되며 지난번(16차)



총회는 2015년 미국 펜실베이니아에서, 이번 17차 총회는 코로나로 1년 늦게 인도네시아 자바에서 열렸습니다. 이번 총회의 주제는 “장벽을 너머 함께 예수 따르기”(Following Jesus Together Across Barriers)였고요, 코로나 여파로 인해 처음으로 대면/비대면이 함께 진행되었습니다. 오프라인 참석자가 몇분의 일로 줄었다고 들었는데요, 여전히 1000명이 넘는 인원이 전세계에서 모였습니다.

Q: 메노나이트만 참여하나요?

A: 다양한 아나뱃티스트 전통에 속한 크리스천들이 모두 참여합니다. 약 100여개의 회원 교단이 있고요, 이 중 다수가 메노나이트이거나 형제교회(Brethren in Christ) 정체성을 가지고 있기는 합니다. 하지만 역사적 아나뱃티스트 교회와 관련이 없는 자생적 아나뱃티스트 교회/교단들도 몇몇 회원으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반대로 메노나이트 교회/교단 중에도 MWC의 울타리에 들어와있지 않는 곳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직접적으로 교회/교단 소속이 아니더라도 아나뱃티스트 관련 단체(예. 메노나이트중앙위원회(Mennonite Central Committee, 이하 ‘MCC’))라든가 다양한 배경을 가진 아나뱃티스트들이 자유롭게 참여하는 행사입니다.



Q: 관련 행사가 또 있었다고요?

A: 총회를 앞두고 크게 두 가지 행사가 함께 개최됩니다. 첫번째로 세계 각 메노나이트/아나뱃티스트 교단이 멤버로 있는 이사회(General Council) 회의입니다. 이사회는 MWC의 최고 의사결정기구로서 3년마다 회의로 모여 주요 의사결정을 내립니다. MCSK는 아직 정회원 조건(멤버 수 500명 이상 등)을 다 채우지 못해 준회원 자격으로 7월 1~4일에 열리는 회의에 참여했습니다.



두번째로 전세계 메노나이트/아나뱃티스트 청년들의 모임인 세계 청년 대회(Global Youth Summit)가 열립니다. 이 자리에서는 각국에서 청년들이 부딪히는 사회적/개인적/영적 이슈들을 나누고 메노나이트로서 어떻게 함께 이룬 것들에 대응해나갈지 고민하고 힘과 지혜를 모으게 됩니다. MCSK의 보배인 청년 멤버 3인(김효성, 배꽃잎, 배중열) 중 영어로 의사소통이 가능하고 시간을 낼 수 있었던 배꽃잎 자매님이 참석하셨고요, 자세한 내용은 배꽃잎 자매님의 글을 참고해주세요!

Q: MWC가 행사인지 조직인지, 총회는 뭐고 이사회는 뭔지... 너무 헷갈려요ㅠㅠ

A: 네, 저도 맨날 뭐가 뭔지 누가 누군지 너무 헷갈렸어요. 다행히 이사회 회의 첫날 진행을 맡은 MWC 사무총장 Cesar Garcia가 MWC 조직과 운영에 대해 설명해주었습니다. 모든 MWC 회원 교단(한 나라에 여러 개의 회원 교단이 있는 경우도 많습니)이 참여하는 이사회가 최고 의결 기구이고, 그 아래 사무국, 집행위원회, 회장단이 있습니다. 사무국(General Secretary)은 행정 실무를 보는 곳이고요, 풀타임/파트타임/자원봉사자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회원들의 의견 및 의결이 필요한 건은 사무국에서 집행위원회(Executive Committee)



로 넘어갑니다. 집행위원회는 대륙별로 2명씩, 총 10명의 지역 대표로 구성되는데 여기서 직접적으로 회원 교단들의 의견을 반영해 회장 1명 및 부회장 2명으로 구성된 회장단(President)으로 넘깁니다. 여기서 최종 검토를 마친 후 이사회에 상정합니다. 집행위원회와 회장단은 모두 선출직이자 무보수직입니다.

참고로, 여러가지 의미로 해석되는 Conference라는 이름 때문에 헷갈리기는 하지만 지금의 MWC는 조직(교단)을 지칭하고요, 6년마다 열리는 행사의 정식 명칭은 총회(Assembly)입니다.

Q: 그래서 이사회에서 구체적으로 무얼 하셨나요?

A: 이번 회의에서는 총 13개 안건을 다루었고요, 여러 번 참여한 분들의 말씀에 따르면 이번에는 논란거리가 없었다고 합니다. 지난 회의록 및 예산안 승인 등 행정적 안건들, 네트워크 단체 설립과 같은 사무국 산하 4개 분과(평화-Peace, 신앙과 삶-Faith and Life, 집사-Deacons, 선교-Mission) 및 지역별 활동 및 이슈와 관련된 안건들, 그리고 MWC 이름 변경과 같이 교단 전체의 방향성이나 운영과 관련된 안건들이 올라왔습니다.

제 기준에서 가장 흥미로웠던 안건은 아무래도 병역거부 성명서 채택이었습니다. 2014년에 처음 한국에서 요청을 했다고 하고요, 평화분과(Peace Committee)에서 처음 논의를 시작한 후 각 지역위원(참고로 MCKS는 동북아시아에 속해 있고, 동북아시아의 현 대표는 Jeremiah Choi라는 홍콩 목사님이십니다.)들을 통해 세계 각국의 병역거부 이슈를 확인한 다음 초안을 작성하기까지

약 2년, 그리고 그 초안이 집행위원회와 회장단을 여러 번 거치고 현황 및 상황이 업데이트되며 최종안으로 이사회에 제기되기까지 총 8년의 시간(ㅎㄷㄷ)이 걸렸습니다. 이상민 형제 이야기를 포함해 한국 상황에 대한 이야기가 많은 만큼 예비군 병역 거부를 포함해 가장 최근 상황과 논의되고 있는 내용들을 배용하 형제가 직접 발표하기도 했습니다.

원래는 회의를 1) 내용확인(Information) 2) 토론(Discussion) 3)의결 (Decision)의 3단계로 진행하는데, 2번 단계 중 지역별(아시아) 토론까지만 진행하고 코로나 확진자 대거 발생으로 나머지 회의가 취소되었습니다. 하루를 기다려도 상황이 개선되지 않아 1)새로 뽑힌 선출직들을 임명하고, 2)해당 집행위원들이 포함된 집행위원회에 3개월의 말미를 주어서 각 안전에 대한 각 멤버 교단들의 의견을 확인하고, 3)집행위원회가 이사회를 대리하여 결정을 내리는 안을 의결하고 이사회 회의를 마무리하였습니다.

이사회 전체회의가 끝난 후 마지막날 진행되는 선택형 워크숍은 소규모로 열렸기 때문에 코로나 상황에도 불구하고 진행되었고, 배용하 형제와 저는 “의견이 첨예하게 나뉘는 안전들을 다루는 회의 진행하기”라는 제목의 워크숍을 들었습니다.

Q: 설명을 들어보니 영 지루할 것 같은데요?

A: 아, 뭐 사실 총회보다 이사회는 조금 덜 재미있는 것이 맞고요, 하지만 식사, 간식, 저녁 시간 등을 통해 전세계에서 모인 다양한 자매형제들과 다양한



이야기를 나누며 웃고 떠드는 재미는 있었습니다. 하지만 역시 핵심은 총회…

Q: (의심의 눈초리) 총회는 재미있나요?

A: 총회(Assembly)라는 단어 때문에 또 회의만 계속할 것 같지만 공식 회의는 이사회에서만 합니다. 총회 기간은 오전 예배, 오후 선택 활동, 저녁 예배로 구성되는데요, 이렇게만 써놓으면 또 엄청 재미없어 보이네요, … 하지만 생각보다 엄청 다이내믹합니다. 일단 예배가 다양한 대륙, 주제, 참여자들로 순환되기 때문에 지루할 틈이 없습니다. 제 한줄 요약은: 라틴아메리카의 열정, 아프리카의 흥, 북미의 말빨, 유럽의 세련됨, 아시아의 진정성입니다. 각자의 이야기와 상황들이 너무나 다양하기 때문에 함께 웃고 우느라 바쁘고요, 찬양을 많이 하는데 전세계에서 모인 찬양팀원들이 자기 나라의 찬양을 직접 인도하기 때문에 음악 좋아하는 저는 아주 신이 났더랬습니다.

오후 시간에는 세가지 선택지가 있습니다. 1) 워크샵: 총회 기간 동안 1시간 반짜리 워크샵 3~40여개가 준비되어있고, 매일 오후 최대 2개까지 들을 수 있습니다. 무슬림과 공존하기, 어린이 평화 교육, 시스터케어 등 그 주제 또한 무궁무진합니다. 저는 17세기 아나뱃티스트들의 갱신 운동에 대한 워크샵이 가장 인상적이었습니다. 2) 액티비티: 전통 의상 만들기과 같은 공예 모임, 각종 스포츠 모임, 봉사활동, 주변 관광 등 다양한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3) 세계교회마을(Global Church Village): 각 국가의 문화를 체험할 수 있는 전시/공연입니다. 대륙별로 부스가 설치되어있고, ‘이야기 텐트’라고 불리는 무대에서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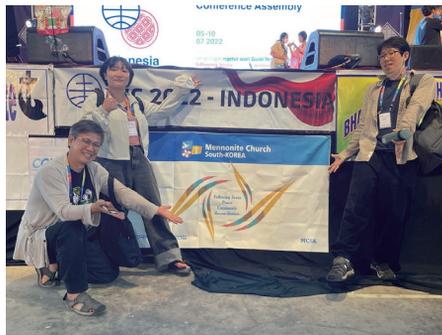
다양한 공연 및 강연이 진행되었습니다. 아시아 부스에서 청년들이 제기를 차며 놀고, 무대에서는 ‘무궁화 꽃이 피었습니다’를 함께 하기도 했습니다.



Q: 마지막으로 소회를 알려주세요.

A: 기대 이상으로 즐거웠습니다. 같은 아나뱃티스트/메노나이트 자매 형제라 그랬을까요? 처음 보는 사람들이 99%였지만 상당히 안전한 공간이라는 느낌이 들었고, 덕분에 마음을 터놓고 신나게 떠들고 어울렸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와중에 정말 많은 걸 느끼고 배웠습니다. 내 고민이 더 이상 고민이 아니게 되어버리고, 풀리지 않던 문제를 전혀 다른 관점에서 보게 되는 경험들이 있었습니다. 무슨 시나리오라도 짠 것처럼 그때 그때 필요한 사람들을 딱딱 만나게 되면 하나님의 섭리를 맛보기도 했고요. 그 감동과 즐거움을 최대한 많이 전하려 욕심내다 말이 길어진 점 사과드립니다.

2025년은 아나뱃티스트 운동 500주년이고, 2028년 총회는 이를 기념하는 총회인 동시에 전세계 메노나이트 교단 중에 가장 규모가 큰 에티오피아에서 열리는데요, 그때는 한국에서 더 많은 분들이 가서서 더 큰 재미와 감동을 누리셨으면 좋겠습니다! 에티오피아에서 만나요!



세계 청년 대회(Global Youth Summit) 소개

전세계 아나뱃티스트-메노나이트 청년들의 잔치인 세계청년대회가 7월 1-4일까지 인도네시아에서 열렸습니다. 저는 한국 청년 대표로 참석했습니다. 이번 대회의 주제는 <성령 안에서 배우고, 봉사하고 예배하는 삶>이었습니다.



배 꽃 앞 자매
평화누리메노나이트교회

동시대의 청년들이 고민하는 것을 나누고, 신앙 안에서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지를 나누고 토론하는 자리였습니다. 또한 어떻게 우리가 신앙 안에서 연대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도 깊은 대화를 나눴습니다. 정말 다양한 친구들도 많이 사귀었습니다.

간단한 소개와 사진으로 그때의 분위기를 전합니다.

GYS는 어떤 행사인가요?

전세계 아나뱃티스트-메노나이트 청년들이 함께 모여 다양한 지역 공동체를 대표하고 하나의 가족, 즉 하나의 몸, 교회로 연결되는 기회입니다.



GYS에서는 무엇을 했나요?

5일간 오전 예배, 토론, 문화 프로그램, 저녁 예배 순서로 계속 진행했어요. 오전과 저녁에 있는 예배는 각 대륙별로 참가자들이 모여 함께 준비했습니다. 토론 시간이 가장 길고, 흥미로웠습니다.

초반에는 대륙별로 모여 각 나라의 청년 문제를 나누고, 공통점을 엮어냈습니다. 중반에는 대륙별로 한 명씩 모여 대륙의 이야기를 나누고, 세계 청년 문제의 공통점을 찾았습니다.

후반에는 각 나라, 대륙, 전세계 청년문제를 우리가 어떻게 연대하고 실천할 수 있을지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세상의 가치와 평가에 흔들리지 않는 삶

1. 아나뱃티스트와 어떻게 인연을 맺게 되셨나요? 아나뱃티스트 신앙을 추구하기로 결심한 구체적인 계기가 있는지요?

2013년 감리교단의 교회를 나온 계기로 예수촌교회에서 분립한 ‘메노나이트예수마음교회’(이하 예수마음교회)에 입교하면서부터라고 생각되네요. 예수마음교회가 처음 시작했을 때는 교회 모든 멤버들이 책을 정해 함께 공부하는 시간이 많았는데 이 때 『우리가 함께 믿는 것』 등의 아나뱃티스트 관련 서적을 접할 수 있었고 이를 시작으로 본격적인 아나뱃티즘에 대해 이해하게 되었고, 특히 『아나뱃티스트 성서해석학』(스튜어트 머레이, 문선주 역, 대장간 출판사, 2013)이라는 책을 공부한 후 제 신앙의 방향을 아나뱃티스트로 정하게 되었습니다..



이 선 우형제
예수마음메노나이트교회

2. 아나뱃티스트 신앙을 추구하면서 좋은 점과 어려운 점은 무엇인가요?

* **좋은 점:** 가장 좋은 점이라면 아나뱃티즘의 가치를 추구하는 사람들과 함께 신앙 생활을 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비록 아직은 매우 소수이고 또 앞으로라도 그 수가 크게 늘어날거라 생각하지는 않지만 적은 수이다 보니 서로에 대해 더 잘 알게 되고 친밀해져서 더 강한 연대감을 느끼는 장점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특히나 제가 섬기는 예수마음교회는 평신도 회중 중심으로 수평적으로 교회의 모든 일을 결정하고 운영하기에, 일부 한국 교회가 보여주는 소수 기득권자 중심의 운영이 만드는 여러 구조적 문제들을 마주하지 않아 더 즐겁게 교회 생활을 하는 점도 좋은 점이라고 생각합니다. 글썄요 앞으로 다른 나라의 메노나이트 교회들처럼 전임 사역자가 있는 형태도 우리나라에 나타날지는 모르겠지만 교회의 거버넌스는 다른 교단과 달리 회중 중심의 수평성을 지향할 것이라고 믿습니다.

* **어려운 점** : 기독교 신자인 지인들에게 저의 신앙관과 현재 섬기는 예수마음교회를 정확하게 설명하기가 어렵다는 점과, 일부 잘 모르는 기독교인들로 부터의 ‘혹 이단 아냐?’라는 오해를 받기도 하는 점이라고 생각합니다. ;)

이런 정도로 국내 많은 기독교인들에게 아나뱃티스트라는 용어가 알려져 있지 않고 앞으로도 알려질 가능성은 높지 않을거라 생각하기에 이런 오해는 계속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또 이런 오해에 신경을 쓸 필요도 없다고 생각합니다. 만 소망하기론 지역에서 칭찬 받는 아나뱃티즘을 지향하는 교회가 나타나고 그 교회를 통해 이런 오해가 없다면 좋겠습니다.

3. 현재 하시는 일 (농사, 카페, 직장일 등등) 이 아나뱃티스트 신앙과 연관성이 있나요? 있다면, 아나뱃티스트 신앙의 어떤 부분과 어떻게 연관성이 있다고 생각하시나요?

현재 저는 춘천에 소재한 한림대학교의 컴퓨터공학 전공을 교육하는 선생입니다. 교수라는 직업을 어떻게 보는가에 따라 다양한 평가 기준이 있겠지만, 저는 선생 특히 전문적 직업인을 만들기 위한 전문 교육 기관인 대학의 선생이란 업은 한 사람의 인생에 큰 영향을 줄 수 있는 자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올바른 철학과 가치관을 가지고 학생들을 대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저 자신을 평가하면 턱없이 많이 부족하다고 생각합니다. 학생들의 입장에서 생각하는 것이 여전히 어렵고 때론 하기 싫어서 안 하는 경우도 많으니까요. 다만 학생들에게 모범을 보여야 한다는 당위성 때문에, 예수님을 따라가는 제자여

야 하는 저 자신이 스승인 예수님이 제자들의 부족함 때문에 느끼셨을 어려움을 간접적이거나 공감할 수 있는 장점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령의 8가지 열매(성품)를 균형 있게 가진 선생님이 되고 싶다는 소망은 저의 주요한 기도 제목이기도 합니다.

또 아나뱃티스트에게 요구되는 공동체를 위한 헌신의 가치는 제 성격 탓도 있겠지만 다른 사람들이 좋아하지 않는 일들도 적극적 자세로 수행하는 큰 동기가 된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맡은 일들을 모두 잘하지는 (좋은 결과 만들) 못하는 경우도 제법 많아 한편으론 후회도 하곤 합니다만.

4. 한국의 개인적, 사회적, 정치적, 종교적 상황을 고려할 때, 아나뱃티스트 신앙 혹은 공동체가 한국 교회, 혹은 지역 사회, 한국 사회에 기여할 수 있는 점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나요? (주변에서 일어나는 사소한 일부 지역공동체, 사회 등등)

아나뱃티스트로서의 정체성을 가진 내가 이 세상에 어떤 기여를 할 수 있나? 글썽 참 어려운 질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저 한 사람을 생각하면, 하나님과의 1:1의 인격적 관계를 만들어 가는 것이 곧 믿음이라는 개념에 더하여 예수님의 제자로서의 정체성을 가진 제가 세상 가치에 따른 평가에 그다지 흔들리지 않는 삶을 살아낸다면 그리고 그것을 주변 사람들에게 보여준다면 그것이 첫 번째 기여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공동체의 중요함을 아는 저는 비록 잘하지는 못하지만 제가 속한 공동체가 족, 교회, 직장, 지역 사회-가 서로의 올바른 관계를 만들고 성장하는데 도움이 되도록 제가 가진 달란트를 사용하기 원하고 열심을 다 하는 것이 두 번째 기여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5. “한국” 아나뱃티스트의 독특성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나요? 세계 아나뱃티스트 공동체에 한국 아나뱃티스트가 기여할 수 있는 부분은 어떤 부분이라고 생각하시나요?

한국 아나뱃티스트의 특징에 대해 제가 무어라 논할 자격도 아는 것도 없지만, 그 간의 여러 형제 자매들을 만나면서 느낀 점은, 많은 한국의 아나뱃티스트들이 실제의 학문 수학(학교 졸업 등)의 분량과 상관없이 지식 중심 혹은 지식 추구형 사람들인 것 같습니다. 글썄 이런 느낌의 근거를 대라면 매우 빈약한데 제가 아는 많은 아나뱃티스트들이 일단 공부하기를 좋아하는 것 같거든요. ^^ 글썄 아마 대장간을 비롯해 KAC도 아나뱃티즘 관련 책의 출판 사업 등 학문적/학술적 자료를 제공하는 등에 기여했기 때문에 더욱 그런 느낌을 받았는지 모르겠습니다.

현재 유일한 분단국가이고 70여 년 전의 전쟁이 엄밀하게는 아직도 진행 중인 우리나라의 상황을 고려한다면, 아마 다른 어떤 나라의 아나뱃티스트들 보다는 평화라는 것에 대한 민감도가 높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이를 동기로 또 연료로 잘 사용한다면 비록 적은 수의 회원들이지만 세계 공동체에 평화 관련한 역동적이고 중대한 기여를 할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요?

6. 앞으로 한국 아나뱃티스트 공동체의 방향성에 대해 꿈꾸는 바가 있다면 나눠주세요.

개인적으로는 21세기 대한민국이라는 시공간에서 우리들이 마주하는 너무나 다양한 삶의 모양처럼, 아나뱃티즘의 DNA(제자도/공동체/평화 가치 중시)를 공통으로 가지되 여러 가지 형태와 특징을 가지는 공동체가 많이 만들어지고 또 지속가능한 방식으로 운영되길 소망합니다.

신앙의 본질에 대한 고민에서 찾은 지혜

1. 아나뱃티스트와 어떻게 인연을 맺게 되셨나요? 아나뱃티스트 신앙을 추구하기로 결심한 구체적인 계기가 있는지요?

L.A. 풀러 신학교 재학 중에 염혜정 자매의 소개로 이음교회에 출석하면서 아나뱃티스트를 알게 되었습니다. 당시 이음교회의 허현 목사님으로부터 아나뱃티스트 역사와 신학에 대해 많은 이야기를 들으면서, 점차 진지하게 메노나이트 신학에 관심을 갖게 되었습니다. 이후, 이음교회와 ReconciliAsian, 마운틴뷰 메노나이트 교회에서 사역을 하면서, Pacific Southwest Mennonite Conference 에서 목사 라이선스를 받았고, 공식적으로 메노나이트 사역자가 되었습니다.

아내인 염혜정 자매가 토론토에서 학업을 하면서, 현재는 Danforth Mennonite Church에 출석하고 있고, 캐나다 동부지역 (Mennonite Church Eastern Canada)의 목사로 지역 사회와 교회에서 평화의 문화를 만들어가는 Sowing for Peace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양중규 형제
캐나다

Danforth Mennonite Church

2. 아나뱃티스트 신앙을 추구하면서 좋은 점과 어려운 점은 무엇인가요?

아나뱃티스트 전통은 “신앙”의 본질이 무엇인가에 대해 진지한 고민을 던지며, 오늘날 필요한 급진적 신앙을 찾는 지혜를 준다고 생각합니다. 16세기 아나

뱃티스트는 성서의 가르침을 따라 신앙의 본질을 찾기 위해 기득권과 싸우며 재세례라는 급진적 신앙 고백을 하였습니다. 다수의 복음을 답습하는 것이 아니라, 성서를 주체적으로 해석함으로써 그 시대 상황에 필요한 신앙을 추구했다고 생각합니다.

마찬가지로, 오늘날 우리도 신자유주의, 제 4차 산업혁명, 기후 위기 등 급변하는 세상 속에서 신앙을 갖고 살아가는데, 아나뱃티스트 전통의 주체적 신앙이 힘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누군가가 말했던 것을 답습하는 것을 넘어 주체적으로 삶과 신앙에 대해 고민하며 살아가야 한다는 것은 좋은 점이기도 하지만, 그렇기에 평탄한 길은 아니라는 점에서 어려운 면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3. 현재 하시는 일 (농사, 카페, 직장일 등등) 이 아나뱃티스트 신앙과 연관성이 있나요? 있다면, 아나뱃티스트 신앙의 어떤 부분과 어떻게 연관성이 있다고 생각하시나요?

저는 현재 비즈니스 항공기 테크니션으로 일하면서,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이중직을 하는 직장인과 사역자로서의 고민을 많이 해 왔습니다. 예전에는 일과 사역을 이분법으로 나눠서 생각한 적이 있었지만, 지금은 어떤 일을 하더라도 그 일이 많은 사람들을 만나고 소통하는 장이 되면서 사역의 통로가 되었습니다.

영어를 사용하는 온타리오 주와 불어를 사용하는 퀘벡주에서 일을 하면서 종교, 나이, 문화 등 다양한 배경의 사람들을 많이 만나고 소통하면서 이 시대에 사람들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좀 더 깊이 고민하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고민과 아나뱃티스트의 평화주의 신앙과 어떻게 연결시킬 수 있을지 생각하는 중에 현재 하고 있는 Sowing for Peace 사역을 시작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신앙이라는 것은 각 개인의 보이지 않는 삶의 방향과 정체성을 드러내기에 다양한 삶의 형태로 나타난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면, 직장 내에서의 동료들과 함께 일하고 관계 맺는 것도 구체적인 신앙적 삶의 실천이라고 생각합니다. 전통을 따라 “아나뱃티스트” 신앙이라고 구별 짓는 것도 좋지만, 오늘 지

금 여기를 살아가는 역동적이며 살아있는 신앙을 통해 전통을 계속해서 갱신해 가는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4. 한국의 개인적, 사회적, 정치적, 종교적 상황을 고려할 때, 아나뱃티스트 신앙 혹은 공동체가 한국 교회, 혹은 지역 사회, 한국 사회에 기여할 수 있는 점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나요? (주변에서 일어나는 사소한 일부터 지역공동체, 사회 등등)

토론토에서 살고 있기 때문에 토론토 한인 이민사회를 생각해 서 말하자면, 이민자들이 겪고 있는 어려움이 나누고, 격려와 위로를 받을 수 있는 안전한 사회적 공간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시작한 Sowing for Peace 사역은 이민자들에게 삶을 나눌 수 있는 안전한 공간을 만들어가는데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그 공간에는 성별, 나이, 성, 종교 등 오랫동안 형성되어 오 편견이나 차별없이 각 개인이 서로 존중하고, 자신의 삶을 꽃 피울 수 있도록 지지하고 지원해 주는 공간을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5. “한국” 아나뱃티스트의 독특성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나요? 세계 아나뱃티스트 공동체에 한국 아나뱃티스트가 기여할 수 있는 부분은 어떤 부분이라고 생각하시나요?

한국 아나뱃티스트의 독특성은 대형 교회나 프로그램 중심으로 짜여진 신앙 생활이라는 틀을 넘어, 사회에 필요한 대안적 신앙의 모습을 모색해가고 있다는 점에서 독특성이 있다고 봅니다. 극도로 자본주의화 된 가치와 다름을 인정하지 않는 차별 등으로 일상화된 사회적 폭력이 만연한 사회에서, 한국 아나뱃티스트 공동체를 통해 한 사람이 존중 받고, 환대 받을 수 있는 안전한 공간과 관계를 일구어 가는 일이 한국 교회와 사회에 기여하는 빛과 소금의 역할이지 않을까라는 생각합니다.

6. 앞으로 한국 아나뱃티스트 공동체의 방향성에 대해 꿈꾸는 바가 있다면 나눠주세요.

기독교 신앙과 교회가 사람들과 사회의 신뢰를 잃어가고 있는 현실 속에서 한국 아나뱃티스트 공동체가 대안적 모습을 보여주는 공동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앞으로 많은 이들이 아나뱃티스트에 대해서 알고 함께 참여하는 신앙 공동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토론토 SOWING FOR PEACE

안녕하세요. 토론토 Sowing for Peace에서 오랜만에 소식 전합니다.

Sowing for Peace는 양중규 형제, 염혜정 자매가 토론토에서 시작한 다문화 사회에서 정의와 평화를 일구는 평화 사역입니다. 2019년 토론토에서 한인 이민자들을 위한 갈등 전환 워크샵으로 시작하여, 캐나다 사회에 필요한 인종 정의, 갈등 전환, 서클 프로세스 등의 워크샵과 북클럽을 열었습니다. 현재 캐나다 동부지역에 속한 댄포스 메노나이트 교회(Danforth Mennonite Church)에서 Sowing for Peace사역을 지원하고 있고, 윌다 슈츠(Wilda Schutz) 자매와 머레이 럼리(Murry Lumley) 형제가 Sowing for Peace위원회 멤버로 함께 참여하고 있습니다.

[홈페이지 오픈 \(www.sowingforpeace.org\)](http://www.sowingforpeace.org)

조만간 Sowing for Peace 가 홈페이지를 오픈하기 위해 준비 중에 있습니다. 주변 분들과 댄포스 메노나이트 교회에서 적극적으로 지원해 주신 덕분입니다.



다. Sowing for Peace 홈페이지를 통해 더 많은 분들에게 다문화 사회에 필요한 정의와 평화에 관한 워크숍 및 좋은 정보와 소식을 전할 수 있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북클럽 ‘문학산책’ ‘아직도 가야할 길’

중규 형제는 2020년부터 토론토의 한인들과 ‘문학 산책’이라는 북클럽 모임을 이끌어 왔습니다. 한인 이민 사회에 존중 안에서 서로의 생각을 자유롭게 나눌 수 있는 안전한 모임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어 시작한 모임은 현재까지 시즌 6(각 시즌 12세션의 격주 모임)까지 이어졌습니다. 그 외에 스캇 펙의 “아직도 가야할 길”을 함께 읽으며 삶을 성찰하는 단기 북클럽도 몇 차례 열었습니다. 참여자들에게 좋은 피드백을 들을 때, 지역 공동체에서 평화사역의 필요성과 감사함을 느낍니다.

서클 프로세스

지난 4월에는 최근 일어난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에 대해 덴포스 메노나이트 교인들과 생각을 나누고 실천을 고민하는 서클 모임을 열었습니다. 서클을 인도한 중규 형제는 내무반 총기사건으로 숨진 삼촌과 그로 인한 가족의 슬픔, 연평해전 당시 공군에서 유서를 쓰고 포탄을 전투기에 실었던 경험을 나누며 이야기 문을 열었습니다. 냉전시대의 유산인 나토를 둘러싼 동서방의 갈등, 한 순간에 가족과 삶의 터전을 잃어버린 우크라이나 시민들, 국방력에 힘을 쏟기 시작한 유럽, 무기 산업 특수, 팬데믹과 맞물린 엄청난 물가 상승, 중,러-미, 서유럽의 긴장관계. 패권을 둘러싼 복잡한 이익관계와 독재정권이 맞물려 일어난 전쟁에서 평화란 어떤 의미인지 생각해 보았습니다. 적극적으로 비폭력 반전 운동을 해온 멤버도 있고, 우크라이나의 방어전에 대한 지지자도 있었습니다. 희생자를 추모하고, 우리가 평화를 위해 할 수 있는 일은 무엇일까에 대해서도 함께 고민했습니다. 다양한 입장과 고민 속에서 고통받는 이들과 우리가 있는 자리에서 어떻게 연대할 수 있을까에 대해 함께 고민하고 실천하는 시작

점이 되었습니다. 몇몇 멤버는 이런 모임을 정기적으로 갖기 원했고, 이메일로 더 깊은 성찰을 나눠준 멤버들도 있었습니다.

캐나다 동부 지역 연례 모임

2022년 4월 29-30일에 캐나다 동부 지역 연례 모임 MCEC(Mennonite Church Eastern Canada) Annual Gathering이 있었습니다. 동부는 온타리오, 퀘벡, 뉴브런즈윅을 아우르는 지역입니다. The Canadian Mennonite 잡지에 Sowing for Peace 사역이 소개되었는데, 전시 부스에 저희가 교회에서 워크샵을 인도했을 때의 사진이 펼쳐져 있어 반가웠습니다. 동부지역 다양한 곳에서 모인 분들과 메노나이트 교회의 미래에 대해 이야기 나누며 교제할 수 있었던 의미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북미 메노나이트 교단 섬김

메노미디어는 2025년 아나뱃티즘 500 주년을 기념하여 Anabaptism at 500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는데, 그 일환으로 “아나뱃티스트 성경” 제작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오는 8월에 시카고에서 열리는 아나뱃티스트 성경 워킹 컨퍼런스(A Working Conference on the Anabaptist Bible)에 초대받아 참석할 예정입니다.

염혜정 자매는 올해부터 캐나다 동부 지역 메노나이트 교회(MCEC)의 집행

위원회(Executive Council)의 멤버로 섬기고 있습니다. 집행위원회는 Executive Minister와 함께 MCEC의 운영에 관한 주요한 결정들을 하는 부서입니다. 교회, 신학, 성서에 관한 글을 쓰는 일도 혜정 자매가 하고 있는 사역의 한 부분입니다. 예를 들면, 작년부터 메노미디어의 리더 매거진(Leader Magazine)에 칼럼리스트로 글을 연재하고 있고, 2022년 여름 알버타 주 에드몬튼에서 열리는 캐나다 메노나이트 전국 모임(2022 Mennonite Church Canada Nationwide Gathering)의 성경공부 교재 만드는 일에 저자로 참여하였습니다.

양중규 형제

양중규 형제는 이중직으로 Sowing for Peace 사역을 하면서, 현재 비즈니스 항공기 테크니션으로도 일하고 있습니다. 코로나로 인한 항공 산업의 침체로 어려움도 있었지만, 감사하게도 일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직장과 사역을 병행하는 것이 때로 쉽지는 않지만, 일터에서 다양한 사람들과 교류하며 얻는 지혜도 큼니다. 교회 밖 캐나다 사회의 다양한 면을 경험하며 넓어질 수 있어, 지금은 이중직을 감사하게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엽혜정 자매

사역 외에, 현재 토론토 대학교 박사 과정에서 탈식민주의 관점으로 다문화 사회에서의 메노나이트 평화 신학에 관한 논문을 쓰면서, 같은 학교에서 “사회 정의와 신학”에 관한 대학원 수업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작년 가을에는 네덜란드 암스테르담 자유 대학(Vrije Universiteit Amsterdam)으로 3개월간 교환 연구원으로 갈 기회가 있었는데, 메노나이트 신앙의 역사가 시작된 장소에 방문할 수 있었던 것은 메노나이트로서 특별한 경험이었습니다. 또한, 감사하게도 작년에 루이빌 재단(Louisville Institute)에서 논문 펠로우십과 토론토 신학 센터(Toronto Mennonite Theological Centre)에서 제임스 라이머 상(James A. Reimer Award)을 받으면서, 소수의 목소리를 담은 연구의 중요성을 되새길 수 있었습니다.

논산평화누림메노나이트교회

논산에서 평화의 인사를 가을의 선선한 바람을 품은 한여름의 더위를 보내며 형제자매들에게 전합니다.

1월

9일에 주님은나의목자교회 정성한 형제, 김수진 자매와 떼제 신한열 수사가 방문했습니다. 공동체에 대해서 많은배움이 있었고, 신한열수사의 삶의 여정에 대해서 듣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22-23은 배용하 고향준 형제가 제주도 하늘가족교회의 초청으로 제주도를 다녀왔습니다. 메노나이트 제주신앙고백문을 제주의 형제자매들과 함께 나누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2월

13일에는 5번째 MCSK연합예배 및 총회가 비대면으로 있었습니다.

27일에는 찾아가는 예배로 복있는교회(김영범형제, 이명주자매)를 방문하여 함께 예배드렸습니다.

4월

10일에 부여에 있는 주님은 나의 목자교회(정성한 형제/김수진 자매)를 방문하여 복사꽃 연합예배를 드렸습니다. 돌아오는 길에는 강경포구에서 벚꽃놀이



이도 하며 온교회 가족이 봄을 온 몸으로 맞이했습니다.

11일은 배용하 고학준 형제가 AMBS세미나에 참석하기 위해 서울을 다녀왔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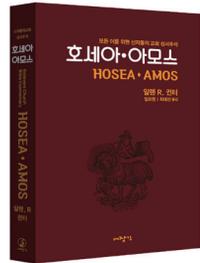
17일에는 장애인 주일과 부활 주일을 맞아 동네 주민 중 장애가 있으신 분 만나 뵙고 교체한 후 선물 꾸러미 전달하였습니다. 그리고 LA에서 허현 형제가 방문하여 교체하였습니다.

25일은 고충화 자매 2주기 기일이라 납골당 방문하여 추도하였습니다. 26에는 배용하 형제가 KAC 리본독서모임에서 자끄 엘릴의 『폭력에 맞서』를 가지고 강사로 참여했습니다.



5월

창세기가 끝나고 8일부터 『호세아 아모스』 말씀나눔을 시작했습니다. 5명의 형제자매가 분량을 나누어서 9월까지 할 예정인데 시대에 맞는 하나님의 계시가 전달되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마을의 강은예 자매님, 서승순 자매님 두 분께서 예배에 나오기 시작하셨습니다. 두 분 다 논산에 상시 계시지는 않지만, 계실 때는 꾸준히 참석하고 계시서 기쁩니다.



28일에는 꽃잎자매가 운영하는 제로웨이스트샵 <냉이> 1주년 맞이 플리마켓 [당장]을 논산시내 공원에서 진행했습니다. 교회에서는 2개의 부스에 참여하였고 인기리에 완판했습니다.



23일에 배용하 형제가 MCC이사로서 서울에서 정기이사회에 참여하였고, 24일에는 MCC 아시아 대표단과 김성한형제, 박지원 자매님이 저희 교회를 방문했습니다. 주변 관광도 하고 짧은 시간이었지만, 의미있는 교제를 나눴습니다



6월

4~6일에 유가일 자매가 교회를 방문하였습니다. 그간의 삶을 나누며 쉬고 여행했습니다. 마침 그 기간에 교회의 나들이 계획이 있어서 5일에 군산 나들이를 함께 다녀왔습니다. 비가 내리는 중이었지만, 바닷바람도 맞고 맛있는 것도 먹고 마시며 즐겁게 다녀왔습니다.



7일에는 MCSK 주관으로 양심적병역거부에 대하여 김형수 형제와의 비대면 대화모임을 진행했고 전교인이 참여했습니다. 19일에는 박준형 형제 부부 방문하였고 고영목 형제도 방문하였습니다.

6/30-7/12일 기간에 배용하 고학준 형제, 배꽃잎자매(청년대표)가 인도네시아에서 열린 MWC(메노나이트세계총회) 컨퍼런스에 참석했습니다. 한국 메



노나이트 교회를 대표해서 참석하였으며, 한국의 메노나이트교회를 알리고 교제하는 뜻깊은 시간이었습니다. 형제들이 자리를 비운 2주 동안에 안치연 자매가 코로나 확진 되어서 외부의 방문도 외출도 없ed 자매들만 매우 평화로운(?) 시간을 보냈다는 말이 있습니다.



7월

24일에 오하섭 형제가 예배에 참석했습니다. 가까운 곳으로 직장을 옮기게 되어서 정기적으로 교제하고 함께 예배하게 되었습니다.

29일에는 간만에 문화 생활을 하러 서울을 다녀왔습니다. 인디 가수이자 고통받는 이들과 함께하는 황푸하 목사의 출판기념 북토크 및 콘서트가 서울 홍대 근처에서 있었습니다. 31일에는 공주의 김현숙 남동근 형제님 가정이 예배에 참석했습니다.

〈정리 : 박민서 자매〉



위 : 북돋 도서관 프로그램으로 지역아동센터 아이들과 인형극(좌), 마을 어르신들과 애착인형 만들기(우).
아래 : 회복적서클 진행자 심화과정(좌), 대장간 봄 리트릿(우).

삼송동안교회 이야기

3월 소식

늘어나는 코로나 확진자로 인해 삼송동안교회에서는 여전히 온/오프라인으로 예배(모임)를 드리고 있습니다. 순모임은 매주 진행되고, (매주 한 순씩 대면으로 진행) 2월에 개강한 성경공부는 일대일/소그룹 모임 별로 은혜를 더해가고 있습니다.

청소년카페 <와락>은 방문객이 줄어든 상황입니다. 겨울 같은 코로나 상황이 하루빨리, 그리고 완전히 봄과 함께 물러가길 기도합니다.



4월 소식

삼송동안교회에서는 아직 온/오프라인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설립 4주년이었던 3월은 축하행사를 하지 않고, 선교지로 복귀하는 선교사들과 그 가족을 위해 재정을 사용했습니다. 무엇보다, 감사한 것은 비전과 핵심가치를 담은 교회로로의 완성이었습니다.



청소년카페 <와락>은 조금씩 활기를 더해갑니다.

지역사회에서 공유공간으로 자리매김하며, 복음의 접촉점으로 사용되어지길 기도합니다.

5월 소식

삼송동안교회에서는 5월 첫째 주부터 대면예배로 전환했습니다.

함께 모여 예배드림이 기쁨을 새삼 깨닫습니다.

부활주일에는 3명이 주님을 믿어 세례를 받았고, 장로2명,

권사3명이 피택되어 교육 중에 있습니다. (내년 교회설립주일에 임직)

어린이주일과 아버지주일을 지내며, 세대를 넘어 서로가 소중함을 알았습니다.

청소년카페 <와락>도 예전보다는 많은 사람이 방문하고 있습니다.

※아이들이 마음껏 예배드릴 장소가 부족하기에, 교육부 예배 장소를 위한 기도가 너무 절실합니다. (현재 주일에 쉬는 식당을 빌려서 사용하고 있음)



6월 소식

삼송동안교회에서는 5월 이후 대면으로 진행되는 주일예배와 순모임, 금요기도회와 성경공부를 통해, 각자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있습니다.

더욱 감사한 일은 코로나 상황이



정리되면서, 조금씩 늘어나는 주변 이웃들의 방문입니다.

방문의 이유와 상관없이 잘 정착하길 소망합니다.

아쉬운 것은 아이들이 마음껏 예배드릴 장소가 부족하다는 사실입니다.

청소년카페 <와락>도 조금씩 활기를 더해가며, 공유공간으로 역할을 충실히 하고 있습니다.

7월 소식

삼송동안교회에서는 대면예배(모임)로 모이지만, 코로나가 새롭게 확산되어 조금은 걱정이 됩니다. 6/25(토)-26(주일)에는 대면/비대면을 병행해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는 주제로 5개 교회가 연합사경회를, 교육부서에서는 대면으로 놀이캠프를 진행했습니다.

청소년카페 <와락>에서는 ‘꼬마평화도서관’과 협약식(제47호점)을 맺으며, 지역사회에 좀 더 가까이 다가갔습니다.

〈정리: 신동희 목사〉



메노나이트예수마음교회

안녕하세요 KAF 저널 독자 여러분. 무엇보다 먼저 선하신 하나님의 축복이 풍성하시길 바랍니다.

지난 소식을 작년 12월의 겨울에 보내드렸는데 한여름을 상징하는 장마가 시작된 2022년의 여름에 예수마음교회 소식을 전합니다.

다른 교회도 비슷하겠지만 우리 교회도 올해 초의 폭발적인 코로나 확산 사태에 따라 다시금 온라인으로만 드렸던 예배를 부활절 예배를 시작으로 온/오프 병행 예배 형태로 변경하여 진행해 오고 있습니다. 지난 소식에서 소개했던 공동체적 성경 읽기 방법인 렉시오 디비나도 여전히 실행하고 있습니다. ‘스가랴’로 시작하여 ‘요한복음’, ‘미가’, ‘에베소서’를 거쳐 사순절 기간에는 ‘주여, 우리에게 평화를 주소서: 사순절기와 부활절기를 위한 기도 노트’라는 책 (<http://www.yes24.com/Product/Goods/106713274>)을 이용하여 모든 성도가 매일 동일한 말씀을 읽고 묵상하는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부활절 예배를 시작으로 오프라인 예배를 드리기 시작했고 이후 현재까지 ‘빌립보서’, ‘골로새서’를 함께 읽어 왔습니다.

지난 소식에서도 자랑했던 렉시오 디비나를 통한 교회 표어를 정했던 경험을 올해도 동일하게 경험하였습니다. 교회 표어를 정하는 2월 당시 함께 읽었던 에베소서의 4장 3절의 일부인 ‘성령이 여러분을 평화의 띠로 묶어서, 하나가 되게 해 주신 것을 힘써 지키십시오’ 말씀을 기초로 ‘그리스도의 충만함으로 하나가 되어 세워져 가는 평화의 사람들’이라는 2022년 예수마음 교회 표어를 결정하는 은혜를 다시금 경험했습니다. 이후 병행 예배를 진행하며 ‘빌립보서’

와 ‘골로새서’ 말씀을 함께 읽고 묵상하였고, 이제부터는 베드로전서입니다.

이젠 익숙해져서 성도들의 나눔이 주는 다양성, 교훈, 재미 등등은 다소 줄었다고 느끼지만, 공동체적 성경 읽기가 주는 유익함은 여전하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한 사람의 설교자가 전하는 메시지를 듣는 방식도 가끔 진행했고 앞으로 할 예정입니다만, 아마도 우리 교회 주일 예배의 설교 시간엔 예배 참여자 모두가 함께 하나님 말씀을 읽는 풍경이 당분간은 계속될 듯합니다. KAF저널의 독자님들도 섬기시는 교회에서 아직 이 렉시오 디비나를 시행한 경험이 없다면 한번 시도해 보실 것을 권장해 드리며 소식을 마칩니다.

〈정리: 이선우 형제〉

예수촌교회

4월

이용훈, 박은영 가족이 2년여 동안 한국에 머물며 예수촌 교회에서 함께 지내면서 비거주 선교사로 활동하다가 4월 6일 다시 태국으로 떠났다. 그곳에서 태국과 라오스를 섬기며 현지 선교 활동을 수행하게 된다. 떠나는 박은영자매의 카톡 메시지 “2년여의 시간 동안 부족한 것 많았지만 함께 했던 시간들에 감사해요. 예촌 가족들 모두 은혜 안에 건강하시고 평안하시길 기도합니다. 저희도 태국에서 선택하신 주님의 인도하심에 순종하며 한걸음 한걸음 나아가도록 기도 부탁드립니다 늘 감사드리며 사랑을 빙니다~~♡“

나눔위원 4명(김아영, 김일환, 양계령, 김영희)이 산불피해가 심한 울진군을 4월 20일에 다녀왔다. 그곳에서 교회연합회 회장님을 만나 사정이야기를 듣고 전소된 호산나 교회를 방문하였다. 이후 예수촌교회는 특별헌금과 구제부 예산을 모은 금액 100만원을 울진산불피해지원센터에 송금하였다. 다녀온 김영희 자매의 카톡 글 “어제 검게 타버린 나무부터, 가을단풍 마냥 검붉게 변한 나뭇잎이 화마의 흔적으로 남아있는 현장의 모습을 보니 화재당시 불덩이



울진 산불 지역 방문

가 바람을 타고 날아다니며 옮겨붙는 그림이 떠올라 아찔하기도 하고~ 화재현장에 계셨던 피해주민들은 얼마나 큰 두려움과 위협을 느끼셨을지 감히 헤아리기 어렵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맡으신 교회를 시무하시면서 매일 아침 피해주민들의 임시가옥에 들르셔서 주민들의 필요를 살피시고 외부방문객들을 맞으시는 올진교회연합회의 회장, 부회장, 총무님을 비롯한 지역 목사님들의 수고에 머리가 숙연해지기도 했습니다”

5월

코로나 상황이 나아지자 교회 예배실에서 전면적으로 예배를 드릴 수 있게 되었다. 함께 모여 찬양하고 말씀 듣고 식사와 교제도 할 수 있게 된 점에 지체들 모두 감사하였다.



교회에서 점심 식사



유아봉헌식 (이상민, 어남예, 이수안), (박중열, 최현주, 박최주원), (성기철, 김지영, 성시온)

5월 15일은 유아봉헌식을 거행하였다. 이상민&어남예 가정의 이수안, 박중열&최현주 가정의 박최주원, 성기철&김지영 가정의 성시온이 대상이었는데

부모는 아이를 주님의 은혜에 의지해서 삶의 모범을 보이며 주님의 사랑과 교훈으로 양육할 것을 약속하였다. 그리고 예수촌 교회 공동체는 사랑과 기도로 동참할 것을 다짐하였다.

5월 22일은 코로나 때문에 2년간 하지 못했던 야외예배를 가졌다. 오랜만에 야외에 나와 자연의 푸르름 속에서 함께 찬양하고 말씀을 나누었다. 식사 시간 이후에 어린이들과 함께 보물찾기도 하고 가족별로 사진도 찍었다. 흐뭇함과 즐거움이 모임 안에 가득했다.



5월 야외예배

6월

6월 부터는 성경공부 시간을 오전 10시로 예배 시간을 11시로 바꾸었다. 이전처럼 10시에 예배를 드리면 외부에서 오신 손님들은 식사를 못하고 가지거나 오래 기다려야했기 때문이다.

6월 달에는 3회에 걸쳐 멘토 멘티 프로그램 그리고 자원봉사에 대하여 점심 식사 후 특강이 있었다. 양계령 자매가 강사로 수고하였다.

6월 26일은 애민원 봉사가 있었다. 인원제한으로 인해 예수촌 교회 지체 6명만 참가하는데 매달 3째주 주일 오후에



지속적으로 방문하면서 봉사하기로 하였다. 다녀온 김은경 자매의 전언 “영아 부 아이들 8명과 1시간 가량 산책하고 비눗방울 놀이하면서 놀아주었는데요, 처음에는 낮가리던 아이들이 헤아질때는 아쉬워하며 눈물바다(흑흑), 아이들도 방문한 저희도 무척 즐거운 시간이었어요^^”

2022년 1분기 (3월-5월)에 처음으로 시도한 것은 나눔 예배의 횟수를 늘린 것이었다. 나눔 예배는 설교 대신에 말씀 묵상을 서로 나누는 형식인데 이전에 한 달에 한 번 하던 것을 2회로 늘렸다. 성경 본문을 4-5일 전 미리 공지하여 충분한 시간을 두고 묵상한 후 예배시간에 각 그룹으로 나누어 서로 나누게 되는데, 이런 나눔은 말씀에 더욱 집중하게 되고 예배에 더욱 참여하는 긍정적 효과를 낳았다. 이런 긍정적인 면을 7월 공동체 회의에서 모두 확인하여 한 분기 더 진행할 할 것을 결의하였다. 하지만 새로운 형식인지라 모두들 잘 적응하고 예배 인도자들은 나눔 예배를 발전시켜 진행해야 하는 과제를 안게 되었다.

〈정리: 남상욱 형제〉

예배 중 그룹별 말씀 나눔



KAC 소식

1. 2022년 아나뱃티스트 컨퍼런스

새해가 시작되면 항상 1월 세계주에는 아나뱃티스트 컨퍼런스가 진행됩니다. 아나뱃티스트의 “제자도 공동체 평화”의 정신을 나누는 시간으로 준비되는데 올해는 ‘기독교 평화주의와 평화교회’라는 주제로 이틀에 걸쳐 진행되었습니다. 첫날에는 이상규교수님께서 기독교전통의 3가지 평화론이라는 제목으로 평화에 대한 기독교전통 내의 상이한 이론에 대해 정리해 주셨습니다. 둘째 날에는 평화교회를 직접 살아내고자 헌신하는 황인근, 허현 두 분의 목사님을 모셨습니다. 평화에 대한 깊이 있는 고민의 시간이 됨과 동시에 어떻게 평화를 실천적인 방향으로 모색할지에 대한 도전이 되는 시간이었습니다.



2. AMBS 교수님들 추천방문

MCSK, AMBS, 느헤미야기독교연구원 3 기관이 함께 MA과정인 MATGA 프로그램을 진행하기 위한 준비모임을 4월초에 가졌습니다. KAC는 이 프로그램이 잘 진행될 수 있도록 여러 차원에서 협력하고자 다양한 형태로 함께 했습니다. 한국에 계시는 동



안 AMBS 총장님과 교수님들께서
 춘천도 방문하여 KAC 이사님들과
 MCC 직원들과 그리스도 안에서의
 깊은 교제도 함께 나누어 주셨습니
 다.



3. 리본모임

평화신학관련 리본독서모임22년도 리본독서모임은 평화신학관련책들을
 읽어보는 것을 주제로하여 진행되었습니다. 2월에는 퀘이커의 평화영성에 대
 해 김조년교수님과 함께, 3월에는 부르더호프의 평화영성에 대해 전남식목사
 님과 함께, 4월에는 자끄 엘룰의 평화에 대해 배용하목사님과 함께, 5월에는
 도널드 크레이빌의 예수가 바라본 하나님나라를 전남식목사님과 함께, 6월에는
 평신도 젊은 여성의 책인 ‘한국교회의 분단과 분열의 트라우마를 넘어서’의
 저자 김지은자매님과 함께, 7월에는 권력을 다루는 책인 ‘사람의 권력, 하나님
 의 권력’을 가지고 김명윤목사님과 함께 했습니다.

평화를 주제로 된 여러 책들을 읽어보는 기회를 갖는 것은 아주 의미있는 작
 업이라 생각합니다. 이제 앞으로 남은 책들인 ‘군대가는 그리스도인에게’ ‘기
 독교 무지배’ ‘당신의 빛을 비추소서’ ‘예수가 주님이시라면’이라는 책들이 있
 습니다. 하반기에도 열심히 평화책을 읽을 수 있는 계절이 되길 기대합니다.



4. 심화 아나뱃티스트 아카데미

20년부터 매해 아나뱃티스트에 관심 있는 분들을 위한 아나뱃티스트의 기본적인 이해를 돕는 아카데미를 열었습니다. 올해는 조금더 깊이 있는 심화된 내용을 듣고자하는 필요를 감지하고 16세기 아나뱃티스트 후브마이어의 연구자인 김창규교수님과 함께 ‘구원론’에 관한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아나뱃티스트가 말하는 삶을 통한 믿음의 증거가 이번 아카데미를 통해서 더 많이 각인되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가을에는 다시 아나뱃티스트의 이해를 돕기 위한 기초과정도 개설될 예정입니다.

5. ISF 모임의 이모저모

ISF는 연초부터 무척 바빴습니다. 다름이 아니라 유학생 가족이 첫 출산을 하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코로나 기간으로 인해 고국에서 가족이 올 수 없는 상황에서 경험하게 되는 첫 출산이기에 도움이 많이 필요했습니다. 오랫동안 새



생명을 만나고 갈 때마다 쑥쑥 크는 아이를 보는 것은 큰 즐거움이었습니다. 물론 동시에 책임이 동반되는 긴장되는 일이기도 했습니다. 4월에 아기의 100일 잔치를 준비했었는데 제가 코로나가 걸리는 바람에 모든 잔치가 취소되는 안타까운 일도 있었습니다. 이번 여름에는 또 다른 가족이 둘째 아이를 출산합니다. 첫 출산에 비해 신경을 덜 쓰고 있지만 생명을 돌보는 일은 참 많은 책임이 따릅니다.

5월부터 코로나가 완화되면서 줌으로만 모이던 유학생모임을 활동중심으로 모이기 시작했습니다. 5월에는 카누를 타고, 6월에는 금병산을 오르고, 7월에는 파주 DMZ를 방문했습니다. 오랜 코로나 이후에 만나게 되니, 이렇게 얼굴을 보면서 활동할 수 있는 시간들이 참 소중했습니다.

6. 회복적 정의-평화감수성훈련

할림대 갈등전환센터에서 회복적 정의 교육을 이수한 선생님들과 함께 학교와 자활센터 및 지역시민모임을 방문하면서 평화감수성훈련으로 많은 시간을 보냈습니다.



코로나로 인하여 공동체가 붕괴되고, 대화와 소통이 단절된 곳을 찾아가서 씨클을 진행하면서 많은 대화모임을 가졌습니다. 가는 곳마다 학생들과 주민들의 웃음꽃이 피고, 대화의 만족감을 경험하는 일은 보람된 일이었습니다. 여전히 갈등은 산재하고, 공동체를 위협하는 폭력적인 모습이 강하게 일하고 있지만 작은 물방울을 떨어뜨리는 심정으로 학생들과 주민들을 만나는 순간은 참 행복했습니다.

7. Network-동북아 화해포럼 및 한국중전평화를 위한 캠페인

KAC에서 일하면서 경험하게 되는 가장 큰 축복은 평화를 위해 현장에서 일하는 귀한 분들을 만나고 그들과 안면을 트게 되는 것입니다. KAC에서 일한다



는 이유로 동북아 화해포럼에서 세계 석학들의 평화에 대한 이론적 접근과 평화를 위해 일하는 분들의 실질적인 목소리를 듣고 함께 대화하는 시간은 매년 참여할 때마다 마음에 큰 만족감을 줍니다. 올해는 6월 말에 대면-비대면 하이브리드 방식으로 화해포럼을 열었습니다. 옛 친구들과 새로운 친구들을 만나는 기쁨도 있었습니다. 또한, 7월 23일에는 ‘휴전에서 평화로 End the Korean War’라는 구호 아래 종전과 평화를 염원하는 사람들의 모임이 있었습니다. 파주 임진각에서 진행되는 것이라 춘천에 있는 ISF친구들과 함께 동행했습니다. ISF친구들 덕분에 버스를 대절해서 춘천시민들과 함께 다녀올 수 있었습니다. 유학생들은 다시 한번 한국의 분단현실의 아픔을 마주할 수 있었고, 함께 동행한 시민들에게는 평화와 종전을 염원하는 마음을 다지게 되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는 이유로 동북아 화해포럼에서 세계 석학들의 평화에 대한 이론적 접근과 평화를 위해 일하는 분들의 실질적인 목소리를 듣고 함께 대화하는 시간은 매년 참여할 때마다 마음에 큰 만족감을 줍니다. 올해는 6월 말에 대면-비대면 하이브리드 방식으로 화해포럼을 열었습니다. 옛 친구들과 새로운 친구들을 만나는 기쁨도 있었습니다. 또한, 7월 23일에는 ‘휴전에서 평화로 End the Korean War’라는 구호 아래 종전과 평화를 염원하는 사람들의 모임이 있었습니다. 파주 임진각에서 진행되는 것이라 춘천에 있는 ISF친구들과 함께 동행했습니다. ISF친구들 덕분에 버스를 대절해서 춘천시민들과 함께 다녀올 수 있었습니다. 유학생들은 다시 한번 한국의 분단현실의 아픔을 마주할 수 있었고, 함께 동행한 시민들에게는 평화와 종전을 염원하는 마음을 다지게 되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정리:문선주 총무〉

무장하지 않은 자들을 무장시키는 왕-성서에 나타난 전쟁과 평화

버나드 엘러 지음 | 배용하 황의무 옮김 | 대장간



이 책은 다른 방식의 전쟁에 대한 아나뱃티스트의 이야기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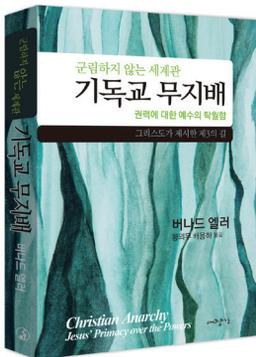
제2이사야가 평화의 왕에서 고난받는 종으로 바꾼 이유는 매우 중요하다. 그는 하나님의 평화의 나라를 승리로 이끌 대리인이며, 따라서 그의 방법은 곧 하나님이 어떤 방식으로 승리를 위해 싸울 것인지를 보여주기 때문이다. 제2이사야가 보여주려는 것은 하나님의 싸움은 소위 ‘전혀 다른 방식’으로 전개되리라는 것이다. 즉,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과는 ‘싸움’과는 정반대의 방식으로 수행될 것이다.

이 종은 무력을 행사하기보다 연약함을 드러내며, 자랑하기보다 겸손하며, 공적인 갈채를 받기보다 사회적 거부를 당하며, 대적에 맞서 단호한 공격을 하기보다 대적의 공격을 받아들이며, 대적을 고통스럽게 하기보다 스스로 고난을 자처할 것이다.

우리의 머리로는 이해하기 어렵지만, 이것이 싸움의 방식이다. 즉, 하나님은 이러한 방식을 통해 승리를 거두시고 자기 뜻을 이루신다는 것이다.

기독교 무지배 - 군림하지 않는 아나뱃티스트의 세계관

버나드 엘러 지음 | 배용하 황의무 옮김 | 대장간



권력에 대한 예수의 탁월함은 무엇인가?
그리스도가 제시한 제3의 길은 무엇인가?

우분열적이고 권위적이며 권력에 굽주린 정치·사회 구조가 지배하는 세상에서 그리스도의 추종자가 되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진지하게 고민하는 사람이라면 반드시 읽어야 할 책!

이 책은 세상에서 당신이 어디에 서야 할지에 대해 생각하게 할 것이다.

오늘날 정치·사회 시스템이나 기업 구조에서는 오직 두 가지 선택지가 있다.

- 1) 보수주의자가 되어 현재를 유지하거나,
- 2) 현재의 시스템과 구조를 전복하고 대체하려는 혁명가가 되거나. 그리스도는 이 두 가지 접근 방식을 모두 전복시키고 보완하면서 어느 쪽에도 무릎을 꿇지 않는다. 그것은 진정한 자유의 방법이다.

강한 자 결박하기 - 마가복음 주석

체드 마이어스 지음 | 황의무 옮김 | 대장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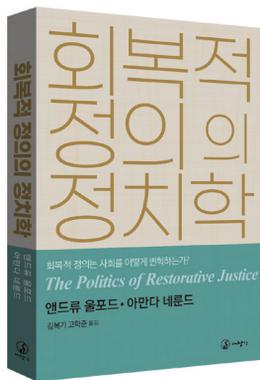


예수와 제자들의 삶이 동시대 사람들에게 어떤 의미였는지 가장 정확하게 해설해 주는 주석!

이 책은 1988년에 출간된 이래 우리 시대 성서 비평의 기념비적 저작이라는 평을 받아왔다. 저자는 여러 학문을 통합하는 ‘사회-문화적 방법’을 통해 문화적 비평, 사회역사적 주해, 정치적 해석학 등을 골고루 사용하며 ‘급진적제자도 강령’으로서의 마가복음을 탐구하고 있다. 또한, 시간이 지나 17판이나 개정되면서 더욱 단단해졌다. 저자가 이 기념비적 책을 저술하면서 학문을 계속하지 않고 최종적으로 내린 결정이 ‘어떻게 하면 해석학적 영역에 충실할 것인가’였다. 그는 신앙과 정의의 공동체에 대한 그리고 그들을 위한 글을 쓴 저자로서 더욱 강력한 전문적 자격을 갖추거나 “다음 책”을 쓰기보다 제자도를 통해 성경의 급진주의의 내러티브를 실천하며 사는 것이 가장 급선무라고 생각했다. 그래서 그는 마가의 예수 이야기를 당시의 생생한 시대와 함께 읽고 신학교와 성소와 거리에서 예수를 따르며 하나님의 꿈을 꾸고 있다.

회복적 정의의 정치학 - 회복적 정의는 어떻게 사회를 변혁하는가?

앤드류 울포드, 아만다 네룬드 지음 | 김복기 고학준 옮김 | 대장간



대한민국이라는 ‘갈등 사회’를 풀어가기 위한

중요한 열쇠: 회복적 정의

우리는 모두 회복이 필요하다.

우리는 모두 정의를 추구한다.

꼭 둘 중 하나만 선택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

전 세계에서 회복적 정의를 처음 도입한 캐나다 출신의 두 연구자 겸 실천가는 가해자 처벌만 추구하는 응보적 사법 패러다임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회복적 정의가 걸어온 길과 새롭게 마주하는 도전을 냉철하게 돌아본다. 저자들은 회복적 정의의 정치·사회적 맥락이라는 숲을 보여주면서 그 안에 있는 놀라운 가능성을 놓치지 않고 계속 나아갈 수 있는 길을 함께 제시하고 있다. 회복적 정의를 둘러싼 모든 사람-피해자와 가해자, 진행자와 공동체, 기관과 정부, 실천가와 이론가, 옹호자와 비판자-은 예외 없이 이 책에서 분명한 유익을 누릴 것이다.

아나뱃티스트 관련 웹사이트 주소

- 교회 ■ www.jesusheartchurch.org(예수마음교회)
■ www.jvchurch.onmam.com(예수촌교회) ■ www.facebook.com(평화누림교회)
- 단체 ■ www.wkaf.net(한국아나뱃티스트펠로우십)
■ www.mcsk.kr(한국메노나이트교회연합)
■ www.kac.or.kr(KAC 한국아나뱃티스트센터)
■ www.www.anabaptist.kr(한국아나뱃티스트네트워크)
■ www.narpi.net(동북아평화훈련원) ■ www.kopi.or.kr(한국평화교육훈련원)
■ http://wcfgw.nayana.kr/xe/(개척자들) ■ www.daejangan.org(도서출판 대장간)

▶ 후원하실 단체를 안내합니다

- 개척자들 국민은행 093401-04-124532 (사)개척자들
옥바라지선교센터 신한은행 100-033-703892 옥바라지선교센터
전쟁없는 세상 우리은행 1005-102-921333 전쟁없는세상
PIY(인도청소년교육) 씨티은행 401-10725-261-01 한상영
KAC 스탠다드차타드 425-20-403665 한국아나뱃티스트센터

“주여 우리를 평화의 도구로 써주소서”

KAF 재정 사용 내역(2022. 1. 1~2022. 7. 31)

이월	229,740
수입	910,000
	700,000(예수촌교회), 70,000(배용하), 70,000(골대교회), 70,000(대장간)
지출	810,000
	810,000(저널 24호 제작/국내외 발송비)
잔액	329,740

- ※ KAF 후원금과 회비(정회원:월5천원)는 저널 발행과 KAF의 운영에 사용됩니다.
KAF는 개인과 단체 정회원들의 멤버십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재정사용 내역 중 바로 잡을 것이나 궁금하신 내용은 배용하 형제에게 문의해 주세요.
우체국 311639-01-004603 배용하(KAF)

아나뱃티스트가 뭐죠?

음 이건 운동이야.

어떤 운동이냐고? 종목은 평화, 제자도, 공동체 등이야.

이 운동은 머리나 입으로 하는 운동이 아니야

손과 발을 움직여서 예수님이 썼던 근육을 키우는 운동을 하지.

예수님이 했던 일을 계속하는 운동이랄까...

이 운동을 하는 사람들은

전세계에서 역사와 환경 등이 다름에도 평화교회를 추구하지.

역사와 문화와 성별이 다른데도 이 운동을 하는 사람들은

이상하다싶을 정도로 잘 어울려.

이 운동을 하는 사람들은

좀 깡깡해. 안 볼때는 좀 살살해도 될텐데

요즘말로 좀 짹세게 사는 편이지

이 운동을 하는 사람들은

어떠 운동교리나 사람을 중심으로 푹푹 멍치지 않아

예수님의 말씀을 그냥 듣기 좋고 입으로만 아멘하는

대상이 아니라, 따라야 하는 모범으로 생각하는 것 같아.

그리고 이 운동을 하는 사람들은

싸울 일이 있어도 잘 안 싸워

그냥 맞거나 때릴만큼 때리면 멈추겠지...

뭐 이런 배짱으로 운동하는 것 같아.

그래서 그런가?

이 운동하는 사람들은 멧집이 좋은 편이지

오백년 넘게 맞고 쫓겨나고 빼앗기고 살았는데도

지금도 그 운동을 꾸준히 하고 있으니 말이지.

같이 해볼래?

그동안 쓰지 않던 근육을 움직이는 거 좋을 것 같지 않아?